차　례

소설집 《천하태평춘》에 대하여 ……………………(2)

장편소설

천하태평춘 ……………………………………………(13)

중편소설

동화 ……………………………………………………(185)

소설집 《천하태평춘》에 대하여

이 책에 실린 소설들은 다 1930년대말에 창작발표된 작품들이다. 이 시기는 일제의 식민지파쑈폭압이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된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모든것을 말살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날뛰고있을뿐아니라 〈전쟁완수〉라는 간판밑에 로동력과 물자를 무제한 략탈해가고있습니다.》

1937년에 7.7사변을 조작하고 광활한 중국본토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한 일제는 조선을 침략전쟁의 공고한 후방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경제적략탈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착하게 감행하였다.

특히 일제는 보천보전투 이후 급격히 강화된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날뛰면서 국경일대에 파쑈폭압력량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였으며 수많은 파쑈악법들을 조작하여 조선인민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허용하지 않고 일체 반일적이며 진보적인 활동을 불허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민족성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발악하면서 《동조동근》, 《내선일체》의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구호밑에 모든 조선사람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궁성요배》를 하도록 강요해나섰으며 조선사람의 고유한 이름마저 빼앗기 위해 《창씨개명》을 법률로 공포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선인》으로 몰아대면서 횡포한 박해와 제재를 가하였다.

《신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학교들에서 조선어교육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교육에서뿐아니라 일상생활에서까지 일본말을 쓰도록 강요하였다.

주체24(1935)년에 진보적이며 반일적인 문학예술단체인 《카프》를 강제로 해산시켜 진보적문인들의 조직적활동을 봉쇄하고 반동적인

출판법을 더욱 개악하여 사소한 진보적인 경향이나 반일적인 요소의 표현도 횡포무도하게 가로막아나섰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시는 항일무장투쟁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어떤 탄압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억세게 살며 싸워나갔으며 진보적인 문인들은 민족성을 지키고 문학의 진보적성격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진보적문학에 대한 일제의 폭압과 봉쇄책동이 극심해진 조건에서 이 시기 량심적인 작가들은 로동자, 농민의 투쟁세계를 정면에서 그리는 작품은 쓰지 못하고 많은 경우 세태생활에 대한 묘사속에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지향을 구현하는데로 나아갔으며 작가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풍자작품이나 력사물창작에 힘을 넣었다.

채만식의 창작도 이러한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주체13(1924)년 단편소설 《세길로》를 《조선문단》지에 발표한것을 계기로 문단에 진출한 채만식(1902－1950)은 1920년대 후반기에 《앙탈》을 비롯한 몇편의 단편소설들을 내놓았으나 창작활동이 왕성한 단계에 이른것은 오히려 일제의 탄압이 우심해진 1930년대 후반기였다.

이 시기 문학의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성격을 고수하는데서 채만식의 창작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는 세태생활에 대한 통속적인 묘사속에 진보적인 사상적지향을 구현한 작품창작에로 힘을 넣었고 풍자소설창작에도 심혈을 쏟아부었다. 장편소설 《탁류》는 첫번째 부류의 대표적작품이고 장편소설 《천하태평춘》은 이 시기 풍자소설에서 손꼽히는 력작이다.

단편소설 《치숙》, 《소망》을 써서 풍자소설가로서의 재치와 개성적인 특기를 보여준 채만식은 련이어 장편소설 《천하태평춘》을 써서 《조광》 잡지 1938년호에 련재하였다.

소설은 정축년(1937년이다.－필자주) 9월 ××날 저녁나절부터 다음날 아침나절까지 옹근 하루동안 백만장자 윤장의의 집에서 벌어진 세태적인 이야기로 엮어져있다.

소설은 윤장의가 명창대회구경을 갔다가 석양무렵에 인력거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서 시작하여 저녁을 먹는 이야기, 다음날 아침 일어나 건강료법을 하는것과 같은 세태적인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면서 여

기에 윤장의의 지난 생활도 끌어다 펼쳐보이고 일가족속들의 어지러운 뒤생활들도 들추어가면서 이야기를 동이 굵게 엮어나가고있다.

소설의 주제사상적지향을 구현하고있는 기본인물은 주인공 윤장의이다.

작가는 윤장의의 형상을 통하여 일제와 결탁한 착취계급의 시대적 전형을 창조하고 친일착취배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본성과 패륜패덕적인 내면을 적라라하게 펼쳐보여줄 과제를 내세웠다.

이로부터 소설에서는 윤장의를 농촌에 방대한 소작토지를 가진 만석군인 동시에 서울에서 고리대를 하는 백만장자로, 일제식민지통치의 중량급하수인인 군수나 도지사와도 자별히 가까운 인물로 설정하였다.

소설에서 윤장의는 력대적인 인민의 원쑤로 일제와 결탁한 반동착취계급의 전형으로 형상화되였다.

윤장의의 애비인 지주 윤용규도 자기의 작인이 화적과 내통하였다고 하여 관가에 고발하고 의리를 귀중히 여겨 체포된 동료를 빼내려는 그들에게 칼을 들고 행패질을 하다가 처단된자이며 윤두꺼비(윤장의의 본명인 윤두섭의 별명)자신은 농민폭동자들과 그후에는 독립군들에게 돈을 앗기고 시골을 떠나 서울로 온자로서 농민봉기군들이나 독립군들을 진압한 일제를 은인으로 여기고 《부자의것을 뺏어다가 로동군놈들허구 농군놈들허구 나누어》줄것을 주장한다는 사회주의자들을 불한당이라고 이를 갈며 증오한다.

일제를 구세주처럼 떠받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며 사회주의를 본능적으로 증오하고 적대시하는것은 윤장의의 반동적, 반인민적, 배족적면모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것이다.

지주이며 고리대금업자인 윤장의는 사람이란 타고난 팔자대로 부자로도 살고 가난하게도 살기마련이라고 떠벌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살것을 주장하는 사회주의를 극도로 적대시하고 착취계급의 리익을 지켜주는것으로 하여 일제에 대한 감사의 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관리허며 순사를 우리 죄선으루 많이 내보내서 그 숭악한 불한당놈들을 말끔 소탕시켜주구 그래서 량민들이 그 덕에 편히 살지를 않넝가. 그러구 또… 그 못된 놈의 사회주의를 막어내주니 원, 그렇게 고맙구 그렇게 장헌디가 어디 있단 말잉가? 어참, 끔찍이두 고맙구 장

헌 노릇이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수십만명 동병을 하여서 우리 죄선놈 보호하여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으응? 제것 가지구 앉아서 편안하게 살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하는것이여, 태평천하!》

이러한 윤장의이기에 일본에 류학간 둘째손자 종학이가 사회주의운동을 하다가 일본경시청에 체포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이 꼭두까지 치밀어 미친듯이 울부짖으며 이 태평천하에 사회주의를 한 그놈은 깎어죽여두 아깝잖을 놈이라고, 백년징역을 살리라고 경찰서에 편지하겠다고 펄펄 뛴다. 그리고 그놈한테 넘겨주려던 재산을 다 털어 사회주의하는 놈 잡아가두는 경찰서에 주어버리겠다고 사납게 부르짖는다.

작가는 윤장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명줄을 걸고 살아가는 무리들의 매국배족적인 면모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반동적인 착취계급은 그 계급적본성으로 하여 일제와 결탁하게 되고 진보와 애국의 원쑤로 된다는것을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예술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저 하나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무리들, 민족의 기본력량인 근로인민에게 적대적인 착취자들은 민족의 운명과 리익은 안중에 없이 외세와 결탁하고 매국배족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것은 반만년의 민족사가 립증해주는 달리 될수 없는 철리이며 동서방의 인류사가 보여주는 엄정한 교훈이다.

윤장의는 또한 가혹한 착취자, 후안무치한, 린색한으로 그려졌다.

소설은 첫 부분에서 우람한 몸집을 가진 70살의 백만장자 윤장의가 15살의 어린 기생 춘심이를 데리고 명창대회구경을 갔다오는 이야기를 펼쳐놓으면서 그의 수전노적인 린색성을 풍자적으로 폭로하고있다.

자동차(승용차)를 타고가자는 춘심이를 얼려 큰 차(뻐스)를 타고가기로 하고 뻐스에 오를 때는 잔돈도 있지만 10원짜리 지전을 내는 방법으로 무임승차를 하며 춘심이더러는 극장에 있는 형한테 말해서 구경표를 사지 않고 들어가자고 하고 말을 듣지 않자 20전을 주면서 이 돈으로 군밤을 사먹고 공으로 들어가면 너좋고 나좋지 않느냐고 얼리며 50전짜리 하등표를 사서 1원 50전짜리 상등석에 앉아 2층 하등석으로 가라는 극장안내의 요구에 높은데가 하등이고 낮은데가 상

등이라니 여기는 조선이 아니고 서양국인가고 억지를 부리며 돌아올 때 인력거를 타고는 1원을 내라는 삯을 20전만 주고 체두 퍽 무거우셨는데 그럼 10전만 더 내라는 인력거군의 요구에 자동차나 기차가 몸무겁다고 차비를 더 받던가고 면박을 준다.

백만장자 윤장의의 린색한 면모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이러한 풍자적인 생활세부로는 작품의 첫 부분뿐아니라 그가 행장하는 계기들마다에서 펼쳐진다.

저녁을 먹을 때는 며느리들이 보리밥을 안해먹고 쌀밥을 해먹는다고 쌍욕을 퍼붓고 라지오청취료를 낼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돈을 다 낼수 없다고 생떼를 부리고… 린색성은 윤장의의 걸음걸음 희한한 광경을 펼쳐보이며 소동을 일으킨다.

윤장의는 소비생활에서 린색한으로서뿐아니라 소작인들에 대한 가혹무도한 수탈자로 그려져있다.

그는 수해가 나서 《벼 한톨 추수는커녕 그 논을 다시 파일구는데 되려 물역이 먹게》된 형편에서도 어떻게 하면 《소작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옹근 도조를 받을가 하는 그 공조》에만 골몰한다.

린색성과 략탈성은 지주 윤장의의 착취계급으로서의 본성을 보여주는 기본성격적특질이다.

소설에서는 윤장의를 돈 한푼을 놓고 벌벌 떠는 린색한이면서도 가문의 유세를 돋구는데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인물로 그려졌다.

윤두섭의 몇대 조상 윤아무개는 무슨 정승을 했소, 판서를 했소 하는 허위족보를 만들어내는데 2천원을 들이미는 이야기, 맏손자 종수를 10년어간에 군수로 출세시킬 원대한 계획밑에 군고원으로 밀어넣고 뒤받침으로 3년사이에 무려 10만원을 훨씬 넘게 탕진하는 이야기들은 그의 수전노적인 생활세부들과 강한 대조를 이루면서 윤장의의 또 하나의 성격적면모를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가난한 인력거군과 돈 5전을 놓고 싱갱이질을 벌리면서도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는 재물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기화로 방탕한 자식들이 가산을 제멋대로 탕진하는것도 분간하지 못하는것은 지주 윤장의의 반인민적성격과 함께 봉건적지주로서의 그의 우둔한 특질을 보여주는것이다.

윤장의는 가혹한 착취자이고 수전노일뿐아니라 도덕적으로 저렬

한 자, 패륜패덕한으로 그려져있다.

색정적인 향락에 몰두하는것은 그의 정신적부패성의 주되는 내용을 이룬다.

15살의 춘심이를 롱락하려고 너 몇살이냐, 나이보다 숙성하다고 어리손을 치다가 춘심이한테서 나이를 반문당하자마자 일흔소리가 안 나가서 젊게 보이려고 《여순…다섯》이라고 얼버무리는 폭소할 장면이나 춘심이와 련애를 하는 증손자녀석과 신경을 곤두세우고 로소동락을 하는 타기할 장면들은 배부른 유산층의 도덕적저렬성을 여지없이 폭로단죄하는 풍자적인 론고장으로 되고있다.

윤장의의 저렬하고 추악한 면모는 건강료법에 대한 풍자적묘사에서도 드러나고있다.

아침에 일어나 가난한 집 애기들의 오줌을 받아다 마시는 장면 등에 대한 묘사는 봉건지주로서의 윤장의의 우매성, 도덕적저렬성, 추악성에 대한 날카로운 조소로 된다.

작가는 윤장의뿐아니라 그 일가족속들을 한결같이 정신도덕적인 자산자, 저능아들로 락인하고있다.

아들 윤창식은 술과 도박, 계집질로 세월을 보내는 건달부랑배이고 맏손자 윤종수는 3년동안이나 연거퍼 중학교입학시험에서 락제한 저능아이며 증손자 경손이는 공부는 밤낮 꼴찌만 하는 주제에 15살 어린것이 벌써부터 돈과 계집에 눈이 터서 돌아치는 방탕아이다. 증손자와 동갑인 서자 태식이는 2년반동안 독본책의 제1과 첫장만 펼쳐들고 웅얼거리는 천치이며 딸 서울아씨는 세상에 보기 드문 추녀이다.

소설에서는 며느리 고씨, 첩 옥화를 포함하여 둘째손자 종학이를 제외한 윤장의의 일가족속모두를 예리한 풍자의 비수로 조소하고있다.

소설은 윤장의와 그 일가의 형상을 통하여 일제를 등에 업고 살아가는 착취계급의 반동적이고 추악한 내면을 날카롭게 폭로단죄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윤장의일가족속들을 하나같이 패덕한, 저능아들로 묘사하면서 집안에 있는 오직 한명 재주도 있고 착실한 둘째손자 종학이는 사회주의자가 되는것으로 그리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정당성을 반증하는것으로 된다.

사회주의는 윤장의와 같은 제 한몸의 안락을 위해서는 그 어떤 파렴치한짓도 서슴지 않는자들에게는 적의와 증오의 대상으로 되지만 종

학이와 같은 똑똑하고 착실한 사람들에게는 안락한 생활과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내대고 그 신봉자로 살며 싸우게 하는 정의롭고 아름답고 인간적인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일제와 반동들의 중상비방을 일축하고 사회주의의 진리성을 옹호한것으로 된다.

작가는 그무렵 내놓은 단편소설 《치숙》에서도 사회주의운동자를 고결한 정신세계를 가진 인간으로 찬양하고 그와 대치되는 인물을 친일의 길에서 안락의 길을 찾는 친일분자로, 민족의 얼이 아주 빠져버린 저렬한 인간으로 예리하게 풍자하였다.

그토록 극심한 반동기에 사회주의사상을 긍정옹호해나선것은 이 작품의 귀중한 성과로 된다.

일제의 식민지노예로 민족이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수난을 겪던 시기에 일제를 등에 업고 일신의 향락을 누리며 태평천하를 부르짖는자들을 인간추물, 인간쓰레기로 여지없이 단죄규탄하고 사회주의를 긍정옹호해나선것은 이 소설의 예리한 진보적사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소설이 이러한 진보적사상을 구현할수 있은것은 오직 풍자의 수법에 의해서 가능한것이였다.

소설에서 풍자는 예리하고 신랄하며 그것은 풍자적과장과 날카로운 기지, 해학적묘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있다.

소설은 구성도 독특하고 어휘와 표현, 문장과 문체에서도 개성적인 특색을 보이고있다.

설화체로 이야기를 구수하게 엮어나간것은 소설가 채만식의 중요한 개성의 하나로서 사람들을 작품의 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소설은 풍자대상의 성격적특질을 탐구형상하면서 세태생활속에서 나타나는 륜리도덕적인 측면에 많이 치우치고 사회정치적인 생활속에서 별로 보여주지 못한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극도로 악랄해진 일제의 언론탄압과 주로 관련되여있는것이다.

소설 《동화》는 원래 《보리방아》라는 제목으로 주체25(1936)년 7월에 《조선일보》에 련재하던 작품이다. 그런데 춘궁기 농민들의 비참상을 그린 이 소설이 신문에 10회까지 련재되였을 때 일제의 검열에 의해 게재중지처분을 당하였다. 그후 주체27(1938)년 3월에

소설이 다시 발표되였는데 일제검열당국의 칼질에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사상이 두드러지는 부분, 알맹이는 다 뽑히우고 겉껍데기만 남는 격이 되였다.

그 일을 당하던 때의 심정을 작가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있다.

《뼈를 뽑고 문장만 닥달한 문학, 그것은 마치 속에 품은것 없는 사람이 몸치장으로 행세하는거나 다름없음을 살이 아프게 느꼈다.》(《청색마》잡지 1939년 5호에 실린 채만식의 수필 《자작안내》에서)

보리고개에 당장 먹을것이 없어 한숨만 찬 농가의 딸 업순이가 견직공장에 팔려가는 이야기를 엮은 소설은 뼈를 뽑히여 남은것은 감언리설에 넘어간 주인공의 희망에 찬 정신세계뿐이였다. 작가는 소설의 제목을 《동화》로 바꾸어 희망에 넘친 업순이의 정신세계에 대한 자기의 립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는 업순이의 그 희망이 어떻게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비극적나락에 떨어지게 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련속편소설을 써서 발표하였다. 그 작품이 소설 《병이 낫거든》이다.

그리하여 《동화》와 《병이 낫거든》은 견직공장에 팔려갔던 한 농촌처녀의 비극적운명을 기본으로 그린 중편소설의 전, 후편으로 완성되게 되였다.

《동화》는 공장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 가기 전 이야기이고 《병이 낫거든》은 병에 걸려 공장에서 집으로 오게 되는 이야기, 집에 온 후의 이야기를 담고있다.

《동화》는 공장으로 팔려가지 않으면 안되는 주인공 업순이네 집의 생활처지를 통하여 당시 농민들의 빈궁상을 일정하게 보여주고 《병이 낫거든》은 공장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 폐결핵에 걸려 다 죽게 된 업순이의 운명을 통하여 고역에 시달리는 당시 로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비껴보여준다.

주인공 업순이네는 아버지와 어머니, 업순이 세식구가 다 농사일을 하는 말하자면 로력자가 그쯘한 농가이다. 그렇지만 집안은 《가랭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처지이며 보리고개가 다가오자 량식이 떨어지고 외동딸 업순이조차 굶기는 형편이다. 할수없이 금이야 옥이야 기르던 외동딸, 17살의 업순이를 먼 도시의 비단짜는 공장에 선금을 받고 보내지 않을수 없게 되는것이다.

농민들의 생활적고통은 업순이의 동무인 이웃집색시 새댁의 처지를

통해서도 보여준다.

생활이 어려워 15살 어린 나이에 31살난 로총각한테 시집을 온 애기색시 새댁이 시부모한테 밤낮 매를 맞고 시달림을 받아 견디기 어렵다고 차라리 머리를 자르고 산에 들어가 중노릇이나 하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며칠 못 가 죽을것 같다고 업순이네 집에 와서 하소하는 모습은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우리 농민들, 녀성들이 겪는 고통의 일면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소설에서는 감언리설에 얼리운 업순이가 공장에 가서 3～4년어간에 돈을 벌어 집안살림도 도와주고 시집갈 밑천도 마련하겠다는 무지개같은 꿈을 간직하게 되는 장면을 펼쳐보이고있다.

업순이의 이런 생각은 철부지어린애의 허황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소설의 제목 《동화》에는 업순이의 꿈이 철없는 어린애의 천진란만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져있다.

철이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 일제식민지통치하의 가혹무도한 현실을 너무나도 모른다는것이다.

일제는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을 인부로 끌어가면서 때로는 무지막지하게 랍치하고 때로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속여 유인해갔다. 일제의 본을 따 개별적인 자본가들도 같은 방법을 썼다. 끌려간 조선의 청장년들을 기다리는것은 살인적인 고역과 비극적인 죽음뿐이였다.

소설의 후편인 《병이 낫거든》은 살인적인 고역으로 골병이 든 업순이의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고역살이의 현장을 그려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창 피여날 열일곱살》의 건장한 처녀가 불과 1년만에 골병이 들어 다죽게 되였다는 이야기는 곧 업순이가 강요당한 살인적인 고역로동의 진상을 웅변적으로 고발하는것이다.

작가는 업순이의 몸이 약해지고 앓는것이 감기가 악화된것도 아니고 여름을 타는것도 아니며 체증에 걸린것도 아니고 물이 맞지 않아 그런것도 아니라는것을 찍어가며 밝히고있다. 그것은 로동자들의 생명을 파리목숨만치도 여기지 않는 일제와 친일자본가들이 강요하는 살인적인 고역로동의 필연적결과였다.

소설에서는 공장에 오기 이전의 업순이의 건강한 모습과 공장에 와서 1년이후의 업순이의 병든 모습을 대조적으로 생동하게 그려보

이고있다.

《한창 피여날 열일곱살배기의 시악시는 결코 빈약치 않은 몸집이였다. 얼굴에도 손발에도 고루 잘 살이 올라 부얼부얼하니 차라리 탐스럽게 생겼다 할편이였다. 혈색도 좋았다.》

《건강하기가 아침 동천에서 뜨고있는 해와 같고 앞날이 즐겁던 업순이였다.》

《그러나 지금의 업순이는 얼마나 가엾이도 마음과 몸이 한가지로 바스라지고말았음인고.

살은 야위고 피기는 없어 핼쑥하고 그렇게 피기가 없고 야윈 얼굴에다 본시도 크던 눈이 한결 더 크고.

목은 참으로 볼수 없게스리 실낱처럼 길고 가늘고 가슴이 좁고 눈이 크고 살결이 거칠고 완연 그리하여 잎이 다 떨어진 나무가장귀와 같은 앙상한 형용이였다.

우물에서 물 한동이를 허깨비들듯 하던 기운은 죄다 어디로 가고 과히 무겁지도 않은 가방 하나를 못이겨서 하마 비척거리지 않는가.》

이것은 조선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일제식민지통치자들, 친일자본가들의 죄악상에 대한 예리한 고발로 된다.

소설에서는 우리 인민이 당하는 이러한 고통이 일제침략자들에 의해 벌어진것임을 암시하고있다.

업순이가 공장에 가기로 작정한 다음 감언리설에 귀가 솔깃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심리를 펼쳐보이는 장면에서 《둥, 둥, 오까무라상네 농장 절에서 울리는 낮북소리가 그것도 꿈결같이 아스라하게 들려온다》는 묘사를 준것 그리고 업순이가 공장으로 팔려가게 되는 계기를 그리면서 《전주감영의 비단짜는 공장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구장을 앞세워가지고 이집저집 계집애 있는 집을 조사하고 다니면서 직공을 뽑》았다고 묘사한것 등은 그 실례이다.

닥쳐올 미지의 운명을 앞두고 불안에 잠긴 주인공의 가슴에 아스라하게 와닿는 일제강점자들의 북소리, 처녀들을 뽑아가는데 일제식민지통치의 말단하수인인 구장이 앞장서 돌아치는 모습 등에 대한 묘사는 명백히 불행과 고통의 장본인이 일제침략자들, 일제의 식민지통치라는것을 암시하는데 지향된것이다.

소설 후편의 《병이 낫거든》이라는 제목은 전편의 제목 《동화》

와 같은 성격의 의미를 담고있다.

《동화》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살인적인 고역장으로 가는것도 모르고 월급돈을 모을 허황한 꿈을 꾸는 업순이의 공상이 일제식민지통치하의 가혹한 현실의 진상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철없는짓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면 《병이 낫거든》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것도 모르고 병이 나으면 시집갈 허망한 꿈을 꾸는 업순이와 그 부모들의 념원이 실현불가능한것이라는데 대한 역설적표현이다.

작가는 업순이의 병이 《현대의학의 가장 정수를 다하고 돈을 얼마든지 들이밀어도 열에 둘이나 셋이 살아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고 쓰고있다. 그런데 당장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업순이네 처지에서 《현대의학의 가장 정수》를 다할수 있는 그런 돈을 마련한다는것은 꿈도 꿀수 없는것이다. 현실적으로 업순이가 병을 보이는 강생원은 《수토불복》이라고 물이 맞지 않아 그런다고 어이없는 진단을 내린다. 업순이 아버지는 그 강생원의 처방에 업순이의 목숨을 맡기는것이다. 하기에 작가는 업순이가 《사형을 선고받은것이나 다름없다》는 단정을 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병에 걸렸는지 진단조차 똑똑히 받을수 없어 딸의 상태를 모르는 업순이네 부모들은 이제 병이 나으면 업순이를 시집보낼 궁리를 하고있는것이다.

소설 후편의 제목 《병이 낫거든》에는 병이 나을수 없는 업순이의 비극적운명에 대한 역설적인 확인이 있으며 죽음에 림박해서도 병이 나을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있는 업순이와 그 부모들에 대한 눈물겨운 동정의 감정이 어려있다.

업순이가 처한 비극은 그에게만 차례진 개별적인 처녀의 운명이 아니다.

작가는 건강한 17살의 처녀 업순이가 공장일을 시작하여 1년반안에 골병에 들어 일을 못하게 된 사연을 놓고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쓰고있다.

업순이의 운명에는 일제침략자들의 가혹무도한 식민지통치밑에서 나라잃은 우리 인민이 당한 불행과 비극의 일단이 반영되여있다.

후보원사, 교수, 박사 은종섭

장편소설

천하태평춘

채 만 식

1. 윤장의령감 귀택지도 (집에 돌아오는 광경)

추석이 지나 저으기 짙어가는 가을해가 저물기 쉬운 어느날 석양.

재동 윤장의령감은 출입을 했다가 인력거를 잡수고(타고) 돌아와 방금 댁의 대문앞에서 내리는 참입니다.

간밤에 꿈을 잘못 꾸었던지, 오늘 아침에 마누라하고 다툼질을 하고 나왔던지 아무튼 웬간치 일수 좋지 못한 인력거군입니다.

여느 평탄길로 끌고오기도 힘이 들었는데 골목쟁이로 들어서는 밋밋한 경사가 진 20여칸을 끌어올리기야 업살이 아니라 정말 혀가 나올번 했습니다.

28관(1관은 3.75키로그람) 600몸매(몸매는 3.75g).

윤장의령감의 이 체중은 그저께 춘심이년을 데리고 진고개로 산보를 갔다가 경성우편국 바루 뒤문 맞은편 아따 무어라는 양약국(서양약국)앞에 놓아둔 앉은뱅이저울에 올라서본 결과 춘심이년이 발견을 해냈던것입니다.

이 28관 600몸매를 인력거군이 그래도 직업적단련이란 위대한 것이여서 젖먹던 힘까지 아끼잖고 겨우겨우 끌어올려 마침 남대문보다 조금 작은 솟을대문앞에 채당을 내려놓고 무릎에 드렸던 담요를 걸기까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윤장의령감은 옹색한 앉음판에서 가까스로 뒤를 쳐들고 자칫하면 넘어박힐듯싶게 희뜩희뜩하는 인력거에서 내려오자니 여간만 대견하고 조심되는게 아닙니다.

《야, 이 사람아. …》

윤장의령감은 혼자서 내리다못해 인력거군더러 성화를 합니다.
《좀 부축을 하여줄것이지 그냥 그러구 뻐어언히 섰어야 옳단 말잉가?》
실상은 뻔히 섰든것이 아니라 가쁜숨을 돌리면서 땀을 씻고 있던것이나 인력거군은 책망을 듣고보니 미상불 죄송해서 얼핏 팔을 붙들어 부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윤장의령감은 인력거로부터 내려섰습니다.
내려선것을 보니 진실로 거판진(허우대가 크고 행동이 트레짐.) 체집입니다.
허리를 안아본다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한아름하고도 반은 더할겁니다. 그런데다가 키도 알맞게 다섯자 아홉치는 됩니다. 얼핏 알아듣기 쉽게 빗대면 지금 그가 타고온 인력거가 장난감같고 그 큰 대문간이 들어서기도 전에 그들먹합니다.
얼굴도 좋습니다.
거금(지금으로부터 거슬러올라감.) 30년전에 몇해 두고 부안변산을 드나들면서 많이 먹은 용(록용)이며 저혈장혈(돼지피, 노루피)이며 또 요새도 장복하는 인삼 등속의 약효로 해서 얼굴은 불그레하니 동안(어린애얼굴)이요, 게다가 많지도 적지도 않게 꼭 알맞은 수염은 눈같이 희여 장님더러 보래도 동안백발에 선풍도골(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입니다.
초리가 길게 째져올라간 봉의 눈, 준수하니 복이 들어보이는 코, 부리가 추욱 처진 귀와 큼직한 입모, 다수부귀 다 남자의 상입니다.
나이? 올해 일흔살입니다. 그러나 시삐(마음에 차지 않게 시들함.) 여기지 마시오. 심장비대증으로 천식기가 좀 있어망정이지 정정한 품이 서른살 먹은 장정 여대친답니다, 무얼 가지고 겨누든지.
그 차림새가 또한 홀란스럽습니다. 옷은 안팎으로 윤이 지르르 흐르는 모시 진솔이요, 머리에는 탕건에 받쳐 죽녕(가는 대를 꿰여 만든 갓끈) 달린 통영갓이 날아갈듯이 올라앉았습니다.
발에는 솜을 한근씩이나 두었음직한 하얀 버선에 운두(신의 울) 새까만 마른신을 조고맣게 신고 바른손에는 은으로 개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개화장이요, 왼손에는 서른네살백이 묵죽한 합죽선(얇게 깎

은 결대를 맞붙여서 살을 만든 젉부채)입니다.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울사! 옛날세상이였드면 일도의 방백(관찰사)일시 분명합니다. 그런것을 간혹 입이 삐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착오를 일으키고 동경, 대판의 사탕장수들은 《캐러멜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차설(다음이야기). 인력거에서 내려선 윤장의령감은 제절로 떠억 벌어지는 두루마기앞섶을 여미려고 하다가 도루 걷어제치고서 간드러지게 달린 새파란 염낭의 끈을 풉니다.
《인력거 쌕(삯)이 몇픈이당가?》
이 이야기를 쓰고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태생이기는 하지만 전라도말이라는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거저 처분해줍사요.》
인력거군은 담요로 팔짱낀 허리를 굽신합니다. 좀 점잖다는 손님한테는 항투로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립니다. 후히 생각해달라는 말이지요.
《으응! 그리여 잉? 그럽 그냥 가소.》
윤장의령감은 인력거군을 짯짯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풀었던 염낭끈을 도루 비끄러맵니다. 인력거군은 어찐 영문인지를 몰라 뚜렷뚜렷하다가 혹시 외상인가 하고 더수기를 긁적긁적하면서 《그럼? 래일 오랍소니까?》합니다.
《래일? 래일 무엇하러 올랑가?》
윤장의령감은 지금 심정이 약간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인력거군이 부질없이 말씽을 하니까 안색이 저으기 변합니다.
그러나 인력거군으로 당하고보면 《무엇하러 오다니? 외상준 인력거값 받으러 오지요.》라는것이지만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들이대고 하는 수야 있나요. 그러니 말은 바른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 자못 난처한판인데 남의 속은 몰라주고 윤장의령감은 인제는 내 할말 다 했다는듯이 돌아서려고 합니다.
인력거군은 이러다가는 여느때도 아니요, 허패(폐장)가 터질번한 오늘벌이가 눈 멀뚱멀뚱 뜨고 허사가 되나싶어 대체 이 어른이 어째서 이러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어찌되였든지간에 이렇게 병신스럽게 우물우물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크게 과단을 내렸습니다.

《저어, 삯 말씀이올시다. 헤.》
크게 과단을 내렸다는게 크게 조심을 하는것뿐입니다.
《삯?》
《네에.》
《아―니, 여보소, 이 사람…》
윤장의령감은 화를 버럭 내여 사뭇 삿대질이라도 할듯이 한걸음 나섭니다.
《자네가 아까 나더러 처분대로 허란 말은 맘대루 허란 말이 아닝가?》
인력거군은 비로소 속을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세상에 기맥힐 일입니다. 웬만하면 허허― 하고 한바탕 웃어제치겠지만 점잖은 어른앞에서 그럴수는 없고 그래 히죽이 웃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처분대루 응? 맘대루 말이네. 허라구 허길래 안 주어두 갱기찬현중(괜찮은줄) 알구서 그냥 가려구 하였지!》
인력거군은 이 어른이 종시 롱을 하느라고 이러는가 했지만 윤장의령감의 안색이며 말씨는 조금도 그런 내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참… 나는 별 신통한 인력거군이 다 있다구 얌전하게 보았지. 늙은 사람이 욕본다구 공으로 인력거를 태워다주구. 이렇게 퍽 기특하다구 그랬더니 잘못 보았구먼 그리여! 허, 그거참! 이 사람아, 사내대장부가 그렇게 그짓말을 식은죽 먹듯 헌단 말잉가? 일구이언은 이부지자라네 (한입으로 두말하는것은 두 아버지의 자식). 암만히여두 자네 어머니가 행실이 궂었덩개부네!》
인력거군이라 일구이언은 이부지자라는 공자님식의 욕이야 알어듣지 못했겠지만 《자네 어머니가 행실이 궂었덩개부네.》 하는데는 슬며시 비위가 상했습니다. 실상 그렇지 않아도 인력거삯을 주지 않으려고 롱인지 진정인지 모르겠으되 쓸데없는 승강을 하려는데 심청이 좋지 않은 참인데 게다가 한수 더 떠서 이건 한다는 소리가 거짓말을 한다는둥 또 죽은 부모를 편산놈의 늘머리(관) 들먹거리듯 들먹거리니 누군들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같은 내기가 인력거를 타고와서 납작한 초가집앞에서 그따위 수작을 했다가는 인력거군한테 되집혀 뺨따구나 한대 넙죽하니 얻어맞기가 십상이지요.

《점잖은 어른께서 쉰네같은걸 데리구 그리십니다. 어서 돈장이나 주어보냅사요!》

인력거군은 상하는 속을 눅이고 종시 공손합니다. 그러나 돈장이란 말이 윤장의령감한테는 히틀러—라든지 하는 덕국 《겐까도리(싸움군패)》의 폭탄선언이라는것만큼이나 놀라운 말입니다.

《뭐! 돈장? 돈장이 무어당가?》

《일환 한장 말씀이지요!》

남은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을 속없는 인력거군은 고지식하게 언해를 달고있습니다.

《헤헤, 나참. 세상에 났다가 별일 다 보겠네. 아—니, 글쎄 안 받아두 좋으니 처분대로 하라던 사람이 인재넌 마구 그냥 일환을 달래여? 참, 기가 막혀서 죽겠네! 그만두소. 룡천배기 코구녕에서 마늘씨를 뽑아먹구말지 내가 칙살스럽게 인력거 공짜루 타겠넝가! 을마 받을란가? 바른대로 말하소.》

인력거군은 괜히 돈 몇십전 더 얻어먹으려다가 짜장 얻어먹지도 못하구 다른데 벌이까지 놓칠가싶어 바른대로 50전을 불렀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시방 나허구 실갱이(승갱이)를 허자구 이러닝가? 권연시리(괜시리) 자꾸 쓸데읎넌 소리를 허구있어! 아, 이 사람아, 돈 50전이 뉘 애기 이름인줄 아넝가?》

《많이 여쭙잖았습니다. 부민관서 예까지 모시구 왔는데요.》

《그러닝게 말이네. 고까짓것 엎어지면 코달년의 디를 태워다주고서 50전씩이나 달라구 허닝개 말이여!》

《과하게 여쭙잖았습니다. 그리구 점잖은 어른께서 막걸리값이나 나우 주셔야 허잖겠사워요?》

윤장의령감은 못 들은체 하고 모으로 비스듬히 돌아서서 아까 끌렀다가 도루 비끄러맨 염낭끈을 다시 풀으더니 십전배기 두푼을 꺼내여 그놈의 손톱으로 싸악싹 갓(끝)을 긁어봅니다. 사람이란 실수하지 말란 법이 없는 법이니 좀 일을 되더라도 이렇게 다시한번 손질을 해보면 가사(가령) 10전짜린줄 알고 50전짜리를 잘못 꺼냈드래도 톱날이 있고 없는것으로 아주 적실하게 분별을 할수가 있는것입니다.

《옛네. 꼭 15전만 줄것이지마는 자네가 하두 그래싸닝께 20전을 주넝것이니 5전을랑 자네 말대루 막걸리를 받어먹든지 탁배기를

사먹든지 맘대루 허소. 나넌 모르네.》
《건 너무 적습니다!》
《적다니? 돈 20전이 적단 말인가? 이 사람아, 촌에 가면 땅이 열평이네, 땅이 열평이여!》
인력거군은 그렇거덜랑 그 돈 20전 가지고 촌으로 가서 땅 열평을 사놓고서 3대, 4대 벌어먹으라고 쏘아던지고 획 돌아서고싶은것을 겨우 참습니다.
《십전 한푼만 더 줍사요. 그리구 체두 퍽 무거우시구 하셨으니까, 헤…》
《아—니, 이 사람이 인재넌 별 트집을 다 잡을라구 해네! 이 사람아, 그럴테면 나넌 이 큰 몸집으로 자네 좨고만 인력거 타느라구 더 욕을 보았다네. 자동차나 기차나 몸 무겁다구 돈 더 받던데 보았던가?》
《헤헤, 그렇지만…》
《어쩔티여? 이것 받아갈랑가? 안 받어간다면 나 이놈으로 괴기(고기) 사다가 야긋야긋 다져서 저녁반찬이나 히여먹을라네.》
《거저 십전 한푼만 더 쓰시면 되실걸 점잖으신터에 그러십니다!》
《점잖? 이 사람아, 그렇게 점잖으려다가는 논 팔어먹겠네! 에헴, 그것참! 그런 인력거군 두번 만났다가넌 마구 감수하겠다!》
이 말에 인력거군이 바른대루 대답을 하자면 그런 손님 두번만 만났다가는 기절하겠다고 하겠지요.
윤장의령감은 매였던 염낭끈을 도루 풀으더니 오전배기 한푼을 더 꺼냅니다. 이놈 5전을 공연히 더 주는것이거니 생각하니 역정이 나고 다시금 돈이 아까왔지만 인력거군이 부둥부둥 떼를 쓰는데 배겨낼수가 없다고 단념을 한것입니다.
《거참! 옛네, 25전이네. 이재넌 자네가 내 허리띠에다가 목을 매달어두 쇠전 한푼 막무가낼세.》
인력거군은 윤장의령감이 말도 다하기 전에 딸그랑하는 대소 백통화 서푼을 육중한 손바닥에 받아쥐고 고맙다고 하는지 무어라고 하는지 분명찮게 두덜거리면서 놓았던 인력거채양을 집어들고 씽하니 가버립니다.
《에잉! 권연시리 그년의 디(그곳)를 갔다가 그놈의 인력거군을 잘

못 만나서 실갱이를 허구 애맨(애꿎은) 돈 5전을 더 쓰구 허였구나! 고년 춘심이년이 방정맞게 와서넌 명창대횐지 급살인지 헌다구 쏘사악 쏘삭허기때미 그년의 디를 갔다가…》

윤장의령감은 역정끝에 춘심이더러 귀먹은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괜한 욕입니다.

왜 부민관의 명창대회를 무슨 춘심이가 가자고 해서 갔나요? 춘심이는 그저 부민관에서 명창대회를 하는데 제 형 운심이도 연주에 나간다고 자랑삼아 재잘거리니까 윤장의령감 제가 되려 춘심이더러 가자가자해서 꼬여가지고 갔으면서…

사실 말이지 춘심이가 그런 귀땜을 아니해주었으면 윤장의령감은 오늘 명창대회는 영영 못 가고말았을것이고 그래서 다음날이라도 그걸 알았으면 냅다 발을 굴렀을겝니다.

2. 무전승차기술

윤장의령감은 명창대회를 무척 좋아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돈만 빼놓고는 둘째가게 명창대회를 좋아할겝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니 참 귀신이 곡할만치 희한스런 조건이 있습니다.

윤장의령감은 전라도태생인 관계도 있지만 그는 본시 남도소리며 음률 같은것을 이만저만찮게 좋아합니다.

그래 그렇게 좋아하는 깐으로는 일년삼백예순날을 밤낮으로라도 기생이며 광대며를 사랑으로 불러다가 듣고 놀기는 하고싶지만 그렇게 하자면 돈이 여간만 많이 드나요!

아마 일년을 불박이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어느 권번(일제때 기생을 많이 두고 감독하며 료리정에 중재하여주면서 중간착취를 하는 영업)이나 성악연구회 같은데 교섭을 해서 《특별할인(특별히 덕을 베품.)》을 한다더래도 하루에 소불하 십원쯤은 쳐주어야할테니 하루에 10원! 일년이면 삼천… 아이구, 그건 윤장의령감으로 앉어서는 도모지 생각할수도 없게 큰 돈입니다. 쓰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천문학적수자란건 아마 이런 경우에 써야 할 문잘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생심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야말로 사람 살 곳은 골골마다 있다더니 윤장의령감의 그 대지(큰뜻)도 뜻 두고 이루지 못하는 대원을 저으기나마 풀어주는 게 있으니 라지오와 명창대회가 바루 그것입니다. 리완이 대장으로 치면 군산(한데 모여있는 많은 산)을 깎고 계수(시내물)를 베인만큼이나 하다 할가요.

그래서 윤장의령감은 바루밑 연상(문방제구를 벌려 놓아두는 작은 책상)우에 3구짜리 라지오 한조를 매여두고 그걸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방송국의 마이크를 통해 오는 남도소리며 음률, 가사 같은것을 듣군 합니다.

장죽을 물고 보료우에 편안히 드러누워 좋다! 소리를 해가면서 듣느라면 고년들의 이쁘게 생긴 얼굴이나 광대들의 거동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유감이지 좋기야 참 좋습니다.

라지오를 프로대루 조종하는 소임은 윤장의령감의 차인겸, 비서겸, 무엇겸, 무엇겸, 직함이 수두룩한 대복이가 말아합니다.

그런데 혹시 남도소리나 음률, 가사 같은것이 없는 날은 대복이가 생으로 벼락을 맞아야 합니다.

《게, 밥은 남같이 하루에 세그릇씩 먹으면서 그래, 어떻게 사람이 멍청하면 날마당 나오던 소리를 못 나오게 헌담 말잉가?》

이러한 무정지책에 대복이는 유구무언(입은 있으나 말은 못함.) 머리만 긁적긁적합니다. 허기야 대복이도 처음 몇번은 방송국에서 프로를 그렇게 정했으니까 집에 앉아서야 라지오를 아무리 주물러도 남도소리는 나오지 아니하는 법이라고 변명을 하였더랍니다.

《법이라께? 그런 개같은 놈의 법이 어디 있당가? 권연시리 시방 멍청허구 그러닝게 그 소리넌 그리두 고까워서 남한테다가 둘러씌우니라구! 글씨 어떤 놈의 소리가, 금방 어저녁까지 들리든 소리가 오늘 사말구 시급스럽게 안 들린다덩가? 지상(기생)이며 재인, 광대가 다 급살맞아 죽었다덩가?》

이렇게 당당히 반박을 하니 죽는건 대복입니다. 방송국에서 한동안 꼭같은 글씨로 남도소리를 매일 빼지 말아달라는 투서를 수십장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뉘짓인고 하니 대복이가 윤장의령감한테 지천(까닭없이 남을 꾸짖거나 탓하는것.)을 먹고는 써보내고 지천을 듣고는 써보내고

하든 눈물의 투서랍니다.

윤장의령감의 불평은 그뿐이 아닙니다. 소리를 기왕 하려거든 두어 시간이고 서너시간이고 붙박이로 하지를 않고 고까짓것 30분 눈깜짝할 새 감질만 내다가 그만둔다고 성홥니다.

그러나 그러기는 해도 혼자속으로는 그놈의것 돈 17원 들여서 사놓고 한달에 1원씩 내면서 그 재미를 다 보니 미상불 헐하기는 헐하다고 좋아하지 아니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막상 라지오 청취료 1원야라를 현금으로 내여주는 마당에 당해서는 라지오에 대한 불평 겸 돈 1원이 문득 아까와서

《그까짓놈의것이 무엇이라구 다달이 돈을 1원씩이나 또박또박 받아간다냐?》

《그럴테거던 새달부터는 그만두래라.》

이렇게 공짜를 놉니다.

라지오는 그러하고 그다음이 명창대휩니다.

기생이며 광대가 가지각색이요 그래서 노래도 여러가지려니와 눈으로 보면서 오래오래 들을수가 있기때문에 감질나는 라지오보다는 그놈이 가끔이여서 안되기는 했지만 그때그때는 퍽 아쉽잖습니다. 윤장의령감의 소원같애서는 명창대회를 1년두고 삼백예순날 날마다 했으면 좋을 판입니다.

이렇게 달가운 명창대횐지라 서울장안에서 언제고 명창대회를 하게 되면 윤장의령감은 천하없이도 참녜를 합니다. 만일 어느 명창대회에 윤장의령감이 참녜를 못한적이 있다면 그것은 대복이의 태만입니다.

대복이는 멀리 타관에를 심부름가고 없지 아니하는 이상 매일같이 골목밖에 리발소에 나가서 라지오의 프로와 명창대회나 성악연구소 주최의 공연이 있는지를 신문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대복이가 만일 실수를 해서 윤장의령감한테 그것을 알리지 못한 결과 궐(여러차례에서 한두번이 빠짐)을 했다는 사실을 윤장의령감이 후일에라도 알게 되면 그때에는 대복이가 집안 가용을 지출하는데 있어서(가령 두모를 사야 할 두부를 세모를 사기때문에) 돈을 5전가량 요외(요구되는 이외)로 더 지출한 때만큼이나 벼락같은 꾸중을 듣게 됩니다. 때(한지라) 대복이도 주인령감이 그

대도록 즐겨하는 명창대회를 알려드리지 못한 죄가 반주검을 해도 마땅하지요.

기왕 명창대회이야기가 났던 길이니 그럼 차례는 뒤바꼈드래도 오늘 윤장의령감이 명창대회에 갔던 이야기를 마저 하지요. 실상인즉 윤장의령감은 지금 거기서 돌아오는 길이랍니다.

낮에는 한시부터 시작한다는데 윤장의령감이 춘심이를 앞세우고 댁에서 나선것이 11시반이 채 못되여섭니다.

《글쎄 이렇게 일찍 가서 무얼해요? 구경터에 일찍 가서 우두커니 앉었는것두 꼴불견인데.》

앞서가던 춘심이가 일건 잘 가다말고 돌아서더니 까부느라고 이렇게 종알거립니다.

윤장의령감은 허연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헤벌심 웃습니다.

《저년이 또 초란이치름(처럼) 까분다! 그러지 말구 어서 가자, 가.》

윤장의령감이 이렇게 살살 달래니까 춘심이는 다시 앞을 서서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아이가 얼굴이 남방태생답잖게 갸르스름한게 또 토끼화상이 아니라도 두눈은 또렷, 코는 우뚝, 입술은 오뭇 다 이렇게 생겨서 야물집니다. 그렇게 야물지게 생긴 값을 하느라고 아이가 까불지요.

나이가 아직 열다섯살이라 얼굴이 피지는 아니했어도 보고 들은게 그러한탓으로 몸매허며 제법 계집애꼴이 박혔습니다.

머리를 늘정늘정 땋내려 자주댕기를 드린 머리채가 방둥이에서 치렁치렁 합니다. 그러나 이 머리는 알고보면 중둥을 몽창 자른 제 머리에다가 다루(녀자의 머리칼의 숱을 많이 보이게 하려고 덧넣는 딴 머리)를 드린거랍니다.

앞머리는 좀 자르기도 하고 지져서 오그려붙이기도 하고 군데군데 핀을 꽂았습니다.

빨아서 분홍물을 들인 흘게(무엇을 맞추어서 짠 자리나 고동, 사개, 사복따위의 죈 정도)빠진 생수깨끼적삼을 입고 얼승얼승한 주릿대치마를 휘결이넥타이로 질끈 동였습니다.

살결보다는 버짐이 더 많이 피고 배내털(솜털)이 숭얼숭얼해서 분을 발랐다는게 고루치 않고 어루레기가 진것 같습니다.

어데다가 내놓아도 대광교, 천변가로 수태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모

습의 동기(어린 기생)지 갈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깔보지는 마십시오. 그래보여도 그 애가 련애를 한답니다. 그 이야기도 이제 차차 하리다마는.)

춘심이는 윤장의령감이 달래는대로 한동안 앞을 서서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또 해뜩 돌아다보면서

《령감님!》

부르고 뱅글뱅글 웃습니다. 이 애는 잠시라도 까불지 못하면 아마 좀이 쑤시나봐요.

《무어라구? 또 쫄랑거리구싶어서 그러냐?》

《이렇게 일찍 가는 대신 자동차나 타구 갑시다, 네?》

《자—동차?》

《네.》

《그리라. 젠—장마질.》

춘심이는 윤장의령감이 섬뻑 그러라고 하니까 못 미더워서 짯짯이 올려다봅니다. 아닌게아니라 히물히물 웃는게 미심쩍습니다.

《정말 타구가세요?》

《그리여! 이년아.》

《그럼 전화 빌려서 자동차 불러야지요?》

《일부러 안 불러두 조금만 더 가면 저기 있다.》

《어디가 있어요! 안국동거리까지 가야 있는걸.》

《게까지 안 가두 있어.》

《없어요.》

《있다. 뻔적뻔적하게 은칠한 놈, 커—다란 자동차.》

《어이구 참, 누가 뻐스 말인가 뭐?》

춘심이는 속은것이 분해서 뾰로통해가지고 쫑알댑니다.

《뻐슬 가지구 아—주 자동차래요.》

《자동차라두 그놈이 여늬 자동차보담 더 비싸다, 이년아.》

《5전씩인데 비싸요?》

《타는 차삯말이가디? 그놈 사올 때 값 말이지.》

윤장의령감은 재동네거리의 뻐스정류장에서 춘심이와 같이 뻐스를 기다립니다. 때가 아침저녁의 붐비는 때도 아닌데 웬일인지 만원된 놈이 두대나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 세대째만에 그것도 여간 붐비지 아니

한결 디리비집고 올라타니까 뻐스차장이 그만 울상을 합니다.
윤장의령감은 제가 혼자 탔으면 꼭 알맞을 뻐스에 만원이상의 승객과 같이 탔으니 남이야 어찌되였든간에 윤장의령감 당자도 무척 고생을 합니다. 그럴뿐아니라 갓을 뻐스천장에 치받치지 아니할려고 허리를 구부정하고 섰으니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해야 됩니다.
그대신 춘심이는 윤장의령감의 겨드랑이밑에 가 배기여있어 만약 두루마기자락으로 가리기만 하면 차삯은 아니내여도 될상싶습니다.
겨우겨우 총독부앞 종점에 가서 다들 내리는데 섞여 윤장의령감도 내리니까 뻐스에 탔던 사람들은 기념이라도 할려는듯이 제가끔 한번씩 쳐다보고 갑니다.
윤장의령감은 뻐스에서 내려서 대견하게 숨을 돌린 뒤에 비로소 염낭끈을 풀어 돈을 꺼낸다는것이 10원짜리 지전입니다.
녀차장은 그만 속알머리가 나서 호락호락 합니다.
《그걸 어떻거라구 내놓세요, 바꿀것 없어요.》
《그럼 어떻거랑가! 이것두 돈은 돈인디…》
《누가 돈 아니래요? 잔돈 내세요.》
《잔돈 없어.》
《지금 주머니속에서 잘랑잘랑 소리가 나는데 그리세요? 괜ㅡ히.》
《으응, 이것?》
윤장의령감은 염낭을 흔들어 짤랑짤랑 소리를 들려주면서 《이건 못쓰는 돈이여. 4전이여. 증 그렇다면 못 쓰는 돈이라두 그냥 받을테여?》
윤장의령감이 방금 염낭끈을 풀으려고 하니까 녀차장은 오만상을 찌프리고
《몰라요, 속상해 죽겠네. 어데까지 가세요?》
하면서 소가지가 보풀털이를 합니다.
《정거장.》
《그럼 전차에 가서 바꾸세요.》
《그러까?》
실상 잔돈을 두어두고도 10원짜리를 낸것이며 부청앞에서 내릴

차례면서 정거장까지 간다고 한것이며가 모다 요량이 있어서 한것입니다.

무사히 공차를 탄 윤장의령감은 총독부앞에서부터는 춘심이를 앞세우고 부민관까지 걸어갑니다.

《좁은 뻐스 타느라구 고생헌 값을 이렇게 도루 찾는 법이다.》

그는 공차타는 기술을 춘심이한테도 깨우쳐주었습니다. 청기와장수는 아닌 모양입니다.

3. 《서양국》명창대회

이렇게 중로에서 충그렸어도 부민관에 당도했을 때에는 부민관 꼭대기의 큰 시계가 12시밖에는 더 되지 않았습니다.

입장권을 사기 전에 윤장의령감과 춘심이 사이에는 또 한바탕 상지(양보하지 않고 서로 자기 의견을 고집함)가 생겼습니다.

윤장의령감은 춘심이더러 제 형이 출연하니까 무대뒤로 제 형을 찾아들어가서 공짜루 들여달라 하고 시킵니다.

그러나 춘심이는 암만 그래도 저도 윤장의령감이 데리고왔고 그래서 버젓하게 손님이니까 따라서 버젓하게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야 말이지 누가 치사하게 공구경을 하느냐고 욕입니다.

그래 한참이나 서로 고집을 세우고 뻗대던 끝에 윤장의령감은 10전배기 두푼을 꺼내여 춘심이 손에 쥐여주고 살살 달랬습니다.

《엣다. 이놈으루 군밤이나 사먹구 귀경(구경)은 공으로 디려달라구히여. 그렇게 허면 너두 좋구 나두 좋구 허지?》

한여름에도 아이들한테 돈을 주랴면 군밤값이라고 윤장의령감은 합니다. 춘심이는 군밤값 20전에 매수되여 마침내 타협을 하고 먼점 무대뒤로 들어갔습니다.

윤장의령감은 50전을 내고 하등표를 달라고 해서 홍권(빨간표) 한장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래층 맨 앞자리의 맨 앞줄에 가서 척 앉으니까 미상불 아무도 아직 들어오지 아니했고 갈데없이 첫째입니다.

조곰 앉았느라니까 아마 윤장의령감의 다음가게 날쌘 사람인지 한 40이나 되여보이는 양복신사 하나가 들어오더니 차차 호기심이 생기

는지 자리를 옮겨 윤장의령감에게 말없는 경의를 표한다고 할가 몹시 이야기를 붙여보고싶어하는 눈치더니 마침내

《이번에 인기가 굉장한 모양이지요?》

이렇게 말을 청합니다.

그러나 윤장의령감으로 보면 인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거니와 또 낯모를 사람과 이애기를 할 맛도 없어 그저

《예애.》

하고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양복신사는 좀 싱거웠던지 이애기를 더 하지 못하고 한참 있더니 그래도 좀이 쑤시여

《거 소리를 얼마나 공부를 허면 그렇게 명창이 되나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윤장의령감은 별 싱거운 사람도 다 보겠다고 귀찮게 여기면서도 아무렇게나마 대답까지 아니할수는 없습니다.

《글쎄… 나두 몰루.》

《헤헤헤, 다 괜히 그라십니다!》

《무얼 괜허니 그런다고 허우? 나는 소리를 좋아는 하여두 소리를 헐종은 모르는 사램이요.》

《괜히니 그러세요. 명창 리동백씨가 소리를 헐줄을 모르신다면 누가 압니까?》

원 이럴데가 있습니까! 어쩌면 윤장의령감더러 광대 리동백이라고 하다니요.

윤장의령감은 담박 괘씸하고 분하고 창피하고 뭐 도무지 어떻다고 형언할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옛법이 없어진 오늘날이라도 만일 그 자리가 그 자리만 아니고 재동 재가네 댁만 같었어도 이놈 잡아내려라 하고 호령을 한바탕 했겠지요.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고 칼날밑에서와 총부리앞에서 몇번 목숨을 내걸어본 윤장의령감입니다. 또 시속이 어떻다는것이며 그래 잘못 호령깨나 하다가는 되잡혀서 망신을 하는수가 있다는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윤장의령감은 속을 푹 늦혀 자기 손에 쥐인 표를 내보이고 자기도 구경을 왔노라고 깨우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양복신사는

윤장의령감이 생각한바와는 딴판으로 백배사죄도 아니하고 거저 그러냐고 실례했다고 고개만 까댁합니다. 윤장의령감은 그것이 다시 괘씸했으나 참던 길이라 그냥 눌러 참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양복쟁이 하나가 또 나타났습니다. 윤장의령감한테는 갖추 불길한 날입니다.

그 양복쟁이는 양복깃에다가 가화를 꽂은 양이 오늘 여기서 일서두리하는 사람인가본데 마침 지나가다가 윤장의령감이 홍권을 사가지고 어엿하게 백권석에 앉아있는것을 발견했던것입니다. 그는 그 붉은 입장권을 보지 못했었다면 설마 이 풍신좋은 량반이 홍권을 가지고 백권석에 들어앉았으랴는 의심이야 내지도 아니했겠지요.

《저ㅡ 여기는 백권석입니다. 저 우층으로 가시지요.》

양복쟁이는 좋은 말로 이렇게 간섭을 합니다. 그러나 윤장의령감은 《백권석》이라는 신식문자는 모르되 2층으로 가라는데는 자못 의외였습니다.

《왜 나더러 그리 가라구 허우?》

《여기는 백권석입니다. 로인은 홍권을 사셨으니까 저 우층 홍권석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ㅡ니 이건 하등표요. 나는 돈 50전 주구 하등표 이놈 샀소. 자, 보시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로인말씀대루 하면 여기는 상등이거던요. 그런데 로인께서는 하등표를 사가지구 이 상등에 앉았으니까 저 하등석으로 올라가시란 말씀입니다.》

《예가 상등이라? 그리구 저 높은데 2층이 하등이라?》

《네.》

《아ㅡ니, 여보 그래 그런 법이 어디가 있단 말이요. 높은디가 하등이고 낮인디가 상등이라니! 나는 칠십평생에 그런 말은 첨 듣겠소.》

《그래두 그렇잖습니다. 여기가 상등이고 저 2층이 하등입니다.》

《거참, 그럼 예는 우리 죄선(조선) 아니구 저 서양국이요? 그렇길래 이렇게 모다 꺼꾸루 되지?》

《허허허허, 그렇지만 신식은 다 그렇답니다. 그러니 정녕 이 자리

에서 구경을 하시겠거든 돈을 일원 더 내시구 백권을 사시지요.》

《나는 그럴수 없소. 암만 그리두 나는 예가 하등이닝개루 예서 구경할라우.》

우람스러운 몸집과 신선같은 차림을 하고서 애기처럼 엉석을 부리는데는 서두리군도 지고말아 윤장의령감은 끝내 홍권으로 백권석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실상 윤장의령감은 일부러 그런 어거지를 쓴것은 아닙니다. 꼭 극장안에서 아래층이 하등인줄 알았던것입니다.

윤장의령감의 처음 몇번의 경험에 의하면 명창대회는 아래층—그러니까 하등이지요— 맨 앞자리의 맨 앞줄이 제일 좋은 자리였습니다. 기생과 광대들의 일동일정이 바루 앞에서 잘 보이고 노래가 가까이 들리고 그리고 하등이라 값이 헐하고.

이러한 묘리를 터득한 윤장의령감이라 오늘도 하등표를 산다고 사가지고 하등으로 간다고 간것이 세곱이나 비싼 백권석이였던것입니다.

그러나 배심이랄지 생억지랄지 아무튼 서두리군을 이겨내고 필경은 그대로 백권석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더욱 좋은것은 여늬 극장같으면 하등인 맨 앞자리는 고놈 깍쟁이같은 쪼무래기패가 옴닥옴닥 들어박혀 윤장의령감의 육중한 체구가 척 그 틈에 끼여있을라치면 놀림감이 되고 그래 좀 창피했는데 오늘은 이 하등이 보다 점잖은 어른들이나 이쁜 기생들뿐이요 그따위 쪼무래기떼가 없어서 실로 금상첨화였습니다.

구경을 아주 원만히 마치고나서 윤장의령감은 춘심이는 제집이 청진동이니까 걸어가라고 보내고 자기 혼자만 전차정류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수태 몰려나온 구경군들과 같이 전차를 탈 일이며 또 뻐스를 탈 일이며 모두 생각만 해도 대견했습니다. 10원짜리를 가지고 하면 또 공차를 탈수도 있을테지만 에라 내가 돈을 애껴서는 무얼 하겠느냐고 실로 하늘이 알가 무서운 변심을 먹고 마침 지나가는 인력거를 불러 탔었습니다. 그런 결과 돈 5전을 예상외에 더 빼앗긴것이요 그전처럼 역정이 약간 난판인데 대문간을 보니까 또 성미에 거슬리는 모양이 보입니다. 대문은 언제든지 꽉 잠가두거니와 옆으로 난 쪽문도 안으로 잠갔어야 할것이어늘 그놈이 휑하니 열리여있습니다.

윤장의령감은 큰대문을 열어놓고있으면 어쩐 일인지 집안의것이 형적없이 자꾸만 대문으로 해서 빠져나가는것만 같고 그대신 상서롭지 못한것이 자꾸만 슬슬 들어오는것만 같아 장작바리나 큰 짐이 들어올 때가 아니면 큰대문은 열어놓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 집의 엄한 가현(가법)입니다.

큰대문은 그처럼 늘 봉해두고 출입은 어른, 아이, 상전, 하인 할것 없이 한옆으로 뚫러놓은 쪽문으로 드나듭니다. 그거나마 꼭꼭 지쳐두어야지 반갑잖은 손님이 들어올 념려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밀질긴 거지가 들어와서 목을 매인댔자 동냥을 주는 법은 없지만 그러자니 자기가 나서서 그놈의 객돈은 안 쓴다 할 일이 성가시니까요. 그러니까 만일 쪽문을 열어놓은것이 윤장의령감의 눈에 뜨이고보면 한바탕 성화가 나고래야마는데 글쎄, 식구중의 누가 갈층머리없이 이렇게 열어놓았는지 딱한노릇이지요.

역정이 난 윤장의령감이 락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는만큼이나 애를 써서 좁다란 쪽문으로 겨우겨우 비비뚫고 들어가서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으니까 상노아이놈 삼남이가 그제야 뽀르르 나옵니다.

이놈이 묘하게 생겼습니다. 우선 부룩송아지 대가리같이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노랗기까지 한게 장관이요, 그런 대가리가 어쩌면 그렇게도 큰지 남의것 같습니다. 눈은 사팔이여서 얼굴을 모으로 돌려야 똑바루 보이고 코는 비가 오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나이는 스무살인데 그것은 이 애한테만 세월이 특별히 빨리 갔는지 열살은 에누리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이 애가 윤장의령감한테는 소중합니다. 윤장의령감은 상노아이놈을 똑똑한 놈을 두는 법이 없습니다. 똑똑한 놈이면 그런건 《흠치흠치를 하는 태을도(흠치교계통의 종교의 하나)》를 한대서 그런것입니다. 실상 전에 시골서 살 때에 똑똑한 상노놈을 두었다가 번번이 태을도를 하는 바람에 뜨거운 영겁(불교에서 영원한 세월)을 보았었습니다.

그래 이 삼남이는 시골있는 산지기 자식으로 못난 이름이 근동에 널리 떨친것을 시험삼아 데려다가 두어두고 보니 미상불 일품이였습니다. 너무 멍청해서 데리고 갑갑한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대신 일년 삼

백예순다섯날을 가도 동전 한푼은커녕 성냥 한개비 몰래 축내는 법이 없습니다. 또 산지기의 자식이니 시속 아이놈들처럼 월급이니 무엇이니 하는 그런 아니꼬운것도 달라고 아니합니다. 참말 구하기 어려운 보물입니다.

그런지라 윤장의령감은 여느때 같으면 삼남이가 나와서 그렇게 허리를 굽신하면 거저 오—냐 하고 좋게 대답을 했겠지만 오늘은 그래저래 역정이 난판이라 누구든지 맨처음에 눈에 뜨이는대루 소리를 버럭 질러주어야 할판입니다.

《야, 이놈아! 어떤 손모가지가 문은 그렇게 훠언하게 열어놓았냐? 응!》

《저는 안 그랬어라우. 아마 중마내님이 방금 들어오셨넌디. 그렇게 열어넝개비라우.》

중마내님이라는건 윤장의령감의 며느리로 지금 이 집의 주부입니다. 주부노릇을 못하기는 하지만.

《그랬으리라! 짝 찢을 년…》

윤장의령감은 며느리더러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 는 며느리뿐아니라 딸이고 손주며느리고 또 지금은 죽고 없지만 제 부인이고 전에 데리고 살든 첩이고 누구한테든지 욕을 할라면 우선 《짝 찢을 년》이라는 서양말같으면 관사같은것을 붙입니다. 남잘것 같으면 《잡어뽑을 놈》을 붙이고.

《짝 찢을 년! 그년은 글시 무엇하러 밤낮 그렇게 싸—당긴다냐?》

《모을라요.》

《옳다, 내가 모르간디 네가 알것이냐! 짝 찢을 년! 그년이 아마 서방이 안 돌아부아주닝께 오두가 나서 그러지. 오두가 나서 그리여!》

《아마 그렁게비라우.》

웃지 맙시다. 삼남이는 저더러 묻는줄 알고서 이실직고를 하던것이랍니다.

윤장의령감이 그렇게 쌍소리로 며느리며 누구할것없이 아무한테고 욕을 하는것은 그의 입이 험한탓도 있겠지만 그의 근지(근본)가 인조견이나 도금비녀처럼 허울뿐이라 그렇다고도 하겠습니다.

윤장의령감의 근지야 참 보잘것 없습니다.

4.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합사…》

얼굴이 말대가리같이 길대서 《말대가리》라는 별명을 듣던 윤장의 령감의 선친 윤용규는 시골 토반이드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전이드냐 하면 실상 아전질도 못해먹었습니다.

아전질을 못해먹은것이 시방와서는 되려 자랑거리가 되였지만 그때 당년에야 흔한 도서원이나마 한자리 얻어하고싶은 생각이 꿀안같았어도 고만한 밑천이며 문필이며 주변이 없었기때문에 서둘러볼념도 못냈던거랍니다.

그래서 말대가리 윤용규, 그는 30이 넘도록 탈망바람으로 삿갓 하나를 의관삼아 촌 노름방으로 으실으실 돌아다니면서 개평푼이나 뜯으면 그걸로 되돌아앉아 투전장이나 뽑기, 방퉁이질이나 하기, 또 그두 저두 못하면 가난한 안해가 주린 배를 졸라매여 가면서 바느질품을 팔아 어린 자식과(이 어린 자식이라는게 그러니까 지금의 윤장의 령감입니다.) 입에 풀칠하는것을 얻어먹고 질펀히 드러누워 소대성이 여대치게 낮잠이나 자기… 이 지경으로 반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판무식군이구요.

그런데 그런게 다 운이란건지, 어느해 여름인가는 난데없는 돈이 백냥이 생겼드랍니다. 시골돈 백냥이면 서울돈으로 천냥이지요. 그때만해도 웬만한 새끼부자 하나가 왔다갔다할 큰돈입니다.

노름을 해서 딴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그 안해가 친정에 머언 일가집 백부한테 몫을 타온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도깨비가 져다준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시 출처가 모호했습니다.

지금이야 가난하던 사람이 불시로 큰돈이 생기면 경찰서 량반들이 먼점 그 래력을 밝히려들지만 그때만 해도 60년 저짝일이니 누가 지낼말루라도 시비 한마딘들 하나요. 그저 그야말로 도깨비가 져다주었나부다 하고 상하없이 부러워하기나 했지요.

아무튼 그래 말대가리 윤용규는 그날부터 칼로 베인듯이 노름방 발을 끊고 그 돈 백냥을 들여 논을 산다, 대푼변 돈놓이를 한다, 곱장리를 놓는다 해가면서 착실한 살림군이 되였습니다. 그리느라니까 정

말 인도깨비를 사귄듯이 살림이 불일듯 늘어서 마침내 그의 당대에 3천석을 넘겨받게 되였던것입니다.

윤장의령감―그때 당시는 두꺼비같이 생겼대서 《윤두꺼비》로 불려지던 윤두섭! 그는 어려서부터 취리(돈이나 곡식을 꾸어주고 변리를 받는 일)에 눈이 밝았고 약관(남자의 스무살된 때)에는 벌써 그의 선친을 도와가며 그 큰 살림을 곧잘 휘여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유년부터는 고스란히 물려받은 삼천석거리를 가지고 이래 30년동안 착실히 가산을 늘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가권을 거느리고 서울로 이사를 해오던 그때의 집계를 보면 벼를 꼭 만석을 받았고 요즘 와서는 다시 현금이 10만원 가까이 은행에 예금되여있었습니다.

과시 승어부(아버지를 릉가함)라 하겠습니다.

허기야 그 량대가 그 어둔 시절에 그처럼 치산(집안재산을 잘 다스림)을 하느라고―시절이 어두우니까 체계변(장에서 돈을 비싼 변리로 꾸어주고 장날마다 본전의 얼마와 변리를 거두어 받는 일)이며 장리벼의 이문(조회문건)이 숱되고 또 공문서(공적기관에서 사업상 작성한 문서)가 수두룩해서 가산 늘이기가 좋았던 한편으로 말입니다. 욕심사나운 수령한테 걸려들어 명색없이 잡혀 갇혀서는 형장을 맞아가며 토색질을 당한것도 한두번이 아니요, 화적의 총부리앞에 목숨을 내여걸고 서서 재물을 략탈당하기도 부지기수요, 그러다가 말대가리 윤용규는 마침내 한패의 화적의 손에 비명횡사까지 한것인즉은 일변 생각하면 피로 락관(글씨나 그림따위의 작품에 글씨를 쓴 사람이나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자필로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을 친 재물이지 녹녹한 가산이라고 할수는 없겠지요.

윤장의령감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시방도 가슴이 뭉클하고 그의 선친이 무참히 죽어넘어진 시체허며 곡식이 들이쌓인 로적과 곡간이 불에 활활 타던 광경이 눈앞에 선연히 밟히군 합니다.

잊혀지지도 않는 계유년 삼월 보름날입니다. 이 삼월보름날이 말대가리 윤용규의 바루 제사날이니까요.

온종일 체계돈 받고 내주고 하기와 춘궁에 모여드는 작인들한테 장리벼 내주기와 부친 윤용규의 약시중들기, 이래서 큰 살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의 일례로 두꺼비 윤두섭은―(젊은 날의 윤장의령감 말입

니다.)—밤늦게야 혼곤히 들었던 잠이 안해의 흔들며 깨우는 황급한 속삭임소리에 후덕덕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두번도 아니요 화적을 치르기 이미 수십차라 그는 잠결에도 정신이 들기 전에 육체가 먼저 위급함을 즉각했던것입니다. 장수가 전장에 나가면 진중에서 정신은 잠을 자도 몸은 깨여있다는것이나 마찬가지 리치라 할가요.

실로 그때 당시 윤씨네 집안은 자나깨나 전전긍긍 긴장과 경계속에서 일시라도 몸과 마음을 늦추지 못하고 살얼음을 건너가는것처럼 위태위태 지내던판입니다.

《엉?》

젊은 윤두꺼비는 캄캄 어두운 방안이라도 바깥의 달빛에 희읍스름한 옆문을 향하고 뛰쳐나갈 자세로 고이춤을 걷어잡으면서 몸을 엉거주춤 일으켰습니다. 보이지는 않으나 안해의 당황한 숨결이 바투 들리고 더듬어들어오는 손끝이 바르르 떨리면서 팔에 닿습니다.

《어서! 얼른!》

안해의 떨리는 재촉소리는 마침 대문을 총개머린지 몽둥인지로 찧는 쾅쾅 소리에 삼켜버립니다.

《아버님은?》

윤두꺼비는 뛰쳐나가려고 고누었던 자세와 호흡을 잠간 멈추고서 안해더러 물어보는것입니다.

《몰라요. 그렇지만… 아이구, 어서 얼른!》

안해가 기절할듯이 초조한 소리로 팔을 잡아 흖는 힘이 아니라도 윤두꺼비는 발써 몸을 날려 옆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신발 여부도 없고 버선도 없는 맨발로 과녁 반바탕(활을 쏘아 살이 미치는 거리)은 될 타작마당을 단숨에 달려 두길이나 높은 울타리를 문턱 넘듯 뛰여넘어 길길이 솟은 보리밭고랑으로 몸을 착 엎드리고 꿩기듯 기기 시작하는 그동안이 안해가 흔들어 깨울 때부터 쳐서 겨우 2분도 못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윤두꺼비가 울타리를 넘어… 그리느라고 허리띠를 매지 않은 바지를 건사하지 못해서 홀라당 벗어 떨어뜨린 알몸뚱이로 보리밭고랑에서 엎드려 기기 시작했을 때에 저편 모퉁이로부터 두 그림자가 하나는 멜총을 하고 하나는 몽둥이를 끌고 마침 돌아나왔

습니다.

뒤울타리로 해서 도망가는 사람을 잡으려는 순간인데 윤두꺼비한테는 아슬아슬한 순간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그들도 도망가는 윤두꺼비를 못 보았거니와 윤두꺼비도 물론 그러한 위경이 든줄은 모르고 기기만 하던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눈에 띄였드라면 처음에는 쫓아갈것이고 그러다가 못잡으면 대구 불질을 했을것입니다. 부지깽이같은 그 화승총을 가지고 더구나 호미와 쇠스랑을 다루던 솜씨로 달밤에 달아나는 사람을 쏘았댔자 곧잘 가서 맞힐 리치도 없기야 하지만.

그래 아무튼 발가벗은 윤두꺼비는 무사히 보리밭을 서넛이나 지나 다시 솔숲을 빠져나와 나직한 비탈에 왜송(가지가 많아 다보룩한 어린 솔)이 둘러선 곳에까지 단숨에 달려와서는 비로소 안심과 숨찬걸 못 견디여 펄씬 주저앉았습니다.

화적이 드는 눈치를 채이면 열일 제쳐놓고 집안 돌아볼것없이 몸을 빼서 피하는게 제일 상책입니다. 화적이 인가를 쳐들어와서 잡아 족치는건 그 집 대주(호주)와 셈든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고보면 우선… 위협으로다가 반주검이 되게 뭇매를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얻어맞고도 재물은 재물대로 빼앗겨야 합니다. 그 서슬에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갔다 합니다.

둘이 잡히면 둘이 다, 셋이 잡히면 셋이 다 그 지경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구고 눈치를 채는 당장으로 애비를 념려해서 주춤거리거나 자식을 데리고 뗄려고 지체를 하거나 할거없이 그저 먼저 몸을 피해놓고 보던게 당연한 일로 되여있습니다. 그럴것이 가령 자식이 애비의 위태로움을 알고 그냥 버틴다거나 덤벼든다거나 했자 저편은 수효가 많은데다가 병장기를 가진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새끼 한마리만치도 여기지 않는 패들이니까요.

오늘 밤 윤두꺼비도 일변 몸져누운 부친이 마음에 걸려 선뜻 망설이기는 하면서도 사리가 그렇기때문에 제 몸을 우선 피해놓고 보던것입니다.

말대가리 윤용규는 나이 이미 60에 또 어제까지 등이며 볼기며 모진 매를 맞다가 겨우 옥에서 놓여나온 몸이라 피할 생각은 내지도 못

하고 그대신 침착하게 일어나 앉아 등잔에 불까지 켰습니다.

기위(이미) 당한 일이래서 배심을 내여 악으로 한바탕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화적패들은 그때야 하나가 울타리를 넘어들어와 빗장을 벗기는 대문으로 우 몰려들었습니다.

《개미새끼 하나라도 달아나는 놈 놓치지 말아.》

그중 두목이 대문지키는 두자의 옆으로 삐여져가는 파수들에게 호령을 하는것입니다.

《영 놓치겠거든 대구 쏘아라.》

재우쳐 이른 뒤에 두목이 앞장을 서서 사랑채로 가고 한패는 안으로 갈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도 사납고 짖기를 극성으로 하는 이 집개도 처음부터 끽소리도 못내고 낑낑거리면서 도리여 주인네의 보호를 청하는걸 보면 그야말로 개란 짐승이 령물이라고 할는지요.

《계집이나 어린것들은 손대지 말렷다.》

두목이 잠간 돌아다보면서 다지니까 안으로 들어가던 패가 몇이

《얘ㅡ얘.》

한꺼번에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화적들의 엄한 풍습입니다. 이밤에 이 집을 쳐들어온 이 패들만 보아도 패랭이 쓴 놈, 테머리한 놈, 머리땋은 총각, 늙은이 해서 차림새나 생김새가 가지각색이듯이 모두 잡색인물들이기는 하나 어느때 어대를 쳐서 갖은 참상을 다 일으키드래도 부녀와 어린아이들한테만은 손을 대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 그걸 범했다가는 그의 두목앞에서 목이 달아나고야맙니다.

사랑채로 들어간 두목이 한 수하를 시켜 웃미닫이를 열어제치고 성큼 마루로 올라설 때에 이편을 앙연히 노려보고있는 말대가리 윤용규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 의외의 광경에 두목은 주춤합니다. 그는 윤용규가 이 다급한판에 한발자국이라도 도망질을 치려고 서둘지 이렇게 대담하게 어서 오라는듯이 버티고있을줄은 천만뜻밖이였던것입니다.

더욱 피기없는 수척한 얼굴에 병색을 띠우고서도 일변 악이 잔뜩 올라 이편을 노려보는 머리센 늙은이의 양지(얼굴모양)가 희미한 쇠기름불에 어른거리는 형상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혼백이 나타난듯 찬

바람이 돌았습니다.

두목은 만약 제 등뒤에 수하들이 겨누고있는 10여대의 총부리와 녹쓸었으나마 칼들과 몽둥이들과 도끼들이 없었다면 그는 가슴이 물심물심하여 뒤로 물러섰을는지 모릅니다.

《으응, 너 잘 기대리고있다!》

이윽고 두목은 꺾이려던 기운을 바로잡아 한마디 얼립니다. 실상 이 두목—그러니까 오늘밤 이 패들—과 말대가리 윤용규와는 처음 만난게 아니고 바루 구면입니다. 달포전에 쳐들어와서도 돈 200냥을 빼앗고 그밖에 소 한마리와 패물과 어음(돈 지불을 약속하는 표쪽) 몇쪽을 털어간 그 패들입니다. 그래서 화적패들도 주인을 잘 알려니와 윤용규도 두목의 얼굴만은 익혀 알고있고 그런지라 윤용규는 속으로 겁이 더럭 났으나 이미 피치 못할 살판이어니 옳게 배속으로부터 분노와 악이 치받쳐오르게 되였습니다. 이건 그럴 래력이 단단히 있습니다.

《이놈 윤가야, 들어보아라. …》

두목은 종시 말이 없이 앙연히 앉아있는 윤용규를 마주 노려보면서 찬 음성으로 꾸짖는것입니다.

《…네가 이놈 관가에다가 찔러서 내 수하를 잡히게 했단 말이지? 이놈, 그리구두 네가 성할줄 알었드냐 이놈. 네가 분명 찔렀지?…》

《오냐, 내가 관가에 들어가서 내 입으로 찔렀다. 그래.》

걸걸하게 대답을 하면서 도사리고 앉은 윤용규의 눈에서는 불이 일어나는듯 합니다.

《내가 찔렀으니 어쩔테란 말이냐? 흥! 이놈들 멀쩡하게 도당 모아갖구 댕기면서 량민을 로략질이나 하여먹구, 늬가 그러구두 성할줄 알았더냐? 이놈아!》

윤용규는 치받치는 악에 소리를 버럭 높이면서 다시

《괴수놈, 너두 오래 안 가서 잡힐테니 두구보아라. 네 모가지에 작두날이 내릴 때가 멀지 않으리라, 이놈.》

하고는 부드득 이를 갈아붙입니다.

목전의 사실에 대한 일종의 발악임은 틀림이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변 깊이 생각을 하면 하나의 웅장한 선언일것입니다.

핍박하는자에게 대한 일후의 보복과 승리를 보류하는 자신있는

선언…

사실로 윤용규는 무식하고 소박하나마 시대가 차차로 금권이 우세해감을 막연히 인식을 했던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비단 화적패들에게만 대한 선언인것이 아니라 그 야속하고 토색질을 방자히 하는 수령까지도 넣어 전 압박에게 대고 부르짖는 선언의 포고이였을것입니다.

가령 그자신이 그것을 의식하고 못하고는 고만두고라도… 말입니다.

《이놈들! 밤이 어둡다고 백년 가두 날이 안 샐줄 아느냐? 두구보자, 이놈들!》

윤용규는 련하여 이렇게 살기 등등하니 악을 쓰는것입니다.

《하, 이놈 희떠운 소리 헌다! 허!》

두목이 허퍼서 이렇게 헛웃음을 치는데 웃목에서 이제껏 자고있던 차인군이 그제서야 잠이 깨여 푸시시 일어나다가 한참 두릿거리더니 버얼벌 떨면서 방구석으로 꽁무니걸음을 해 들어갑니다.

마침 또 안으로 들어갔던 패중의 하나가 총끝에 헌 무명바지 하나를 꿰여들고 두목앞으로 나옵니다.

《두령, 자식놈은 풍겼습니다.》

《풍겼다? 그럼 그건 무어란 말이냐?》

《그놈이 울타리를 뛰여넘어가다가 벗어버린 바지올시다. 자다가 허리띠도 못 매구서 달아나느라고 울타리밑에서 홀라당 벗겨졌나 봅니다.》

벌거벗고 도망질을 치는 광경을 련상함인지 몇이 킥킥 하고 소리를 죽여 웃습니다.

《의젓잖은 놈들! 어찌다가 놓친단 말이냐!》

두목은 혀를 차다가 방 웃목에서 떨고있는 차인군을 턱으로 가리킵니다.

《아—니 그런게 아니라 혹시 저놈이 자식놈이 아니냐?》

윤두꺼비는 전번에도 잡히지 않았기때문에 두목은 그의 얼굴을 몰랐던것입니다.

두목의 말을 받아 수하 하나가 기웃이 들여다보더니

《아니올시다. 저놈은 심부름군이올시다.》

합니다.

《응, 그렇다면 헐수 없고 잘 지키기나 허라. 그러고 아직 몽당숟갈 한개라도 손대지 말렷다.》
《예—예, 그런데 술이 좋은 놈 한독이 있습니다. 두목, 닭허구 돼지두 마침 멱을 감었구요.》
전전해에 큰 흉년이 아니라도 화적된자치고 민가를 털제 술이며 고기를 눈여겨보지 않는자 없는 법입니다.
《이놈 윤가야, 오늘 저녁에 네 집에를 온것은…》
두목은 다시 윤용규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을러멥니다.
《네놈의 재물보담도 네가 쓸데가 있어서 온것이다. 어쩔테냐? 내말을 순순히 들을테냐? 안 들을테냐?》
윤용규는 두목을 마주 거들떠 보고있다가 말이 끝나자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어쩔테냐? 말을 못 듣겠단 말이지?》
《불한당놈의 말을 들을수 없다. 내가 생각하면 네놈들을 갈아먹고싶은데 게다 청을 들어. 흥!》
윤용규는 그새 여러해 두고 화적을 치러내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그들앞에서 서얼설 기고 《네—네, 살려줍시사.》고 굽신거리나 마주대구 네놈네놈하면서 버티거나 필경 매를 맞고 재물을 빼앗기기는 일반이던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당하는 마당에 그처럼 굽실거릴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을뿐아니라 일변 이 패에게는 그야말로 갈아먹고싶은 원혐(원망과 혐의)이 또한 없지 않습니다.
달포전 이 패에게 로략질을 당하던 날 밤 그중에 하나 잘 알수 있는자가 섞여있는것을 윤용규는 보아두었습니다. 그자는 박가라는 머지않은 근동에서 사는 바루 그의 작인이였습니다.
《오— 이놈, 네가!》
윤용규는 제자신이 작인에게 어떠한 원한을 받을짓을 해왔는가 하는것은 경위에 칠줄은 모릅니다. 다만 내 땅을 붙여먹고 사는 놈이 이 도당에 참네를 하다니 눈에서 불이 나고 가슴이 터질듯 분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윤용규는 손수 읍으로 달려들어가 당시 그 고을 원이요 수차 토색질을 당한 덕에 안면(?)은 있는 백영규더러 사분(사사로운 분노)이 이만저만 하고 이러저러한데 그중에 박아무개라는 놈도

섞여있다고 그러니 그놈만 잡아들이면 그 일당을 다 잡을수도 있으리라고 아뢰바쳤습니다.

그런데 백영규는 말대가리 윤용규보다 수가 한벌 우수였습니다.

그는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더니 아 그러냐, 그러면 박가라는지 그놈을 잡아오기는 올것이로되 그러나 화적패에 투신한 놈을 그처럼 잘 안다니 윤용규 너도 좀 의심쩍어 그러니 같이 문초를 해야 하겠은즉 그리 알아라고 우선 윤용규부터 때려두었습니다.

역은 수령이 백성의 재물을 먹자고 트집을 잡는데 무슨 사리와 경우가 있나요. 루이 14세인지 하는 서양임금은 《짐이 바루 국가》라고 호통을 했고 어느 종실 세도 한사람은 참새가 찍 한다고 해도 죽이고 짹 한다고 해도 죽이고 필경 찍짹합니다 해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일읍의 수령이면 그 고장에서는 왕이요 그의 덮어놓고 하는 공사는 바루 법과 다름이 없었을것입니다.

그래 말대가리 윤용규는 혹을 또 한개 덜렁 붙이고서 옥에 갇히고 박가도 그날로 잡혀들어왔습니다.

문초는 그러나 각각 달랐습니다.

박가더러는 그들 일당의 성명과 구혈(소굴)과 두목을 대라고 족쳤습니다.

박가는 제가 그 도당에 참녜한것은 활활 불었어도 그외것은 입을 꽉 다물고서 실토를 않습니다. 주리를 틀려 앞정갱이의 살이 문드러어지고 허연 뼈가 삐여져도 그는 불지를 않습니다.

한편 윤용규더러는 네가 도당과 기맥을 통하고있고 그 패들에게 재물과 주식을 대접했다는걸 자백하라고 문초를 합니다. 박가의 실토를 들으면 과시 네가 적당과 련맥이 있다고 하니 정 자백을 안하면 않는대로 그냥 감영으로 넘겨 목을 베이게 하겠다는것입니다.

이것이 좀 먹자는 수작인것은 두말할것 없습니다.

누가 이러라 저러라 시킬것도 없고 벌써 줄맞은 병정이 되여서 젊은 윤두꺼비는 뒤줄로 뢰물을 쓰느라고 침식을 잊고 분주했습니다.

500냥씩 두번 해서 천냥은 수령 백영규가 고스란히 먹고 또 천냥은 리방이야, 호장이야, 형장이야, 옥사정이야, 사령이야, 심지어 통인 급창에게까지 골고루 풀어 먹이느라고 들었습니다.

그처럼 2천냥 돈을 들이고서야 어제 아침 달포만에 말대가리 윤용규는 장독(매를 몹시 맞아 생긴 독)으로 꼼짝 못하는 몸이 보교에 실려 옥으로부터 집으로 놓여나왔던것입니다.

사맥이 이렇게 되였으니 윤용규로 앉아본다면 수령 백영규한테 원한이 더 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한이 깊었자 저편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할 수령이라 자연 애초에 일을 저지르게 한 화적패가 원망스러웠고 그런끝인데 마침 그 도당이 또다시 달려들어서는 이러니저러니 하니까 그야말로 갈아서 먹고싶을것은 인간의 옹색한 속이 아니고라도 당연한 근경이라 하겠지요.

그런데 일은 피장파장이여서 화적패도 또한 말대가리 윤용규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동료 박가를 찔러서 잡히게 했다는것입니다.

박가가 잡혀가서 그 모진 혹형을 당하면서도 구혈이나 도장(도당의 우두머리)의 성명을 불지 않은것은 불행중 다행입니다. 그러니 그런만큼 의리가 가슴에 사무치지 않을수가 없었던것입니다.

그래 윤용규한테 대한 원한은 우선 접어놓고 어데 일을 좀 무사히 펴이게 하도록 해볼가 하는것이 그들의 첫꾀였습니다. 만약 그런 꾀가 아니라면야 들어서던 길로 직닥직닥 해버리고 돌아섰을것이지요.

두목은 용규가 전번과는 달리 악이 올라가지고 처음부터 발딱거리고 급기야 말을 못 듣겠노라고 버티는데 버럭 화가 치밀어오르고말았습니다.

《진정이냐?》

그는 눈을 부라리면서 딱 을러멥니다. 그러나 윤용규는 종시 까딱않고 대답입니다.

《다시 더 물을것 없느니라.》

《너 그리 고집을 세우지 말어라.》

두목은 잠간 씩씩거리면서 노리고 보다가 음성을 누쳐 타이르듯 합니다.

《…그러다가는 네게 리로울게 없다. 그러니 잔말 말구 네가 뒤루 나서서 3천냥만 뢰물을 써라. 너두 뢰물을 쓰구 뇌여나왔지? 그럴테면 네가 옭아넣은 내 수하도 풀어놓아주어야 옳을게 아니냐? 허기야 너를 시키지 않고서 내가 내 손으로 험직한 일이기는 허지만 나는 당장 3천냥이 없고 그걸 장만하자면 너같은 놈 열놈의 집은 더 털어야

할테니 시급스럽게 안될 말이고 또 내가 나서서 뢰물을 쓰다가는 됩다 위태할것이고 허니 불가불 일은 네가 할수밖에 없다. 허되 급히 서둘러야지 며칠 안있으면 감영으로 넘긴다는구나.》

두목은 끝에 가서는 거의 사정하듯 목마른 소리로 말을 맺고서 윤용규의 대답을 기대립니다.

윤용규는 싸늘하게 외면을 하고 앉아서 두목이 씨알거리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체 합니다.

《어쩔테냐? 한다든 못한다든 대답을…》

두목은 맥이 풀리는 대신 다시 울화가 치받쳐 버럭 소리를 지르다가 말고 입술을 부르르 떱니다.

《못한다…》

윤용규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네놈들이 다 잡혀가서 목이 쓸리기를 축원하고있는 내가 됩다 한놈이라두 뇌여나오라구 내 재물을 들여서 뢰물을 써? 흥! 하늘이 무너져두 못한다.》

《진정이냐?》

《오—냐.》

윤용규는 아주 각오를 했습니다. 행악은 어차피 당해둔것, 또 재물도 약간 뺏겨는 둔것, 그렇다고 저이가 내 땅에다가 네귀때기에 말뚝을 박고 땅을 떠가지는 못할것이니까 저이의 청을 들어 3천냥을 들여서 박가를 떼놓아주는이보다는 월등 낫겠다고 이렇게 리해를 따진 끝에 각오했던것입니다.

《진정?》

두목은 한번 더 힘을 주어 다짐니다.

《오—냐, 날 죽이기밖에 더할테냐?》

《저놈 잡어내랏!》

윤용규의 말이 미처 떨어지기도 전에 두목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호령을 합니다.

여나문 모여섰던 수하들중에 서넛이 우르르 방으로 몰려들어가더니 윤용규를 잡아끕니다. 그러자 안채로 난 뒤문이 와락 열리더니 흰머리채를 풀어흐트린 윤용규의 로처가 아이구머니 이를 어쩌느냐고 울어웨치면서 달려들어 붙들고 매달립니다.

화적패들은 윤용규를 앞뒤에서 끌고 떠밀고 하고 윤용규는 안 나가려고 버둥대면서도 그래도 할수없이 문께로 밀려갑니다. 마침 그때 부스대는 윤용규의 손에 총대 하나가 잡혔습니다. 총대를 훑으며 쥐인 그는 장독으로 고통을 겪는 60객답지 않게 불끈 기운을 내서 총대를 가루로 빗장대듯 문지방에다가 밀어대면서 발로 문턱을 디디고 꽉 버팁니다. 이러고있으니까는 아무리 상투를 잡아끌고 몽둥이로 등을 치고 해도 으응 소리만 치지 꿈쩍않고 그대루 버팁니다. 두령이 그걸 보다못하여 옆에 선 수하의 몽둥이를 채여가지고 윤용규가 총대에다가 버틴 바른편팔을 겨누어 으깨여지라고 내리칩니다. 그러나 상거(서로 떨어져있는 거리)는 밭고 또 문지방이며 수하의 어깨하며 거리적거리는게 많아 겨냥은 삐뚤어졌습니다.

《딱.》

옆으로 이마를 바스러지게 얻어맞은 윤용규는 《어이쿠우!》 소리와 한가지로 피를 좌르르 흘리고 주저앉습니다.

그러자 윤용규의 로처가

《아이구, 인제는 사람까지 죽이는구나! 나두 죽여라, 이놈들!》

웨치면서 어느결에 옆에 달려들었는지 두목의 팔을 물고 늘어집니다.

윤용규는 주저앉은채 정신이 아찔하다가 번쩍 깨여났습니다.

그는 화적패들이 무슨 내평으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지 그건 몰라도 아무러나 리롭지 못할것 같아 되나 안되나 버티여보았던것인데 한번 얻어맞은 정신에 오리소리만침 그의 안해가 웨장을 치는

《인제는 사람까지 죽이는구나.》

이 소리는 정말로 죽음이 박두한줄로만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옳게 맞아죽는구나. 그렇다면 죽어도 그냥은 안 죽는다. 이렇게 악이 북받치자 그는 벌떡 일어서면서 눈앞에 보이는대루 칼 하나를 채여가지고는 마구대구 휘저었습니다.

더우기 눈이 뒤집히기는 아무리 화적이라도 하지 않던 짓인데 녀인을, 하물며 늙은 녀인을 치는걸 본것입니다. 그는 그의 안해가 두목의 팔을 물고 늘어진줄은 몰랐고 다만 두목이 그의 머리끄뎅이를 쳐서 물린 팔을 뽑는 그 광경만 보았던것입니다.

아무리 죽을줄 모르고 악이 받쳐 칼을 휘두른다지만 죽어죽어가는 늙은인걸 십여개나 덤비는 총개머리야, 몽둥이야, 칼이야, 도끼야

를 당해낼수야 있겠습니까.

윤용규가 마지막 목덜미에 도끼를 맞고 어푸러지자 피를 본 두목은 두눈이 불덩이같이 벌컥 뒤집혀졌습니다. 그는 실상 윤용규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윤용규 하나쯤 죽이기를 차마 못해서 그런것은 아니고 제 구혈로 잡아가잿던것입니다. 한때 만주에서 마적들이 하던 그짓이지요. 빌미로 잡아다 두고서 가족들로 하여금 이편의 청을 듣게 하려든것입니다.

《로적하구 곡간에다가 × 질러랏!》

두목은 뒤집힌 눈으로 피투성이가 되여 쓰러진 윤용규를 노려보다가 수하를 호통하는것입니다.

이윽고 로적과 곡간에서 하늘을 찌를듯 불길이 솟아오르고 동리사람들이 그제서야 여나문 모여들어 쓸데없이 물을 끼얹고 하는판에 벌거벗은 윤두꺼비가 들어왔습니다. 화적은 물론 벌써 물러갔고요.

윤두꺼비는 피에 물들어 참혹히 죽어넘어진 부친의 시체를 안고 땅을 치면서

《이놈의 세상이 언제나 망하려느냐!》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진정하고는 불끈 일어서더니 이를 부득 갈면서

《오—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또한 웅장한 절규이였습니다.

윤장의령감이 젊은 윤두꺼비적에 겪은 재난의 한토막이 대개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격난과 풍파속에서 모아 마침내는 피까지 적신 재물이니 그런 일을 생각해서라도 오늘날 윤장의령감이 부질없는 돈이면 단 한푼을 쓰재도 벌벌 떠는거야 일변 정상이 그럴듯하지 않은것은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데 무얼 어떻게 해서 모았다는거야 윤장의령감으로는 상관할배 있나요! 사실 ××(착취)라는 문자를 갖다붙이려 하면 윤장의령감은 거 웬소리냐고 훌훌 뛸겝니다.

다 내가 부지런하고 또 시운이 뻗쳐서 부자가 되였지 작인이며 체계돈 쓰는 사람들이며 장리벼 얻어다먹은 사람이며가 무슨 관계가 있는건가 말입니다.

《빠스튜》 함락과는 항렬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튼 윤장의령감은 그처럼 육친의 피로써 물들인 재산더미우에 올라앉아 옛날 그다지도 수난많던 시절과는 딴판이요, 도무지 태평한 이 시절은 생각하면 안심되고 만족한 웃음이 절로 솟아날 때가 많습니다.
말을 타면 견마도 잡히고싶은게 인정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소란한 세상이 지나가고 재산과 몸이 안전한 세태를 당하자 윤두꺼비는 돈으로는 남 부러울게 없어도 문벌이 변변찮은게 섭섭한걸 비로소 느끼게 되였습니다.
하기야 중년에 또다시 《양복청년》 혹은 《××(권총)청년》이라는것때문에 가끔 혼땜이 나군 하지 않는것은 아니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미, 경신 바루 경신년 섣달입니다. 논이 마침 욕심나는게 한 5천평 수중에 들어오게 되여서 그 땅값을 치르려고 돈 4천원을 집에다가 두어두고 땅 팔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게 귀신이 곡을 할 일이라고 윤두꺼비는 두구두구 기막혀했었지마는 그걸 어떻게 렴탐했는지 벌건 대낮에 쑥 빠진 양복쟁이들이 들어덤벼가지고 그 돈 4천원을 달칵 빼앗아갔답니다.
뭐 꿀꺽소리 못하고 내받쳤지요. 고놈 싸—늘한 쇠끝에 새까만 구멍이 똑바루 가슴패기를 겨누고서 코앞에다가 들여대인걸요, 염라대왕이 지켜선 맥이지요.
옛날 화적들은 밤중에나 들어와서 대문이나 짓바수구 하지요. 그덕에 잘하면 도망이나 할수 있지요.
헌데 이건 바루 대낮에 귀한 손님 대령하듯이 어엿이 찾아와서는 하는짓이 그짓이니 꼼짝인들 할수가 있나요.
그래 돈 4천원을 도무지 허망하게 내여주고는 윤두꺼비는 망연자실해서 우두커니 한식경이나 앉었다가 비로소 방바닥에 떨어진 종이장으로 눈이 갔습니다. 돈을 받었다는 표를 써놓고 간것입니다.
《허—세상이 개명하닝게루 불한당놈들두 개명을 한다. 령수증써주구 돈 뺏어간다?》
윤두꺼비는 빼앗긴 돈 4천원이 아까와서 꼬박 이틀동안 그리고 세상이 또다시 옛날 화적이 나던 그런 시절이나 되고보면 그 일을 장차 어찌하나 하는 걱정으로 꼬박 나흘동안 도합 엿새를 두고 밥맛과 단

잠을 잃었습니다.
그런 뒤로도 다시 두어번이나 그런 긴찮은 손님네를 치렀습니다. 돈은 그러나 한푼도 뺏기지 않었습니다.
처음 겪은 일로 미루어 그뒤부터는 단돈 10원도 집에다가 두어두지를 않었으니까요.
시골서 돈을 많이 가지고 살면 여러가지 공과금(관청에서 매긴 세금)이야, 기부금이야, 또 가난한 일가푸네기들한테 뜯기는것이야 그런것때문에 성가시기도 하고 또 양복입은 그런 나그네가 종시 마음놓이지 않기도 하고 해서 윤두꺼비는 마침내 가권을 거느리고 서울로 이사를 했던것입니다.

윤두꺼비가 세상이 편안한 뒤엔 집안의 문벌 없음을 섭섭해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또 왼골로 삐여져나갔습니다. 인제 다시 본줄기로 들어가지요. 윤두꺼비는 가문을 빛나게 할 필생의 사업으로 네가지 방책을 추렸습니다.
맨 처음 윤두꺼비는 족보에다가 도금을 했습니다. 그럼직한 일가들을 추겨가지고 보소(족보를 만들기 위하여 림시로 설치한 사무소)를 내놓고는 윤두꺼비 제 몇대 윤아무개는 무슨 정승이요, 제 몇대 윤아무개는 무슨 판서요, 제 몇대 아무개는 효자요, 제 몇대 아무 부인은 렬녀요, 이렇게 그럴사하니 족보를 새로 꾸몄습니다.
땅짚고 헤염치기지요. 그러느라고 한 2천원 좋이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이 수낮은 만큼 그러한 족보도금이야 조상치레나 되였지 그리 신통할게 없었습니다.
아무데 내놓아도 말대가리 윤용규 자식 윤두꺼비요 노름군 윤용규 자식 윤두꺼비인걸요.
신씨성가진 친구를 잰내비라고 육장 골려주면 그래 그러던 끝에 신씨가 동물원에 가서 잰내비를 보면 어찌 생각이 이상하지 않고 내가 정말 잰내비거니 여겨지는 수가 있답니다.
그 푼수로 누구 사음(마름)이나 한자리 언어할양으로 보비위(남의 비위를 잘 맞추어줌)나 해주려는 사람이 윤두꺼비네 신완족보를 외워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몇번씩, 윤정승 아무개씨의 제 몇대손 윤두꺼비씨, 윤판서 아무개씨의 제 몇대손 윤두꺼비씨, 이렇게 대구 불러

주었으면 가족보나마 저으기 실감이 나서 듣는 당자도 좋아하고 하겠지만 어데 그런 령리하고도 실없는 사람이야 있나요. 혹시 작곡을 해가지고 그놈을 시체 류행가수를 시켜 소리판에다가 넣어서 육장 틀어넣고 듣는다면 또 모르지마는.

족보는 아무튼 그래서 득실이 상반이였고(얻음과 잃음이 서로 어슷비슷함), 그다음은 윤두꺼비 자신이 장의를 한것입니다.

시골은 향교라는게 있어서 공자님, 맹자님을 비롯하여 옛날 상국의 여러 성현을 모시는 공청이 있습니다.

춘추로 소를 잡고 도야지를 잡고 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지요. 돌이켜보면 그게 바루 학교드랍니다.

이 향교의 맨 우두머리가는 어른을 장의라고 합니다.

장의를 옛날에는 그 골에서 학문과 덕망이 높은 선비가 여러 사람의 촉망으로 뽑혀서 지내군 했다는데 근년 학교의 재정이며 모든 범백(가지가지의 모든것)을 맡어보게 된 뒤로부터는 전과 다른가 봅니다.

직원이라고 바루 장의 아래가는 역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음이며 농토 같은것을 줄수 있는 다액납세자(많은 액수의 세금을 무는 사람)라면 장의를 하기가 수월한 모양입니다.

윤두꺼비로서야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해서 량반이 되겠습니까? 릉참봉을 하겠습니까? 아쉰대로 향교의 장의가 만만했겠지요.

그래 그는 장의가 되였습니다. 그래서 윤두꺼비 서자우에 무어나 직함 붙기를 자타가 갈망하던 끝이라 윤두꺼비는 넙죽 뛰여 《윤장의령감》이 되였든것입니다.

그뒤로 3년동안 윤두꺼비, 아차 윤장의령감은 장의로 지내면서 춘추 두차례씩 향교에 올라가

《홍—》

《바이—》

소리에 맞추어 누가 기운이 더 세였든지 모르는 공자님과 맹자님을 비롯하여 여러 성현께 절을 하는 선비노릇을 착실히 했습니다.

공자님과 맹자님이 누가 기운이 더 세였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윤장의령감이 창조해낸 억만고의 수수께끼랍니다.

다른게아니라 어느해 여름인데 윤장의령감이 향교에를 척 올라오더니 마침 풍얼을 하느라고 홍얼홍얼 하고 앉었는 여러 직원들더러 밑

도 끝도 없이
《대체 거 공자님허구 맹자님허구 팔씨름을 하였으면 누가 이겼을고?》
이렇게 물었드랍니다.
직원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분간을 못해서 입만 떠억 벌렸고 아무도 윤장의령감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3년동안 장의를 지내다가 서울로 이사를 해오는 계제에 그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장의라는 영광스러운 직함은 공자님과 맹자님이 팔씨름을 했으면 누가 이겼을가? 하는 수수께끼로 더불어 영원히 쳐주었습니다.
그다음 윤장의령감이 집안 문벌을 닦는데 또 한가지의 방책은 무어냐 하면 량반혼인이라는 좀더 빛나는 사업이였습니다.
외아들(서자 하나가 있기는 하니까 외아들이랄수는 없지만) 창식이는 나이 근 50이요 벌써 옛날에 시골서 아전집과 혼인을 했던터이라 치지도외(내버려두고 문제로 삼지 않음) 하고 딸은 서울 어느 량반집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오막살이에 가랭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인데 그나마 방정맞게시리 혼인한지 일년만에 사위가 전차에 치워죽고 딸은 새파란 과부가 되여 지금은 친정살이를 하고있지만 아무러나 량반혼인은 량반혼인입니다.
또 맏손주며느리는 충청도의 박씨문중에서 얻어왔습니다. 역시 친정은 가난은 해도 패를 찬 량반의 씹니다.
둘째손주며느리는 서울태생인데 시구문밖 조씨집안이나 그렇다고 배추장수네 딸은 아니고 파계를 따지면 조대비와 서른일곱촌인지 아홉촌인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버젓하게 량반사둔을 세집이나 두게 된것은 윤장의령감으로 가히 한바탕 큰기침을 할만도 합니다.
다시 그다음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가장 요긴하고 값나가는 품목입니다.
집안에서 정말로 권세있고 실속있는 량반을 내놓자는것입니다.
군수와 경찰서장 하나…
게다가 마침 맞게 손자가 둘이지요.
허기야 군수보다는 도장관(도지사)이 좋겠고 경찰서장보다는 경

찰부장이 좋기는 하겠지만 그건 너무 첫술에 배부르자는 욕심이라 해서 알맞게 우선 군수와 경찰서장을 양성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인즉 이 가장 요긴한 품목이 어쩌면 헤룽데룽 하는것 같아 윤장의령감은 늘 불안과 초조가 없지 못합니다.

5. 마음의 빈민굴

윤장의령감은 시방 부민관의 명창대회로부터 돌아와서 대문안에 들어서던 길로 이 분풀이, 저 화풀이를 한데 얹어 그 알뜰한 삼남이녀석을 데리고 며느리 고씨더러 짝 찢을 년이니 오두가 나서 그러느니 한바탕 귀먹은 욕을 걸직하게 해주고나서야 저으기 직성이 풀려 마침 또 시장도 한판이라 의관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래목으로 펴놓은 돗자리우에 방안이 온통 그들먹하게시리 발을 개키고 앉아있는 윤장의령감앞에다가 올망졸망 사기반상기가 그득 박힌 저녁상을 조심스러이 갖다놓는게 둘째손주며느리 조씹니다. 지금 경찰서장감으로 동경가서 어느 사립대학의 법과에 다니는 종학의 댁입니다.

서울태생이요 조대비의 서른일곱촌인지 아홉촌인지 되는 량반집 규수요, 시구문밖이 친정이기는 하지만 배추장수 딸은 아니라도 학교라고는 근처에도 못 가보았고 얼굴은 얇디얇은 납작바탕에 주근깨 다닥다닥 박혀서 그리 출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중에도 제일 안된건 잡아늘궈놓은듯이 뚜욱하니 나온 우아래 입술입니다. 이 쑤욱 나온 입술로 그 값을 하느라고 그러는지 새수빠진 소리를 잘합니다. 새서방 종학이한테 눈밖에 나서 소박을 받는것도 죄의 절반은 그 입술과 새수빠진 소리 잘하는것일겝니다.

혼인한지 이태만에 경히라는 딸을 낳아서 지금 그 애가 살았으면 여섯살인데 그뒤로는 반뜻 생과붑니다. 종학이는 동경으로 류학을 가면서부터는 아주 털어내놓고서 리혼을 해달라고 중창치듯 편지로 집안어른들을 졸라대지만 윤장의령감으로 앉아서 본다면 천하 불칙한 놈의 소리지요.

아무튼 그래서 생과부 하나.

밥상이 들어오는 뒤를 따라 쟁반에다가 양은주전자에 술잔을 들고 들어서는게 맏손주며느리 박씹니다.

이 집안의 업 덩어립니다. 얌전하고 바지런해서 그 크나큰 안살림을 곧잘 휘여나가고 게다가 시할아버지의 보비위까지 잘하니 더할나위 없답니다.

인물도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눈이 시원스럽게 생겨서 올해 나이 서른이로되 되려 스물다섯살 먹은 동서보다 젊어보입니다.

다만 한가지 맏아들 경손이가 금년 열다섯살인걸 아직도 아우를 못보는게 흠이라면 흠이라고 하겠지만 허기야 손이 귀한건 이 집안의 내력이니까요.

헌데 이 부인 역시 신세가 고단한편입니다. 무슨 소박이니 공방이니 하는 문자까지 갖다가 붙일 며리는 없어도 남편이요, 이 집안의 장손인 종수가 시골로 내려가서 첩살림을 하기때문에 할수없이 생과부축에 끼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종수는 윤장의령감의 가문 빛내이기 위한 네가지 사업가운데 군수와 경찰서장을 만들어내려는 품목중에 편입된 군수감입니다. 그래 5～6년전부터 고향의 군에서 군서기노릇을 하느라고 서울서 따들인 기생첩을 데리고 치가를 하는 참이랍니다.

이래서 생과부가 둘—

맏손주며느리 박씨가 들고 들어오는 술반을 받아가지고 웃목 화로옆으로 다가앉아 술을 데우는게 윤장의령감의 딸 《서울아씨》라는 진짜과부입니다. 왜 요전번에 량반혼인을 하느라고 서울 어느 가랭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갔다가 새서방이 1년만에 전차에 치워죽어서 과부가 되였다는 이야기한 그 딸입니다.

이마가 좁고 량미간이 넓고 코잔등은 푹신 가라앉고 온 얼굴에 주근깨를 끼얹어놓고 목이 움츠러지고 이런 생김새가 아닌게아니라 청승맞게는 생겼습니다.

《네가 속알머리가 고따우로 생겼으니께루 너 나이에 서방을 잡아먹었지!》

윤장의령감은 딸더러 이렇게 미운 소리를 곧잘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면 속알머리뿐아니라 생김새도 그렇게 생겨먹었느니라고 의례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젊은 과부다운 오뇌(뉘우쳐 한탄하고 번뇌함)는 없지 않지만 자라기를 호강으로 자랐고 또 인해 포태도 해보지 못했기때문에 스물여덟이라는 제 나이보다 훨씬 애티이기는 합니다.

이래서 생과부 통과부 다 합하니 과부가 셋—

그러나 과부가 셋뿐인게 아닙니다.

시방 건넌방에서 잔뜩 도사리고앉아 무어라고 트집거리가 생기기만 하면 시아버지 되는 윤장의령감과 한바탕 맞다대기를 할양으로 벼르고있는 이 집의 맏며느리 고씨, 이 부인 또한 생과부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안중문께로 나갔다가 마침 윤장의령감이 삼남이녀석을 데리고 서서 며느리 고씨더러 군욕질을 하는것을 듣고 들어와서 그놈을 댓발이나 더 잡아늘여 고씨한테 일러바친 침모 《전주댁》—이 부인이 진짜 과붑니다. 남의 집 식모나 침모는 말 잘하기로 그런 팔자를 타고난 모양이지요?

이래 이 집안에 과부가 도통 다섯입니다. 도통이고 무엇이고 명색 녀인네치고는 행랑어멈과 종년 사월이만 빼놓고는 죄다 과부니 계산이야 순편합니다.

그래 이렇게 생과부 통과부 떼과부로 과부모를 부어놓았으니 꽃모종이나 같았으면 춘삼월 제 철을 기다려 이웃집에 갈라주기나 하지요. 이건 모는 부어놓고도 모종으로 갈라줄수도 없는 인간 모종이니 딱한 노릇입니다.

밥상을 받은 윤장의령감은 방안을 한바퀴 휘휘 둘러보더니

《태식이는 어디 갔느냐?》

하고 누구한테라 없이 띄여놓고 묻습니다. 윤장의령감이 사람생긴것치고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하는게 누구냐 하면 시방 어데 갔느냐고 찾는 태식입니다.

지금 열다섯살이고 나이로는 증손주 경선이와 동갑이지만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본실 소생은 아니고 시골서 술에미를 상관한것이 그것 하나 보았든것입니다.

배야 뉘 배를 빌려 생겨났든간에 환갑이 가까워서 본 막낭둥이니 아버지로 앉아서야 이뻐할건 당연한노릇이겠지요. 하물며 낳은지 삼칠일(아이를 낳은지 3주가 지난 스무하루째의 날)만에 에미한테서 데려다가 유모를 두고 집안의 뭇눈치속에서 길러낸 천덕꾸러기이니 여

느 자식보다 불쌍히 여겨서라도 한결 더 귀여워할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윤장의령감은 밥을 먹어도 꼭 태식이를 데리고 같이 먹군 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마침 눈에 띄지를 않으니까 숟갈도 들려고 않고서 그 애를 먼점 찾는것입니다.
웃목께로 공손히 서서있던 두 손주며느리는 이거 또 걱정을 한바탕 단단히 들어두었나부다고 민망해하는 기색만 얼굴에 드러내고있는데 서울아씨는 친정아버지의 성화쯤 그대지 겁나지 않는지라.
《방금 마당에서 놀았는걸—》
이렇게 심상히 대답을 하면서 술주전자를 들고 밥상옆으로 내려옵니다.
《방금 있었넌데 어디루 갔단 말이냐? 눈에 안 뵈거들랑 늬가 잘 통촉히여서 찾어보구 그래야지.》
아니나다를가 윤장의령감은 딸더러 하는 소리는 소리지만 온 집안식구를 한데다 대고 나무람을 하는것입니다.
《통촉이구 무엇이구 제멋대루 나가 돌아다니는걸 어떻게 일일이 참견허라구 그러시우. 인제는 나이 열다섯살이나 먹었으니 아버지두 제발 얼뚱애기 거천허듯이 그러시지 좀 마시우.》
《흥! 그렇게라두 내가 안돌아부아 부아라? 늬들이 작히 그걸 불쌍히 여겨서 조석이라두 제때 챙겨먹이구 헐듯싶으냐?》
《아버지가 너무 역성이나 드시구 떠받어주시구 그러기때문에 집안식구는 모른체 한다우.》
《말은 잘헌다— 인제 나 하나 발 뻗어보아라. 그것이 바가지 들구 고살담박질 헐테닝개.》
《제 목으로 천석거리나 전장해 주실테면서 그러시우? 천석군이가 비렁뱅이 되면 사백석거리밖에 못탄 저는 비렁뱅이 하길 가겠수—》
서자요 병신인 태식이한테는 천석거리를 묶지어놓고 서울아씨 제한테는 사백석거리밖에 주지 않었대서 짐짓 그렇게 물고 뜯는 속입니다. 서울아씨로는 육장 계제만 있으면 내놓는 새살이지요.
이렇게 부녀가 트작타작 하려고 하는판인데 방 우 미닫이가 사르르 열리더니 문제의 장본인인 태식이가 가만히 고개를 들여밀고는 방안을 휘휘 둘러봅니다. 그리다가 윤장의령감이 척 눈에 띄이니까 마구 천둥한것처럼 뛰여들어 윤장의령감의 커다란 무릎우에 펄신

주저앉습니다. 그 서슬에 서울아씨는 손에 들고있던 술주전자를 채이고서 이마살을 찌프리고 윤장의령감은 턱을 치받치였으나 헤벌심하니 웃으면서

《허허, 이자식이 원!》

가엾다고 정수리를 만져줍니다.

아이가 사랑방에 있는 상노아이놈 삼남이와 동기간이랬으면 꼭 맞게 생겼습니다.

열다섯살이라면서 몸뚱이는 네댓살배기만큼도 발육이 안되고 그렇게 가냘핀 몸우에 가서 큼직한 머리가 올라앉은게 할일없이 콩나물 같습니다.

《이자식아, 좀 죄용죄용하지 못하구 그게 무슨놈의 시선이냐. 응? 이 코, 이 코 좀 보아라.》

아닌게아니라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두코구멍에서 엿가래같은 누―런 코줄기가 이건 바루 피스톤처럼 바쁘게 들락날락 합니다.

《코가 나오거들랑 풀던지 좀 씻어달라구 허든지 않구서 이게 무어란 말이냐? 응, 태식아.》

윤장의령감은 힐끔 딸과 손주며느리들을 건너다보면서 손수 두손가락으로 태식이의 코가래를 잡아 뽑아줍니다. 맏손주며느리가 재치있게 걸레를 집어들고 옆으로 대령을 합니다.

《앱배.》

태식이는 코를 풀리고나서 고개를 되돌리고 《아빠》를 부릅니다.

《오―냐.》

《나―된.》

돈이란 말인데 어리광으로 입을 가로비끼고 말을 하니까 《된》이 됩니다.

《돈? 돈은 또 무엇하게? 아까 점심때두 주었지? 그놈은 갖다 무엇하였간듸?》

《아탕 사먹었지.》

《밤낮 그렇게 사탕만 사먹어?》

《나 돈 주엉.》

《그리라, 그렇지만 이놈은 잘 두었다가 래일 사먹어라. 응?》

《웅.》

윤장의령감이 염낭에서 10전백이 한푼을 꺼내주니까 아이는 히히하고 그의 독특한 기성(기묘한 소리)을 지르면서 무릎으로부터 밥상앞으로 내려앉습니다.
윤장의령감은 이렇게 한바탕 막내둥이의 재롱을 보고나서야 서울아씨가 부어주는 석잔 반주를 받아마십니다. 그동안에 태식이는 씨근버근 넘싯거리면서 밥상에 있는 반찬들을 손가락으로 거덤거덤 집어다 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집어다 먹고는 옷에다가 손을 쓱쓱 씻고 집어오다가 질질 흘리고 해도 서울아씨는 아버지앞에서라 지천은 차마 못하고 혼자 이마살만 찌프립니다.
반주 석잔이 끝난 뒤에 윤장의령감은 비로소 금으로 봉을 박은 은숟갈을 뽑아들고 밥을 뜨려다가 문득 고개를 쳐들더니 심상찮게 두 손주며느리를 건너다 봅니다.
《아—니, 야덜아.》
이렇게 내놓는 말조가 과연 조련찮습니다.
《늬들 왜 내가 시키넌대루 않냐? 응?》
두 손주며느리는 발써 건의를 채고서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윤장의령감은 밥이 새하얀 쌀밥인걸 보고서 보리를 두지 않았다고 그걸 성화하는것입니다.
《보리 발써 다 먹었냐?》
《아직 있어요.》
맏손주며느리가 겨우 대답을 합니다.
《웬걸 아직 있을테지, 그런듸 그러면 왜 이렇게 맨쌀만 하여먹나? 응?》
조져(조지다—일이나 말을 되게 단속함) 도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허는 말은 동네 개짖는 소리만두 못 여기는구나? 어째서 보리는 조금씩 넣어먹으라는데 죽어라구 안 듣구서 이렇게 허—연 쌀밥만 삶아먹으려드나?》
《궁상스런 소리 그만 허시우.》
서울아씨가 듣다못해 아버지를 핀잔을 주는것입니다.
《쌀밥 좀 먹기루니 만석군의 집안이 당장 망헐가봐서 그러시우? 마침 보리쌀을 삶았던게 없어서 그랬대요. 그만해두시구 어서 진지나 잡수시우.》

《아아니 보리쌀은 삶잖구 그냥 놓아두면 뭐 제절루 삶아진다더냐? 삶은 놈이 없거든 더 요량을 하여서 미리미리 조금씩 삶아두구 끼니때면 놓아먹어야지 그게 늬덜이 모다 호강스러워서 보리밥이 먹기 싫으냥게루 핑계대는 소리다. 핑계대넌 소리여. 공동묘지를 가부아라. 핑게없넌 무덤 하나나 있데냐?》

윤장의령감은 아까운듯이 밥을 한술 떠넣고 씹으면서 생각하니 더욱 아깝던지 다시 되뇌입니다. 제자신이 부연 쌀밥만 먹기가 아깝거든 이 아까운 쌀밥을 온 집안식구와 심지어 종년이며 행랑것들까지 먹을것이요 솥글갱이와 밥티가 쌀밥채로 수채구멍으로 흘러나갈 일을 생각하면 자꾸자꾸 아깝기도 했습니다.

《글씨 야들아, 그 보리밥이란게 사람의 몸에 무척 좋단다. 또 먹기루 말허드래도 볼깡볼깡 씹히넝게 맨 쌀밥만 먹기보담은 훨씬 입맛이 나구― 그런데 늬덜은 왜 그걸 안 먹으랴드냐?》

태식이가 밥을 먹느라고 쩨금쩨금 시근버근 요란을 떨뿐이지 아무도 대답이 없고 두 손주며느리는 그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고 순종한다는 빛을 얼굴에 드러내기에 애를 씁니다.

《그러나마 늬들더러 귀찮은 보리방애를 찧어 먹을랬을제 말이지 이 시골서 작인들 시켜서 연자방애며 물방아에다가 말끔하게 다 엺쳐서 대껴서 그래서 올려온것이니 흔연 물에다가 북북 씻어서 삶아두구 조금씩 놓아먹기가 그리 힘이 들게 무어란 말이냐? 허허, 참 딱한 노릇이다. 야덜아, 그리구 말이다. 거 보리밥이 그런상 보여두 그걸 노―상 먹느라면 글씨 애기 못 낳던 녀인네가 포태를 헌단다, 포태를 헌대여! 응?》

과부나 생과부가 남편이 없이 공규는 지켜도 보리밥만 늘쌍 먹느라면 애기를 밴단 말이지요.

맏손주며느리는 그렇다면 래일 아침부터 꼭꼭 보리밥을 먹어야겠다고 좋아했고 둘째손주며느리는 아무러나 나두 먹어는 보겠다고 유렴을 했고 서울아씨는 나두 먹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편 건넌방에서 싸움을 벼르고 앉아있는 며느리 고씨만은 저 령감태기가 또 능청맞게 애들을 속인다고 안방으로 대고 눈을 흘깁니다. 참말이지 조금만 무엇했으면 우르르 쫓아와서 고 허연 수염을 잡아 쌀쌀 둘러주고싶게 하는짓이 밉광머리스럽습니다.

이 고씨는 말하자면 이 세상 며느리의 썩 좋은 《견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암개같은 시어머니 여호나 꽁꽁 물어가면 안방차지도 내차지 곰방조대도 내차지—

대체 시어머니라는 종속이 며느리라는 종속한테 얼마나 야속스러운 생물이면 이런 박절한 속담까지 생겼겠습니까.

16살에 시집온 고씨는 올해 마흔일곱이니 작년 정월 시어머니 오씨가 죽는 날까지 꼬박 삼십일년동안 단단히 시집살이라는걸 해왔습니다.

이악하대서 《살꽹이》라는 별명을 듣고 린색하대서 《진저리 꼽쟁이》라는 별명을 듣고 잔말이 많대서 《담배씨》라는 별명을 듣고 하던 시어머니 오씨— 그러니까 바루 윤장의령감의 부인이지요— 그 손밑에서 삼십일년동안 남모르는 쉶은 눈물 많이 흘리고 시집살이를 해오다가 고씨는 작년 정월에야 비로소 시어머니에게서 해방이 되였습니다. 남의 집 종으로 치면 속량이나 된셈이지요.

아뿔싸! 그러고보니 리해없는 고씨의 편역을 들은 맥이나 실상 고씨가 하 그리 현부였드냐 하면 그런것도 아닙니다. 허기야 아무리 헙잡을데없이 얌전스럽고 덕이 있고 한 며느리라도 야속한 시어머니한테 걸리고보면 반찬먹은 개요, 고양이앞의 쥐요 하기는 한것인데 고씨로 말하면 사람이 몸집생김새와 같이 둥실둥실한게 후덕하기는 하나 일변 이퉁이 세여 한번 코를 휘여붙이면 지레대로 떠곤질러도 꿈쩍을 않고 또 장히 거만한 성품까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깽비리같이 가볍고 야박스런 그 시어머니와 성갈부터 맞지 안했을건 오히려 지당한 노릇일겝니다. 그래 아무튼 고씨는 그 말썽많은 시집살이 삼십일년에 유난히 큰 가대를 휘여잡아가면서 그래도 쫓겨난다는 큰 파탈은 없이 오늘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종학이와 종수 이 두 아들을 낳아서 윤장의령감으로 하여금 군수와 경찰서장을 양성할 동량도 제공했고 그리고 인제는 나이 마흔일곱에 근 오십이요 머리가 반백에 손자 경손이가 중학교 2년급을 다니게까지 되였던것입니다.

그러자 계제에 작년 정월에는 암개같은 시어머니 였든지 사냥개같은 시어머니였든지간에 시어머니 오씨가 여호가 꽁꽁 물어간것은 아니나 당뇨병으로 세상을 떠남으로 해서 주부의 자리가 비였은즉 제일 첫째로 맏

며느리벌인 고씨가 곰방조대에 피종을 피우는터이니 차지를 아니해도 괜찮겠지만 안방차지는 응당 했어야 할게 아니겠습니까?

그런걸 글쎄 윤장의령감이 그 육중한 몸집값도 못하느라고 잔망스런짓을 해놓았습니다.

장모는 사위가 곰보라도 이뻐하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뻐덩이에 애꾸눈이라도 이뻐는 하는 법인데 윤장의령감은 어떻게 된셈인지 며느리 고씨를 미워하기를 그의 부인 오씨 못잖게 미워했습니다. 로마나님 오씨의 총정범절을 치르고나서 서울아씨가 형님 고씨한테 안방을 내주려고 하는데 윤장의령감이 떠억 한다는 말입니다.

《야아, 너두 아다싶이 내가 조석을 꼭꼭 안방에 들어와서 먹넌듸늬가 네 방이라구 이름지어갖구 있을락이면 내가 편찮아서 쓰겠냐? 그러니 나 죽넌 날까지나 그냥저냥 웃방(건넌방)을 쓰구 지내라.》

핑게야 참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안방을 로마나님 오씨의 시체만 나갔을뿐이지 전대루 서울아씨가 태식이를 데리구 거처를 하고 고씨는 건넌방에 눌러있게 되였던것입니다.

《흥, 만만한 년은 제서방 굿도 못 본다더니 나는 두다리 뻗는 날까지 접방사리(곁방살이, 행랑살이) 못 면할껄.》

고씨는 방때문에 비위가 상할 때면 가끔 이런 넉두리를 잊지 않고 하군 합니다. 그러나 고씨의 억울한건 약간 안방 못 차지하는것따위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오씨는 마지막숨이 지는 고 시각까지도 며느리 고씨를 못 먹어했습니다.

《오ㅡ냐, 인재넌 지긋지긋허던 내가 급살맞어 죽으닝게 시원허구 좋아서 춤출 사람 있을것이다.》

이건 물론 며느리 고씨를 물고뜯는 말이요, 인제 제가 죽고나면 며느리 고씨가 집안의 한 어른이 되여가지고 맘대루 휘둘러가면서 지낼테니까 그 일을 생각하면 아깝고 미웁고 해서 숨이 넘어가는 마당에서까지 그대도록 야속한 소리를 했던것입니다.

미상불 고씨는 시어머니의 거상을 입으면서부터 기를 확 폈습니다. 례를 들자면 달이 없지만 가령 밤늦게까지 건넌방에서 아무리 성냥긋는 소리가 나도 이튿날 새벽부터

《밤새두룩 담배질만 허니라구 성냥 열일곱번 그은 년이 어떤 년이냐?》

고 야단을 치는 사람이 없어 잠 못이루는 밤을 담배로 동무삼아 밝

히기도 무척 임의로웠습니다.
또 나들이를 한 사이에 건넌방에다가 못질을 해서 철가를 하는 꼴을 안 보게 된것도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만 조곰 펴고 지내게 되였을뿐이지 실상 아무 실속도 없고말았습니다. 시아버지 윤장의령감이 처결을 하여 집안의 살림살이 전권이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주부 고씨는 제쳐놓고 한대를 껑충 건너뛰여 손주대로 내려갔습니다. 고씨의 며느리되는 종수의 부인 박씨 즉 윤장의령감의 맏손주며느리가 시할머니의 뒤를 바루 맡아서 집안의 한 살림을 도맡아하게 되였던것입니다.
그리고보니 묻잖어두 내가 주부로 들어앉어 며느리를 거느리고 집안살림을 해가는 어른이 되겠거니 했던 고씨는 그만 개밥의 도토리가 되여버리고 도리여 시어머니 오씨 대신에 며느리 박씨한테 또다시 시집살이(?)를 하게쯤 된 셈평입니다.
선왕의 뒤를 이어 즉위는 했으나 권력은 왕자가 쥐이게 된 그런 판속과 같다고 할는지요. 그런데다가 시아버지 윤장의령감은 죽고 없는 마누라몫까지 쳐서 갈수록 더 못 먹어서 으등으등 뜯고 시누이되는 서울아씨는 내가 주장입네 하는듯이 안방을 차지하고 누워서 사사히 할퀴려들고 그리고 또 한가지—
고씨는 시방 동경 가서 경찰서장감으로 공부를 하고있는 둘째아들 종학이를 낳은 뒤로부터 스물네해 이짝 남편 윤주사 창식이와 금슬이 뚝 끊쳐 생과부로 좋은 청춘을 늙혀버렸던것입니다.
윤주사는 시골서부터 첩장가를 들어 딴 살림을 했었고 서울로 올라올 때도 그 첩을 데리고 와서 지금 동대문밖에다가 치가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새까지는 않던것인데 새채비로 기생첩 하나를 더 얻어서 다방골에다가 살림을 차려놓고는 이 집으로 갔다 저 집으로 가서 누웠다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본집에는 돈이나 쓸 일이 있든지 또 부친 윤장의령감이 두번세번 불러야 마지못해 오군 하는데 오기는 와도 사랑방에서 부친이나 만나보고 그대루 휭하니 돌아가지 안에는 한걸음도 않습니다.
기왕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 윤주사라는 사람이 참 별사람입니다.
성미가 그의 부친 윤장의령감과는 딴판이요 좀 호협한 분수로는 그

의 조부 말대가리 윤용규를 닮았다고나 할는지. 그리고 《살꽹이》요 《진저리 꼽쟁이》요 《담배씨》라는 그의 모친 오씨와는 아주 딴세상 사람입니다.

도무지 철을 안 이후로 이 마흔여섯이 되는 이날 이때까지 남과 언성을 높여 시비 한번인들 해본적이 없습니다.

남이 아무리 낮게 대해도 그저 허허 할따름이지 궂은 소리라도 하는 법이 없습니다. 본시 사람이 이렇게 용하기때문에 그를 낮게 보는 사람도 별반 없기는 하지만 가산이고 살림 같은것은 통히 남의 일같이 불고하고 또 걷우잡아서 제법 살림살이를 할줄도 모릅니다.

부친 윤장의령감의 말대루 하면 위인이 농판이요 오십이 되도록 철이 들지를 않아서 세상일이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미워서 꼬집자면 그렇게 말도 할수 없는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또 좋게 보자면 세상 물욕을 초탈한 사람이라고도 하겠지요.

누구 어려운 친척이나 친구가 찾아와서 아쉰소리를 할라치면 차마 잡아떼지를 못하고서 있는대루 털어줍니다.

남이 빚 얻어쓰는데 뒤도장 눌러주고는 그놈이 뒤집혀 집행(낡은 사회에서 빚을 준 사람의 요청으로 국가가 빚진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빚을 물어주는 일)을 맞기가 일쑵니다.

그래 윤장의령감은 몇번 그런 억울한 련대채무란것에 몇만원돈을 손을 보던 끝에 이래서는 못 쓰겠다고 윤주사를 떡 준금치산(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등 의사능력이 불충분한자에게 법률상 자의로 치산하는 일을 금지하는 처분)선고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랬다고 쓸 돈 못 쓸리가 없으니까요.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다음부터는 윤두섭이라고 부친의 도장을 새겨서 쓰군 합니다.

윤두섭의 아들 윤창식이가 찍은 도장이면 그놈이 위조도장인줄 알고서도 몇천원, 몇만원의 수형(돈지불을 약속하는 표쪽지)을 받아주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차용증서도 그 도장으로 받아주니까요.

나중에 가서 일이 뒤집혀지면 윤장의령감은 그래도 자식을 인장위조죄로 징역은 보낼수가 없으니까 그런걸 울며겨자먹기라든지 할수없이 그 수형이면 수형, 차용증이면 차용증서를 물어주군 합

니다.

속담에 부자라는건 한정있다고 합니다. 가령 부자면 만석까지 맥이 찬 뒤에 그런 뒤에는 일상 그 근처에서 오르내리고 하지 껑충 뛰여넘어 한정없이 불어나가지는 못한다는 그 뜻입니다.

미상불 그렇습니다. 가령 윤장의령감만 놓고보드래도 1년에 벼르다가 꼭 만석을 받은지가 발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매년 10만원씩 아닙니까?

또 현금을 가지고 수형장사(수형소유인이 수형에 약속된 지불기일전에 돈을 쓰려고 할 때 그 기일까지의 리자를 그 금액에서 뺀 자금을 지불하고 그 수형을 사들이는 일)를 해서 1년이면 20만원씩 새끼를 칩니다. 그래서 매년 수입이 수십만원이니 그게 어떠합니까?

가령 지세야 무엇이야 해서 일반 공과금과 가용을 다 쳐도 그절반 오백만원이 다 못될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6만원은 해마다 처져서 십년전에 만석을 받든 백만원짜리 부자랄것 같으면 10년후 시방은 일백오륙십만원의 일만오천석짜리 부자가 되였어야 할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글쎄 그대지도 가산 늘이기에 이골이 난 윤장의령감이였건만 10년전에도 만석, 시방도 만석— 그렇습니다그려.

그렇다고 윤장의령감이 무슨 취리에 범연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랍니다. 아들 창식이가 그런 랑비를 하고 또 맏손자 종수가 난봉을 부리고 운동비를 쓰고 그러는통에 재산이 그놈 만석에서 더 불지를 못하고 답보로 끝을 한거랍니다.

헌데 거기에 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윤장의령감은 가끔 창식이의 그런 빚을 물어주느라고 자못 날뛰다가는 담박 물고라도 낼듯이 호령호령 그를 잡으려 보냅니다. 그러나 창식이는 부친이 한번쯤 불러서는 냉큼 와보는 법 없고 세번, 네번만에야 겨우 대령을 합니다.

《야, 이 수염잡아뽑을 놈아, 이놈아.》

윤장의령감은 혼자서 실컷 속을 볶다가 아들이 처억 들어와서 시침을 뚜억 따고 앉은 양을 보고 그만 속이 지레 터질것 같아 냅다 욕이 먼점 쏟아져나옵니다.

그럴라치면 창식이는 아주아주 점잖게
《아버지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되려 부친을 나무렵(?)니다.
《…아, 손자놈들이 다 장성을 하구 경손이놈두 전갈으면 벌써 가숙을 볼 나인데 그것들이 번연히 듣구 보구 하는걸 아버지는 노상 말씀을 그렇게.》
《아―니, 무엇이 어쩌여?》
윤장의령감은 이래 놓고는 고만 더 말을 못합니다. 가뜩 아들한테 입 더럽게 놀린다고 핀잔을 먹은 그것을 부끄러워할 윤장의령감이 아니언만 어쩐 일인지 그는 아들 창식이헌테만은 기를 펴지 못합니다.
혼자서야 이놈이 오거든 인제 어쩌구저쩌구 하리라고 굉장히 벼르지요. 그렇지만 딱 마주쳐서는 첫마디에 기가 죽어버리고 되려 꼼짝을 못합니다.
《그놈이 호랭이나 화적보담두 더 무서운 놈이야!》
그래 윤장의령감은 늘 이렇게 아들을 무서운 놈으로 칩니다. 그러니 세상에 겁할것이 없이 지내는 윤장의령감을 힘으로도 아니요 악심으로도 아니요 총칼로도 아니면서 다만 압기로다가— 그러나 마치 극히 유순한것인데— 그것 하나로다가 그저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 창식이는 미상불 호랑이나 화적보다 더 무서운 사람일밖에 없을겁니다. 번번이 그렇게 윤장의령감은 꼼짝도 못하고서는 할수없이
《돈 내놓아라 이놈아, 네 빚 물어준 돈 내놓아.》
하고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제게 분재시켜주실 놈에서 잡어가지시지요.》
창식이는 종시 시치미를 따고 앉아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윤장의령감은 그제는 아주 기가 탁 맥혀서 씨근버근 하다가
《보기 싫다, 이 잡어뽑을 놈!》
이라고 고함을 치고는 돌아앉아버립니다.
이래서 필경 윤장의령감이 지고마는 싸움은 싸움이라도 한달에 많으면 두세번, 적어서 한번쯤은 아들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빚조건으로 생긴 싸움이 아들 창식이만이 아니라 맏손

자 종수하구도 종종 해야 하니 웬간치 성가신 노릇입니다.
또 그런 빚을 물어주는 싸움은 아니라도 윤장의령감은 가끔 딸 서울아씨와도 싸움을 해야 하고 방학에 돌아오는 작은 손주 종학이와도 싸움을 해야 합니다.
며느리 고씨하구는 말할것도 없고 사랑방에 있는 대복이나 삼남이와도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맨 어른되는 윤장의령감이 그렇게 싸움을 줄창치듯 하는가 하면 일변 경손이는 태식이와 싸움을 합니다.
서울아씨는 형님 고씨와 싸움을 하고 친정조카며느리들과 싸움을 하고 경손이와 싸움을 하고 태식이와 싸움을 하고 친정아버지와 싸움을 합니다.
고씨는 시아버지와 싸움을 하고 며느리들과 싸움을 하고 시누이와 싸움을 하고 다니러 오는 아들들과 싸움을 하고 동대문밖과 관철동에 있는 시앗집에들 가끔 쫓아가서는 들부시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 싸움, 싸움, 사뭇 이 집안은 싸움을 근저당해놓고 씁니다. 그리고 그런 숱한 여러 싸움가운데서 오늘은 시아버지 윤장의령감과 며느리 고씨와의 싸움이 방금 벌어질 케속입니다.
헌데 이건 이야기가 모다 좀 자리를 잡을수 없게 가지에서 가지로 빗나가버렸습니다.
고씨의 이얘기를 하다가 그의 남편 창식이의 말이 나와가지고는 갈피가 그렇게 허트러졌겠다요?
그러면 도루 추어올라가서 창식이 윤주사부턴데 그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밤이고 낮이고 하는 일이라고는 상스럽잖은 친구 사귀어두고 술 먹으려다니기, 활쏘기, 제철따라 승지로 유람다니기, 옛 한서 모아놓고 뚜지기, 한시 지어서 신문사에 투고하기, 이 첩의 집에서 술 먹다가 심심하면 저 첩의 집으로 가서 마작하기, 그래 도무지 유유자적(속세를 떠나 아무것에도 속박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조용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 일.) 한게 신선인것처럼이나 탈속이 되여보입니다. 물론 첩질이나 하고 료정으로 밤을 도와 드나드는걸 보면 갈데 없는 부랑자구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상한 괴벽은 다 한가지씩 있기마련인지 윤주사 창식이도 묘한 편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마음이 그렇게 활협하고 남의 청을 거절 못하는 인정있는 구석이 있고 하다니까 어느 교육계의 명망유지 한사람이 그의 문을 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명망유지가 후원을 하고있는 사학(개인이 설립한 학교) 하나가 있는데 근자 재정이 어렵게 되였으니 계제에 돈을 한 일이십만원 내는 득지가 있으면 그 나머지는 달리 수합을 해서 재단(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의 기초를 완성시키겠은즉 윤주사더러 다 놓은 사업이니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내는게 어떠하냐고 거참 여러가지 열과 구변을 내여 일장 설파를 했습니다.
윤주사는 자초지종 그러냐고, 아, 그러다뿐이겠느냐고 저편의 말장구를 쳐주면서 듣고있더니 급기야 대답할 차례에 가서는 하는 말이 《학교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느니보다는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드라나요. 명망유지는 실명이 풀려 두어마디 더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갔답니다.
아닌게아니라 윤주사는 남의 사정을 곧잘 보아주는 사람이면서도 공공사업이나 자선사업 같은데는 죽어라고 일전 한푼 쓰지를 않습니다.
부친 윤장의령감은 그래도 곧잘 기부는 하는셈이지요. 시골서 살 때에 경찰서의 무도장을 독담으로 지어놓았고 소방대에다가 백원씩, 오십원씩 두어번이나 기부를 했고 보통학교증설비용으로 200원 내놓은 일도 있었고 또 년전 경남수재때에는 벙어리를 새루 사다가 동전으로 1원 72전을 넣어서 태식이에게 주어 신문사로 보내서 사진까지 신문에 난 일이 있는걸요.
그러나 윤주사 창식이는 도무지 그런 법 없습니다. 영 졸리다 졸리다 못하면 온 사람을 부친 윤장의령감한테로 슬그머니 따보내버릴망정 기부같은건 막무가내루 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바루 안해 고씨를 25년 생과부로 늙게 한 그 사람입니다. 기부 않는것과 공방이 들어서 안해를 생과부로 늙히는것과는 동에도 닿지 않는 일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 사람이 그 사람인건 갈데없습니다.
고씨는 그처럼 오래오래 생수절을 하고 살아오다가 마침내 단산할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녀자아닌 녀자로 되는 때지요.

이때를 당하면 항용 의좋은 부부생활을 해내려온 녀자라도 뭐 히스테리라든지 하는 외양 말짱하고도 속 야릇한 병증이 생기는 수가 많답니다. 그런걸 고씨로 말하면 25년 청춘을 홀로 늙히다가 이제 바야흐로 녀자로서의 인생을 오늘래일이면 작별하게 되였은즉 가령 히스테리를 제쳐놓고 보드래도 마음이 안존할리가 있겠습니까? 윤장의령감의 건입대루 하면 오두가 나는것도 무리가 아니겠지요.

래일날에 희망을 두지 못한 사람은 오늘날 겁할게 없다고 합니다. 고씨가 꼭 그렇습니다.

자, 집안살림을 맡아하니 그 재미를 봅니까, 자식들이래야 다 장성해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어미는 생각도 않지요.

증손자 경손이놈은 귀엽기는커녕 까불고 앙뚱해서 얄밉지요. 남편이래야 남이 아니면 원쑤지요. 시아버지라는 령감은 괜히 못먹어서 으등으등 하고 걸신하면 짝 찢을 년이니, 오두가 나서 그러느니 하고 욕질이지요.

그러니 고씨도 당하고보면 악밖에 더 날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작년 정월 시어머니 오씨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삼십일년 눌려서 살어온 터성으로 고양이앞의 쥐같이 찍소리도 못하고 마음으로만 앓고 살았지만 그러든 폭군이 하루아침에 없고 보매 기는 탁 펴지는데 따라 불평은 할수없이 악으로 변해버리게 되였던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죽고 없는 뒤로는 집안에서 어른이라면 시아버지 윤장의령감 하나뿐이요 그밖에는 죄다 제하자들입니다. 헌데 그는 윤장의령감을 망녕난 동네령감태기로 보지 시아버지로 위하고 어려워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집안의 어른이고 아이고간에 트집거리만 있으면 상관없이 디리대구 싸웁니다.

그래서 시방 오늘 저녁에두 아까 쪽대문을 열어놓았다고 윤장의령감이 군욕질을 했다는 그 원혐으로다가 모두어 기어코 한바탕 화룽도를 내대고야말 작정으로 그렇게 벼르고있는 참입니다. 허기야 쪽대문을 열어놓은것도 실상 알고보면 우정 심술로 그런것이지요, 윤장의령감이 보구서 속 좀 상하라구— 그리고 그끝에 무어라고 욕이나 한다면 싸움거리나 장만할양으루— 뭐 헌 갓쟁이 심술이지요.

이래서 아무튼 오늘 저녁에 싸움은 단단히 한바탕 뒤엎어지고래야 말게만 켓속이 되여먹었습니다.

6. 대소전선 태평기

속이 어쨌든 후련하도록 싸움은 대판거리로 한바탕 해대야만 할텐데 이건 암만 도사리고 매사리고앉아 엿을 들어야 령감태기가 음충맞게시리 어린 손주며느리들더러 보리밥 먹으면 애기밴다는 소리나 하고있지 종시 일러루대고는 무어라고 더러운 구심을 놀리는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씨는 그렇다고 그냥 참고말잔즉 분하기도 할뿐더러 대체 무엇이 대끼며 누가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참고나 조심할 며리도 없는것이고 해서 시방 두볼이 아무튼 상말로 오뉴월 무엇처럼 추욱 처져가지고는 숨길이 시익시익, 코가 벌심벌심, 입이 삐죽삐죽, 깍지손으로 무르팍을 얹었다놓았다, 담배를 부벼껐다 도루 붙였다하면서 사뭇 부지를 못합니다.

미상불 사람이라는건 싸우고싶은 때 못 싸우면 더 부아가 나는 법이니까요. 집안은 안방에서 윤장의령감이 태식이를 데리고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잔소리를 씹느라고 웅얼거리는 소리, 태식이가 따그락따그락, 쨰금쨰금 하는 소리, 그외에는 누구 하나 기침 한번 크게 하는 사람 없고 모두 조심을 하느라 죽은듯이 조용합니다.

바깥은 황혼이 또한 소리없이 짙어가고 으심치무레하던 방안에는 깜박 생각이 난듯이 전등이 반짝 켜집니다. 마침 이 전등불을 신호삼듯 집안의 조심스런 침정을 흐트리고 투덕투덕 구두발소리가 안중문께서 요란하더니 경손이가 앞마당으로 들어섭니다.

교복 정모에 책가방을 걸멘것이 학교로부터 지금이야 돌아오는길인가분데 이 애가 척 그렇게 들어서다말고 대돌에 저의 증조부의 신발이 놓인것을 힐끔 넘겨다보더니 고개를 움칠, 혀바닥을 늘림하면서 발길을 돌려 살금 뒤채께로 피해가고있습니다.

눈에 띄였자 상탈리 없고 잘못하면 사날전에 태식이를 골탕먹여 울린 죄상으로 욕이나 먹기 십상일테라 애여 몸조심을 하는것입니다.

저는 아무도 안 보거니 했는데 고씨가 뻔히 내다보고있습니다. 실상 고씨가 본댔자 령감태기 한테 혀바닥 내미는건말고 그보다 더한 주먹질을 해도 상관할배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걸 개려 어쩌자는게 아닙니다. 따루 요량이 있지요.

《네 이놈, 경손아!》

유리쪽으로 내다보고있던 미닫이를 냅다 벼락치듯 와르르 따악 열어제치면서 집안이 온통 떠나가게 웨장을 칩니다. 온 집안이 다 놀랐겠지만 경손이는 그만 질겁을 했습니다. 그 애는 증조부 윤장의령감이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 조모가 그렇게 내닫는게 뜻밖이여서 더욱 놀랬습니다.

그러나 놀랜것은 순간이요 인해 돌아서면서

《네?》

하고 의젓이 대답을 합니다.

이편은 살기가 사뭇 뚝뚝 떨어지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는듯이 시침을 뚜욱 따고 올려다보면서 도무지 눈도 한번 깜짝 않는양이라니 앙똥하기 안할 말로 까죽이고싶게 밉살머리스럽습니다.

고씨는 영영 시아버지와 싸움거리가 생기지를 않으니까 아무나 걸리는대루 경손이를 붙잡고 큰소리를 내서 시아버지의 비위를 건드려서 그래서 욕이 나오면 어더귀야 트집을 잡어가지고 싸움을 하겠든것인데 고놈 경손이가 하는양이 눈에 거슬리고보니 가뜩이나 부아가 더 치밀고 그렇지만 이판에 부아를 돋구어주는 사람이면 차라리 해롭잖은 판속입니다.

이편 경손이더러 바른대루 말을 한다면 집안이 제한테는 모다 어른이건만 하나도 사람같은건 없고 그래서 누가 무어라고 하건 조금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증조부 윤장의령감이 그렇고 조부 윤주사가 그렇고 조모 고씨가 그렇고 대고모 서울아씨가 그렇고 대부 태식이는 문제도 안되고, 제 부친 종수나 모친 박씨가 그렇고 숙부 종학이나 숙모 조씨가 그렇고 조부 윤주사의 첩들이 그렇고 해서 모두 시쁘고 깔보이기만 합니다.

그래 시방도 속으로는

(흥, 누구말마따나 오두가 났나? 왜 저 모양인구?)

이렇게 코방귀를 뀌면서

(암만 그래보지? 내가 애맨 화풀이를 받아주나. …)
이쯤 제 염낭 다 수습하고있습니다.
고씨는 당장 무슨 거조를 낼듯이 종시 높은 소리로
《네 이놈!》
하면서 한번 더 얼러댑니다. 그러나 이놈, 이놈 두번이나 고함만 쳤지 그다음은 무어라고 나무랠 거리가 없습니다.
허기야 시아버지가 진지상을 받고계신데 며느리된게 어디라고 무엄스럽게 목소리를 크게 내여 어른을 불안케 했은즉 응당 령감쟁이로부터 그 며느리 대단 괘씸타 하여 선전포고가 올것이고 선전포고만 오고보면 목적한바는 옳바로 들어맞는 케속은 케속이나 우선 당장은 저기 저놈 경손이놈이 사람 여나문 집어삼킨 능청맞은 얼굴을 얄밉살스럽게 되들고 서서 그래, 무엇이 어쨌다구 소리나 꽥꽥 지르구 저모양인구! 할말 있거든 해보아요? 내 참, 별꼴 다 보겠네! 이렇게 속으로 빈정대는게 아주 빠안하니 썩 발칙스럽기도 하려니와 일변 어째 그랬든 한번 개두를 한 이상 뒷갈무리를 못해서야 어른의 위신과 체모가 아니던것입니다.
《이놈, 넌 어디 가서 무얼 하느라구 인자사(인제야) 이러구 오냐?》
고씨는 겨우 꾸짖는다는게 이겝니다.
거상에 손자놈이 학교를 잘 다니건말건, 공부를 착실히 하건말건 통히 알은체도 안해오던터에 오늘 밤이야 말구서 갑작스리 그런 소리를 하는게 다 속보일짓이기는 하지만 아쉰판이니 옹색한대루 둘러댈수밖에 없든것입니다.
《전람회준비 했어요! 그러느라구 학교서 늦었어요!》
경손이는 고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버쩍 두덜거립니다. 그때마침 그 애의 모친 박씨가 안방에서 나오더니 조용조용
《너는 학교서 파하거든 일찍일찍 오지는 않구서 무슨 해찰(쓸데없는 다른짓을 함.)을 하느라구 이렇게 저물구… 할머니 걱정하시게 하구그래…》
하고 며느리답게 시어머니를 대접하느라 아들놈을 나무랩니다.
《어머니는 또 무얼 안다구 그러우?》
경손이는 냅다 반찬먹은 무엇 잡두리하듯 제 모친을 지천을 하는데 그야 물론 조모 고씨더러 배채(웃사람에게 꾸지람을 듣고 그 화풀이

를 다른데다 하는 일.)이란 속이지요.

《…전람회준비때문에 학교서 늦었단밖에 어찌라구 그래요? 왜 속두 몰라가지구들 그래요?》

《야, 저놈이!》

《가만있어요. 어머닐랑… 집에 들어앉힌 부인네들이 무얼 안다구 그래요? 내가 이 집에서 제일 어리니까 만만헐줄 알구 거저 속상헌 일 있으면 내게다만 화풀이를 하려들어! 왜 그래요? 왜? 괜—히. 나이는 어려두 인제 이 집안에서는 매앤 어른될 사람이라우, 나두. 왜 걸핏허면 나더러 야단이우? 야단이—》

《아, 이놈 경손아!》

저의 모친 박씨가 목소리를 짓눌러가면서 나무래다못해 때려라도 주랴고 달려내려올듯이 벼르는것을 그러나 경손이는 본체만체 아까 돌아올 때보다 더 요란스럽게 발을 구르고 뒤곁으로 들어갑니다.

《흥, 잘은 되여먹는다, 이놈의 집안!》

고씨는 차라리 어처구니가 없다고 혀를 끌끄을 차다가 미닫이를 도루 타악 닫으면서 구느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되여먹어! 이마빡에 피두 안 마른것두 무어라구 나무래면 천장만장 떠받구나서기버틈 허구… 흥, 뉘놈의 집구석 씨알머리라구 웬걸 사람같은 종자가 생길라더냐.》

이 쓸어넣고 들먹거려 하는 욕이 고씨의 입으로부터 떨어지자마자 마침내 룡성코 나지 않든 작은 성문을 좌우로 크게 열고— 가 아니라— 안방미닫이를 벼락치듯 열어제끼고 일원 대장이 투구철갑에 장창을 비껴들고— 가 아니라— 윤장의령감이 싸움을 걷어맡고 나섭니다.

실상 윤장의령감은 저편이 싸움을 돋는줄은 모르는게 아닙니다. 다 알고서도 어디 얼마나 하나 보자고 늦추 잡두리를 하느라 고씨가 처음 꽥 소리를 칠 때도 손주며느리와 딸을 건너다보면서

《저 짝 찢을 년은 왜 또 지랄이 나서 저런다냐?》

하고 입만 삐죽거렸습니다.

서울아씨는 친정아버지를 따라 입을 삐죽거리고 두 손주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있다가 박씨만 조심조심 경손이를 나무래려 마루로 나오고 경손이가 온줄 알고 태식이는 미닫이의 유리로 내다보다가 도루 오

더니
《아빠, 아빠, 저 경손이 엉 깍쟁이자식이야. 엉 아주 엠병헐 자식이야.》
하고 떠듬떠듬 말재주를 부리고 했습니다.
《아서라, 어디서 그런…》
《잉 아빠, 경손이 학생이 자식이야. 도독놈의 자식이야, 엉? 아빠, 그치?》
《아서! 그런 욕허면 못쓴다!》
윤장의령감은 이 육중한 막낭둥이를 나무랜다 하기보다 말재주가 늘어가는게 신통하다고 빙그레니 웃고있습니다.
둘째번 건넌방에서 고씨의 큰소리가 들렸을 때도 윤장의령감은 딸과 작은손주며느리를 번갈아건너다보면서 혼자말하듯이 저년이 또 오두가 나서 저러느니, 원체 쌍놈 아전의 자식이요, 보고 배운데가 없어 저러느니 하고 고씨더러 노상 두고 하는 욕을 강(강의)하듯 내씹고있었습니다.
전기(전쟁이 일어나려는 기운.)는 익어 마침내 고씨의 입으로부터 집안이 어떻다는둥 뉘놈의 씨알머리가 어떻다는둥 가루로는 온 집안을, 세루로는 신주 밑구멍까지 들먹거리면서 군욕질이 쏟아져나왔고 윤장의령감은 기왕 받아주는 싸움에 이런 고패를 그대루 넘길 머리가 없어 드디여 결전을 각오했던것입니다.
《아—니, 얘—야.》
미닫이를 열어제치고 다가앉은 윤장의령감은 그러기 전에 발써 밥먹든 숟갈은 밥상귀퉁이에다가 내동댕이를 쳤고요.
《너 잘허넝건 무엇이냐? 너 잘히넝건 대체 무엇이여? 어디 입이 밥시리(광주리)구녁 같거던 말 좀 히여부아라! 말 좀 히여부아.》
집안이 떠나가게 소리가 큽니다. 몸집이 크니까 소리도 클거야 당연하지요.
이렇게 되면 고씨야 기대리고있든판이니 어련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못헌것 없어라우. 파리족통(발통)만치두 잘못헌것 없어라우. 팔자가 기구하여서 이런 징글징글헌 집으로 시집온 죄밖에는 아무 죄두 없어라우. 왜 걸신허면 날 못 잡아먹어서 옹을거리며 삼십일년 두구 종질하여준 보가품으로 그런대여? 뭐, 내가 살이 이

렇게 졌으닝게루 소증(고기가 먹고싶은 증세.)이 나서 고기라두 뜯어 먹을라구? 에이! 지긋지긋히라! 에이, 숭악해라!》
신사(또는 숙녀)적으로 하는 훌륭한 경기여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하나가 말을 하는 동안 하나가 나서서 가로막는 법이 없고 끝이 난 뒤에야 하나가 나서군 합니다.
《옳다! 참 잘헌다! 참 잘히여! 워너니 그게 명색 며느리된것이 시애비더러 허넌 소리구만? 저두 그래 며느리자식을 둘씩이나 얻어다놓구, 손자자식이 수염이 나게 됐으면서 그래, 그게 잘허는짓이여?》
《그러닝게루 징손주까지 본이가 그래, 손자까지 본 며느리넌더러 육장 짝 찢일넌이네, 오두가 나서 싸돌아댕기네 허구 구십을 놀리니만? 그건 잘허넌짓이구만? 똥묻은 개가 저(겨)묻은 개 나무래지.》
《쌍년이라 헐수 없어! 천하 쌍놈 우리게 판 백이아전 준평이 자식이 워너니 그렇지 별수 있것냐?》
《아이구, 그 드럽구 칙살스런 량반? 그런 알량한 량반허구넌 안 바꾸어. 량반? 량반이 어디 가서 급살맞어 죽구 없더니만 대체 은제적버텀 그렇게 도도한 량반인고? 읍내 아전덜헌테 잡혀가서 볼기맞으면서 소인 살려줍시사 하던건 누군고? 그게 량반이여? 그 밑구녁 들칠수록 구린내만 나너만?》
아무리 아굿심이 세다 해도 본시 남자란 녀자의 입심은 못 당하는 법인데 가뜩이나 이렇게 맹렬한 십자포화의 육탄—아닌 언탄을 맞고 보니 윤장의령감으로는 총퇴각이 아니면 달리 기습이나 게릴라전술을 쓸수밖에 별도리가 없습니다.
허기야 가장 좋은 도리는 전자에 그의 부인 오씨가 하던 법식으로 냅다 달려들어 며느리의 머리끄뎅이를 잡아 엎지르고 방치같은걸로 릉장질을 했으면야 효과가 훌륭하겠지요.
그러나 그놈 시어머니라는 〈머〉자와 시아버지라는 〈버〉자와 획 하나 덜하고 더하고 한결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때려주지 못하게마련이니 그 법을 그대지 야속스럽게 구별해논 죄 삼대를 빌어먹을지라고 윤장의령감으로는 저주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야, 이놈 경손아—》
육집이 큰 보람도 없이 뾰죽하니 몰린 윤장의령감은 마침내 마루로 꿍하고 나서면서 뒤채를 대구 소리를 지릅니다.
애꿎은 경손이가 제 방에서 감감하게 대답을 하나 윤장의령감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연해 소리소리 웨칩니다.
한참만에 경손이가 양복 고의바람으로 가만가만 나와서 한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네 이놈, 시방 당장 가서 네 하래비 불러오너라. 당장 불러와.》
《네.》
《요새 시체는 거 리혼이란것 잘들 헌다더라, 리혼… 이놈, 오늘 저녁으루 담박 제 시집을 리혼을 안히였다부아라! 이놈을 내가…》
과부댁 종놈은 왕방울로 행세한다더니 윤장의령감은 며느리 고씨와 싸우다가는 몰리면 리혼하라고 할테라고 아들 윤주사 불러오라는게 유세통입니다.
그러나 부르러 간 놈한테 미리 소식 다 듣는 윤주사는 마구 안 오기가 일쑤고 열번에 한번 불려와서 네 래일 수속하지요 대답 시언히 하기는 해도 그 자리 일어서기 전에 다 잊어버려바립니다. 그래도 좋게시리 윤장의령감은 그 이튿날이고 리혼수속재촉을 하는 법 없으니까요.
글쎄 그럴랴면서도 번번이 리혼시킨다고 호령호령 해싸니 그속이 무슨 속인지는 가히 알쫍니다.
《아, 이놈 냉큼 가서 불러오든 않구 무얼 허구 섰어?》
윤장의령감은 주춤거리고섰는 경손이더러 호통을 합니다.
경손이는 그제서야 대답을 하고 옷을 입으러 가는체 뒤곁으로 들어갑니다. 눈치 보아가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던지 무엇하면 그냥 잠자코 있다가 넌지시 입을 씻고말든지, 없어서 못 데려왔다고 하든지 할 요량대고있으니까 힘들일것 없는노릇입니다.
《두구보자.》
윤장의령감은 마루가 꺼져라고 쾅쾅 굴러디디면서 대뜰로 내려섭니다.
《두구보아, 어디… 내가 그새까지넌 말루만 그랬지만 인저 두구보아라. 저허구 나허구 애비자식 천륜을 끊던지, 저집 리혼을 허던지 좌

우량단간 오늘 저녁안으루 요정을 내구야말닝개루! 두구부아.》
윤장의령감은 얼르면서 굴르면서 사랑으로 나가고 고씨는 그 뒤꼭지에다 대구 제—발 좀 그럽시사고 리혼을 한다면 누가 무서워서 서얼설기고 어엉엉 울줄 아느냐고 비꼬아댑니다.
이래서 시호없는 싸움은 또한 끝도 없이 휴전이 되고 각기 장수가 진지로부터 퇴각을 하자 집안은 다시 평화가 회복되였습니다.
모두들 태평합니다.
계집하인 삼월이는 부엌에서 행랑어멈과 같이 얼추 설겆이를 하고 있고 행랑아범은 안팎아궁이를 찾아다니면서 군불을 조금씩 지피고 그 나머지 식구들은 조씨만 빼놓고 다 안방으로 모여 저녁밥을 시작할 차렙니다.
서울아씨, 두 동서, 경손이, 태식이, 전주댁 이렇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방금 일어났던 풍파를 심려한다든가, 윤장의령감이 저녁밥이 중단된것을 걱정한다든가, 조씨가 밥상을 도루 쫓은걸 민망히 여긴다든가 할 사람은 하나도 없고 따라서 아무도 입맛이 없어 밥생각이 없을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먼저의 큰 싸움이 입가심같이 조고마한 싸움 하나가 벌어집니다. 태식이가 구경에 팔렸다가 싸움이 끝이 나니까 다시 밥시작을 하는데 경손이가 툭 튀여들더니 마침 윤장의령감이 앉았든 자리에 털썩 주저앉어서는 두말않고 그 숟갈로 그 밥을 퍼먹습니다.
태식이는 이 깍쟁이요, 도둑놈인 경손이가 아버지의 숟갈로 아버지의 밥을 먹어대는게 밉기도 하려니와 또 맛있는 반찬을 빼앗길테니 그래저래 이짐이 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히잉, 우리 아빠 밥이야.》
태식이는 밥숟갈을 둘러메였으나 경손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왜 이 모양이야. 밥그릇에다가 문패 써붙였나?》 하고 놀려댑니다.
《히잉 깍쟁이.》
《무엇, 어째. 잠자코 있어 괜히.》
《히잉 도둑놈.》
《아, 요게— 병신이 지랄해요! 대갈쟁이가…》
《깍쟁이, 도둑놈.》

《가만두니깐… 저거 봐요. 숟갈을 둘러메면 제가 누구를 때릴텐? 요것 하나 먹구싶어? 요것…》
경손이가 주먹을 쥐어 밥상너머로 얼러대는데 마침 저의 모친 박씨가 들어서다가 보고 깜짝 놀랩니다.
《병신이 괜－히 지랄허니깐 나두 그렇지? 내 이름이 깍쨍이구 도둑놈이구? 그런가? 뭐?…》
《아따 그런 소리 좀 들으면 어떻니? 잠자코 밥이나 먹으려무나.》
《이 병신 다시 그따우 소리 해봐? 죽여놓을테니까.》
《저녀석이, 말래두 안 듣구서! 너 그러다가는 큰사랑할아버지께 또 꾸중을 듣는다.》
《피－ 무섭잖어.》
《허는 소리마다! 너 그렇게 버릇없이 굴면 귀향간다, 귀향.》
《곤충채집하구 수영하구 실컷 놀다가 도루 오지 무슨 걱정이유?》
서울아씨가 손을 씻으면서 방으로 들어오다가 태식이가 여태 밥상을 차고앉아 그러나마 먹지도 않고 이짐이 나서 엿가래같은 코를 훌적거리고있으니까 얼굴을 잔뜩 찌프립니다.
《누－나!》
《왜 그래.》
역성이나 들어줄줄 알고 불러본것이 대구 쏘아바리니 인제는 울기라도 해서 아빠를 불러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태식이의 입은 비죽비죽 움질움질하는게 방금 아앙 하고 울음이 터질 초를 잡습니다.
만약 태식이를 울려놓고보면 큰일입니다. 약간 아까 고씨와 싸우는 그따위 풍파가 아니고 온통 집이 한구텅이 무너나게스리 벼락이 내릴판이니까요. 윤장의령감은 다른 잘못도 용서 않지만 그중에도 누구든지 태식이를 울린다든가 하는 죄는 단연 용서하지 않는것입니다.
《어서 밥먹어라. … 밥먹다가 이짐 쓰구 그러면 못써, 어서.》
서울아씨가 할수없이 목소리를 눅쳐 살살 달랩니다. 박씨도 코를 풀어주면서 경손이더러 눈을 끔쩍끔쩍합니다.
《대부, 할아버지…》
경손이는 눈치를 채고서 빈들빈들 엎어삶아재칩니다.
《…어서 진지 잡수. 그러구 대부덕분에 손자두 이런 좋은 반

찬 좀 얻어먹어야지, 응? 할아버지, 우리 대부가 참 착해. 그렇지, 대부?》

파게를 따지자면 열다섯살먹은 경손이는 같은 열다섯살먹은 태식이의 손자요, 태식이는 경손이의 할애비지 갈데 없습니다. 일가 망한건 항렬만 높단 말로 눙치고넘기자니 차라리 이 조손관계는 비극이라 함이 옳겠습니다.

7. 쇠가 쇠를 낳고

사랑방에는 언제 왔는지 올챙이석서방이 과시 올챙이같이 토옹통한 배를 안고 웃목께로 오도카니 앉아있습니다.

시체말투는 뿌로커(부자)고 윤장의령감의 밑에서 거간을 해먹는 사람입니다. 돈도 잡기 전에 배 먼점 나왔으니 갈데없이 근천스런 헛배요 납작한 체격에 형적도 없는 모가지에다 올챙이별명 타자고 나온 배지 별수 없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올챙이는 오끔 일어서면서 공손히 그러나 친속한 인사를 합니다.

윤장의령감은 속으로야 이 사람이 저녁에 다시 온것이 다 반가울 일이 있어서 느긋하기는 해도

《멋허러 또 왔넝갸?… 저녁은 안 먹었으면 자네가 설렁탕이래두 한 쪽배기 사줄라건데 먹었냐구 묻넝가?》

하면서 탐탁찮어하는 낯으로 주접스런 소리를 합니다.

생김새야 아무리 못생겼다 하기로서니 남의 그런 낯꼴 하나 여새겨 볼줄 모르고 그런 보비위 하나 할줄 모르고서 몇천원 더러는 몇만원 거간을 서먹노라 할 위인은 아닙니다.

옳지! 안에서 무슨 틀갈이가 난 끝에 밥도 안 먹고 나오다가 그 화풀이를 걸리는대루 나한테 하는 속이로구나. 선뜻 눈치를 채고서 《하! 사드리다뿐이겠습니까.》고 흠선을 피워 맞장구를 치다가 마침 윤장의령감이 발이나 넘는 장죽에 담배를 재여무니까 냉큼 성냥을 그어드립니다.

《…원, 제가 사드리면 설렁탕이야 사디리겠어요! 참 하다못해 식

교자라두 한상…》
《체에! 시에미가 오래 살면 구정물통(자수물통)에 빠져 죽넌다더니 내가 오래 사닝게루 벨일 다 많얼랑개비여! 인재넌 오래간만에 목구녁의 때를 벳기넝개비다.》
윤장의령감의 입에서는 담배연기가 피여올라 자옥하니 연막을 치고 올챙이는 팽팽한 양복가랭이를 펴면서 되사렸던 다리를 퍼근히 하고 저도 《마－코》를 꺼내여 뭅니다.
《원, 령감두! 제가 령감 식교자 한상 채려드리기루서니 그게 그리 대단허다구 그런 말씀을…》
《글쎄 이 사람아, 말만 그렇게. 어따 저어. 상말루 줄듯줄듯 하면서 안 주더라구. 말만 그렇게 허지 말구서 한상 처억 좀 시켜다 주어보소. 늙은이 괄세넌 하여두 애들 괄세넌 안헌다네마넌 늙은이 대접두 더러 히여야 젊은 사람이 복을 받구 허는 법일네, 그렇잖은가? 이 사람…》
윤장의령감이 히죽이 웃기까지 하는것이 인제는 화도 좀 풀리고 이 심심찮은 말동무와 이야기를 주고받고하기에 차라리 재미를 얻은것입니다.
《아니, 뭐 빈 말씀이 아니라…》
올챙이는 방금 일어서서 나갈듯이 뒤를 들듯들듯 합니다.
《…시방이라두 나가서 무어 약주 안주나 될걸루 좀 시켜가지구 오지요. 전화루 시키면 곧 될테니까요! 정녕 저녁진지 안 잡수셨어요? 그러시다면 그 요량을 해서…》
《헤헤, 옛다! 참 엽찔러 절받기라더니. 야 이 사람, 그런 허넌체 그만하여두소. 자네가 암만 히여두 딴 요량장이 있어가지구서 시방 그러넌 속 나두 다 알구있네.》
《네? 딴 요량이요? 원, 천만에!》
《아까 아침나절에 와서 이야기하던 그 조건때메 그러지? 응?》
《아니올시다, 원! 그건 그거구 이건 이거지 어쩌면 저를 그런 놈으로만 처지를 하십니까! 허허허.》
《그러구 저러구간에 그건 아침에 말한대루 2할인 아니구넌 안되니 그렇게 아소, 잉?》
윤장의령감은 정색을 하느라고 담배대를 입에서 뽑고 올챙이도 다

가앉을듯이 앉음새를 되사립니다.

《그렇잖어두 허기는 그 사람 강씨를 또 만나구오는길인데요. 그래 말씀두 요정을 내구 허기는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응? 그리서? 그럼 2할인 하여서두 쓴다구 그러덩가?》

《그런데 거 이번일은 제 얼굴을 보시구라두 좀 생각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생각이랄게 별것 있넝가? 돈 취하여 주넝것이지.》

《물론 주시기는 주시는데 1할만 해주세요.》

《건 안될 말이래두.》

《원, 자꾸만 그러십니다! 칠천원짜리 30일 수형에 1할이래두 자, 보십시오. 선변 제하시니까 륙천삼백원 주시구서 한달만에 칠백원을 얹어서 칠천원으루 받으시니 그만해두 그게 어뎁니까?… 아무리 급헌 돈이래두 쓰는 사람이 생각허면 하늘이 내려볼가 무섭지요. 그런걸 글쎄 2할이나 허자시니…》

《허, 그 사람두… 이 사람아, 돈이 급하면 급헐수록 다 요긴하구 그만침 값이 나갈게 아닝가? 그러닝게루 변두 더 내구서 써야지?…》

《그렇더래두 령감말씀대루 허자면 칠천원 액면에 오천륙백원을 쓰구서 한달만에 일천사백원 리자를 갚게 되니 돈 쓰는 사람이 억울하잖겠습니까?》

《억울허거던 안쓰면 그만이지. 뭐 내가 쓰시오 허구 쫓아댕기며 억지루 처맽긴다덩가, 그 사람 참.》

윤장의령감은 이렇게 배부른 흥정으로 비스듬히 들어놀랴고는 하지만 올챙이말이 아니라도 륙천삼백원에 한달리자 칠백원이 어데라고 이거리를 놓치고싶지는 않습니다.

에누리를 하는 맥이지요. 해서 2할을 뗄수 있으면 다시 없고 눈치를 보아서 1할 5부로 해주어도 괜찮고 또 정 무엇하면 1할이라도 그리 해롭지는 않고 그게 그러니까 달리 류통시켜야 할 자본일세 말이지 은행의 저금통장에서 녹이 쓸고있는 돈인걸 두구 놀리느니보담이야 몇곱쟁이 이문(리가 남는 돈)이 아니냐 말입니다.

《령감이 무가내루 2할만 떼신다면 아마 그 사람두 안쓰기 쉽습니다.》

올챙이는 역시 윤장의령감의 배짱을 아는터라 마침내 이렇게 슬그

머니 데시기를 눌러놓습니다.

《그러니 자, 령감, 그러구저러구 하실것없이 1할 5부만 허시지요? 1할 5부라두 일칠은 칠, 오칠 삼십오 허니 일천오십원입니다!》

《아니 이 사람, 자네는 내밀에서 거간서구 내 덕에 사넌 사람이 육장 그저 내게다 해만 뵐라구드넝가?》

《원참! 그게 손해끼쳐드리는게 아닙니다. 일을 다 되도록 마련하자니까 그렇지요. 상말루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구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남의 일이라두 모를텐데 항차 령감의 일인걸…》

《아따! 시방 허넌 소리가… 야, 이 사람아! 구문이 안 생겨두 자네가 다 이러구 댕길텐가?》

《허허, 그거야 그렇지요. 허허허허, 그런데 참 구문이라니 말씀이지 저두 구문만 많이 먹기루들자면 할이가 많은게 좋답니다. 그렇지만 세상일을 어데 그렇게 제 욕심대루만 헐래서야 됩니까?》

《이 사람아, 그런 소리 마소. 욕심없이 세상 살라다가넌 제 창자 뽑아서 남 주어야허네.》

《것두 옳은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하실렵니까? 제 말씀대루 1할 5부만 해서 주시지요? 네?》

《아이, 모르겠네. 자네 쇠견대루 허소.》

《허허허허, 진즉 그러실걸 가지구… 그럼 래일 당장 강씨를 데리구 올텐데 어느만때가 좋을는지? 래일 은행시간까지는 돈을 써야 할테이니깐요.》

《글쎄… 대복이가 와야 헐란듸. 오늘 저녁에 오랬으니까 오기넌 올것이구 오며넌 래일 아무때 와두 돈은 주겠지만… 자리는 실수없을 자리렷다.》

《그야 제가 범연하겠습니까. 아따 만창상점이라구 바루 저 철문교옆입니다. 뭐 그 사람이 불량자구 주색잡기하느라구 드는 돈이 아니구 래일 해전으로다가 은행에 입금시켜야만 부도(수표나 어음을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여도 그 수표, 어음에 대한 지불을 받을수 없는 일.)가 안나게 생겨서… 글쎄 은행에서 들 돈을 딱 가두어놓고는 돌려주지를 않기때문에 너, 나 할것없이 모두 죽는 소립니다. 그러나저러나간에 이 사람 강씨는 아무 념려없구요. 다 조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사 무얼 알겠넝가마는…》

윤장의령감은 담배대를 놓고 일어서더니 벽장속에서 조선백지로 맨 술 두꺼운 장부(?) 한권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대복이의 주변으로 종로일대와 창안, 배오개 등지와 그밖에 서울장안의 들몾들몾한 상고(장사군)들을 뽑아 신용정도를 조사해둔 조사명단입니다. 신용이라도 우리네가 보통 말하는 그런 신용이 아니라 가산은 통 얼마나 되는데 갚을 빚은 얼마나 되느냐는 그 신용입니다.

이걸 만들어놓고 대복이는 날마다 신문이며 《흥신내보》(상인 및 인사에 대하여 그 신용, 재산 등을 비밀히 조사하여 회원 또는 의뢰자에게 보도하여주는 시설기관의 소식)며 또는 소식 같은걸 참고해가면서 그들의 신용의 변동에 잔주(주해)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기는 아무렇게나 백지로 맨 이것 한권이지만 척 떠들어만 보면 어데서 무슨 장사를 하는 아무개는 암만까지는 돈을 주어도 좋다는것을 횅하니 알수가 있는것입니다.

윤장의령감은 시골사람 그중에도 부랑자가 돈을 쓴다면 의례껀 매도계약까지 첨부한 부동산을 저당 잡고래야 돈을 주지만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대가수형을 받고서 거래를 합니다. 그는 수형의 효험과 위력을 잘 알고있으니까 안심을 합니다.

세상에 수형처럼 빚쓰는 사람한테는 무섭고 빚주는 사람한테는 편리한것이 없답니다. 기한이 지나기만 하면 거저 불문곡직하고 수형액면에 쓰인만큼 차압을 해서 매삭 이삼만원씩 융통을 시키고 그 이문이 적어도 삼천원으로부터 사천원은 됩니다. 1할이상 2할까지나 되는 새끼치기이지요.

송도 말년에는 쇠소가 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든게 지금은 다 세태가 바뀌고 을축갑자로 되는 세상이래서 그런것도 아니겠지만 쇠가 쇠를 낳게크름(쯤)마련이니 그건 무슨 증졸(징조)는지요.

아무튼 그 놈 돈이란 물건이 저희끼리 목족(동족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냄.)은 무섭게 하는 놈입니다. 그러길래 자꾸 있는데루만 모이지요? 윤장의령감은 풍안(안경)집에서 풍안을 처억 꺼내드니 코끝에다가 걸치고는 그 육중한 자가용《흥신내보》를 뒤적거립니다.

올챙이는 이젠 일이 거진 되여서 마음놓인다고 담배만 펄심펄심 피우고앉아 하회를 기다립니다.

윤장의령감은 《만창상회》의 강무엇이를 찾아내여 따져본 결과 빚이 더러 있기는 해도 아직 칠팔천원은 말구 이삼만원쯤은 돌려주어도 한달지간에 랑패가 생기지는 않을만큼 저엉정한걸 알았습니다.

《거 원, 우선 내가 보기는 괜찮을상싶네마는…》

윤장의령감은 이쯤 반승낙을 하고는 장부를 도로 벽장에다가 건사하고 풍안을 코끝에서 떼여내고 그리고 담배대를 집어물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아까 먼저번에 한 승낙은 다 말은 없어도 신용조사에 락방이 안돼야만 돈을 준다는 얼승낙이요, 이번것이 진짜승낙한 보람이 날 승낙입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하고 마는이 붙었으니 온승낙이 아니고 반승낙입니다. 대복이가 없으니까 그와 다시한번 상의할 요량이지요. 그래서 혹시 대복이가 불가하다고 한다든지 하면 말루만 반승낙을 했지 무슨 계약서라도 쓴게 아니고 한즉 이편 맘대루 자빠져바리면 그만일테니까요.

《그러면…》

올챙이는 윤장의령감의 그 마는이라는 말끝을 덮어씌우느라고 다지려듭니다.

《래일 은행시간안으로는 실수 없겠지요?》

《글쎄 우선은 그러기루 하여두지.》

《그래서야 어데 저편이 안심을 하나요. 령감이 주장이시니까 령감이 아주 귀정을 지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저 사람두 퍽 마음을 놓구있지요.》

《그렇기두 하지만 실상 이 사람아, 자네두 늘 두구보지만 내사 무얼 아넝가?… 대복이가 다 알어서 이러라구 하면 이러구 저러라구 허면 저러구 허지. 괜시리 속두 잘 모르구서 돈 그까짓것 일천오십원 얻어먹을랴다가 웬걸 일천오십원이나마 나 혼자 다 먹간듸? 자네 몫 일백오십원 주구나면 천원두 다 못되는것. 그것 먹자구 잘못하다가 내 생돈 륙천원 업어다 난장마치게?》

《글쎄 령감, 자리가 부실한 자리면 제가 애초에 새에 들지를 않는답니다. 그새 4～5년지간이나 두구보시구서두 그러십니까? 언제

뭐 제가 천거한 자리루 동전 한푼 허실헌 일 있습니까?》
《아는 길도 물어서 가랬다구 눈뜨구서 남의 눈 빼먹넌 세상인줄 자네두 알면서 그러넝가?》
《허허허허, 다 그렇게 전후를 꼭꼭 재가면서 일을 하셔야 실수가 없기는 하지요. … 그럼 아무튼지 대복이가 오늘로 오기는 오지요?》
《늦더래두 올것이네.》
《그럼 대복이만 가헌 양으로 말씀허면 돈은 래일로 실수 없지요?》
《그럴터지.》
《그러면 아무러나 래일 오정때쯤 해서 당자 강씨를 데리고 오지요. … 좌우간 그만해두 한시름 놓았습니다, 허허.》
《자네넌 시원헌가부에마는 나넌 돈천이나 더 먹을것 못 먹는것 같애서 섭섭허네.》
《허허허허, 그럼 이번에는 들무엇 한놈 한자리 해오지요. 가만히 계십시오. 수두룩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안 내주기때문에 거얼걸들 합니다. 제일 죽어나는게 은행돈 빚 얻어다가는 땅장수니, 집장수니 허든 치들인데 뭐 일보(원금 백환에 대한 하루 리자의 비례) 사오십전이라두 못써서 쩔쩔맵니다.》
《이판에 누가 일보 오십전 받구 준다던가? 소불하 일원은 받어야지… 주넌 놈이 아쉰가? 쓰넌 놈이 아쉰개로 그거라두 걷어쓰지…》
윤장의령감은 시세 소위된 폭리취체(단속)속을 도모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다더라도 이미 10년전부터 벌써 법이 금하는 고패를 넘어서 해먹는 돈장사니까 시방 새삼스럽게 폭리취체쯤 무서울것도 없으려니와 좀 까다럽겠으면 달리 이러쿵저러쿵하는 수가 얼마든지 있은즉 만날 덩그렁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그렇게 허기루 허구…》
올챙이는 볼일 다 보았으니 선뜻 일어설것이로되 또 안면에 그럴수도 없어 달리 보비위거리를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정녕 저녁진지를 안 잡수셨습니까?》
《먹다가말었네, 속상하여서.》
윤장의령감은 그새 잊었든 화가 뒤뜨기로 삐여져서 재털이에 담배터는 소리가 절로 모집니다.

《거 원, 그래서 어떻거십니까! 더구나 년만하신 로인이!》
《그러닝게, 그게 다 팔자라네. 내가 나락으로 해마다 만석을 추수받구 돈을 몇만원씩 차구앉아서 가끔 이렇게 끼니를 굶네그려…》
또 역정을 낼줄 알았더니 그런게 아니고 근심끼 없든 얼굴이 해질무렵같이 흐리면서 음성은 풀없이 가라앉습니다. 과연 일년 추수하는 쌀만 가지고도 밥을 해먹자면 백년, 천년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테면서 그러나 이렇게 배고픈 때가 있으니 곰곰히 생각하면 한심하여 팔자가 탄식이 나오기도 할겝니다.
《아 이 사람아, 자네부텀두 날더러 팔자 좋다구 그러지. 또 남들두 다 날더러 호팔자라구 그러너니… 그렇지만 이 사람아, 팔자가 존게 다 무엇잉가! 속 모르구서 괜시리 하넌 소리지. … 그저 날같언 사람은 말이네, 도독놈이 노적가리 짊어져갈까바서 밤새두룩 짖구댕기는 개, 개신세여, 할일없는 개신세여!》
윤장의령감은 잠잠히 말을 끊지고 담배연기째 후루루 한숨을 내쉬면서 어데라없이 한눈을 팝니다.
거상에 짜증난 얼굴이 아니면 불과하니 마음편안한 얼굴, 호리를 다투는 똑똑한 얼굴이 아니면 남을 꼬집어뜯는 전접스런 얼굴, 그러한 낯꼴만 하고 지내는 이 령감한테 이렇듯 침통한 기색이 드러난다는것은 자못 심외(생각밖)라 않을수 없습니다.
돈을 흥정하는 저자에서 오고가고 하는 속한 일뿐이지 올챙이로서야 어데 그런 깊은 인정의 기미를 통찰할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백만금의 재물을 쌓아놓고 자손 번창하겠다, 수명장수 아직도 젊은 놈 여대치게 저엉정하겠다. 이런 천하에 드문 호팔자를 누리면서도 근천(궁상)이 질질 흐르게시리 밥을 굶네, 속이 상하네 하는게 이놈의 령감이 그만 살고 죽으려고 청승을 떠는가싶어 얼굴을 다시 치어다보았습니다.

8. 상평통보 서푼과

올챙이는 윤장의령감이 자기가 자칭해서 자기 입으로 개라고 하니 차라리 그렇거덜랑 어디 컹컹 한바탕 짖어보라고 놀리기나 하고싶습

니다.

그렇지만 그런 버릇없는 롱담을 할법이야 있습니까. 속은 어디로 갔든 좋은 말로 다아 자손이 번창하고 가운이 륭성이 되면 집안어른된 이로는 그런 근심, 저런 걱정 노상히 안할수도 없는것인즉 그걸 가지고 과히 상심할게 없으리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아, 여보소?…》

윤장의령감은 남이 애써 위로해주는 소리는 귀로 듣는지 코로 맡는지 종시 우두커니 한눈을 팔고 앉았다가 갑자기 긴한 낯으로 고개를 내밀면서 《자네 사람 죽었을 때 염하는거 더러 보았넝가?》 하고 묻습니다. 자기딴에는 따로히 속내평이 있어서 하는 소리겠지만 이건 느닷없이 송장 일곱매 묶는 이야기가 불쑥 나오는데는 등이 서늘하고 그다지 긴치 않기도 했을것입니다.

《더러 부았으리… 그런디 말이네…》

윤장의령감은 올챙이가 이렇다저렇다 얼른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것을 상관 않고 자기가 그뒤를 잇습니다.

《… 아, 우리 마니래(마누라)가 작년 정월에 죽잔혔덩가?》

《네에! 아참, 벌써 그게 작년 정월입니다그려! 세월이 빠르긴 허군. …》

《게 그때 수험을 헌다구 날더러두 들오라구 허기에 시체방으로 들어가잖었넝가. 들어가서 가만히 보구섰으니깨 수의를 죄다 갈어입히구나서는 일곱매를 묶기 전에 아따 그놈의것을 무어라구 허데마는… 쌀 한숟가락을 떠서 입에다가 넣는체 하면서 천석이요 허구 두숟가락 떠느면서 이천석이요 허구 세숟가락 떠느면서 삼천석이요 허구, 아, 이런단 말이네! 그러구 또 시방은 쓰지두 않는 옛날돈 상평통보 한푼을 넣어주면서 천냥이요오, 두푼 넣어주면서 2천냥이요오, 세푼 넣어주면서 삼천냥이요 이러데그려!》

《그렇지요, 그게 다아…》

올챙이는 비로소 윤장의령감의 말하고저 하는 속을 알아차렸대서 고개를 까댁까댁 맞장구를 칩니다.

《…그게 망인이 저승길 가면서 로수로 쓰구 또 저승에 가서두 부자루 잘 지내시라구 그러잖습니까?》

《응, 그리여. 글씨 그런줄 나두 알기넌 알어. 또 우리 어머니, 아

버지때두 다아 보구 그리서 춤(처음)으로 보덩건 아니지. 그러닝게 춤 구경하였다는게 아니라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구… 아—니 글쎄 여보소, 우리 마니래만 히여두 명색이 만석군이 집 녀편네가 아닝가? 만석군이… 그런디 필경 두다리 쭈욱 뻗구 죽으니깨니 저승으로 갈라면서 쌀 겨우 세순가락 허구 돈엽전 서푼 허구 겨—우 고걸 갖구 간단 말이네그려, 응? 만석군이가 죽어 저승으로 가면서넌 쌀 세순가락에 엽전 서푼을 달랑 얻어갖구 간단 말이여. …》

올챙이는 자못 엄숙해하는 낯으로 고즈넉이 앉아 듣고있고 윤장의 령감은 뻐금뻐금 한참이나 담배를 빨더니 후우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말끝을 다시 잇댑니다.

《게 그걸 보구서 고옴곰 생각을 하닝께루 나두 한번 눈을 감구 죽어지면 별수없이 저렇게 쌀 세순가락 허구 엽전 서푼 허구 달랑 고걸 짊어지구 저승으로 가잖거니… 그럴것 아닝가? 뭐 나라구 무덤을 죄선만하게 파구서 그속에다가 나락을 수천석 쟁여주며 돈을 수만량 디릿디려 주것넝가? 또오 그런대두 소용 읎넌것이구… 그렇잖은가?》

《허허, 다아 그런게지요!》

《그렇지? 그러니 말이네. 아, 내 손으루 만석을 받구 수만원을 주무르던 나두 죽어만 지면 별수없이 쌀 세순가락 하구 엽전 달랑 서푼 얻어갖구 저승으로 갈테면서 말이네. … 글쎄 그럴라면서 왜 내가 시방 이 재산을 지키느라구 이대두록 악을 쓰구 남헌테 실인심허구 자식손자놈덜한테 미음받구 나 쓰구싶은데루 나 지내구싶은대루 못 지내구 이러넝고— 응? 그 말뜻 알아들어?》

《네! 네… 허허, 참 거…》

《그러나마, 그러나마 말이네. … 내가 앞으로 백년을 더 살것인가? 오십년을 더 살것인가? 잘히여야 한 십년 더 살다가 두다리 뻗을려면서, 그러니 한번 급살맞아 죽어버리면 아무것두 모르구 다아 잊어버릴년의 세상… 그런디 글씨 어쩌자구 내가 이렇기 아그러쥐구 앉아서 돈 한푼에 벌얼벌 떨구 뭇놈년들 눈치코치 다아 먹구 늙마에 호화호식 편안히 못 지내구… 그것뿐인가? 게다가 한푼이라두 더 못뫼와서 아등아등허구… 허니 원, 내가 이게 무슨 놈의 청승이며 무슨 놈의 지랄짓잉고오? 이런 생각이 가끔 그 뒤터수기를 들더란 말이네그려!》

윤장의령감으로 앉아 그런 마음을 먹고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니 올챙이의 소견이 아니라도 이건 정말 죽으려고 마음이 변했나봅니다.
주객이 잠시 말이 없고 잠잠합니다. 올챙이는 무어라고 위로를 해야겠어서 말긋말긋 윤장의령감의 눈치를 살핍니다.
아무래도 로망이 아니면 환장한 소린것 같은데 혹시 그게 정말이여서 이놈의 령감태기가 자아, 여보소 나는 인제는 재산이고 무엇이고 죄다 소용없네… 없으니 자아, 이걸 가지고 자네가 족히 평생을 사소. … 이렇게 선듯 몇만원 집어주지 말랄법도 노상이 없지는 않으려니싶어 (싶다기보다도) 그렇게 횡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담뿍 허욕이 받쳐서 올챙이는 시방 궁상으로 부른 헛배가 가뜩이나 더 부르려고 하는판입니다. 눈에 담신 고이도록 보비위를 해줄 필요가 그래서 더욱 간절했던것입니다.
《령감님?》
《어－이?》
부르는 소리도 은근했거니와 대답소리도 다정합니다.
《제가 꼬옥 령감님께 한가지 권면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힘쓰게 함)해드릴게 있습니다.》
《권면?》
《네에, 다름이 아니라…》
《아－니, 자네가 시방 또 언제처럼 날더러 무엇이냐 핵교허넌디다가 돈 기부하라구, 그런 권면헐라구 그러잖잉가? 그런 소리거덜랑 이 사람아, 애여 말두 내지두 마소!》
이렇게 황망히 방색을 하는것이 윤장의령감은 어느덧 꿈이 깨고 생시의 옳은 정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미상불 여태까지 그 가라앉은 침통한 목소리나 암담한 안색은 씻은듯이 어디로 가고 없고 활기있는 여느때의 그의 얼굴을 도로 지니고 앉았습니다.
《아니올시다! 온…》
올챙이는 고만 속으로 떡심이 풀리고 입이 헤먹으나 그럴수록이 더욱 잘 건사 물어야 할판이여서 호강스럽게 말을 받아넘깁니다.
《천만에 말씀이지. 그때 한번 령감이 안되겠다구 하신걸 또 말을 낼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그다지 유익하신 일이라구… 실상 그

때 그 말씀을 한것두 달리 그런게 아니랍니다. 다아 학교라두 하나 만드시면 신문에두 추앙이 자자할게구 또오 동상두 서구 할테니까 령감님 송덕이 후세에 남을게 아니겠나요? 그래서 저두 뭐 지낼말루다가 한번 말씀을 비쳐본거지요.… 사실 그 생각하면 과히 돈량비나 되지 그게 그리 신통한 소일두 아니구 말구요!》

《신통이구 지랄이구 이 사람아! 왜 글씨 제 돈 디려가면서 학교를 설치허네, 무얼 허네 모두 남존 일을 헌단 말인가? 천하 시럽의 개아들놈덜이지.… 인제 보소다넌 그런 놈덜은 손복(자기의 복을 덜어 잃음.)을 히여서 오래잔하여 박적을 차구 빌어먹으러 댕길라닝게루, 두구보소!》

과연 윤장의령감은 환장한것도 아니고 로망이 난것도 아니요 정신이 초랑초랑합니다. 아마 아까 하던 소리는 잠꼬댈시 분명합니다. 따라서 올챙이에게는 미안하나 어쩔수 없는노릇입니다.

올챙이는 윤장의령감의 비위를 맞추자던것이 되려 건드리는셈이 되고본즉 땀이 빠지도록 언변을 부려가면서 공공사업에 돈을 내는게 불가한 소치(어떤 까닭으로 이루어진 바)를 한바탕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나서 비로소 처음 초를 잡다가만 이야기를 다시 꺼내던것입니다.

《참, 지가 하루이틀 령감님을 뫼시구 지내는 배가 아니구 그래 참 저렇게 상심이나 하시구 그런끝에 로인이 절식이나 하시구 그러시는걸 뵙기가 여간만 민망스런게 아니예요. 저두 늙은 부모가 있는 놈인데 남의 댁 어른이라구 그런 근경 못 살피겠습니까?… 그래 제딴에는 두루 유념을 하구 지내지요. 이건 참, 입에 붙은 말씀이 아니올시다!》

《그렁게루 설렁탕 사준다구 하넝가?》

《온, 령감두!… 이거 보세요, 령감님!》

《왜 그러넝가?》

《지가 꼬옥 맘을 두고서 권면하는 말씀이니 저어, 마나님 한분 얻으시는게 어떠세요?》

윤장의령감은 대답대신 히물죽 웃으면서 눈을 흘깁니다. 네 이놈, 괘씸은 하다마는 그럴듯 하기는 그럴듯 하구나… 이 뜻이지요.

올챙이도 히죽히죽 웃으면서 없는 모가지를 늘여가지고 조촘 한무릎 다가앉습니다.

《거 아직 기운두 좋으시구하니 불편하신 때 조석마련이며 몸시중이며 살뜰히 들어주실 녀인네루 나이나 좀 진득한이를 하나 구허셔서 이 근처 가까운데다가 치가나 시키시구 허시면 아, 조음 좋아요? 허기야 따님까지 와서 기시구 허니깐 머어 범연하겠습니까마는 그래두 잘하나 못하나 마나님이라구 이름 지어두구 지내시면 시중드는것두 훨씬 맘에 드실것이구 또오 아직 정엉정하시겠다 밤저녁으루 적적허시면 내려가서 위로도 더러 받으시구, 헤헤.》

《네라끼 사람!》

올챙이의 말조가 매우 근경속이 있고 더우기 그끝에 한대문은 썩 실감적이고보매 윤장의령감은 눈을 흘기고 헤벌쭉 웃는것만으로는 못견디겠던지 담배대를 뽑는 입에서 지르르 침이 흘러내립니다.

《헤헤… 거 좋잖습니까?… 그러니 여러 말씀 마시구 마나님 구하실 도리를 하십시오, 네?》

《허기사 이 사람아…》

윤장의령감은 마침내 까놓고 흉중을 실파합니다.

《… 자네가 다아 참, 내 근경을 알어채구서 기왕 말을 냈으니 말이지 낸들 왜 그 대숙이에 시케 실은 녀편네라두 하나 있으면 졸 생각이 없겠넝가?… 아, 그렇지만 그렇다구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점잖찮게 녀편네 얻어달라구 말을 낼수가 있넝가. 그렇찮넝가?》

《아, 그야 그러시다뿐이겠습니까! 그러신줄 저두 아니깐…》

《글씨 그러니 말이네. … 그런것두 다아 내가 인복이 읎어서 그럴티지만 거 창식이며 또 종수허며 그놈덜이 천하에 불효막심헌 놈덜이니! 마구 잡아뽑을 놈덜이여. 웨 그렁고 허면 아, 글시 즈덜은 네—기첩년을 모두 둘씩, 셋씩 얻어서 데리구 살면서 나넌 그냥 그저 모르세이네그려!… 그놈들이 작히나 사람된 놈덜이며넌 허다못해서 눈 찌그러진 녀편네라두… 흔한게 녀편네 아닌가?… 허니 눈 찌그러지고 코삐뚤어진 녀편네라두 하나 주어다가 날 주었으면 자네 말대루 내가 몸시중두 들게 허구 심심파적두 허구 그럴게 아닝가? 그런디 그놈덜이 내가 뫼야준 돈은 갖구서 즈들만 밤낮 그 지랄을 허지 나넌 통히 모른체를 허네그려! 그러니 그놈덜이 잡어뽑을 놈덜 아니구 무엇이람 말잉가?》

속이 본시 의뭉하고 또 전접스런 소리를 하느라고 그러지 실상 알

고보면 혼자 지내는게 작년가을 이짝 일년지간이고 그전까지야 첩이 끊길새가 없었더랍니다.

시골서 살 때에 첩을 둘씩 얻어 치가를 시키고 동네 술에미가 은근한게 있으면 불박이로 상관을 하고 지내고 또오 촌에서 계집애가 복실복실한 놈이 눈에 띠면 다리치인다는 핑게로 데려다가 두고서 재미를 보고 두루 이러던것은 고만두고라도 서울로 올라와서 지난 십년동안 첩을 갈아세운것만 해도 무려 십여명은 될것입니다.

기생첩이야, 가짜녀학생첩이야, 명색 숫처녀첩이야 가지각색이였지요. 모두 일년 아니면 두서너달씩 살다가 갈아세우고 하던것들입니다.

그래오던끝에 재작년인가는 좀 그럴듯한 과부 하나를 얻어 바로 옆집을 사가지고 치가를 시키면서 쓸쓸히 말없이 일년넘게 이태가까이 재미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서른댓이나 되였고 인물도 그리 추물은 아니고 신식계집들처럼 되바라지지도 않고 그리고 근경속있고 솜씨 얌전하고 해서 참 마침감이였습니다. 윤장의령감은 제가 그대로 병통없이, 말치없이 자기 종신토록 잘살아만 주면 마지막림종에 가서 그 집하고 또 땅이나 벼백석거리하고 떼여주어 뒤고생 않게시리 해주려니 이쯤 속치부를 잘 해두었습니다.

아, 그랬는데 글쎄 그 녀편네만은 결코 그러지 않으려니 했던게 웬걸 제버릇 개 못 준다더니 남의 첩댁이짓을 하느라고 끌내는 요개 샛밥을 날름날름 집어먹다가 필경은 이웃집에 기식하고있는 젊은 보험회사 외교원량반과 찰떡같이 배가 맞아가지고 어느날 밤엔가 패물이야 옷나부라기를 말끔 쓸어가지고 야간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늙은 령감헌테 매달려 얼마 안 남은 인생을 멋없이 시들부들 늙어야 하느냐, 혹은 래일은 삼수갑산을 갈값에 《세퍼－드》같은 젊은 놈과 붙어서 지내야 하느냐 하는 그 우렬과 리해의 타산은 제각기 제나름이겠지만 윤장의령감은 그걸 보고서 그년이 제 복을 제가 털어버렸다고, 그년이 이제 논두렁죽음하지 하고 두고두고 욕을 했습니다.

그 녀편네의 신세를 가긍히 여겨 그랬다느니보담 보물은 아니라도 썩 마음에 들던 손그릇이나 하나 잃어버린것 같이 허전하고 그래 오기가 나서 욕으로 화풀이를 했던것이지요.

아무튼 한번 그렇게 알뜰한 첩에 맛을 들인 뒤로는 여느 기생첩이

나 가짜녀학생첩이나 그런것은 다시 얻을 생각이 없고 꼭 고런 놈만 마침 골라서 전대로 재미를 보고싶습니다.

그렇잖았으면야 그게 작년 가을인데 벌써 그동안 둘은 들고나고 했지 그대로 지냈을리 있나요.

첩을 얻어들이는 소임으로 몇해 단골된 곰보딱지 박물장수가 그 운동에 허파에서 바람이 날 지경이지요. 일껀 골라다가 선을 뵐라치면 트집을 잡아가지골랑 탁탁 퇴짜를 놓고 그러면서 속히 서두르지 않는다고 성화를 대군 했어요.

윤장의령감으로야 1년짝이나 혼자 지내고보니 급한 성미에 중매가 더디다고 야단치는게 무리도 아니요. 그러니 자연 늙은이다운 노염이나 심술로다가 첩 안 얻어주는 맏아들 창식이 윤주사나 맏손자 종수가 밉고 미우니까 전접스런 소리며 욕이 나올밖에요.

저희들은 맘대로 골라잡아 맘대로 데리고 살면서 그러니깐 마음만 있게 되면 썩 좋은 놈을 뽑아다가 부친(또는 조부)의 봉친(어버이를 받들어모심)거리로 바칠수가 있으련만 잡아뽑을 놈들이라 범연하여 그래주지를 않는 대세요.

윤장의령감은 혹시 무슨 다른 일로라도 아들 윤주사나 맏손주 종수를 잡아다가 앉혀놓고 욕을 하던 끝이면 의례껏

《야, 이 불효막심헌 놈들아! 그래, 느덜은 이놈덜 밤낮 계집 두셋 얻어놓구… 그러면서 이 늙은 나넌 이렇기… 죽으라구 두어야 옳단 말이냐? 이 잡어뽑을 놈들아!》

이렇게 충분히 로골적으로 공박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시방 올챙이를 데리구 앉아서 그쯤 꼬집어뜯는것은 오히려 점잖은편이라 하겠습니다.

올챙이는 보비위삼아 생색을 내자던노릇이라 구하다 못하면 썩은 나무토막이라도 짊어져다 들이안길값이 기왕 낸 말이니 입맛 당기게스리 뒤갈무리를 해두어야만 할판입니다.

《지가 불일성지(며칠 안 걸려서 이루어짐.)루 썩 그럴듯할 놈을 아니, 참 저 마나님 하나를 방구(널리 찾아 구함.)어보지요. … 실상은 말씀이야 오늘 저녁에 처음으로 냈지만 그새루 늘 그런 유념을 하구설랑 눈여겨보기두 하구 그럴만 한 자리에 연통두 해보구 그래 왔더랍니다.》

《뜻이나마 고맙네만 그만두소, 원…》

말은 그렇게 나왔어도 실눈으로 개소롬하니 웃는 눈웃음하며 헤벌어지는 입 하며 담북 느긋해하는게 갈데 없습니다. 너갈으면 발이 넓어 먹는 골도 여러갈래고 또 게다가 주변도 있고 하니까 쉽사리 성사를 하리라 이렇게 미더운 생각이 들었던것입니다.

《괜一히 그러십니다! 저 하는대루 가만 두구 보십시오. 인제…》

《더군다나 거 지상(기생)이니 녀학생이니 그런것이나 어디 가서 주어올라구? 돈이나 뜯어낼라구 건방지기나 허구 밤낮 샛밥이나 처먹구… 그것덜은 쓰겠덩가? 어디…》

《못쓰구말구요! 전 그런것들은 애여 천거두 않습니다. 인제 보십시요마는 나이 어쨌든 진드윽허니 한 오십먹은 과부루다가…》

《네라끼 사람! 쉰살 먹은 늙은이를 데려다가 무엇에다 쓴다덩가!》

《허허허허… 네一네, 그건 지가 령감님속을 떠보느라 짐짓 그랬답니다, 허허허허…》

《허! 그 사람 참…》

《허허허허… 헌데 그러면 한 서른댓살이나 그렇잖으면 사십이 갓 넘었던지…》

《허기사 너머 젊어두 못쓰겠데마는…》

《네에 알겠습니다, 다아 제게 맡겨두구 보십시오. 나이두 듬직허구 생김새두 숫두루움허구 다아 얌전스럽구 까리 적구 살림 잘하구 근경속있구… 어쨌든지…》

마침 골목밖에서 신문배달부의 요란스런 방울소리가 울려와서 두사람의 이야기를 막고 문득 긴장을 시켜놓습니다. 호외(일정하게 발행하는 호수 이외에 특별히 림시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 가 돌던것입니다.

사변(중일전쟁)은 국지해결이 와해가 되고 북지사변으로부터 전단이 차차 중남지로 퍼지면서 사변에로 확대가 되여가고 그에 따라 신문의 호외도 잦은판입니다.

물론 호외 그것의 방울소리가 아무리 잦더라도 여느 수재나 그런것이라면 흥미가 오히려 무디여지는 수가 있지만 이건 전쟁이라는 커다란 사변인지라 호외가 잦으면 잦을수록 사건의 확대와 전진을 의미하는게 되여서 사람의 신경은 더욱더욱 날이 서던것입니다.

호외방울소리에 말은 끊기우고 주객은 다같이 잠잠합니다. 제각기 사변현실에 대한 자기의 인식능력을 토대삼아 그 발전을 호외방울소리에 의해서 제맘대로 상상을 하고있던것입니다.

《어디 또 한군디 함락시킨넝개비네, 잉?》

이윽고 방울소리가 멀리 사라지자 윤장의령감이 비로소 침묵을 깨뜨리던것입니다.

《글쎄요, 아마 그랬는게지요.》

《거 뭐 청국이 여지 읎넝게비데. 워너니 즈까짓놈덜이 어디라구 일본허구 쌈을 한다구들것잉가?》

《그렇구말구요! 지나(중국)병정이라면 허잘것 없습니다.

앞에서 총소리가 나면 총칼 내던지구서 도망갈 궁리버텀 하구요. … 그래서 지나는 병정이 두가지가 있답니다. 앞에서 전쟁을 하는 병정이 있고 또 그놈들이 못 도망가게 하느라구 뒤에서 총을 대구 지키는 병정이 있구… 도망을 가는 병정이 있으면 그대루 대구 쏘아 죽인다니깐요.》

《원, 저런 놈들이!… 아-니, 그 지랄을 해가면서 무슨짓이라구 싸움은 헌다넝가? 응, 들으닝게루 이번에두 즈가 먼점 집적거려서 쌈이 되았다네그려.》

《그렇죠, 그놈들이 다아 어리석어서 그래요!》

《아-니 글씨 좋게 호떡장수나 하여먹구 인죄견장수나 하여먹을 일이지 어디라구 글시 덤빈단 말이여!》

《즈이는 별조 없어두 따루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다나봐요.》

《믿다니?》

《아라사를 찜믿구서 그랬다구요!》

《아라사를?》

《네에… 그것두 달리 그랬으꼬마는 아라사가 쏘삭쏘삭해서 지나의 장개석일 충동일 시켰대요. 이 애, 너 일본허구 싸움않니? 아니 해? 이 병신 바보녀석아, 그래 그렇게 끔쩍못해?… 싸움해라, 싸움해. 하기만 허면 내가 뒤에서 한몸 거달아줄테니, 응? 아무걱정 말구서 덤벼들어라, 덤벼서 싸움만 하란 말이다. 하면 다아 좋은수가 있으니… 이렇게 충동일 놓았대요!》

《오옳지, 아라사가 그랬다! 그런디 아라사가 왜? 저 거시기 그때

일아전쟁에 진 그 원협으루, 그 분풀이루…》
《아니지요. 그런게 아니구 아라사가 지나를 집어삼킬 배심으로 그랬지요.》
《청국을 집어먹을 배심이라?… 아ㅡ니, 그게야 집어먹자고들랴면 차라리 청국허구 맞붙어서 헌다넝건 몰라두…》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 아라사루 말허면 아따 저 무엇이냐, 사회주의를 하는 종족이거던요.》
《그참, 아라사놈들은 그렇다데그려ㅡ 그놈의 나라에서는 부자사람의것을 말끔 뺏어다가 뭣이냐 농군놈덜 허구 로동군놈덜 허구 나눠주었다지?》
《그렇지요.》
《허! 세상 참…》
《그런데 아라사는 즈이만 그걸 헐뿐아니라 지나두 즈이허구 한판속을 만들려구들거던요.》
《청국을?… 청국두 그놈의 사회주의라나 그 부랑당속을 멘들어?… 그게 무어니무어니 히여두 이 사람아, 알구보닝게루 바루 부랑당속이지 별것이 아니데그려. … 자네는 모르리마넌 옛날 죄선두 활빈당이라넝게 있었더니. 그런디 그게 시체 그놈의것 무엇이냐 사회주의허구 한속이더니…》
《저두 더러 이야긴 들었습니다.》
《기보소. 그런디 활빈당이라께 별것 아니구 그냥 부랑당이더니 부랑당… 그러닝개루 그놈의것두 부랑당속이지 무어여? 그렇잖은가?》
《그렇죠! 가난한 놈들이 있는 사람의것을 뜯어먹자는 속으루 들어선 일반이니까요!》
《그렇구말구, 그게 모다 환장속이여. 읎넌놈덜이 즈가 못사닝게루 환장속으루 오기가 나서 그러거던… 그런디 무엇이냐. 아라사놈덜이 청국두 즈처럼 그런 부랑당속을 꿔미려들었담 말이지?》
《그렇죠… 하기야 지나뿐아니라 온 세계를 그리자구든다니까요!》
《뭐이? 그러면 우리 죄선두? 아ㅡ니, 죄선서야 그놈들이 사회주의 허다가 말끔 잽혀가서 전중이(징역군) 살구서 시방은 다아 미끔허잖은가?》
《그렇지만 만약 지나가 그속이 되구보면 재미가 없죠. 뭐 죄선뿐

이 아니라 동양천지가 모두 재미없습니다!》

《참, 그렇기두 허겠네! 청국 지어 죄선이라, 바루 가까인개루… 거 참, 그렇겄네! 그렇다면 못쓰지! 못쓰구말구. … 아… 아, 이 사람아, 다른 사람두 다른 사람이지만 나부텀두 어떻게 헌단 말인가? 큰일나지, 큰일나… 재전에 그놈의 부랑당패를 디리 없이 치르던 일을 생각허면 시방두 몸서리가 치이구 뭐어 치가 떨리구허넌디. 아니, 그 격난을 날더러 또 겪으란 말이여? 안될 말이지! 천하 없어두 안될 말이지! 어ㅡ디를ㅡ 이놈덜…죽일 놈덜…》

《아ㅡ니 그러니깐…》

《아, 글씨 누가 즈더러 부자루 못살래서 그리어? 누가 즈의것을 빼앗길래 그리여? 어째서 그놈덜이 그 지랄이어?… 아, 사람 사람이 다아 제가끔 지가 타구난 복대루 부자루두 살구 가난히게두 살구 그리기루 다아 하늘이 마련한노릇이구 타구난 팔잔디… 그래, 남은 잘살구 즈들은 못산다구 생판 남의것을 뺏어다가 즈덜 창사구(창자)를 채려들어? 응?… 그게 될말이여? 아, 그런 놈덜은 말끔 잡아다가 목을 숭덩숭덩 쓸어죽여야지!… 아 이 사람아, 만약에 세상이 두루 그지경이 되구보면 그노릇을 어쩐담 말인가? 응?》

《허허, 그런 걱정은 안허셔두 좋습니다!》

《안히여두 좋다?》

《그럼요!》

《그렇다면 다행이네마넌…》

《시방 지나를 치는것두 다아 그것때문이랍니다. 장개석이가 즈이 망할 장본인인줄은 모르고서 사회주의를 하는 아라사의 꼬임수에 넘어가지굴랑… 꼭 망할 장본인이지요. … 령감님말씀대로 온통 부랑당속이 될테니깐두루. 》

《그렇지, 망하다뿐인가? 할일없이 옛날의 부랑당패 한참 드세던 죄선뽄새가 되구말테니깐두루. 》

《그러니깐 말하자면 지금 지나가 아라사의 꼬임에 빠져 정신을 못차리구는 함부로 날뛰는셈이지요. 그래서 그걸 가만 둬둬선 청국 즈이두 망하려니와 동양이 통으로 불안하겠으니깐 이건 이래서 안되겠다구 말씀이지요. 안되겠다구 일본이 떠들구나서가지구설랑 지나를 정신을 채리게 하느라구 이를테면 따구깨나 붙여가면서 훈계를 하는게

이번 전쟁이랍니다.》

《하하하, 오옳지! 옳여! 인제 보닝게루 사맥이 그렇게 된 사맥이 네그려! 거참, 그럴듯 허구만! 그거 잘히넌 노릇이여! 아무렴, 그리야 허구말구… 여부가 있을것잉가!… 그렇거들랑 그녀석들을 뭐 약간 뺌사대이(따구)만 때릴게 아니라 반주검을 시켜서 다실랑 그런 못된 본을 못 보게시리 늘씬 두들겨주어야지, 늘씬. … 다리뼉다구를 하나 분질러주어두 한무내하지 뭐… 어 거참, 장헌노릇이다. … 그러닝게루 이번 일은 여느치구 뺏구 하던 그런 전쟁허구두 내평이 다르네그려?》

《그야 다르지요.》

《참 장헌노릇이여! 아 이 사람아, 글씨 시방 세상에 누가 무엇이 그리 답답히여서 그노릇을 허구있겠넝가?… 자아 보소, 관리히며 순사를 우리 죄선으로 많이 내보내여서 그 숭악한 부랑당놈들을 말끔 소탕시켜주구 그리서 량민들이 그 덕에 편히 살지를 않는가?

그리구 또 이번엔 그런 전쟁을 히여서 그 못된놈의 사회주의를 막아내주니 원 그렇게 고맙구 그렇게 장한디가 어디 있단 말인가. … 어 —참, 끔찍이두 고맙구 장한노릇이네!… 게 여보소, 이번 쌈에 일본이 갈디없이 이기기넌 이기겠네, 잉?》

《그야 여부없지요! 이기구말구요!》

《그럴것이네. 위너니 일본이 부국강병하기루 천하제일사라던디… 어—참, 속이 다아 후련히다!》

이야기세말에 팔렸던 올챙이가 정신이 들어 시계를 꺼내보더니 볼일이 더디였다고 총총히 물러갔습니다.

그는 물러가면서 잘 유념을 하여 쉬 그 마나님감을 골라다가 현신시키겠다고 자칭 다짐을 두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9. 절약의 도락(취미나 재미로 하는 일)정신

올챙이를 보내고나서 윤장의령감은 퇴침(서랍이 있는 목침)을 돋우베고 보료우에 가 편안히 드러눕습니다.

침침한 13와트전등불에 담배연기만 자욱하니 텅빈 3간장방 아래목

에 가서 허연 령감 하나만 그들먹하게 달랑 드러누운것이 어떻게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다시 어떻게 보면 페허같이 호젓하기도 합니다.

윤장의령감은 멀거니 드러누웠자니 심심해서 못견디겠습니다. 춘심이년이나 어서 왔으면 하겠는데 저녁먹고 곧 오라 했으니까 오기는 올테지만 고년이 이내 뽀르르 오는게 아니라 까불고 초란이짓을 하느라고 이렇게 더디거니싶어 얄밉습니다.

대복이도 까맣게 기다려집니다. 간 일이 궁금도 하거니와 여덟신데 오래잖아 라지오를 들어야 하겠으니 그안으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저녁을 몇술 뜨다가 말아서 속도 출출합니다.

이런 때에 딸이고 손주며느리고 누구 하나 밥상이라도 들려가지고 나와서 진지 잡수시라고 권을 했으면 못 이기는체 하고 달게 먹을텐데 그런 재치 하나 부릴줄 모르는것이거니 하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시장한 깐으로는 삼남이라도 내보내서 우동이라도 한그릇 불러다가 후루룩 쭉쭉 먹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어금이밑에서 사뭇 신침이 고여나오고 가슴이 쓰리기는 하지만 집안애들이 볼가보아 체면에 차마 못합니다.

누가 먼저 오나 했더니 대복이가 첫째(?)를 했습니다.

운동화에 국방색당고바지에 검정저고리에 오그러붙은 카라에 배애배 꼬인 검정넥타이에 사년된 맥고모자(밀짚이나 보리짚으로 만들어 여름에 쓰는 모자)에 볕에 탄 얼굴에 툭 불거진 광대뼈에 근천스럽게 말라붙은 안면근육에 깡마른 눈정기에… 이 행색과 모습은 백만장자의 지배인 겸, 서기 겸, 비서 겸 이러한 인물이라기는 매우 섭섭해보입니다.

차라리 살림살이에 노상 시달리는 촌의 면서기가 그날 출장을 나갔다가 담복 시장해가지고 허위단심 집엘 마침 당도한 형상이랬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실상 면서기출신이 아닌것도 아니구요. 대복이가 방으로 들어만섰지 미처 무어라고 인사도 하기 전에 윤장의령감은 벌떡 일어나앉으면서 《히였넝가?》 하고 묻습니다.

가차압(림시로 차압함.)을 나가는 집달리 (재판소의 문서를 송달하는 사무를 보는 직원)를 따라갔으니 물어보나마나 알 일이지마는 성미가 급해놔서 진득이 저편의 보고를 기다리고있지를 못합니다.

《예에, 다아 잘…》
대복이는 늘 치러난 훈련으로 제가 복명을 하기보다 주인이 묻는대로 대답을 하기 위하여 넌지시 꿇어앉아 다음을 기다립니다.
《무엇으다가 붙였넝가?》
《마침 광에 나락이 한 오십석이나 있어서요. …》
《나락? 거참, 마침이구만!… 그리서 그놈에다가 붙였넝가?》
《예에.》
《잘했네! 인제 경매헐 때 그놈을 우리가 사머넌 거 괜찮을것이네! 나락이닝게루…》
《그렇잖에두 그럴라구 다아 그렇게저렇게 마련을…》
워낙 대복이가 누구라고 그걸 번연히 했을리가 없던것입니다.
꿩먹고 알먹고 하는 속인데 윤장의령감은 채무자의 재산을 가차압을 해놓고 기한이 지난 뒤에 경매를 하게 되면 속살로 그것을 사가지고 그것에서 다시 리문을 봅니다.
이 맛이 하도 고소해서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놓치지를 않습니다.
《에―거, 일 십상 잘되얐네!… 그리서 그분네 술대접이나 좀 힛넝가?》
《돈 십원어치나 술을 먹였더니 아마 그 값이 넉넉히 빠질라넝개비라우!》
《것두 잘했네! 무엇이구 멕이면 되는 세상인게루… 그럼 어서 건너가서 저녁 먹소. 이따가 이얘기하지!…》
윤장의령감은 아까 올챙이와 말이 얼린 만창상점의 수형조건을 상의하려다가 그거야 이따고 래일이고 천천히 해도 급하지 않대서 대복이의 시장하고 피곤할것을 여겨 그만두는것입니다.
윤장의령감으로는 이문속으로 탈이나 없고 할 경우면 실상은 말을 내는 일도 없기는 하지만 더러 대복이를 위해줄만도 합니다.
대복이는 참으로 보뱁니다. 차라리 윤장의령감의 한쪽이라고 하는게 옳겠지요. 성명은 전대복인데 장차에는 어떻게 될는지 기약하기 어렵다 하더래도 반평생을 넘겨산 오늘날까지 이름대로 복이 온전하고 크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복했지요.
윤장의령감과 한고향입니다. 면서기를 5년 다녔고 그중 4년이나 회계원으로 있었습니다.
꼼꼼하고 착실하고 고정하고 그리고도 사람이 재치가 있고 이래서

윤장의령감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런 결과 윤장의령감네가 서울로 이사해올 때에 자가용회계원 겸 심부름군 겸 만능재비로다가 이사짐과 한가지로 묻혀가지고 왔습니다.

이래 십년 대복이는 까딱없이 지내왔습니다. 참말로 윤장의령감한테는 깎아맞췄어도 그렇게 손이 맞기는 어려울만큼 성능이 두루 딱따기로 만점이였습니다.

약삭빠르고 고정하고 민첩하고 리속이라면 훵하니 밝고… 이러니 무슨 여부가 있을리가 있나요. 가령 두부를 오늘 저녁에는 세모만 사들여보낼 예정이라면 사는 마당에서는 두모하고 반만 사고싶습니다. 그러나 두부 반모는 서울장안을 온통 메고 다녀야 파는데가 없으니까 더 줄여서 두모를 삽니다. 결국 이전오리를 아끼려던것이 그 갑절 5전을 얻었으니 치부군으로 그런 규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복이라는 사람이 돈을 아끼고 그 솜씨가 무릇 이렇다는 일례입니다. 진실로 얼마나 충실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렇대서 사람이 잘다고만 하면 그건 무릇 인간성을 몰각한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

대복이가 가령 주인네 반찬거리로 세모를 사들여보낼 두부를 두모하고 반모만 사고싶다고 반모는 팔질 않으니까 두모를 사는 그 조화가 단지 그것을 아끼자는 즉 순전한 목적의식만으로만 그런건 아닙니다. 그는 돈이야 뉘돈이 되였든 살림이야 뉘 살림이 되였든 그 돈을 졸여쓰는 방법 거기에 우선 깊은 취미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때문에 두부를 세모를 살텐데 두모반을 못 사서 두모만 산 때라든지 윤장의령감의 심부름으로 동대문밖을 나가는데 갈제는 걸어서 가고 올제만 타고와서 전차삯 5전을 덜 쓴 때라든지 이러한 날은 아껴쓰고 남긴 그 5전을 연신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하면서 무한히 유쾌해합니다. 그는 5전을 그렇다고 제 주머니에다가 넌지시 집어넣느냐 하면 물론 절대로 아닙니다.

대복이는 그러므로 가령 한사람의 훌륭한 도락가를 천거하더라도 결단코 자격에 손색이 없을겝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각색 고서를 모으기에 재미를 붙입니다. 별 얄망궂은 책들을 다 모으지요.

어떤 사람은 화분가꾸기에 재미를 들입니다. 올망졸망 화초를 분에

다가 집어넣고 그것을 가축하느라 심지어 모필로다가 잎사귀에 앉은 먼지를 털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도락이 남보기에는 곰상스럽기나 했지 아무 소용도 없는것 같지만 그걸 하고있는 당자들은 천하에 없게 끔찍스리 재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쓰는데 요모조모로 아끼고 조리고 깎고 해가면서 군것은 먼지 하나도 안 붙게 씻고 털고 한 새맑은 알맹이돈을 만들어 쓰군 하는 대복이의 그 진미가 다 다른 규모의 그러니까 버젓한 도락이 아닐수 없습니다.

윤장의령감과 대복이사이에는 네것, 내것이 없습니다. 죄다 윤장의령감의것이고 대복이의것은 하나도 없어서 말입니다.

허기야 윤장의령감은 대복이를 탁 믿고 월급이나 그런것은 작정도 없이 네 용돈은 네가 알아서 쓰라고 내맡겼은즉 한 백만원 집어쓸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복이가 매삯 쓴다는것이라는게 극히 적고도 겸하여 일정한것이여서 담배 단풍표 서른곽과(만약 큰 달이라치면 삼십일일날 하루는 모아둔 꽁초를 피웁니다) 박박 깎은 머리삯 25전과 목간값 7전과 이런것이 정상비요 림시비로는 가장 하길(하등의 품질)의 피복대와 10전미만의 통신비가 있을따름입니다.

그는 그러한중에서도 주인 윤장의령감의 살림이나 사업에 드는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그대도록 바닥이 밝아 빠안히 들여다보이는 제 비용도 가다간 용하게 재주를 부려서 뻐젓하니 절약을 해내곤 합니다.

가령 쉬운 례를 들자면 이런것도 있습니다.

대복이는 한달에 한번씩 반드시 목간을 하는데 그 비용은 물론 7전입니다. 비누를 쓰지 않으니까 꼭 7전외에는 수건이나 해지면 해졌지 다른것은 더 들게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한달에 한번씩 하던 그 목간을 약간 늦추어 한달하고 닷새 즉 35일만에 한번씩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섯번을 한 결과로는 매번 닷새씩 아낀것으로 해서 일곱달동안에 여섯번의 목간을 했고 동시에 한달 목간삯 7전을 절약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성과를 거둔 날에 대복이는 대단히 유쾌했습니다.

진실로 립신(출세)의 묘기로 추앙(높이 우러러봄.)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안해가 고향에서 시부모를 섬기고있었는데 년전에 죽었고 그래 대복이는 시방 홀아비입니다. 죽은 안해가 불쌍하고 시골살림이 각다분하고 홀아비신세가 초라하기는 하지만 그런걸 전화위복이라고 과연 복이 될는지 무엇이 될는지 아직은 몰라도 복이려니 하는 대망을 아무튼 홀애비가 된 그걸로 해서 품을수만은 있게 되였던것입니다.

대복이 그가 임자없는 사내인것과 일반으로 안에는 시방 임자없는 녀편네 서울아씨가 있어서 우선 임자없는 계집, 사내가 주객이 되였다는것이 가히 원칙적으로는 그들을 합쳐줄 조건이 됐던것입니다.

물론 실제란 놈은 언제고 원칙을 생색내주려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복이의 대망도 장차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는 합니다.

첫째 둘이서 (아니 저쪽에서) 뜻이 있어야 하고 윤장의령감이 죽어버리거나 그렇잖으면 묵인을 해주기나 해야 하겠으니 그것이 모두 미지수가 아니면 억지로다가 뛰여넘을수는 없는 난관입니다.

가령 윤장의령감이 막고 못하게 하는것을 저희들끼리서만 배가 맞아서 살잔즉 서울아씨의 분배받은 오백석거리가 따라오지 않을테니 그건 대복이가 앉아서 보면 목적을 전연 무시한 결과라 아무 의의도 없을노릇입니다.

대복이라는 사람이 본시 계집에게 반하고 아끼고 할 활량도 아니요, 반할 필요도 없기는 하지만 그러니 더구나 목 움출이에, 주근깨바탕에, 납작코에 그런 빈대상의 서울아씨가 계집으론 하 그리 탐탁하다고 욕심이 날 리치는 없습니다.

다만 홀애비라는 밑천은 있으니까 오백석거리로 동구러한 과부라는데에 오직 친화성이 발견된따름이고 그게 대망의 초점이지요.

그러니까 시방 대복이는 제1단의 문제로 서울아씨가 저에게 뜻이 있으면 하고 바랍니다. 만약 그렇기만 하다면 일이 한쪼각은 성공이니까 매우 기뻐할 형상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가령 서울아씨가 쫓아와서 제 허리띠에 목을 매고 늘어지더라도 제2단의 난관인 윤장의령감의 묵인이나 승낙이 없고 볼것 같으면 알짜 오백석거리의 도금이 벗겨져버린 서울아씨일터인즉 그는 단연코 그 정을 물리칠것입니다.

둥글게 먹고 가늘게 싸더라도 윤장의령감이 인제 죽을 때는 단돈 몇천원이라도 끼쳐줄 눈치요 그것만은 외수(속임수)가 없는 구멍인것을 잘못하다가 그 구멍마저 놓쳐서는 큰 랑패이겠으니 말입니다.

《전서방님 오시넌디 저녁진지상 주어기라우. …》

삼남이가 안방대뜰로 올라서면서 떼여놓고 하는 소립니다.

《전서방 오셨니?》

안방에서 경손이와 태식이를 데리고 무슨 이야긴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서울아씨가 와락 반가운 소리로 대답을 하면서 마루로 나오더니 이어 부엌으로 내려갑니다.

전서방이고 박서방이고간에 그의 밥상을 아는체 할 며리도 없고 또 계제가 그렇게 되였더라도 삼월이를 불러내서 시키든지 조카며느리들한테 밀든지 할것이지 여느때는 부엌이라고 들여다보지도 않는 서울아씨로 느닷없이 이리 서두르는것은 적실코 한개의 이변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경손이가 그 이변을 직각하고서 서울아씨가 나간 뒤에다 대고 고개를 끄댁끄댁, 혀바닥을 날름날름합니다.

서울아씨는 물론 그런 눈치를 보인줄은 모를뿐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 이변스러운것조차 미처 깨닫지를 못합니다.

허나 그렇다고 또 서울아씨가 대복이한테 깊수룸한 의향이 있는것이냐 하면 실상인즉 그게 매우 모호해서 섬뻑 이렇다고 장담코 대답하기는 난감합니다.

혀바닥은 짧아도 침을 멀리 뱉는다고 합니다.

서울아씨는 다아 참 량반의 집 자녀요, 량반의 집 며느리였고 친정이 만석군이요 내 몫으로 오백석거리가 돌아올테고 이러한 신분을 가져다가 사랑방 대복이와 견줄 생각은 일찌기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떻게 어떻게 되여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얼려가지고 대복이한테로 팔자를 고친다 치더라도 그거나마 마다고 물리치지는 않을지언정 대복이라는 인물이 하 그리 솔깃하거나 그래서 그러는것은 아닐텝니다. 허니 오로지 그가 치마두른 계집이 아니고 남자라는것 단연 그것 하나때문일것입니다.

그렇기로 들면 같은 남자일바에야 대복이보다는 어느모로 따지든지 취함직한 남자가 허구 많을텐데 하필 그처럼 눈에도 안차는 대복이냐

고 하겠지요.

그러나 서울아씨는 시집을 갈수 있는 숫처녀인것도 아니요, 신풍조를 마신 새로운 녀인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의 낡은 세상의 과부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있는줄은 알아도 남자가 있는줄은 의식적으로 모릅니다.

그것은 또 결단코 절개가 송죽같아서가 아니라 눈가린 마차말이 마차를 메고 달리는것과 일반으로 훈련된 본능일따름입니다.

과부라는것은 그 리유는 몰라도 그냥 그저 두번째남편을 맞지 않는것이라고만 알고있기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서울아씨도 장차 어떠한 고패에 딱 닥드려서는 그 훈련된 본능을 과연 보전할지가 의문이나 아직까지는 털고 나서서 개가를 하겠다는 의사는 감히 없고 역시 결혼이라는것은 못하는걸로 여기고만 있습니다.

허기야 더러 그 문제를 가지고 빈약한 소견으로 두루두루 생각을 해보지 않은것은 아니나 아무리 둘러대보아야 그것은 힘에 벅찬 거역이여서 도저히 가망수가 없으리라싶기만 하던것입니다.

(그러하다면서 대복이한테 그가 심상찮은 마음의 태도를 보인다고 한것은 역시 공연한 데마(허위선전)가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막상 그렇지 않은 소치가 있습니다.

과부라고 중성이 아닌바에야 생리적으로 꼼짝못할 명령자가 있는것을 그러니 이성이 그립지 않을 리치가 없습니다. 서울아씨도 이성이 그립습니다. 지금 스물아홉인데 12년전에 일년동안 겨우 남편과 지내고서 이내 홀몸입니다.

삼십이 되여오니 그 이성 그리움이 차차로 더합니다.

그가 성자다운 수련을 쌓지 않은 이상 단지 과부라는 형식만이 있어가지고는 ××분비의 맹렬한 한개의 커다란 필연을 도저히 막아낼수는 없던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극히 자연스러운 그러나 일종 근육적인 반사작용으로써 이성을 그리워하고 무의식한 가운데 이성을 반겨하고 하지 않을수가 없는 녀자, 서울아씨던거요. 그런데 일변 그의 세계란것은 겨우 백마흔평이라는 이 집 울안으로 제한이 되여있고 그 제한된 세계에는

오직 대복이가 존재해있을따름이던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아씨는 대복이라면 그와 같이 의식보다도 제풀 근육이 반사적으로 날뛰며 몸이 먼저 반가와하고 그것이 날이 갈수록 남의 눈에 뜨이게 차차는 현저해가던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아씨의 근육이 풍겨 내놓은 이변은 그러나 저혼자서는 도저히 발견할 능력이 없을뿐아니라 아직은 한날 재료일따름이요, 겸하여 의사의 판단과 상량(헤아려 생각함.)을 치르지 않은것인즉 미리서 대복이를 위하여 축배를 들 거리는 못되는것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남이가 웬만치 눈치가 있었더라면 밥상을 들고 나가서 대복이더러 넌지시 서울아씨가 펄쩍 뛰여나오더니 평생 않던짓을 밥상을 차린다, 이것, 저것 반찬을 골라놓는다, 또 숭늉을 데운다 야단이더라고 이쯤 귀띔이라도 해주었을것입니다.

그랬으면야 대복이도 속이 대단 굴절했을것이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무슨 모숀(일정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시작하면서 예비적으로 하는 동작)을 건네보려고 궁리도 할것이고 그랬을텐데 삼남이란 제 눈치도 모르는 아인걸 남의 눈치를 알아챌 활인은 아니였으니까요.

그래 대복이는 전에 없던 밥상인것만 이상히 여기고말았습니다.

그러나 경손이 그 애가 능청맞은 애라 제 대고모의 그러한 이변을 발견했은즉 혹시 무슨 장난이라도 할듯싶으고 그끝엔 어떤 일이 생길듯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꼭 그러리라고 단언은 할수 없는 일이고요.

10. 실 제 편

대복이가 윤장의령감의 머리말 연상에 놓인 라지오의 스위치를 누르는대로 티오디케(TODK)의 풍류가 마침 기다렸던듯이 좌악 흘러져 나옵니다.

《따앙 찌—찌, 즈응 중지 따앙 증응 다앙…》

《잔령산》입니다

청성스런 단소의 둥근 청과 이몽한 거문고의 소리가 서로 얽혔다물렸다하는 사이를 가냘픈 양금이 양글게 메기고 나갑니다.

《다앙 당동, 다앙동 다앙당, 증씨, 다앙 당동당, 따앙 다앙 따앙…》

초장이 끝을 흥있게 몰아치는 바람에 담배대를 물고 따악 드러누워 듣고있던 윤장의령감은

《좋다아!》

하면서 큼직한 엉덩판을 한번 칩니다.

무릇 풍류란건 점잖아서 잡가나 그런것과 달라 그 《좋다.》를 않는 법이랍니다. 그러나 그까짓 법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윤장의령감은 좋으니까 좋다고 하면 좋을 따름이지요.

이렇게 무식은 해도 그거나마 음악적취미의 교양이 우리 신흥량반 윤장의령감한테 지녀져있다는것이 일변 거짓말같기는 하지만 그전으로 장의 구실을 지낼무렵에 선비들과 구축한 그것이라고 하면 그리 이상치 않겠습니다.

라지오를 만져놓고 마악 제 방으로 물러가는 대복이와 엇갈려 춘심이년이 배시시 웃으면서 들어섭니다.

《어서 오너라, 이년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윤장의령감은 반가와하면서 욕을 하고 춘심이는 욕을 먹어도 먹지를 않습니다.

《일찍 올 일은 또 무어 있나요? 오구싶으면 오구, 말구싶으면 말구하지요, 시방 세상은 자유세상인데.》

춘심이가 단숨에 쏘아리면서 얼굴앞에 바투 주저앉는것을 윤장의령감은 멀거니 웃고 바라다봅니다.

《대체 네년 주둥아리다가넌 도롱태(간단하게 만든 수레)를 달었는가부다? 어찌 그리 말허는 주둥이가 때르르허니 방정맞냐?》

《도롱대가 무어야요?》

《떠들지 말구 이년아… 나 풍류소리 들을나닝게 발치루 가서 다리나 좀 쳐라, 응?》

《싫어요! 밤낮 다리만 치라구 허구…》

불평을 할만도 하지요. 비록 반표로 갈값에 영업장을 갖고 세납을 불고 하는 기생더러 육장 다리를 치라니요.

춘심이는 금년 봄부터 시작하여 윤장의령감의 다섯번 실련을 한 여섯번째의 애인입니다.

아—니 그 애가 나이 몇이며 윤장의령감이 몇살이라고 그따위 소리

를 하느냐겠지만 그러나 결단코 아뭏게 무함을 잡는건 아닙니다.

작년 가을 그 살뜰한 첩이 도망을 간 뒤로 윤장의령감은 객회가 대단히 심했고 그뿐아니라 밤저녁으로 말동무가 없게 되여 여간만 심심치가 않았습니다.

사랑은 쓰고있으되 놀러 올 령감 친구 하나 없습니다. 정녕 무엇하면 객초 몇대씩 허실하면서라도 바둑친구나 청해오겠지만 윤장의령감은 바둑이니, 장기니 그런것은 자고이후로 손을 대본적이 없습니다. 웬만한 로인들은 다 만질줄을 아는 골패도 모르고 이날이때까지 살어왔습니다. 그런 기국(바둑판)이나 잡기 (여러가지 놀음)에 손을 대지 않는것은 소시적에 남들이《놀음군 말대가리자식놈》이라고 뒤손가락질과 귀먹은 욕을 하는데 절치부심(몹시 분하여 이를 갈면서 속을 썩임)을 한 소치라고 합니다.

그래 아무런 말동무 하나 없이 밤이나 낮이나 텅 빈 삼간 장방에 담배대를 물고 혼자 달랑 누웠다 앉었다 하자니 어느때는 마구 다리가 비비꼬이게싶이 심심해 살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마침 올 삼월인데 윤장의령감이 작년 추석에 성묘 겸 고향에 내려갔을제 술자리에서 수삼차 부르는 기생 하나가 그뒤 서울로 올라왔다고 그래 고향어른을 뵈러 온다고 우정 이 게동구석까지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기생이 제 동생이라고 머리 딴 동기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인사를 드렸고 윤장의령감은 고놈 동기아이가 매우 귀여웠습니다.

《너 가끔 놀러오너라, 와서 날 이야기책두 읽어주구 더러 다리두 쳐주고 허먼넌 내 군밤 사먹으라구 돈주지. …》

덜머리진 총각녀석이 꼬마들께더러 엿 사주마하는 범주와 별반 다를게 없는 행투겠지요. 깊이 캐고보면 말입니다. 설마 그런 눈치야 몰랐겠지만 동기 아이는 웃기만 하지 대답을 않는것을 형되는 큰기생이 제 동생더러 《그래라, 가끔 놀러와서 모시고 놀아드려라. 로인은 애들이 동무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무슨 딴 의사가 있는줄은 몰랐을것이고 다만 제 생색을 내여 노름발이라도 들가 하는 요량이던게지요.

윤장의령감은 실상 큰기생이 종종 와주었으면 해롭진 않을판입니다. 더러 와서는 조용히 시조장이나 부르고 코노래 섞어 잡가 토막도

부르고 이런 이얘기 저런 이얘기, 이얘기나 하고…

물론 그것뿐입니다. 윤장의령감은 큰기생 그한테 뜻이 있을 필요는 전연 없습니다. 털어놓고 공식으로 외입을 한다던지 하자면야 서울 장안의 기생만 하더래도 얼굴이 천하일색이 수두룩하고 또 가령 얼굴은 안 본다칠갑에 노래가 명창으로 멋이 쿡 드는 기생이 또한 허구 많은데 그런 놈 다 제쳐놓고 하필 인물도 노래도 다 시원찮은 이 기생을 같은 돈 들여가면서 그럴 며리가 없는게니까요.

그러나 일변 기생으로 보면 피장파장일것이 새파란 젊은년이 무슨 그리 살뜰한 정분이며 알뜰한 정성이 있다고 제벌이, 제볼일 제쳐놓고서 육장 이 구석을 찾어와서는 노름채 (노름빚) 못 받는 개평놀음을 논다, 아무 멋대가리 없는 늙은이시중을 든다 하고싶을 리치가 없을게 아니겠습니까.

경위가 이러하고 본즉 윤장의령감은 단지 눈앞의 화초로만 데리고 놀재도 이편에서 오라고 일러야 할것이요, 오라고 해서 오고보면 그게 한두번일세 말이지 세번에 한번쯤은 소불하 10원 한장은 집어주어야 인사가 아니겠다구요.

그러나 돈이 십원, 파란딱지 그놈 한장이면 일원짜리 열장이요, 십전짜리로 일백잎이요, 일전짜리로 일천잎이요, 옛날세상이라면 엽전으로는 오천잎이요, 오천잎이면 만석군이 부자라도 무려 일천칠백번이나 저승을 갈수 있는 돈이요 한결 생판 어디라고 윤장의령감이 그렇게 함부루 쓸법은 없던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옹근 기생이 아니고 볼양이면 이런 체면, 저런 대접 여부없이 그저 가끔 가다가 돈장이나 집어주군 하면 제야 군밤을 사먹거나 봉지쌀을 사들고 가거나 이편이 아랑곳이 아니요, 내가 할 도리는 넉넉 차리게 될테니까 두루 좋습니다.

그런고로 해서 동기를 데리고 노는것이 돈 더얼 드는 규모있는 소일일뿐만아니라 또 윤장의령감은 기왕 소일거리로 데리고 놀바에야 계집보다도 계집애가 더 귀엽고 재미가 있습니다. 아ㅡ니 소일거리이상의 경우를 고려해서 역시 돈은 적게 들고 비공식이요, 그리고도 취미는 더 있을게 계집애입니다. 사람이 나이 늙으면 늙을수록 어린 계집애가 귀여운 법이라구요. 그거야 귀여워하는 방법 나름이겠지만 우리 윤장의령감의 방법은 의미심장합니다.

아무렇든 계제가 마침 좋은지라 기생형제가 하직인사를 하고 일어설 때에 큰기생더러 《그럼 자네가 더러 좀 올려보내소. 내가 거 원 이렇게 혼자 있으닝개 제일 말동무가 없어서 심심히어 못허겠네. … 그러니 부디 가끔가끔…》하고 근천스런 부탁을 했습니다.

큰기생은 종시 선선히 대답을 하고 돌아갔고 그런지 사흘만엔가 윤장의령감이 혼자 누워서 심심하다못해 고년이 어쩌면 올상도싶은데… 이런 때 좀 왔으면 작히나 좋아… 몰라 또 말은 그렇게 흔연히 하고 갔어도 보내기는 웬걸 보낼랴더냐… 아니 그래도 혹시 어쩌면… 이리 궁금해하면서 기다리느라니까 아닌게 아니라 훨씬 낮이 겨운 뒤에 그애 동기아이가 찰래찰래 오지를 않겠습니까.

젊은것들끼리 제 애인을 고대고대하다가 겨우 와주어서 만날 때도 아마 그렇게 반갑겠지요.

윤장의령감도 대단 반갑고 일변 신통스럽습니다.

윤장의령감은 그 살뜰한 애기손님을 옆에 중수히 앉히고는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종알종알 이얘기하는 입도 들여다보고 꼬챙이로 찌르듯 빼액빼액하는 노래도 시켜보고 끔찍한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럭저럭 날이 저무니까 간다고 일어서는것을 달래서 전에없이 밥상을 내다가 같이 저녁을 먹었고 저녁을 마친 뒤에는 시급히 춘향전을 사다가 그애더러 읽으라고 하고는 자기는 따악 드러누워서 이얘기책 읽는 입을 바라다보고 하느라고 그야말로 천금같은 봄밤의 한식경을 또한 즐겁게 보낼수가 있었습니다.

초저녁부터 몇번 붙잡아 앉힌것은 물론이고 마침내 10시가 되자 할수없이 놓아보내는데 윤장의령감은 크게 생색을 내여 인력거를 불러다가 선금을 주어서 태워보내고 외에 일원 한장을 따루 그의 손에 쥐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적공입니다.

보내면서 래일도 오너라 했더니 미상불 이튿날 저녁에 저녁을 일찌감치 먹고 올라왔습니다.

윤장의령감은 어제 저녁처럼 옆에다가 앉혀놓고는 이얘기도 시키고 이얘기책도 읽히고 내시가 이 앓는 소리같은 노래도 듣고 오늘 저녁개시로 다리도 치게 하고 그러면서 삼남이를 시켜 말눈깔사탕 10전어치도 사다가 먹이고 머리는 물론 여러번 쓰다듬어주었고 그러그러 밤이 이슥한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대접으로는 역시 인력거를 태워주었어야 할것이지만 인제 자주 다닐텐데 그렇게 번번이 탈수야 있느냐고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 애더러 바래다달래라고 그 알량한 삼남이를 안동(함께 따라가게 함)해 보냈습니다.

인력거를 안 태웠으니 돈이라도 일원을 다 주기가 아깝거든 오십전이나마 주었어야 할것이지마는 자꾸 그래쌌다가는 아주 버릇이 되여서 오기만 오면 의례껀 돈을 탈것으로 알게스리 길을 들여서는 안되겠다 하여 짐짓 입을 씻어버렸던것입니다. 그리고서 그저 세번이나 네번에 한번쯤씩 일원 한장이고 쥐여줄 요량을 했습니다.

그뒤로부터 그 애는 윤장의령감의 뜻을 곧잘 받아 이틀에 한번 또 어느때는 매일같이 올라와서 놀군 했고 그렇게 하기를 한 이십여일 해오던 어느날 밤이였습니다.

밤은 아직 초저녁이였고 그들막하게 뻗고 누운 다리를 조막만 한 계집애가 밤만 한 주먹으로 토닥토닥 무심히 치고있는데 문득

《너 몇살 먹었지?》하고 새삼스럽게 나이를 묻습니다.

《열네살이라우.》

동기아이는 아직도 고향 사투리가 가시지 않었습니다. 허기야 윤장의령감같은 사람은 10년이 되였어도 종시 《그러닝게루》를 못 놓치만요.

《응… 열네살이여!》

하더니 윤장의령감은 또 한참 있다가《다리 그만 치구 이리로 온?》하면서 턱을 까붑니다.

아이는 발딱 일어나서 발치로 돌아 윤장의령감의 가슴앞에 바투 앉고 윤장의령감은 물었던 담배대를 비켜놓더니 아이의 머리를 싸악싸악 쓰다듬어줍니다.

《응… 열네살이면 퍽 숙성히여.》

《…》

《너 내 말 들을래?》

《애?》

아이는 무슨 말인지 못 알어듣고 눈을 깜짝깜짝합니다. 윤장의령감은 히죽 웃으면서 머리쓰다듬던 팔로 슬며시 아이의 목을 그러안습니다.

《내 말 들어라, 응?》

《아이머니!》
비로소 눈치를 챈 아이는 마치 불에 덴것처럼 놀래여 화닥닥 일어나더니 그냥 문을 박차고 그냥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나버립니다.
가뜩이나 덩지큰 령감이 얼마나 무색했을고?
좀 모양이 창피했지요. 그러나 뭘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고 또 보았기로서니 게 량반이 파립(헤여진 갓)쓰고 한번 대변보기가 례사지 그걸 그대지 문벌 깎일 망신으로 칠것은 없습니다.
그러해도 윤장의령감은 에—기, 에여 어린 계집애년을 이뻐하고 데리고 놀고 할게 아니라고, 얼마동안은 다시 전대루 소일거리없이 심심한 밤과 낮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번 걸음을 내친게 불찰이지 일 당하던 당장에 창피하던 기억은 차차루 잊혀지고 일변 심심찮이 놀던 일만 그리워집니다. 뿐아니라 맛을 보려다가 회만 동해 논 그놈 새로운 식욕이 애여 가시지를 않습니다.
윤장의령감은 이 계집애에 대한 흥미는 일찌기 고향에 있을 때부터 촌 계집애들을 주물든 솜씨라 오늘날에 시작된것이 아니라면 아니요 하겠지만 그래도 그적의 계집애들은 열일여덟살이 아니면 기껏 어려야 열여일곱살이였었지 열네살백이의 정말 젖비린내 나는 계집애까지는 이르질 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식욕을 엄밀히 구별한다면 시골있을무렵에 계집애—어리기는 해도 계집으로서의 기능을 가진—그놈을 잡아먹던 식성과 시방 열네살 고 또래의 계집이전인 계집애에게 대해서 우러나는 구미라는 계통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더우기 박물장수 아씨더러 첩 더디 얻어들인다고 성화대는 그런 순수한 생리와도 파계가 다릅니다.
윤장의령감의 이 새로운 식욕은 그런데 매우 강렬하기까지 해서 도저히 그대루 참지 못할 지경이였습니다.
드디여 대복이가 나섰습니다.
경지영지하니 불일성지라더니 뉘 일일새 범연했겠습니까. 대복이는 골목밖 리발소의 긴상(김씨)한테 청을 지르고 긴상은 계제좋게 안국동 저의 이웃에 사는 동기아이가 있어 쉽사리 지수(공경하여 받음)를 했습니다. 사실 별반 힘이 들게 없는것이 그런 쪼무래기야 장안에 푹

쌨고 그런데 이편으로 말하면 이러저러한 곳에 사는 재산있는 칠십먹은 점잖은 아무댁 령감님인바 로인이 심심소일삼아 옆에 앉혀놓고서 말동무도 하고 이야기책도 읽히고 노래도 시키고 다리도 치이고 이렇게 데리고 논다는 조건이고본즉 막야에 춘향이가 인도환생을 한 에미애비라 하더래도 감히 거기에 어떠한 위험을 느끼진 안할게니까요. 하물며 계집애자식을 논다니판에다 내놓아 목구멍을 도모하자는 에미애비들이던 오히려 반가와할 일이지 조금치나 저어를 할 며리가 무엇있겠습니까.

그래 아무턴 리발소 긴상의 서두리로 사흘만에 대비가 되였는데 나이는 이편에서 열다섯살 이내로 절대 지정한 소연도 있겠지만 마침 열네살이요, 생긴거랑 역시 별수 없고 까칠한게 갓 나온 고양이새끼 여대치게 어설펐습니다.

그러나 윤장의령감은 계집애면 만족이니까 별 여부 없었고 흔연히 다리도 치게 하고 눈깔사탕도 사먹이고 이렇게 며칠 두고서 적공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낯을 알만 하니까 비로소 너 몇살이나… 응 숙성하구나! 너 내 말 들을늬 하면서 머리쓰다듬던 팔로 허리를 그러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아이는 서울태생이라 그런지 좀더 영악스럽게

《이 령감이 왜 이래? 미쳤나?》

욕을 냅다 깔리고 통통 나가버렸습니다.

이래서 두번째의 무렴을 보았습니다. 암만 무렴은 보았어도 윤장의령감은 본시 얼굴이 붉으니까 새채비로 홍안은 당하지 안했지만

《헤에! 그거 참!》 하면서 헤벌심 웃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윤장의령감은 그뒤로도 처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세번, 네번, 다섯번 이렇게 대거리를 구해들였고 동시에 그러는 족족 실패, 아—니 실련의 쓴 술잔을 거듭거듭 마셔왔습니다.

대단히 비참한노릇입니다. 고 아무렇게나 생긴 동기 계집애년 하나를 뜻대루 다루지 못하구서 늦은봄부터 초가을까지 무려 다섯차례나 랑패를 보다니 윤장의령감으로는 일대의 치욕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사실이지 백만의 거부를 누리는데도 그대도록 힘이 들지 않았고 평생을 돌아보아야 한개의 목적을 놓고 앉아 내내 다섯번씩 실패를 해

본 일이라고는 찾고싶어도 일찌기 없었습니다.

허기야 전연 딴 방도가 없던건 아닙니다. 시골 있는 사음한테로 기별만 할양이면 더는 몰라도 조고마한 소녀집단은 하나 꾸밈직하게 열서너살짜리 계집애들을 쓸어올수가 있으니까요.

작인들이야 자기네가 싫고, 싫지 않고는 문제가 아니요, 어린 딸은 말고서 아닐 말로 늙어 쭈그러진 어머니라도 갖다가 바치라는 령이고보면 거행을 하기는 해야겠거늘 다 형편이 마련이 되질 않았습니까.

진실로 그네는 큰 기쁨으로던지 그 반대인 땅이 꺼지는 한숨을 쉬면서던지 어느편이 되였던지간에 표면은 씨암닭 한마리를 설이나 추석의 선사삼아 안고오는것과 진배없이 간단하게 그네의 어린 딸, 혹은 누이를 산 제숙으로 바치지 않칠 못합니다. 결단코 없는 사실을 가지고 윤장의령감을 훼방하자는게 아닙니다. 증왕에(일찌기) 시골 고향에서 살 때에 그러한 《머리 검은》병아리를 적잖히 로략질한 전감(지난날의 경험)이 있는것을 알기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세번째의 허탕을 치고나서부터는 시골계집애를 잡아올가 하는 궁리를 해보았다는것도 간접으로는 그 사실을 증명하게쯤 됩니다.

과연 당장 편지를 해서 구해보내라고 할 생각을 몇번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그렇게 하기는 했어도 한편으로 보는데가 없지 않아 아직 주저를 했던것입니다.

만약 시골서 계집애를 데려오고보면 그때는 동기를 불러다가 말동무를 삼는다는 형식이 아니요, 담방 첩을 얻어들인것으로 되겠으니 원 아무리 뭣한들 칠십먹은 늙은이가 열세살이나 열네살백이 첩을 얻는다는게 남이 부끄럽기 전에 우선 그 낯이 간지러울게 아니겠다구요? 그뿐아니라 시골 계집애는 노래를 못하니까 서울 동기보다 쓸모는 적으면서 오면가면 차삯이야, 몸수종이야, 뒷갈무리에 돈은 훨씬 더 듭니다. 이러한 불편이 있는고로 그래 시골 계집애를 선뜻 데려오지 못한것인데 그러나 이번 춘심이한테까지 랑패를 보고서는 종시 그런 청백을 부리겠느냐 하면 그건 도저히 작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변 생각하면 춘심이의 소임이 매우 미묘한 의의를 가졌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조건이 붙었다면 붙었달수 있고 춘심이는 헌데 다니기 시작한지도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

인제는 그만하면 낯가림은 안할만큼 되였고 또 공력도 그새 다른 아이들한테보다는 특별히 디리느라고 디렸습니다. 윤장의령감은 시방 그런 가늠을 속으로 해보면서 손치에 펴더근히 주저앉아 다리를 안 치겠다고 대가리를 쌀쌀 흔들어 암상 떨이를 하는 춘심이를 히죽히죽 올려다보고 누웠습니다.

옆으로 앉아서 고개를 내두르는대로 데숙이의 몽창한 단발이 까불까불합니다. 치렁치렁하던 머리채가 다레를 뽑아버리면 이렇게 녀학생이 됩니다. 흰저고리 통치마에 양말이 모두 녀학생차림입니다. 춘심이는 이런 녀학생차림새를 좋아해서 권번에 갈제와 또 권번 사람의 눈에 띄일 자리말고는 대개 긴치마에 긴머리를 늘이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장의령감한테 오는 때도 권번에 바루 오는 길이 아니면 언제고 녀학생차림입니다.

그 주제를 하고 앉아서 《사안이이로구나—헤—》하는 꼴이 대체 무어라고 비댔으면 좋을지 모르겠어도 저는 이상이요, 간혹 윤장의령감이 《야 이년아, 녀학생이 잡가도 한다더냐.》고 더러 조롱을 하지만 역시 그만한 익살은 탈 아이가 아닙니다.

마침 라지오 풍류가 끝나고 좀 있더니 지랄같은 꽹꽹이소리가 들려나오니까 윤장의령감은 이마살을 찌프리면서 스위치를 제쳐버립니다.

《너 이년, 다리는 안 치기루 했냐?》

《싫어요! 누가 〈암마야〉 상인가 뭐—》

《허. 그년 참! 그럼 다리 안 치는 대신 노래나 한마디 불러라.》

《노래는 하지요! 풍류끝에는 텁텁한 놈으로 잡가를 들어야 하신다지요?》

《그런걸 다 알구 제법이다!》

《어이구, 나를 그저 샌님처럼 업신여긴다구! 자, 노래하께 령감님 장단치시요?》

《장단은 이년아, 장구가 있어야 치지?》

《애개개! 장구가 있으면 령감님이 장단을 칠줄을 아시구요?》
《헤헤, 그년이, 이년아, 늬가 꼭 여수(여호)같다!》
《내, 나는 여호같구요, 령감님은 하마같구요. 헤헤헤!》
《네라끼년! 허허허허… 고년이 꼭 어디서 초란이같이 까분당개루!》
《초란이? 초란이가 무어예요?》
《초란이패라구 있더니라. 홍동지 박첨지가 탈바가지 쓴 대가리를 내놓구서 서루 찧구까불구. 꼭 너처럼 방정맞게 초랑거리구 까불구 그러더니라… 떠—루 떼—루 박첨지야— 이런 소리를 불러가면서.》
《헤헤헤헤, 어디 그 소리 또 한번 해보세요? 아이참, 혼자 보기 아깝네! 헤헤헤. …》
《허 그년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하는 소리를 누가 속은 모르고 밖에서 듣기만 한다면 꼭 손맞은 애들이 지껄이고 노는줄 알겁니다.
방안을 들여다보면요? 그런다면 저이가 말한대루 동물원의 하마와 여호가 한울안에서 재미있게 노는 양으로 보일는지요.
《춘심아?》
《네?》
《너…》
《내애.》
《저— 무엇이냐?》
윤장의령감은 다리를 비비 꼬면서 말끝을 어름어름합니다. 못 견디겠어서 인제 웬만큼 너 몇살이지… 응, 숙성하다. 너 내 말 들을늬… 이 이를테면 사랑의 고백을 해야만 하겠는데 그놈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는 도루 넘어가군 하던것입니다. 역시 다섯번이나 허탕을 친 나머지라 어쩔고싶어 뒤를 내는것도 그럴듯한 근경입니다.
그게 젊은것들 사이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소릴텐데 그 소리 한마디 나오기가 어렵기란 아마도 만고를 두고 로소없이 또 사정과 례의를 통털어놓고 일반인가 봅니다.
《인제 그만 까불구 어서 노래나 시작히여라.》
윤장의령감은 드디여 용기를 내지 못하고서 기회를 뒤로 미뤘습니다.

《녜, 녜. 무얼 할가요? 아까 낮에 명창대회에서 령감님이 연신 좋으타! 좋으타! 하시던 적벽가 새타령 할가요?》
《하앗다! 고년이 혀바닥은 짤러두 침을 멀리 배알넌다드니. 이년아, 늬가 적벽가 새타령을 허머넌 나는 하늘의 별을 따오겠다.》
《에게게! 아—니 내 그럼 래일이래두 권번에 가서 고놈 한마디만 배워가지구 령감님 듣는데 할테니깐 령감님 하늘에 가서 별 따오실테에요?》
《누가 인자사 배워갖구 말이냐? 시방 이 당장에서 말이지. …》
《피! 아무렇게 해두 하기만 하면 그만이지 뭐.》
《그년이 노래하라닝게루 또 잔사살을 내놓너만.》
《네, —네. —헴. 자, 합니다, 엠 망구강사안 유람헐제—》
단가로는 《맹자 견 양혜왕》짜리요, 헌데 《망구강산》의 《망구》는 오식이 아닙니다.
고저가 옳게 맞을리도 없고 장단이 제대루 갈리도 없는데다가 소리선생앞에서 배울 때에 쓰던 그 목을 그대로 고래고래 되—게 지르고 앉았으니 윤장의령감의 취미 아니고는 듣기에 장히 고생이 되지 않을수 없는 음악입니다.
게다가 윤장의령감의 역시 장단을 유린하는 《좋다!》소리가 오히려 제격이요, 겨우 노래가 끝나니까는 《예— 수고했네!》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근전의 절창이라 하겠습니다.
《너 배 안 고프냐?》
윤장의령감은 훌쩍 가라앉은 큰 배를 슬슬 만집니다. 춘심이는 그 속을 모르니까 뚜릿뚜릿합니다.
《아—니요, 왜요?》
《배 고프다머넌 우동 한그릇 사줄라구 그런다.》
《아이구머니! 령감 죽구서 무엇 맛보기 첨이라더니.》
《저런년! 주둥아리 좀 부아!》
《아—니 이를테면 말이예요, 사주신다면 배는 불러두 먹지요.》
《그러라, 두그릇만 시키다가 너허구 나허구 한그릇씩 먹자.》
《우동만요?》
《그러면?》

《나 탕수육 하나만…》
《재 배때기루 우동 한그릇허구 또 무엇이 들어가?》
《들어가구말구요! 없어 못 먹는답니다. …》
《허! 그년이 생부랑당이네! 탕수육(농마가루를 풀어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튀김을 넣고 달게 한 중국료리)인지 그건 한그릇에 을메씩 허냐?》
《아마 25전인가 그렇지요.》
윤장의령감의 말이 아니라도 계집애가 여호가 다 되여서 탕수육 한접시에 40전인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동 두그릇, 탕수육 한그릇 얼른 빨리… 우동 두그릇, 탕수육 한그릇, 얼른 빨리… 삼남이는 중이 념불 외우듯 외우면서 나갔습니다. 사실 삼남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것이 하루 세끼중에 한끼를 잊어버리지 않음과 일반으로 중요한 일이여서 그만큼 긴장과 노력이 필요하던것입니다.
무슨 그림자가 지나간것처럼 방안이 잠간 교교했습니다. 이 침전의 순간이 윤장의령감에게 선뜻 좋은 의사를 한가지 얻어내게 했습니다.
전에 아이들한테 하듯 담박에 왁진왁진 그러지를 말고서 가만가만 제 눈치를 먼점 떠보아보는것이 수다. … 이런 말하자면 절충안입니다. 티가 나지 않게 또 창피를 안 당하게 가만히 슬쩍 제속을 뽑아보고 그래보아서 싹수가 있는상싶으면 그담에는 바싹 다그어보고. 미상불 그럴법하거니싶어 우선 혼자 만족을 해 싱그러니 웃습니다.
《춘심아!》
머리를 싸악싹 쓰다듬어주면서 부르는 음성도 은근합니다.
《네?》
《너 몇살이지?》
《그건 새삼스럽게 왜 물으세요?》
《아—니, 그저 말이다.》
《열다섯이지 뭐, 그새 먹어서 없어졌을라구요?》
《응, 참, 그렇지, 퍽 숙성히여, 우리 춘심이가.》
《키는 커두 이렇게 가늘어요! 아이참, 령감님은 몇살이세요?》
《나? 글시 원, 하두 많이 먹어서 인제넌 나이 먹은것두 다 잊어버

렸닝가부다!》
《애개개, 암만 나이를 많이 잡수셨다구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랑 수염이랑 시였으니깐 나이두 퍽 많을꺼야.》
춘심이는 백마꼬리같이 탐스런 수염을 쓰다듬습니다. 윤장의령감은 다른 한손으로 춘심이의 남은 한손을 조물조물 주무릅니다.
《춘심아!》
《네?》
《너 내가 나이 많은게 싫으냐?》
《싫은건 무엇있나요? 몇살이세요? 정말…》
《그렇게 알구싶으냐?》
《몸달을건 없지만.》
《일러 주래?》
《네.》
《예순… 응 다섯살이다.》
《아이구머니!》
춘심이는 입이 떡 벌어지고 윤장의령감은 윤장의령감대로 또 속이 있어서 입이 벌씬 벌어집니다.
윤장의령감의 나이 꼬박 일흔인줄은 천하가 다 아는노릇입니다. 그런것을 글쎄 《애인》한테래서 그중 다섯살만 줄이여 예순다섯으로 대나서 우리는 그것을 단작스럽다고 웃어버리기보다 오히려 옷깃을 바로잡고 엄숙히 한번 생각해보고싶습니다.
일흔살 먹은 령감이 열다섯살 먹은 《애인》앞에서 나이를 다섯살을 줄여 예순다섯살로 댔겠다요? 기생들이 손님들에게다가 나이를 속이는것은 례사입니다. 또 젊은 계집애들이 제 나이를 《리베》(애인)씨한테다가 줄여 대답하는 수도 더러 있습니다.
속을 알고보면 그야 근경이 그럴듯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기 일흔살 먹은 허—연 령감태기가 열다섯살백이 동기 계집애를 아탕발림시키느라 나이 다섯살을 야바위(거짓)쳐서 예순다섯살로 속였겠다요.
그도 곧이야 듣건말건 한 20살 꼬나먹고 쉰살로 댔다면 또 몰라요. 고작 다섯살을—늙은이의 나이 예순다섯에서 일흔까지 거리가 그리 육

중스럽게 클고마는 그래도 열다섯백이 《애인》한테 고거나마 젊게 보이고싶은 곡진한 일념에 그 다섯살을 덜어 불렀겠다요! 예순다섯살이라고.

그 우람스런 체집에 어디를 눌렀는지 그런 간드라진 소리가 나왔으까요.

암만 엄숙하게 생각하재도 옷깃이 바르게 여며지지 않으니 그만두고서 공자님이나 잠간 모셔오기로 합니다.

우리 공자님 말씀에 《소인이 한가히 지낼것 같으면 아름답지 못한 꿍꿍이를 꾸미느니라.》

하신 대문이 있겠다요. 그 대문을 윤장의령감한테 그대로 적용을 말구서 좌꼼 고쳐가지고 《소작인이 바쁘게 지낼것 같으면 지주령감은 약시약시(여차여차)하느니라.》이였으면 어떨가요.

인간이 생의 기능을 타고나는것은 생물로서 운명적필연이요 그러니까 결단코 그걸 나무랠 일은 아닙니다. 또 누가 나무래고 시비한다고 그게 없어지는것도 아니고요. 해서 비판이나 간섭의 피안에 있는것입니다.

허지만 윤장의령감처럼 나이 칠십에 년령의 한계를 마구 무시하는 그의 야만스런 정욕은 부질없이 생물로서의 선천적인 운명이라고야 처분이 안됩니다. 본시 체질이 좋게 태여났다고 주장을 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신돈이같은 체질을 타고났다고 하더래도 윤장의령감이 윤장의령감다운 팔자를 얼러서 타고나지 못했으며는 그 체질은 성명이 없고말것이 아닙니까.

몇백명이나 되는 윤장의령감의 소작인중에 윤장의령감만 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이 없을리가 있다구요.

그렇건만 그 사람네는 도조 바치기에 말라 시들고 보약 한첩 구경도 못했기때문에 자연의 섭리이하로 오히려 떨어지고만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가령 특별한 례외나 기적으로 윤장의령감의 소작인가운데서 윤장의령감처럼 칠십이로되 능히 계집을 다룰 정욕을 지탱하고있는자 있다손치더래도 그가 감히 첩질을 할 팔자며 그럴 생심인들 하겠습니까.

그러니 늙은이한테는 생물적필연이라는 관용도 안될말이요 타고

난 선천이니 체질이니 하는것도 다 여벌이고 주장은 한갖 팔자— 시체 말로는 환경— 그놈이 모두 롱간을 부리는 놈입니다.
소작인이 바뻐 벼가 만석이 그득 쌓인때문에 그의 생리와 건강과 성격과 행동과 이 모든것이 화합이 되여—혼합이 아니라 화합이 되여—오늘날의 싱싱한 윤장의령감을 창조한것입니다.
… 이런 《학설》로 한바탕 고집은 해볼만 합니다. 그건 그렇다고 해두고…
춘심이는 윤장의령감이 예순다섯살이란 말에 계집애가 까부느라고
《아이구! 예순다섯살이라니 퍽두 많이 자시기는 했네! 그러면 가만있자 나보담 몇살 더하고? 응, 가만있자. 예순다섯이다 열다섯 빼며는 응… 쉬인, 아이구 어쩌나! 쉬인살이나 더 잡수셨구료!》 이러고 허겁떨이를 해갑니다.
윤장의령감은 애가 하는대루 빙그러니 웃으면서 보고만 있습니다. 춘심이야 아무 생각없이 그저 제 나이와 비대보던것인데 윤장의령감은 그게 무슨 뜻을 두기는 두었던 표적이거니 하고 혼자 느긋해하는 판입니다.
뜻은 있었는데 나이 하두 많으니까 놀래는것이고 그러나 뜻이 있었든것만은 불행중 다행인즉 옳지 그렇다면 어디 좀… 이런 요량입니다.
《련애는 환장이니라》란다더니 옛말이 미상불 옳아 이대지도 야속스리 윤장의령감같은 로인에게까지 들어맞기는 하는군요— 그나마 골고루 골고루…
《내가 나이 많은게루 싫으냐?》
이제는 제2단으로 들어가서 나이 많은게 나쁘지 않다는 변명 혹은 나이 많다든 많지 않다는 주장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싫기는 무어가 싫어요? 나이 많으니까 좋지요, 허물 없구…》
《그렇구말구, 그러구 나넌 예순다섯살이라두 기운이 무척 시단다. …드은든 허지.》
《참, 령감님은 늙었어두 몸집이 이렇게 크니까 기운두 무척 셀거야, 그렇지요?》
《호랭이도 잡으라면 잡는다.》
《하하하, 그렇거들랑 인제 동물원에 가서 호랭이하구 씨름을 한번

해보시지요?… 아이참, 하마허구 호랭이허구 씨름을 붙으면 누가 이기꾜? 하하하, 아하하하…》
《허허, 그년이 또 까불구있네!》
윤장의령감은 어느결에 다시 집어문 담배대 빨주리로 침이 지르르 흘러내리는것도 모르고 호물호물 춘심이를 올려다봅니다. 몸이 자꾸만 뒤틀립니다.
《춘심이?》
《네?》
《너… 저어… 내 말 들을래?》
《무슨 말을요?》
묻기는 물으면서도 생글생글 웃는게 발써 눈치는 챈 모양입니다. 윤장의령감은 오냐 인제야 옳게 되였느니 하고 십분의 자신이 생겼습니다.
《내 말 들을테여?》
《아, 무슨 말이세요?》
윤장의령감은 히죽 한번 웃고는 드디여
《요녀언, 이리 와!》
하면서 덥석 허리를 안아들입니다. 마음 터억 놓고서 그러지요.
아, 그랬는데 웬걸 고년이
《아이, 망칙해라!》
하고 소리를 빽 지르면서 그만 빠져 달아나질 않는다구요.
여섯번!
윤장의령감은 진실로 기가 막힙니다. 여섯번이라니 하마 성미급한 젊은 놈이였드면 그새 목이라도 몇번 매고 늘어졌을것입니다.
글쎄 요년은 눈치가 으슥하길래 믿는 구석으로 안심을 했던참인데 대체 웬일인고싶어 무색한중에도 좀 건너다 보랴니까 이게 또 이상합니다.
그동안의 다섯계집년들은 울지 않으면 욕을 하면서 영낙없이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했는데 요년은 보아야 그렇게 소리를 바락 지르고 미꾸라지새끼처럼 빠져나가기는 했어도 그저 저만치 물러앉었을 따름이요 울거나 골딱지를 내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기는 새고 날 잡아보라는듯이 밴들밴들 웃고있지를 않겠습니까. 마구 간을 녹입니다.
아무러나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사알살 달래볼 여망이 없지도 않습

니다.

《저런—년 부았넌가! 에헤, 그거 참! 이년아, 그러지 말구 이리 오너라, 이리 와, 응? 춘심아!》

《싫어요!》

《왜?》

《왜는 뭘 왜!》

《너 이년 내 말 안 듣기냐?》

《인제 보니까 령감님이 퍽 음충맞어!》

《아, 저런 년! 허, 그거 참… 너 그러기냐?》

《어때요, 뭐?》

《그러지 말구 이만치 오너라, 내 이얘기 허마.》

《여기서두 들려요.》

《그리두 이만치 가까이 와.》

《피! 또 붙잡을려구?》

《너 내 말 들으면 내가 존것 사주지?》

《존거 무엇?》

《참 좋은것 사줄티야…》

《글쎄 존게 무어냐니까?》

용천뱅이가 보리밭에 숨어앉아서 어린애들이 지나가면 구슬주께 이—론(이리 온) 사탕주께 이—론 한답니다. 그와 근사하다 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군요.

윤장의령감은 미처 무얼 사주겠다는 생각도 없이 당장 아쉰대루 어르느라구 낸다는게 섬뻑 그 소리가 나와졌습니다. 그랬기때문에 자꾸만 물어도 냉큼 대답을 못하던것입니다.

《늬가 갖구싶다넌것 사주마.》

《내가 가지구싶다는걸 사줄래요?》

《오—냐.》

《정말?》

《그리여.》

《가—짓 말.》

《아니다, 참말이다.》

《그럼 나 반지 사주면?》

《반? 지? 에라끼년! 누가 그런 비싼것 말이간디야!》

《피ㅡ 그게 무어 비싼가? 저ㅡ기 본정가서 칠원오십전만 주면 빠알간 루비(홍보석) 박은거 사는데… 십팔금으로 가느다랗게 맨든거…》

《을매? 칠원오십전?》

《내에.》

《참말이냐?》

《가보시면 알걸 뭐?》

《그리라. 그럼 사주마, 사줄터닝게루 인제 이리 오너라.》

《애개개! 먼점 사줘야지 뭐.》

《먼점 사주구? 그건 나두 싫다.》

《나두 싫소.》

《고년이 똑 어디서 미꾸라지새끼같다! 에엥, 고년이… 그러지 말구 이년, 춘심아!》

《네에?》

《그러지 말구 이리 오너라, 응? 그럼 내가 인제 래일이구 모리구 진고개 데리구가서 반지 사주께.》

《일없어요. 시방 가서 사주시면?》

《시방이야 밤에 어떻게 갈수 있냐? 래일 낮에 가서 사주마. 사주께 그러지 말구 이리 오너라.》

《싫어요.》

윤장의령감은 칠원오십전이면 산다는 그 반지를 사주기는 사줄 요량입니다. 허기야 돈 그놈 칠원오십전만 놓고서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것은 아니나 그래도 명색이 동기체것인데 칠원오십전짜리 반지 한개로 아탕발림을 시키다니 도리여 헐한셈입니다. 제 법식대루 머리를 얹히자면 이삼백원, 오륙백원이 들고 할테니까요. 그래 잘러먹지 않고 래일이고 모레고 사주기는 사줄터인데 춘심이년이 못미더워서 그러는지 까부느라고 그러는지 밴들밴들 말을 안 듣고는 애를 태워줍니다. 생각하면 밉기도 하고 미운 깐으로는 볼통이라도 칵 쥐여질러주고싶습니다.

그러나 괜히 함부루 잡두리를 했다가는 담박 속알찌가 나서 뽀루루 달어나버리고 다시는 안 올테니 그렇게 되고보면 여섯번만에 겨우 반

성공을 한것이 도루 아미타—불이 아니겠다구요.

에라 그러면 기왕이니 래일 제 소원대루 반지를 사주고나서… 이렇게 할수없이 순연을 했습니다.

《그럼 래일 진고개 데리구가서 반지 사주께 그담부텀은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내애, 듣구말구요.》

뭐 아까부터 인해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내색이라고는 없고 그저 처억처억입니다. 사실 맨 처음에 윤장의령감이 쓸어안으려고 했을 때도 소리나 지르고 빠져나가기나 하고 했지 귀밑대긴들 붉힌법 안했으니까요.

《꼬옥 그러기다?》

《념려 마세요.》

《오널처럼 까불구 말 안 들으면 반지 사준것 도루 뺏는다?》

《뺏기 전에 얼른 뽑아서 바치지요.》

《어디 두고보자. 그럼 래일 점심 먹구서 올라오너라. 같이 가서 사주마.》

《더 일찍 와두 돼요?!》

드디어 흥정은 다 되였습니다. 마침 맞게 마당에서 청료리 궤짝이 달그락거리더니 삼남이가 처억

《우동 두그릇, 탕수육 한그릇 어서 빨리 시켜왔어라우.》

하고 복명을 합니다.

춘심이는 데그르르 웃고 윤장의령감은 끙! 저잘것 좀 부아! 하면서 혀를 찹니다.

련애를 하면 밥이 쉬 삭는다구요, 우리 윤장의령감은 그런데 저녁밥을 설치기까지 한판이라 속이 담뿍 허술해서 우동 한그릇을 탕수육으로 반찬삼아 걸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성사가 되고 마음이 느긋할 줄 알었더면 기왕이니 따끈하게 배갈(수수를 원료로 하여 만든 일종의 향기있는 증류술)을 한병 더 사오라고 할것을…하고 후회도 없지않었습니다.

춘심이는 또 춘심이대루 반지를 끼고 권번이며 제 동무들한테며 자랑을 할 일이 좋아서 연신 쌔왈대왈 우동이야 탕수육이야 볼이 미여지게 쓸어넣습니다.

《너 그렇지만 춘심아!》

윤장의령감은 우동그릇을 물린 뒤에 트림을 끄르르 깨끼손 손톱으로 이사이를 우벼서 밀창문에다가 토옥… 담배대를 땅—따앙 두드리더니 하는 소립니다.

《… 늬집에 가서 이런 이얘기 허며는 못쓴다, 응?》

《무슨 이얘기요?》

《내가 반지 사주구서 말이다. … 저어 거시기 응? 그 말 말이여!》

《내애내, 알았습니다.》

《허머넌 못써?》

《글쎄 안는대두 그리세요!》

《나 욕 얻어먹지… 너 매 얻어맞지… 그리서야 쓰겄나?… 그러닝게루 암말두 허지 말어, 응?》

《념려마세요, 글쎄… 저렇게 커다란 령감님이 겁은 무척 내시네!》

《늬가 이년아, 주둥이가 하두 방정마지닝게루 맘이 안 뇌다.》

윤장의령감은 미상불 슬며시 뒤가 났던것입니다.

호사에 마가 붙기 쉬운 법인걸, 만약 제 부모가 알구보면 약간 칠원오십전짜리 반지 한개 사준걸로는 셈도 안 닿고 그것들이 마구 언덕이야 비비려 덤빌테니 그 성화가 어디메 필경 돈 백원이라도 부서지고말테니까요.

춘심이는 그런데 우선 반지 한개 얻어가진 일이 좋아 온갖 정신이 거기만 쏠려서 제 부모한테 발설을 하지 말라는 신칙도 그저 건성으로 대답을 하다가 윤장의령감이 뒤를 내는 눈치니까는 되려 제가 지천을 해둔것이고 그런것을 윤장의령감은 지천이 되였건 코묻은 밥이 되였건 그런 체모는 잃은지 오래요 애인의 맹세를 믿고서 저으기 안심을 했습니다. 자고로 로소없이 사랑하는이의 말은 무엇이고 곧이 들린다구요.

11. 인간체화 동시에 품부족문제 기타

시방 사랑에서는 일흔살 먹은 (아니 자칭 예순다섯살 먹은)증조할아버지가 열다섯살 먹은 애인과 더불어 그처럼 구수우하니 련애가 얼려가고 있겠다요. 그리고 경손이는…

경손이는 아마 안방에서 열다섯살 동갑짜리 대부 태식이와 같이 싸우며 놀리면 저녁을 먹고난 뒤에 아래목에 가 번쩍 드러누워 디굴고 있었습니다.
다른 식구는 제가끔 다아 물러가고 야속히 배짱 안 맞는 대고모 서울아씨와 지지리 보기 싫은 대부 태식이와 그 둘이만 본전군으로 달랑 남아있는 안방에—가뜩이나 서울아씨는 《추월색》으로 아닌 이를 앓고 태식이는 《조선어독본 권지일》로 귀신의 씨나락을 까먹고 이런 부동조의 소음속에서 그 애 경손이가 고 속알씨에 천연스레 휩쓸려 있다니 매우 희귀한 현상입니다. 고양이와 개와 원숭이가 싸우지 않고 같은 울안에서 노는 격이랄가요.
경손이는 아마 제 생각에 골몰해서 깜박 잊어버리고 그대로 섰었기가 십상일겝니다. 골몰한 제 생각이란건 다른게 아닙니다. 《〈모로꼬〉의 지》의 재상연이 있고 또 지나사변의 새 영화가 좋은게 오고 해서 꼭 구경은 가야만 하겠는데 정작 군자금이 한푼도 없어 일왈 누구를, 이왈 어떻게 얻어 삶았으면 돈을 좀 받어낼수가 있을고 이 궁리를 하던것입니다.
뚱뚱보령감?… 안돼.
건넌방 겡까도리(싸움군)? 안돼. (제 고모 고씨가 집안사람 아무하구나 싸움을 하자고 대든대서 지은 별명입니다.)
서울아씨…안돼.
숙모… 안돼.
대복이… 글쎄? 에이, 고 재—리 (고자쟁이), 깍쟁이, 제가 왜 제 돈도 아니면서 고렇게 치를 떨고.
어머니… 글쎄…
허니 그중에 가능성이 있자면 아무래도 대복이와 제 모친입니다. 대복이는 이 집의 대장대신이요, 제 모친은 모친이니까요.
종차 삼십년이나 사십년후에 가서야 백만원을 상속받을 장손일값에 시방은 단돈 이십전이나 삼십전이 없어 이다지 머리를… 그 연한 머리를 썩힙니다그려.
그래서 경손이는 두통을 앓는데 서울아씨는 이를 생으로 앓느라 퇴침을 돋우베고 청을 높여《각설이라 이때에…》양금채같은 목에다가 멋이 시끈 동하게 《… 하징아니해야…》고 소리를 양념 쳐서 홍

을 냅니다.

그건 바루 음악입니다. 얼마큼이나 음악적이냐 하는것은 말하기 어려워도 그것은 분명 음악적입니다.

인간은 번뇌가 있으면 노래를 하고싶어진다구요. 번뇌까지 안 가고라도 마음이 싱숭생숭하거드면 코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물론 슬퍼도 노래를 부르고 기뻐도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추기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중의 한가지 마음 싱숭거릴 때에 부르는 노래는 새김생(날짐승)이 자웅을 찾느라고 묘한 소리로 우는것과 가장 공통된 동물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인간은 동물적인 그 본능을 보다 리기적으로 리용을 하는 제2의 본능이 있답니다.

철들어가기 시작한 총각이 봄날 나무를 하러 가면서 지게목발을 장단삼아 《저 건너 갈마봉에 비가 묻어 들어들 온다》고 멋둥그러지게 넘깁니다.

또 궂은비 축축히 내리는 가을날 노래장이나 부를줄 아는 기생이 제방 아래목에 오도카니 꼬부리고 누워 손가락장단을 토옥톡 《약사 몽혼으로 향유적이면…》

하면서 다뿍 시름없이 코노래를 흥을흥을 흥을거립니다.

그러며는 무릇 그 총각이면 총각, 기생이면 기생이 깊숙한 산중이나 또는 아무도 없는 제 집의 방구석에서 누구더러 들으라고 노래를 부른답니까.

그게 가로대 본능이라구요, 새김생이 자웅을 후리려고 우는것과 마찬가지로 총각은 거기 어디 촌처녀 색시더러 들으란 노래고 기생은 또 제대로 제정랑(정든님)더러 들으란 노래고.

이렇듯 본능에서 우러나서 노래를 부르기는 짐생이나 인간이나 매일반이지만 그다음이 다르답니다.

인간은 제가 부르는 제 노래에 남은 상관 않고 우선 제가 먼저 좋답니다.

어느 촌계집애가 들어를 주는지 안는지, 어느 놈팽이가 들어를 주는지 안는지 그런것은 생각도 않는답니다.

그런 타산은 도시(도무지)에 의식가운데 떠오르지도 않고 괜—히 그저 불러지는 투 한마디 부르고 보니까는 어떻게 속이 더 이상해지

는것 같기도 하고 기뻐지는것 같기도 하고 후련해지는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일언이페지 (한마디로 뜻을 다 표함)하면 소위 흥이라는게 난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방부터 서울아씨와 이얘기책 《추월색》인데…공자님은 가죽책가위(책표지)가 세번이나 해지두룩 책 한권을 가지고 오래 읽었다더니만 서울아씨는 《추월색》한권을 무려 백독은 했을것입니다. 그리고서도 아직도 놓지를 않았으니까 앞으로 천독을 할 작정인지 이천독, 일만독을 할 작정인지 아마도 무작정이기가 쉽습니다.

서울아씨는 책없이 눈 따악 감고 누워서도 《추월색》한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르 내리외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천하 명작의 시집도 아니요 성경책이나 론어, 맹자나 륙법전서도 아닌걸 어쩌자고 그리 야속스럽게 파고들고 잡고늘고 하나마는 실상인즉 서울아씨는 《추월색》이라는 이얘기책 그놈 한권을 죄다 외우는만큼 슬슬 읽기가 수나롭다는것 이외에는 달리 취하는 점이 없습니다.

그는 무시로 마음이 싱숭생숭할라치면 얼른 《추월색》을 들고 눕습니다. 누워서는 처억 청을 높여 읽는데 《각설이라 이때에…》부터 양금채같은 목으로 휘청휘청 멋들어지게 고저와 장단을 맞춰가면서 (다리와 몸을 틀기도 합니다.) 가끔 시큰둥한 《… 하징아니해야…》 코소리로 양념까지 치군 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청을 높여 읽고있느라면 싱숭거리던 속이 어떻게 더 이상해지는것 같기도 하고 기뻐지는것 같기도 하고 후련해지는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일언이페지하면 소위 흥이라는게 나던것입니다.

자, 그러고보니 그게 나무군총각이 륙자배기(곡조가 활발한 잡가의 한가지)를 부른다든가 또 기생이 궂은비 오는 날 제 방 아래목에 누워 코노래로 수심가를 흥얼거린다든가 하는 근경과 조곰도 다를것이 없지 않다구요.

따라서 노래가 아무거라도 제게 익은 놈이면 익을수록 좋듯이 서울아씨의《추월색》도 횅하니 외우게끔 눈과 입에 익어 서슴지 않고 내리읽을수가 있으니까 그래 좋다는것입니다. 결단코 《추월색》이라고 이얘기책의 이얘기내용이 탐탁하다는게 아닙니다.

그럴바이면 차라리 책을 걷어치우고 맨대로 누워서 외우는게 좋지 않느냐겠지만 그건 또 재미가 없는것이 인력거군이 인력거를 안 끌고는 뛰기가 싱겁고 광대가 동지섣달이라도 부채를 들고 노래를 하듯이 서울아씨도 다아 외우기야 할망정 그래도 그놈 손때묻고 낯익은 《추월색》을 펴들어야만 제대루 옳게 노래하는 흥이 납니다.

진실로 곡절이 그러하고 그렇기때문에 남이야 이를 앓는다고 흉을 보거나말거나 또 오뉴월에도 이얘기책을 차고 누웠다고 손가락질을 하거나말거나 아무것도 상관할배 없고 사시장철 밤낮없이 손에서 《추월색》을 놓지 않는 서울아씨요. 그래 오늘 저녁에도 일찌감치 시작을 했던것입니다.

《…그리해야 드디여 돌아오잔아니…》

이렇듯 서울아씨의 《추월색》가극이 저으기 가경에 들어가고있는데 이짝 한옆으로부터서는 도무지 발성학상 계통을 알수 없는 《빠스》음악 하나가 대단히 살풍경스럽게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비－비가－오－오》

《모－모－가 모－가 모－가》

태식이가 방 한가운데 배를 깔고 엎디여 《조선어독본 권지일》 비가 오오 모가 자라오를 읽던것입니다.

좀 민망한 비유겠지만 발음이 분명치 못한것까지도 흡사 왕머구리(개구리) 우는 소리같습니다.

그러나 열심은 무서운 열심입니다. 재작년 봄에 산 《조선어독본 권지일》 그놈을 오로지 2년 하고도 반년동안 배워온것이 여긴데 물론 그전에치는 다아 잊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 잊어버려가면서도 읽으니까 그게 열심이던것입니다.

《비－비가 오－오 비－가 오－오》

《모－모－가 모가… 이잉 잊어버렸지… 경손아?》

《왜 그려?》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으니 어찌란 말이야?》

《…》

《그만두어요! 제－발… 그놈 한권 가지구 도통할텐가? 대학까지 졸업할 작정인가?》

《누－나.》
《…》
《누－나?》
《왜 그래?》
《잊어버렸어!》
《비가 오, 모가 자라오.》
《잉.》
《쯧쯧! 너두 딱하다! 비가 오오, 모가 자라오, 그래두 몰라.》
《히히… 비－가 오－오, 모－가 자－라 자－라오, 히히, 비－가 오－오, 모－가 자라 자라오.》
《에이 귀 아퍼!》
경손이는 비로소 제가 어디 와서 있던줄을 깨닫고 벌떡 일어나더니 마루의 뒤문에 편한 뒤마루를 타고 뒤채의 큰방인 제 모친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에는 경손이의 숙모 조씨까지 건너와서 동서가 바느질감을 차고 앉아 소곤소곤 무슨 이얘기를 하다가 경손이가 달려드는 설레에 뚝 그칩니다.
《너는 네 방에서 공부나 하던 않구 무엇하느라구 앞뒤로 드나들어?》
경손이의 모친 박씨가 지낼 말로 나무람겸 하는 소립니다.
《놀구싶은 때는 책 덮어놓구서 맘대루 유쾌하게 놀아야 합니다요!》
경손이는 떠벌이면서 바느질판 한가운데로 펄신 주저앉습니다. 바느질감이 모두 날리고 깔리고 야단이 납니다.
《아, 이 애가 웬 수선을 이리 피워… 공부는 밤낮 꼴찌만 하는 녀석이 놀속은 남보담 더 바치구…》
《어머니두… 내가 공부 못한다구 우리 집 재산이 딴데루 가까?… 태식이 천치는 〈비가 오오, 모가 자라오.〉 그것 두줄 가지구 한달 배워두 천석군인데… 그런데 이 경손씨가 만석상속을 못 받어요?》
《너는 어디서 주둥이만 생겼나보더라. … 쓸디없는 소리말구 공부 잘해!》
《락제만 않구 올라가면 돼요… 학교성적 좋은 놈 거지반 바보야… 아참, 우리 작은아버지는 말구서… 그렇지요? 아주머니…》

《늬 작은아버질라껀 말두 말아…》

조씨가 그렇잖아도 뚜— 나온 입술을 좀더 내밀고 쭝긋거립니다.

《세상 그런 못난 사람두 있다더냐?》

《우리 작은아버지가 못나요? 나는 보니깐 우리 집에서는 제일 잘나구 똑똑합디다. 아니, 나만 떼놓구서. 헤헤, 나두 우리 작은아버지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요. … 그렇지요, 어머니? 내가 똑똑하지요?》

《에끼, 이녀석! 까불기만 하는 녀석이 어디서…》

《하하하하.》

《사내가 오죽 못나면 첩 하나를 못 얻어 살구서…》

조씨는 혼자말하듯 그느름을 내다가 바늘귀를 꿰느라고 고개를 쳐듭니다. 새초롬한게 발써 새서방 종학이한테 귀먹은 푸념깨나 쏟아져 나올상입니다.

《첩 없으면 못써요? 태식이같은 오쟁이가 생겨나요… 시들부들.》

《말두 마라! 첩을 백은 못 얻어서 새 장가 든다구 조강지처 리혼하려들어? 그게 못난 사내 아니구 무어라더냐? 그러구서두 뭐 경찰서장? 흥, 경찰서장 똥이나 빨아먹지…》

《흥… 작은아버지가 경찰서장할 사람인줄 아시우? 참, 어림없수.》

《그래두 그럴려구 법률공부 배운다면서?》

《말두 마시우, 큰사랑 뚱뚱할아버지 헛다방이지!… 하두 작은손자가 경찰서장 되며는 령감님이 뽐낼양으루…》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지망지망 해라?》

경손의 모친이 경계하는 소립니다. 그 소리가 시할아버지 윤장의령감의 귀에라도 들어가고 보며는 생벼락이 내릴테요, 따라 말을 낸 경손이는 한바탕 무슨 거조든지 당할테니까 말입니다.

《워너니 재가 진작 말돌리기 잘했지야… 주제에 무슨 경찰서장은…》

《아주머니두… 아주머니두 경찰서장 등대구 있었수? 그랬거덜랑 얼른 리혼하시우. 경찰서장 오백리 갔수.》

《아, 저놈이 못할 소리가 없어!》

경손이의 모친이 눈을 흘기면서 나무랩니다.

《어머니두! 리혼하는게 왜 나쁜가? 내가 녀자라면 백번만 결혼하

구 백번만 리혼해보겠던걸… 헤헤. 그런데 참, 어머니!》
《듣기 싫어!》
《아니야, 저 거시키 서울아씨 시집 안 보내우?》
《매친 녀석!》
《뭘 그래! 시집 보내야지 꼴보기 싫어!》
《이놈이 시방 맞구싶어서…》
《내버려두시오, 그 애가 다아 옳은 말만 하는걸… 나는 그렇잖아두 맘없는 시집살이에 엎친다덮친다구 시고모등쌀에 생병이 나겠습니다. 나는 그 아씨 꼴 안 봤으면 살이 담박 찌겠어.》
《오—라일… 우리 아주머니 부라보!(장하다) 아 그렇구말구요, 서울아씨는 시집보내구 아주머니두 리혼하구서 새루 결혼하구, 응? 아주머니…》
《네 요놈 경손아!》
《네?》
《너 정녕 그렇게 가불구 그럴테냐?》
《하하하… 그럼 다시는 안 그러께요… 그대신 오십전만…》
《망할녀석?》
경손의 모친은 일껀 정색을 했던것이 경손이가 더펄대는 바람에 그만 실소를 해버렸습니다.
《응? 어머니… 오십전만.》
《돈은 무엇에 쓸려구 그래?》
《하, 사내대장부가 돈 쓸데 없어요? 당당한 백만장자 윤장의 윤두섭씨의 맏증손자 윤경손씨가…》
《나는 돈 없으니 그렇거던 큰사랑 할아버지께 가서 타 쓰려무나.》
《피— 무척 내가 이뻐서 돈 주겠수? 어머니이이— 오십전만…》
《없어.》
《이 애야, 그럴라 말구…》
조씨가 옆에서 하는 소립니다.
《서울아씨더러 달래렴. … 너는 그 아씨 시집보내줄 걱정까지 해주는데 그까짓 돈 오십전 안 주어? 오십전말구 오원, 오십원두 주지…》
물론 서울아씨가 미워라구 시방 그 쑤욱 나온 입술로 비꼬는 솜씨

지요.
그런데 경손이는 되려 귀가 반짝하는지 눈을 깜짝깜짝, 고개를 기웃기웃.
《서울아씨를?… 시집보내준다구… 하하, 오올치 좋아…》
무릎을 탁 치면서 일어서더니 《됐어, 됐어. … 왜 아까 그때 바루 그 생각을 못했을가?》
《어쩬 말이냐?》씨월데월 거드럭거리고 나갑니다.
박씨는 아들의 등뒤를 걱정스럽게 바라다보면서 무슨 말을 할듯 하다가 그만둡니다.
붐비를 놓던 경손이가 나가고 방안이 갑자기 조용하자 두 동서는 제가끔 제 생각에 잠겨 한동안 바느질손만 바쁩니다.
《다그르르. 》
마침 박씨가 굴리는 실패소리에 정신이 들어 조씨는 자지러지듯 한숨을 내쉽니다.
《형님은 그래두 좋으시겠수…》
《…》
《아주바님이 따루 계시기는 하세두 다아 마음은 안 변허시구… 저렇게 똑똑한 아들두 두시구… 나는 전생에 무슨 업원이 그렇게두 중했는지 팔자가 이 지경이니… 차라리 죽은 목숨만두 못한 인생… 그래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이 집으로 시집보내면서 만석군의 집지차 (다음가는) 손주며느리래서 호강이 팔자에 모두 느러진줄 알았을테지! 쯧쯧!》
《그런 소리 하지 마소. …》
박씨가 비로소 위로의 말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박씨는 이 동서를 위로해줄 말이 딱합니다.
번번이 마주 앉으면 노래부르듯 육장 두고서 하는 꼭같은 그느름이요, 팔자탄식인걸. 그러니 인제는 듣기도 해먹거니와 이편의 위로의 말도 밤낮 되풀이하면 그 소리라 말하는 나부터 멋적습니다.
《난들 무슨 팔자가 그리 우나게 좋다던가?… 남편이 저러구 다닐테면 맘 변하나 안 변하나 매일반이지. 자식은 하나 두었다는게 벌써 에미품안에서 빠져나간걸… 그러니 동서나 나나 신세 고단하기는 매양 갈지 별수 있는가?… 다아같이 부자집이름 좋은 종이요,

하인이지… 대체 이 집은…》

안존하던 박씨의 음성은 더럭 전접스러워지면서 아직도 고운 때가 안 가신 눈이 씰룩 깔아집니다.

《무얼루, 무엇이 어쩌니 만석군이 부잔고? 이이 옷주제허며 손이 이게 만석군이 집 며느리들이람?… 끌끌…》

미상불 동서 둘이 다아 영향이 좋지 못한 얼굴입니다. 손은 작년 겨울에 터진 자국이 여름내에 원상회복이 못된채 북두갈구리같습니다.

박씨는 아직도 인조항라고의를 입고있고 조씨는 역시 배 사먹으러 가게 설렁한 검정모(보이루)치마를 휘감고있습니다.

박씨는 자기네 주제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려 방안 짐을 둘러봅니다. 화류옷걸이에, 이불장에, 삼층장에, 머리장에, 벼개장에, 양복장에, 2칸 큰 방이 그득 모두 으리으리합니다.

《저런게 다 무슨 소용인고… 넣어두구 입을 옷이 있어야 저런것두 생색이 나지… 저런걸 백개 들여놓으니 얼명주 단속곳 한벌만 한가? 아무짝에두 쓸데 없는 치레뿐…나는 여름부터 고기가 좀 먹구싶은걸 못 얻어먹었더니…》

동서의 위로가 아니고 어찌다가 제자신의 그느름이 쏟아져나와서 마악 거기까지 말이 갔는데 헴 하고 연한 발은 기침소리에 련달아 우미닫이가 사르르 열립니다.

옥화가 왔던것입니다. 윤주사 창식이가 올봄에 새로 얻은 기생첩 그 옥화입니다. 기생으로 그리 세월도 없었으나 어느 녀학교를 2년인가 다녔고 그런데 어디서 배웠는지 묵화(먹으로 그린 동양화)를 좀 칠줄 아는것으로 그 소위 아담한 교양이 윤주사의 눈에 들었던것입니다.

허나 생김새는 도저히 아담함과는 간격이 뜹니다. 도량함직한 얼굴이면서 어딘지 새치임한 바람이 들고 그런가 하고 보면 생끗 웃는데 눈초리가 먼점 웃습니다.

이 새치임새가 남의 조강지처로는 아무래도 팔자가 세겠는데 마침 고놈 눈웃음이 화류계계집으로 꼭 맞었습니다. 다시 그의 안심찮은 두터운 입술은 그 이상의것을 암시하구요.

옥화는 이 큰댁에를 자주 드나들어 시아버지 윤장의령감의 귀염을 일쑤 받고 고씨의 성미를 곧잘 맞추고 서울아씨나 남편의 두 며느리와도 사이가 좋습니다. 능한 외교수완을 지니고있는게 분명한데 그러

고서도 기생으로 세월이 없었다니 좀 이상은 합니다마는 실상인즉 그러니까 윤주사같은 봉을 잡었지요.

옥화는 언제고 녀학생차림을 합니다. 기생의 녀학생차림이란 반지르르한게 암만 해도 직업냄새가 흐르기는 하지만 당자들은 그걸 교정할 용기가 없으니 옥화도 그 뿐이 그 뿐입니다. 그래도 옥화 절더러 말하라면 기생은 일시 액운이였었고 인제 다시 옛대루 녀학생인 저를 찾는거랍니다. 아무러나 그 실제는 종차 보기로 하고…

《두 동서끼리 바느질을 하시는군?》

옥화는 영낙없이 눈으로 웃으면서 깍듯이 며느리들더러 처우(조처하여 대우함.)를 하고 어서 오시라고 일어서는 인사를 맞대답합니다.

《게 그새 다아 안녕하시구?…》

옥화는 손에 사들고온 과자꾸레미를 내놓으면서 주객 셋이 둘러앉습니다.

《무얼 오실 때마다 이렇게. 허기야 잘 먹습니다마는…》

박씨가 치하를 합니다. 미상불 옥화는 언제고 빈손으로 오는 법은 없습니다.

《잘 자시니 좋잖우?… 그런데 저어 새서방소식이나 들었수?》

이건 조씨더러 가엾어하는 기색으로 묻는 말입니다.

《내가 그이 소식 알다가는 서쪽에서 해가 뜨라구요?》

《원 저를 어째… 부부간에 의초 (동기간의 우애)가 그렇게 안 좋아서 어떡허우!》

《어떻게는 무얼 어떻게요. … 날 잡아먹으라지…》

《아이, 숭헌 소리를…》

옥화는 박씨가 풀어놓은 비스케트를 저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 얌전한 서방님이 어째 색시를 마댄담? 그 아우 형제가 둘이 다아 얌전하기야 조음 얌전한가. 아이참, 어디 나갔수?》

《누가요?》

박씨가 무슨 소린지 몰라 뚜렛뚜렛합니다.

《누구라니, 새서방… 경손 아버지 말이지. …》

《그이가 오기나 했나요!》

《오기나 하다께? 아, 온줄 몰루?》

《아니!》

《어쩌나!》

《왔어요?》

《오기만… 아까 저어 아마 우미관앞에서 만난걸. 그리구 언제 왔느냐니깐 아침차루 왔다구 그 말까지 했는데…》

《그래두 집에는 안 왔어요.》

《어쩌나… 저거 야단났군! 호호.》

《야단날 일이야 있나요!… 아마 볼일이 바빠서 언제 집에는 들릴 틈이 안 난것이겠지요.》

속은 어떠했던지 박씨는 그래도 이만큼 사람이 둥글고 덕이 있습니다.

세 녀자는 잠간 말없이 잠잠합니다. 시방 박씨는 남편 종수가 어디가서 난봉을 피우고있으려니 그래도 올라는 왔으니까 얼굴이라도 보이기는 하겠지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있고 옥화는 옥화대로 긴한 사무가 있어 인제는 이만하면 마을 나올 증거는 만들어놓았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정작 가볼데를 가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씨는 옥화의 백금반지야 다이야반지가 요란한 고운 손이며 진짜비단으로 휘감은 옷이며를 골고루 여새겨보면서 논다니요 첩때기란 아무래도 이렇게 제 티를 내는 법이라고 에이, 더럽다고 속으로 비웃고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속을 캐고 볼양이면 조씨는 옥화가 그렇듯 좋은 패물이며 값진 옷을 입고 이쁘게 단장을 하고서 한가로이 마음 편히 놀러다니는 팔자가 부러워 못 견딥니다.

부러웠고 부러우니까는 오기가 나고 그래 앙앙한 오기가 바싹 마른 교만을 부리던것입니다.

이편 경손이는 다북 불편스런 얼굴을 우정 만들어가지고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서울아씨와 태식이의 두 가수는 여전히 《헤야, 하징아니 하고오!…》의 《추월색》가극과 《비－비－가 오－오, 모－모－가 모－가자－자－라－오－》의 맹꽁이음악을 근기있게 쌍주하고있습니다.

경손이는 심상찮이 불평스런 얼굴은 얼굴이라도 일변 매우 조심성있게 서울아씨가 누워있는 옆에 가앉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죠?》

《〈추월색〉이란다.》

서울아씨는 긴치 않다고 이마살을 약간 찌프립니다. 그러나 경손이는 더욱 은근합니다.
《퍽 재미있지요?》
《그렇단다.》
《그럼 나두 한번 봐야지!》
경손이는 혼자 중얼거리고는 한참 있다가 또 말을 뗍니다.
《전서방 저녁 다 먹었나?… 대고모가 아까 채려 내보낸게 전서방 밥상이죠?》
서울아씨는 속이 뜨끔했으나 겉만은 아무렇지도 않게 경손을 바라봅니다.
《그렇단다. … 왜 그러니?》
《아뇨, 밥 다아 먹었으면 나가서 돈 달라구 하게요.》
《…》
서울아씨는 아까 대복이의 저녁밥상을 차리러 나서느라고 저도 모르게 일으킨 이변을 비로소 깨달았으나 그래서 속이 뜨끔했던것이나 경손이가 막상 눈치를 채지는 못한것 같아서 적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안심을 할수가 없어 좀더 속을 떠보아야 하겠어서 슬며시 가극을 중지하고 짐짓 제 말 나오는 거동을 살피려드는데 경손이는 연해 혼자말로 두런두런…
《에이! 고 재ㅡ리, 깍쟁이.》
《…》
《고거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
《그중에 그따위가 병신지랄하더라구, 내참!》
《…》
《아 글쎄, 대고모!》
《왜?》
《아, 대복이녀석이 말이우…》
《그래서?》
《내참! 내 인제 마구 죽여놀테야.》
《아ㅡ니, 왜 그래? 무어라구 욕을 하던?》
《욕은 아니라두 욕보다 더한 소리지 뭐!》

《무어랬길래 그래?》
《아, 고 병신이 밤낮 날더러 대고모말을 하겠지! 망할 자식같으니라고!》
서울아씨는 얼굴이 화끈 달은것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무어라구 내 말을 한단 말이냐?》
《뭐 별소리가 많아요, 느이 대고모님은 참 얌전한 부인네라구. 그런 소리두 하구… 또오…》
《또오?》
《퍽 불쌍하다구… 소생이 무언지 소생이라두 하나 있었더라믄 그래두 맘이나 고닯지 않았을걸 어쩌구 그런 소리두 하구.》
《주제넘은 사람두 다아 보겠다! 제가 무엇이 되여서 날 가지구 그리네저러네 해?》
말의 뜻에 비해서는 악센트가 그다지 강경하진 않습니다. 대복이를 꾸짖자기보다 경손이한테 발명(죄가 없는것을 말하여 밝힘.)이기가 쉽지요.
《그러게 말이예요.… 내 인제 다시 그따위 소릴 하거든 마구 그냥 죽여놀테예요! 큰사랑 할아버지께 고해서 아주 밥통을 떼여놓던지… 망할 자식, 상놈의 자식!》
《경손아!》
서울아씨는 긴장한 태를 보이느라고 내려놓았던 《추월색》을 도로 집어들면서 경손이를 부르는 음성도 대고모답게 상냥하고도 위의가 있습니다.
《너 애여 남하고 시비할세라?》
《내애.》
《그런 되잖은 소리 들었다구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옮기지 말구… 그까짓 소리 한귀루 듣구 한귀루 흘러버릴 소리 아냐?》
《내애, 아무에게두 얘기 안할게요.》
경손이는 부시시 일어서고 서울아씨는 도로 가극을 계속하려 합니다.
《밥이나 다아 먹었나?… 작자가…》
경손이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미닫이를 열다가 짐짓 머뭇머뭇 하는체 하더니《대고모.》하고 어렵잖게 부릅니다.
《왜?》

《저어, 저녁이라 말하기 안돼서 그러는데요?》
《그래?》
《래일 대복이한테 타서 도루 가져다디리께 저어, 돈 이원만…》
《돈은 이원씩이나 무엇에 쓰니?》
《좀 살게 있어서 그래요.》
서울아씨는 더 묻지도 않고 일어서더니 옷장을 열쇠로 열고는 속서랍에서 일원짜리 두장을 꺼내다가 줍니다.
대체 서울아씨가 다른사람도 아니요 경손이한테 돈을 이원씩이나 준다는게 그것 또한 이변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처럼 경손이가 서울아씨를 존경하고 서울아씨는 경손이한테 상냥하게 굴고 한적도 물론 전고에 없는 일이고요.
《래일 대복이한테 타서 드릴게요.》
경손이는 두손 받쳐 돈을 받고 서울아씨는 그 소리를 도리여 나무람하되《내가 네게다가 돈 취해줄 사람이더냐?… 그런 소리 말구 가지구 가서 써요!》
다 이렇습니다.
가령 받고싶더래도 안 받을 생각을 해야지요. 삵괭이가 닭 물어다 먹고서 갚는 법 있나요.
경손이는 《네에, 그러겠습니다.》하고 더욱 공손히 《대고모, 안녕히 주무세요.》란 인사까지 한 후에 마루로 나오더니 안방에다 대고 혀바닥을 날름, 코를 실룩, 눈을 끼끗, 오만 양냥이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짓을 다아 합니다.
구두를 신느라니까 등뒤에서 마루의 괘종(벽이나 기둥들에 걸게 만든 시계)이 9시를 칩니다.
9시면 지금 가더라도 모로코밖에 못 볼텐데 어찔고싶어 작정을 못한대로 나가기는 나갑니다. 아무튼 나가보아서 영화를 보든지 영화를 래일 밤으로 밀고 동무를 불러내여 그 돈 2원으로 유흥을 하든지 하자는것입니다.
안대문은 잠겼고 그래 사랑중문으로 나가는데 큰사랑에 춘심이가 와서 있는것이 미닫이의 유리쪽으로 얼핏 들여다보였습니다.
경손이는 잠간 서서 생각하다가 잠자코 대문밖으로 나가더니 조금만에 되짚어들어오면서 《삼남아.》하고 커다랗게 부릅니다. 삼남

이는 벌써 15분전에 잠이 들었으니까 대답이 없고 대복이가 건너방 대문을 열고 내다봅니다.

《여기 춘심이라구 왔수? 이년 녀편네가 대문밖에서 좀 불러달래요. ―》

경손이는 아주 성가신 심부름을 하는듯이 볼멘소리로 투덜거려놓고는 이내 돌아서서 씽씽 나가버립니다.

대복이가 전갈을 하기 전에 춘심이는 제 귀로 알아듣고 뛰여나와서 납작구두를 신는둥마는둥 밖으로 달려나옵니다.

대복이나 윤장의령감은 경손이가 하던 소리를 곧이 들은건 물론이요 춘심이도 깜빡 속아 제 집에서 누가 부르러 온줄만 알았습니다.

춘심이는 대문밖으로 나가서 문등이 환히 비치는 골목을 둘레둘레, 왔으면 어머니가 왔을텐데 어디로 갔는고 하고 사알살 밟아나옵니다.

마침 옆으로 빠진 실골목앞까지 오느라니까 경손이가 그안에서 기침을 합니다. 춘심이는 비로소 경손이한테 속은줄을 알고는 골딱지를 내려다가 생각하니 반가와 히뜩히뜩 웃으면서 쫓아갑니다.

경손이는 말없이 웃고섰습니다.

《울어머니 어딨어?》

《늬집에 있지 어딨어.》

《난 몰라… 들어가서 령감더러 이를껄.》

《뭐야… 흥. 련앨 톡톡히 하시는 모양이군. … 오래잖아 우리 큰사랑 할머니 한분 생길 모양이지. …》

《몰라이, 깍쟁이…》

춘심이는 마구 보풀을 내뗍니다. 속이 저린탓으로 경손이가 혹시 아까 윤장의령감과 반지조건을 가지고 련애계약을 하던 경과를 죄다 듣고서 저러는게 아닌가싶어 젖내야 날값에 그래도 계집애라고 그런 연극을 할줄 알던것입니다. 게나 가재는 나면서부터 꼬집을줄 알듯이요.

《…뭐, 내가 누구때문에 밤낮 여길 오는데 그래… 늙어빠지구 귀인성 (신분이나 지위가 귀하게 될 바탕 혹은 귀염성)없는 령감님이 좋아서? 남 괜히 속두 몰라주구, 뭐…》

춘심이는 제가 지금 푸념을 해대는 말대로 늙어빠지고 귀인성없는 윤장의령감이 결단코 좋아서 오는게 아니라 윤장의령감한테 오는체 하

고서 실상은 경손이를 만나러 온다는게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춘심이 저도 모르는 소립니다. 아마 보나 안 보나 윤장의령감과 경손이를 다같이 만나러 오는것이기십상일테지요.

그러나 시방 이 경우 이 자리에서는 단연코 경손이때문에 온다는것으로 팔팔 뛰지 않지 못할만치 춘심이도 본시 그리고 벌써 계집이던 것입니다.

춘심이는 윤장의령감한테 다니기 시작한지 세번째만에 경손이를 알았습니다.

석양쯤해선데 춘심이가 윤장의령감이 있으려니만 여겨 무심코 방으로 쑥 들어서니까 커다란 윤장의령감은 간데 없고 웬 까까중이의 조고만 도련님이 연상앞에서 라지오를 만지고있었습니다. 좀 무엇했으나 그 도련님 예쁘게도 생겼다고, 함께 동무해서 놀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손이는 뚱뚱보령감한테 들켰나 해서 깜짝 놀랐으나 이어 아닌걸 알고 헌데 요건 또 웬 계집인고싶어 춘심이를 마주 짯짯이 치여다보았습니다.

전에 이 큰사랑에 오던 계집애는 이 계집애가 아닌데… 그것들은 모두 빌어먹게 보기싫었는데… 요건 어디서 깜찍하니 고거 이쁘게는 생겼다… 동무해서 놀았으면 좋겠다… 경손이 역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련애에는 소위 첫인상이라는게 제일이라고요. 과연 둘이 다같이 첫인상이 만점이였습니다.

그래 하나는 문지방을 집고서서, 하나는 라지오의 스위치를 잡고 앉은채 한참이나 서로 치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경손이가 먼저 《넌 누구냐?》 하면서 눈에 나타난 호의와는 다르게 터세하듯 따지고 일어섭니다.

《넌 누구냐?》

춘심이 역시 말소리는 강경합니다. 적어도 이 댁에서 제일 어른이요, 제일 크고 뚱뚱한 령감님 그 어른한테 다니는건데 제까짓것 까까중이 도련님이면 소용있나는 속이겠다요.

경손이는 장히 시쁘다고 바싹 다가와 춘심이를 들여다보며 《그래, 난 이 댁 도련님이다!》

《되이… 되련님이 아니구 령감님이믄 사람 하나 구칠번했네.》

《요 계집애 건방지다. …》
《아니믄?… 병아리새끼처럼 터셀 해요!》
《요것 보게. … 너 요것 주먹 하나 먹구싶어?》
《때리믄 제법이게.》
《정말?》
《그래!》
《요－걸－》
경손이가 번쩍 들이대는 주먹이 코끝으로 육박을 해도 춘심이는 꼼짝않고 서서 웃습니다. 웃음도 나름이지만 이건 호의가 가득찬 웃음입니다.
《하하, 고거야.》
경손이는 주먹을 도로 내리면서 좋게 웃습니다. 역시 춘심이처럼 호의가 가득찬 웃음입니다.
《왜 안 때려?》
《울리믄 쓰나!》
《내가 울어?》
《네 이름이 무어지?》
《알면서 물어요?》
《내가 알아?》
《그－럼－》
《내가?》
《너－너 하는건 무언데?》
《오옳지, 너라구 했다구! 하하하, 그럼 아가씨존함이 누구시오?》
《누가 아가씨랬나, 해해해…》
《하하하… 무어나, 이름이?…》
《춘심…》
《응… 춘심이… 그리구 나인?》
《열다섯살…》
《하, 나하구 동갑이다.》
《정말?》
《응!》
《이름은?》

《경손씨.》
《경손씨?… 활동사진배우이름같애!…》
《안돼! 되련님이름을 그런데다가 빗대다니…》
《피이.》
《그래두.》
《어쩔테야.》
《한대 먹구싶어?》
경손이는 또 주먹을 들이댑니다. 그러나 그게 아까 먼저보다는 도리여 무른할뿐더러 정말 때릴 의사가 아닌줄을 빠안히 알면서도 춘심이는 허겁스럽게 엄살엄살 다시 안 그런다고 항복을 합니다.
《다신 안 그러기다.》
《응!…》
《응! 그러구.》
《무어?》
《아—니… 참, 너두 기생이냐?》
《응!》
《인력거 타구?》
《응!》
《그리구서?》
《무얼?》
《인력거 타구 료리집에 가서. …》
《손님앞에서 소리두 하구, 술두 치구…》
《다— 놀면 인력거타구 집으로 오구…》
《그거뿐?》
《뿐!》
《돈은 안 받구?》
《왜 안 받어!》
《얼마?》
《한시간에 1원 50전…》
《꽤나!… 몇시간이나?》
《대중없어…》
《갈 때면 이렇게 입구가니?》

《야단나게?… 쪽지구 긴치마에 버선신구 그리구…》

《하하하. ―》

《해해해.》

이때 마침 대문간에서 윤장의령감의 기침소리가 들려 이 장면은 그대로 카트(잘라짐)가 됩니다. 그러니 경손이는 총총히 《저―기 뒤채 내 방으로 놀러오너라, 응? 꼭…》 하고 부탁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뒤로부터 두 아이의 련애는 급속도로 발전을 해갔습니다. 무대는 이 집의 뒤채 경손이의 방과 영화상설관과 안국동에 묘한 뒤문이 있는 청료리집과 등이고요.

그사이에 경손이는 춘심이한테 분과 향수 같은것을 선사했고 춘심이는 손수건에다가 그다지 출수는 없으나 제 솜씨로 경손이와 제 이름을 수놓아서 선사했습니다. 두 아이의 대강 이야기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밤으로 돌아와서 실골목의 장면인데…

경손이는 춘심이가 너무 억울해하니까 그를 믿고(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도무지 의심이 났던게 아니였으니까요.) 아무리나 롱담이 과했음을 속으로 뉘우쳤습니다.

아마 인간이라고 생긴것이면 사내치고서 계집한테 속지 않는 바보는 없나보지요.

《극장 가자.》

경손이는 이내 잠자코 섰다가 불쑥 하는 소립니다.

이 기교없는 기교에 정말아닌 노염이 났던 춘심이는 대번에 해해 합니다. 가령 정말로 성이 났었더라도 그러했겠지마는요.

《늦었는데?》

《괜찮아!》

《령감님?》

《그걸 핑겔 못해?》

춘심이는 좋아라고 연신 생글생글 사랑으로 들어가더니 대돌에 올라서서《령감니임, 나 집에 가봐야겠어요!》합니다.

《오―냐―》

윤장의령감의 허연 수염이 미닫이의 유리에서 방안을 가리며 내다봅니다.

《누가 부르러 왔더냐?》

《내!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고 어머니가 왔어요.》

《그러거덜랑 어서 가부아라. … 거 무슨 병이 났단 말이냐?》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냥…》

《그럼 무얼 먹은게 체하여서 곽난이 났는가보구나.》

《글쎄, 잘 모르겠어요.》

《어서 가보아라… 그리구 곽난이거든 와서 약 가져가거라. … 사향소화반 주께…》

《내!》

《어서 가보아라. … 그리구 래일 낮에 오너라, 반지 사러 가게.》

《네.》

《꼭 올리여?》

《네, 꼭 와요!》

《기대리마!… 반지 꼭 사주마!》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오-냐, 너 혼자 가겠냐?》

《아이, 괜찮아요.》

《무섭거든 삼남이 데리구 가구.》

《무섭긴 무엇이 무서워요.》

《그럼 어서 가보구 래일 오정때쯤 하여서 꼭 오니랭. 반지 사러 진고개 가게, 응?》

《네…》

《잘 가거라, 응?》

《내, 안내이 주무세요.》

《오-냐, 어서 가거라… 그리구 래일 반지 사러 가자.》

반지소리가 드리없이 나오나 봅니다. 걱정도 되겠지요. 제 아범이 병이 났다니 그게 중해서 래일 혹시 오기가 어렵게 되면 또다시 련애를 연기해야 할테니까요.

그 육중스런 김시첩 (낡은 사회에서 귀족이나 지주 등이 데리고 사는 첩.) 장인을 위해 중값나가는 사향소합환을 주마는것도 과연 근경속이 그럴듯 하기는 합니다.

아무러나 이래서 조손간에 계집애 하나를 가지고 동락하니 로소동락일시 분명하고 겸하여 규모집안다운 계집소비절약이랄수도 있겠

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절약은 좋을지어떨지 몰라도 안에서는 녀자의 인구가 남아돌아가고 (그래 한숨과 불평인데.) 밖에서는 계집이 모자라서 소비절약을 하고 (그래 칠십 로옹이 예순다섯살로 나이를 야바위도 치고 열다섯살먹은 애가 강짜도 하려고 하고.) 아무래도 전시체제하의 용어를 빌어오면 통제가 서지를 않아 물자배급에 체화와 품부족이라는 슬픈 정상을 나타낸게 아닐수 없겠습니다.

12. 세계사업 반절기

역시 같은 날 밤이요 9시가 한 오분가량 지나섭니다. 그러니까 방금 창식이 윤주사의 둘째첩 옥화가 게동 큰댁에를 들렸다가 며느리벌되는 뒤채의 두 새 댁들과 말말끝에 집에는 얼굴도 들여놓지 않는 종수를 아까 낮에 우미관앞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있는 그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각입니다.

과연 그리고 꼭 맞는 그 시각에 종수는 그의 병정인 키다리 병호의 인도로 동관 어떤 뚜쟁이집을 찾아왔습니다.

종수는 새삼스럽게 소개할것도 없이 윤장의령감의 맏손자요, 창식이 윤주사의 맏아들이요, 경손이의 아범이요, 윤씨네 가문 빛내는 큰 사업의 제일선용사중 한사람으로서 군수운동을 하느라고 고향에 내려가 군 고원을 다니는 사람이요 그리고 장차 경찰서장이 될 동경 어느 대학 법학과 학생 종학이의 형이요 이러한 그 종숩니다. 주욱 꿰여놓고보니 기구가 대단하군요. 뭐 옛날 중국땅의 주공이라던지 하는 사람은 문왕의 아들이요 무왕의 동생이요 시방 임금의 삼촌이요 이렇게 돼서 근본좋고 팔자좋고 권세좋고 하기로 세상우두머리를 쳤다지만 종수의 기구도 그 량반 주공을 능멸하기에 족할지언정 못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듯 몸 지중한 종수가 어디를 가서 오입을 하면 못해 하필 구접자레한 동관의 뚜쟁이집을 찾아왔을고마는 거기에는 사소한 래력과 곡절이 있던것입니다.

종수는 시방 나이 스물아홉, 생김생김은 이 집안의 혈통인만큼 헤멀끔하니 어디 한군데 야무지게 맺힌데가 없고 좋게 보아야 포류의질

(개버들과 갈음) 입니다. 혹시 눈먼 관상쟁이한테나 보인다면 널직한 그의 얼굴과 훤하니 트인 이마에 만석이 들었다고 할는지 모르지요. 허기야 또 시체는 상학(얼굴의 생김새를 보고 운명을 알아내는 일을 연구하는 학문)도 로망이 나서 꽉 빌어먹게 생긴 얼굴만 돈이 붙곤 하니까 종작할수가 없지마는요. 열일곱에 서울로 공부를 올라와서 입학시험을 친다는것이 단박 락제를 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강습소 나부랑이를 다니면서 준비를 하는체 하다가 이듬해 다시 시험을 치렀으나 또 락제…

열아홉살에 세번째 락제 그리고 다시 그 이듬해 스무살에는 스무살이나 먹어가지고 열서너살짜리 쪼무래기들과 휩쓸려 입학시험을 칠 비위도 없거니와 치자고 해도 지원(소원)부터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해 종수의 아우 종학이 4년동안 줄곧 락제를 한 형에게 분풀이나 하듯이 우등성적이요 겸하여 첫째로 ××고보에 입학이 되였습니다.

이때는 벌써 온 집안이 서울로 반이사를 해왔고 헌데 종수는 일이 그 지경이고보니 어디로 얼굴을 두루나 부끄러운것뿐, 일변 또 공부따위는 애초에 하기가 싫던것이라 아주 작파를 해버렸습니다. 명색이나마 공부를 작파하고나서는 돈냥이나 있는 집 자식이겠다 할노릇이란 빠안한것 그동안 조금씩 익혀온 술먹기와 계집질에 아주 털어놓고 투신을 했습니다.

윤장의령감은 이런 손자자식이, 그야말로 이마빼기에 피도 안 마른것이 주색에 빠졌으니 사람버린것이 걱정도 걱정이려니와 그보다는 소중한 돈을 물쓰듯 해서 더욱 심화요 그런데 그보다도 또 속이 상한건 크게 바라던 군수자리가 장마의 개울물에 맹꽁이 떠내려가듯 동동 떠내려가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윤장의령감은 한번실패로 큰 목적을 단념할 사람이 아니였습니다. 그는 두루두루 남의 의견도 듣고 궁리도 해보고 한끝에 공부를 잘시켜 고등관으로 군수가 되는 길은 글렀은즉 이번에는 군고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본관을 거쳐 서무주임으로, 서무주임에서 군수로 이렇게 밟아올라가는 길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고향의 군수는 윤장의령감의 청대로 선뜻 고원자리 하나를 종수에게 제공했을뿐아니라 뒤일도 보장을 했습니다.

종수는 제가 군수가 되고싶다기보다도 일일이 감독이 엄한 조부 윤장의령감밑에서 조심스럽게 노느니 고향으로 내려가서 마음 탁 놓고 지낼것이 좋아 매달 200원씩 가용을 타쓰기로 하고 월급 26원짜리 군고원이 되였던것입니다. 그것이 꼬박 3년전…

그 3년동안 윤장의령감이 자기 손으로 쓴 운동비가 꽁꽁 일만원하고 3천원입니다. 그리고 종수가 운동비라는 명목으로 가져간것이 2만원 돈이 거의 됩니다. 해서 도합 3만원이 넘습니다. 허기야 종수가 가져간 2만원 돈은 그놈이 옳게 제구멍으로 들어갔는지 딴구멍으로 샜는지 알 사람이 드물지요마는… 그러나 실상은 돈이 3만여원 든건 아닙니다. 종수가 가용으로 매삭 2백원씩 가져갔으니 그것이 3년동안 7천여원, 종수가 윤장의령감의 도장을 새겨가지고 토지를 잡혀쓴것이 두번에 2만여원이요 그것을 윤장의령감이 일보(본전 100에 대한 날마다 붙는 리자) 8전씩 쳐서 도장 찾느라고 2만 5천여원, 윤장의령감의 명의로 (도장은 물론 가짜지요.) 수형 뒤보증을 해 쓴것을 여섯번에 4만원을 물어주고.

이 두가지만 해도 7만원돈인데 그 7만원가운데 종수가 제 손에 넣고 쓴것은 다—쳐야 단돈 만원도 못됩니다. 윤장의령감으로 보면 결국 손자 종수에게 사기를 당한셈인데 그러므로 물어주지 않고 버릴수도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버리고볼양이면 종수가 징역을 가야 하니 체면상 차마 못할노릇일뿐만아니라 더우기 바라고바라던 군수가 영영 떠내려가겠은즉 목마른 놈이 우물 파기라고 짜나다나 그 뒤치닥거리를 다하곤 했던것입니다.

그래 이놈저놈을 모두 합치면 돈이 십만원하고도 훨씬 넘습니다.

윤장의령감은 하도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이 잡아뽑을 놈아, 이놈아, 돈두 무엇에다 그렇게 물쓰듯 하느냐고 번번이 불러올려다가는 도둑놈 닥달하듯 족쳐댑니다.

그럴라치면 종수는 군수운동비와 교제비로 쓴다고 합니다.

그렇거들랑 왜 날더러 달래다가 쓸것이지 비싼 고리대금업자의 변전을 내느냐고 할라치면 할아버지가 언제 돈 달라는족족 주었느냐고 되려 떠받고 일어섭니다.

물론 윤장의령감은 곧이를 듣지는 않지만 종수의 구실거리는 그만큼 유리했습니다.

해서 윤장의령감의 무서운 규모로 3년동안에 12만원을 그 밑구멍에다가 들여민것으로 보아 군수 즉 량반이라는것의 매력이 위대함을 알겠는데 그러나 종수는 아직도 한낱 고원으로 있지 그이상 더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월급만은 한차례 3원이 승급하여 29원을 받지만요.

허니 일이 매우 장황스러워 성미급한 윤장의령감으로는 조바심이 나리라 하겠지만 십상 고원에서 본관까지 4년, 본관에서 서무주임까지 3년, 서무주임에서 군수까지 다시 3년, 도합 십개년계획이였기때문에 아직 유유히 운동을 계속하는중입니다.

그 덕에 거드럭거리는건 좋습니다. 군에 다니는건 영제(나라의 제사)뿐이요 매일 술타령에 계집질, 게다가 한달이면 사오차씩 서울로 올라와서는 뚜드려먹고 놉니다. 돈은 물론 제집의 돈을 사기해먹고 또 그밖에 중이 망건사러 가는 돈이라도 걸리기만 하면 잡아써놓고 봅니다. 그랬다가 다급하면 그짓, 제집 돈 사기를 해서 물어주든지 직접 윤장의령감한테 운동비랍시고 버젓이 돈을 타든지 합니다. 이번에 올라온것도 그러한 일 조간입니다.

얼마전에 군의 같은 동료가 맡아보는 돈 천원을 돌려쓴 일이 있는데 그 돈 채워놓아야 할 날자가 이삼일로 박두했고 일변 술도 날씨 선선해진판에 한바탕 먹어제치고싶고 이첨저첨 올라왔던것인데 방위가 나빴던지 일수가 사나왔던지 첫새벽 정거장에서 내리던길로 일이 모두 꿀리기만 했습니다.

첫째 어제 시골서 떠나기 전에 전보를 쳐두었는데 키다리 병호가 마중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언재도, 술을 먹재도, 오입을 하재도 종수는 그의 병정인 키다리 병호가 아니고는 꼼짝을 못합니다. 수형을 현금으로 바꾸어오고 료리집과 기생의 분별을 시키고 더러는 외상료리의 교섭을 하고 계집을 중매서고 이래서 종수가 서울서 노는데는 돈보다도 더 그리고 필시 필요한게 병호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미리서 전보까지 쳐두었던것인데 정거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병이 났거나 타관에를 갔거나 한것이라고 락심을 한 종수는 그래도 막상 몰라 애오개 산비탈에 박혀있는 병호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역시 병호는 집에 없고 그의 아낙의 말이 어제 낮에 잠간 다녀온다

고 나간채 여태 안 들어왔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먼 타관에는 가지 않은듯싶고 그것이 적이 다행해서 들어오는대로 곧 만나게 하라는 말을 이른 뒤에 언제고 서울을 올라오면 집보다도 먼저 찾아드는 ××려관에다가 우선 자리를 잡았습니다. ××려관에서 종수는 아침을 먹고 드러누워 늘어지게 한잠을 잤습니다. 간밤에 침대차가 만원이 되여 잠을 못잔것이 피곤도 하거니와 이따가 저녁에 한바탕 놀자면 정력을 길러두는것도 해롭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러한 필요가 아니라도 병호가 없는 이상 막대기를 잃어버린 장님같이 저 혼자서는 옴나위(꼼짝할수)가 없으니까 낮잠이 제일 만만합니다. 한잠을 푹신 자고나니깐 오정이 지났는데 병호는 그때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또 한번 애오개를 나갔다가 그만 헛방을 치고는 답답한 나머지 여기저기 그를 찾아다녀보았습니다. 그리다가 우미관앞에서 재수없이 옥화를 만났던것입니다.

종수가 도로 려관으로 돌아와서 4시까지 기다리다가 그만 질증이 나서 다아 작파하고 조부 윤장의령감한테 급한 돈 천원이나 울궈내가지고 내려가버릴가, 래일 하루 더 기다려볼가 망설이는판에 키다리 병호가 터덜터덜 달려들었습니다.

《허— 미안허이…》

병호는 말처럼 긴 얼굴에 소처럼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섭니다.

《무얼 핥어먹느라구 밤새도록 주둥일 끌구 다녔수?》

종수는 일어나지도 않고 버얼떡 누운채 전보대꼭대기같이 한참 올려다보이는 병호의 얼굴을 눈흘겨주다가 한마디 비꼬는것입니다.

남더러 전접스런 소리를 잘하는것도 아마 윤장의령감의 대부터 내림인가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종수는 갈데없는 후레자식입니다.

한것이 병호와 같은 고향인데 나이 십오년이나 층이 집니다. 십오년이면 부집(아버지벌)이 아닙니까. 종수 제 부친 창식이 윤주사가 마흔여섯이요 해서 사실로 병호와는 네랑내랑하는 사이니까요.

그런것을 글쎄 절하고 뵙지는 못할망정 버얼떡 자빠져서는 한다는 소리가 무얼 핥어먹느라고 주둥이를 끌고 다녔느냐가 첫인사이니 놈이 후레자식이 아니라구요. 허나 병호는 아주 이—상입니다.

《뭐 그저 모처럼 봉을 하나 잡았더니 그놈을 뚜다려먹느라구—》

《그래서?— 문밖 별장으로 나갔던 속이구려?》
《응.》
《각시맛두 봤수?》
《미친 녀석, 늙은 사람두 그런것에 받친다더냐.》
《아—무렴, 참 개가 똥을 마대지.》
둘이는 걸쭉하게 롱지거리로 주거니받거니 합니다.
그러니 결국 종수로 하여금 버르장머리가 없게 하는것은 이편 병호가 속이 없고 롱판스런탓이고 그걸 받아주는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의 병정을 잘 써먹자면 그만큼이나 구수하지 않고는 붙임성이 없겠으니 또한 직업인지라 어쩔수가 없다는게 병호의 변명입니다.
《돈을 좀 마련해야 할텐데…》
종수는 그제서야 일어나더니 잔뜩 쪼글뜨리고 앉으면서 담배를 붙여뭅니다.
《해보지… 얼마나?》
병호의 대답은 언제나 선선합니다.
《꼭 천원허구… 또 오백원…》
《오늘루 써야 하나?》
《천원은 래일 해전으로 되면 좋구 오늘은 오백원가량만…》
《그렇지만 은행시간이 지나서 좀…》
《그러니깐 진작 오정때만 왔어두 좋았지. 핥아먹으러 싸다니느라구…》
《허참, 잡놈이네. 비올줄 알면 어느 계집년이 빨래질 간다나? 네가 몇시간만 더일찍 전보를 치지.》
《긴소리, 잔소리 인젠 고만두구 어서 어떻게 서둘러봐요!》
《날더러만 재축을 하지 말구 어서 한장 쓰게그려.》
《그런데 이번은 말이죠…》
종수는 손가방에서 수형용지를 꺼내가지고 일변 쓰면서 이야깁니다.
《…이번은 사리를 좀더 줄이드래두 내 도장만 찍어야 할텐데.》
《건 어려울걸… 그런데 왜?》
《저 지난번에 논을 그렇게 해 쓴거 일만오천원이 새달 그믐이 아니요?》

《참, 그렇지… 그런데?》
《그런데 그거가 뒤집어지기 전에 이거가 퉁겨져나오구 그리구서 얼마 안있다가 또 그거가 나오구, 그래놓으면 글쎄 한가지씩 졸경을 치르기두 땀이 나는데 거퍼 두가지씩!》
종수는 쓰던 만년필을 멈추고 혀를 날름날름하면서 고개를 내두릅니다. 졸경을 치른다는것은 빚쟁이한테 직접 단련이 아니라 조부 윤장의령감님한테 말입니다.
《그렇잖우? 드뻑 큰 모가지는 크게 해먹는 맛으루나 당한다구 요것 2천원짜리때문에 경을 곱쟁일 치긴 억울해.》
《그두 그렇긴 하네마는…》
병호는 깜짝깜짝 생각을 하다가는 종수가 도장까지 찍어내놓는 2천원액면의 수형을 집어듭니다. 아무리 가짜도장일값에 윤두섭의 뒤보증이 없는 단지 부랑자 종수의 수형을 가지고 돈을 얻는다는게 하늘의 별따깁니다.
《좀 어렵겠는데…》
병호는 수형을 만지작만지작, 그 기다란 웃도리를 앞뒤로 끄댁끄댁 연신 입맛을 다십니다.
《쉬울테면 왜 온종일 당신 기다리구있겠소? 잔소리말구 어서 갔다가 와요!》
《글쎄 가보긴 가보지만…》
병호는 수형을 빛날은 회색보라양복 속주머니에다가 건사하고 일어섭니다.
《… 가보아서 되면 좋구 안되면 달리 또 무슨 방도를 치르더래도… 아무래나 기다리게…》
《꼭 돼야 해요! 더구나 한 사오백원은 오늘 우선…》
《흥, 이거 말이지?》
병호는 씨익 웃으며 술잔 기울이는 흉내를 냅니다. 종수도 따라웃습니다.
《참새가 방아간을 그대루 지내우?》
《념려말게… 돈이 못되면 외상은 못하나?》
《싫소, 외상은… 그리구 료리집 간조뿐이우?》
《각시두 외상 얻어줌세, 끙.》

《어느놈이 치사하게 외상오입을 하구 다니우?》
《난 없으면 못하겠더라!》
《량반하구 상놈하구 같은가.》
《량반은 별수 있다더냐?》
한시간안에 다녀오마고 나간 병호는 두시간, 세시간 눈이 빠지게 기다려놓구서 일곱시 반에야 휘적휘적 그나마 맨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장의령감의 뒤보증이 없이도 종수의 도장만 보고서 돈을 줄 사람이 꼭 한사람 있기는 있고 또 그 사람이면 소절수를 받아다가 현금과 지체없이 물어줄수가 있는 자린데 세상 기고 메고 아무리 찾아다녀야 만날수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이 따로이 슬그머니 욕심이 생겨가지고는 짐짓 꾸며대는 롱간인줄을 종수는 알택이 없습니다.
윤종수의 도장 하나를 보고서 수형을 바꾸어줄수 있는 돈장사라고는 이 천지에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병호는 그것을 잘 알고있고 그러면서도 어쩌면 될듯 한 눈치를 보이는것은 우선 수형을 쓰게 하자는 제1단의 공작이였습니다.
그 세시간동안 병호는 누구를 찾아다니기는커녕 제집으로 가서 편안히 누웠다가 온것도 그러니까 종수는 알턱이 또한 없습니다.
《빌어먹을… 에이, 속상해!》
종수는 슬며시 짜증이 나서 피우던 담배를 재털이에 싹싹 비벼던지고는 나가 드러누우면서 투덜거립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진작 아까 저물기 전에 집으로나 가서 할아버지께라두 말씀을 했지! 에이, 빌어먹을…》
은연중 병호가 늦게 온 증원까지 하는 소립니다. 그러나 병호는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리기보다도 일이 묘하게 얼러간대서 속으로 기뻐합니다.
《여보게!》
《…》
《여기다가 자네 조부님도장 찍어서 뒤보증을 하게.》
《싫소!… 다아 고만두우. 래일 할아버지께 돈 천원이나 타서 쓰구말겠소.》
《원결 주실라구?》

《안 주시면 말지 뭐… 에잇, 속상해!》
《그렇게 있어두 고만, 없어두 고만일 돈이면 애여 왜 쓰려구들어?》
《남 속상하는 소리 말아요! 시방 돈 천원에 여러집 초상나게 된걸 가지구…》
《허어! 그 장단에 어데 춤추겠나!》
《아아니, 할아버지도장 찍구 뒤보증은 할테니 당장 돈 만들어올테요?》
《열에 일곱은 될듯 하네만… 그러구저러구간에 여보게?》
《말 던지우.》
《만일 자네 조부님께 말씀을 해서 돈이 안되며는 랑패가 생길 돈이라면서?》
《랑패뿐이 아니요… 내 온, 돈 고까짓 천원때문에 이렇게 속상하기라군 생전 처음이요.》
《그러니 말일세, 뒤보증을 해주면 시방 나가서 주선을 해보구… 안되면 래일 해보구 할테니깐 자넨 자네대로 이놈은 꼭일랑 믿지 말구서 래일 자네 조부님을 조르구 그렇게 해서 두군데중에 한군데서 되며는 좋잖은가?》
《아, 글쎄. 이 당신아!…》
종수는 답답하다고 벌떡 일어나앉으면서 삿대질을 합니다.
《…맨첨에 내가 하던 소린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단 말이요?》
《온참!… 저놈 논 잽혀 쓴 놈 일만 몇천원짜리허구 연거퍼 튕겨질테니 안됐단 말이지?》
《이번치가 먼점 뒤집어질테니깐 더 걱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번칠랑 리자나 주구서 두어번 고치면 될게 아닌가.》
《고쳐? 누가 고쳐준다나?》
《안해줄게 어디 있나? 리자를 주는데 왜 안해주나?》
《그럼 그래볼가? 히히!》
종수는 별안간 싱겁게 웃으면서 언제고 준비해가지고 다니는 윤장의령감의 도장으로 아까 그 수형에다가 뒤보증을 해놓습니다.
《되도록 단돈 백원이라두 현금을 좀 가지구 오시우.》
《글쎄! 그렇게 해보지만…》

병호는 돌아서려다가 싱글싱글 웃습니다.

《…자네 거 기생 고만두구서 오늘 저녁에는 녀학생오입 하나 해보랴나?》

《녀학생?… 정말? 희떠운 소리 작작 허슈!》

《안야! 내 장담허구 대령시킬테니…》

《진짤?》

《아무렴!》

《정말?》

《허어!》

《아니면 어쩔테요?》

《내 목을 비여놓지!》

《그럼 내기요?》

《내기하세!… 그런데 진짜가 아니면 나는 목을 비여놓기고… 또오 진짜면?》

《백원 상금 주지!》

《그래, 오는 길에 다아 주문해놓구 옴세.》

한시간이 좀 못되여서 들어온 병호는 이번도 허탕이였습니다. 단골로 그새 거래를 하던 세군데를 찾아갔는데 하나는 타관에 가고 없고 하나는 놀러 나갔고 또 하나는 은행에 예금한게 없어서 래일이나 입금시키는 형편을 보아야만 소절수라도 발행한다는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꾸며대는 소리요 동관의 뚜쟁이집에 가서 노닥거리다가 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래일 될상두 부르군요?》

종수는 생각하던바와 달라 속알찌도 내지 않습니다.

《글쎄?》

《안될것 같아?》

《그런게 아니라 이 수형일랑 내게 두었다가 내가 한번 더 돌아다녀 올테니, 그렇지만 꼭 믿진 말구서 자넨 조부님한테 타내두룩하게… 그래야만망정이지 꼭 되리라니 했다가 안되는 날이면 랑패가 아닌가? 지금두 오면서두 고옴곰 생각했지만 거 남의 수중에 있는 돈을 얻어쓴다는게 무척 힘이 들구, 자칫하면 큰일을 잡치기가 쉬운걸세그려! 아, 오늘 저녁 일만 두구 생각해보게. 남의 돈을 믿었다가 이

렇게 루차 랑패가 아닌가.》
근경있어 타이르듯 하는 말에 종수는 그렇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종수가 다소곳하니 곧이 듣는것을 보고 병호는 일이 열에 아홉은 성사라서 속으로 좋아 못 견뎌합니다.
병호는 그놈 오천원짜리 수형을 제 주머니속에 넣어두고 내놓지 않을 참입니다. 종수가 저의 조부 윤장의령감한테 돈을 타서 쓰면 이 수형은 소용이 없으니까 대개는 잊어버리고 시골로 내려가기가 십상입니다. 또 혹시 생각이 나서 찾더라도 주머니를 부스럭부스럭 하다가 《아뿔사! 간밤에 변소에 가서 휴지가 없어서 고만…》 이렇게 둘러댑니다.
만일 윤장의령감한테 돈을 타지 못하고 불가불 수형을 리용해야 할 경우라도 역시 뒤지를 해 없앤줄로 둘러대고서 새로 수형을 쓰게 합니다.
그래 좌우간 그 수형은 제가 쥐고있다가 일할 오푼하리를 뗀 일천칠백원을 찾아서 집어삼킵니다.
삼켜도 아무 뒤탈이 없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따져서 하나도 죄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 문제가 그렇게 커지질 않습니다. 그 수형이 나중에 윤장의령감의 수중으로 들어가서 필경 종수가 닥달을 당하기는 당하는데 종수는 그것이 병호의 속임수인줄 담박 알아내기야 하겠지만 그의 사람된 품이 저만 알고서 제가 일을 뒤집어쓰지 결코 그속을 들쳐내도록 악독하진 못한 사람입니다.
뿐만아니라 그는 이붓자식 옷 해입힌셈만 되지 야, 고 버릇없는 소리나 해가면서 역시 전과 다름없이 병호를 심복의 병정으로 부릴것이요 그것은 사람이 뒤가 없는 소치도 있겠지만 일변 아쉽기도 한때문입니다.
더구나 일이 뒤집어지기 전에 병호가 미리서 《아 이 사람 종수, 다른게아니라 내가 목이 달아나게 급한 사정이 있어서 약시 이만저만 하고 이만저만 했네. 그러니 어쩌려나, 날 죽여주게.》 이렇게 빌기라도 한다면 종수는 그것을 순정인줄 알고 오히려 양복이라도 한벌 해입힐것입니다. (옛날의 주공도 사람이 종수처럼 어질었다구요?)
《자아, 어서 옷 입구 나서게!》

병호는 일천칠백원을 먹어둔 바람에 속이 달떠서는 연신 싱글벙글 종수를 재촉합니다.

《래일일은 래일일이구… 자아, 오늘 저녁엘라컨 우선 살뜰한 놈 녀학생오입을 간단히 한바탕 한 뒤에 어디 별장으로 나가서 밤새우두록, 응?》

《돈두 없으면서 무얼!》

《걱정말래두! 료리집은 내가 다아 할테니까 념려없구. 녀학생오입은 10원이면 썼다벗었다하네.》

《십원?》

《아무렴!… 잔돈 얼마나 있나?》

《한 삼십원 있지만!》

《됐어! 십원은 녀학생오입채루 쓰구 20원은 료리집 뽀—이 행하(수고비)루 쓰구 무어 넉넉허이.》

《그 녀학생이라는게 밀가루나 아니우?》

《천만에… 글쎄 목을 베여바친대두 그러나?》

《더구나 10원이면 된다니 유곽만두 못하잖우?》

《글쎄, 예서 우길께 아니라 좌우간 가보면 알걸 가지구!》

사맥이가 이렇게쯤 되여서 당대의 주공 종수가 이 동관의 뚜쟁이집에 온것입니다. 폐병 앓은 갈비대 여대치게 툭툭 불거진 연목(서까래)을 반자지도 아니요 거무태태한 신문지로 더덕더덕 치바른 얇디얇은 천장 한가운데 가서 13와트전등이 목을 잔뜩 매고 높이 달려있습니다.

도배는 몇해나 되였는지 하—얗던 양지가 노—랗게 퇴색이 된 바람벽인데 그나마 이리저리 쓸려서 제멋대로 울퉁불퉁 뜨이고있습니다. 거기다가 빈대피로 대잎을 쳐놓았어야 제격일텐데 그 자국이 없는것을 보면 사람이 붙막이로 거처를 않고 림시림시 그 소용에만 쓰는게 분명합니다.

웃목으로 몇해를 뜯개질맛을 못 보았는지 차악 눌린 이부자리가 달랑 한채 소용이 소용인지라 잇만은 깨끗해보입니다. 방안에서는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냄새가 금시로 몸이 끈적끈적하게싶게 가득 풍깁니다.

이지러진 사기재털이 하나가 방안의 유일한 가구요 그것을 사

이에 놓고 병호와 종수는 우아래목으로 갈라앉아 입맛없이 담배를 피웁니다.

《멀쩡한 뚜쟁이집이구먼, 무엇이 달라요? 까치배바닥같은 소릴…》

종수는 이윽고 방안을 한바퀴 아까 처음 들어설 때처럼 코등을 찌그리며 둘러보면서 목소리 소근소근 병호에게 구박을 주던것입니다.

《글쎄, 뚜쟁이집은 뚜쟁이집이라두 시방은 다르다니까 그래!》

《다를게 무어람!… 여보, 나두 열여덟살부터 다녀본 다아 도통한 사람이야.》

《그땐 말끔 은근자(밀매음녀를 속되게 이르는 말.)들뿐이지만 시방은 이 사람아, 오는 계집들이 모두 상당허네… 녀학생을 주문하면 꼭꼭 녀학생을 대령시키구, 과불 찾으면 과불 내놓구, 남의 집, 셜집 녀편네, 뻐스차장, 녀배우, 백화점계집에 머어 무어든지 처억척 잡어오지!》

《또 희떠운 소리를!… 아아니 그래, 과부면 과부라는걸 무얼루다가 증명허우? 민적등본을 짊어지구 오우? 녀학생은 재학증명설 넣구 오구 뻐스차장은 가방을 차구 오우?》

《허허허… 그거야 그렇잖지만… 아냐, 대개 맞긴 맞더니… 그렇게 넓게 한대서 요샌 뚜쟁이집이라구 않구 세계사업사라구 하잖나?》

《당찮은 소릴! 여보, 세계사업사란 래력이나 알구서 그러우?》

연년전에 관훈동에 있는 어떤 뚜쟁이의 구혈(소굴)을 경찰서에서 엄습한 일이 있었습니다. 련류자가 수십명 잡혔는데 차차 취조를 해들어가니까 그 조직이 맹랑할뿐아니라 이름은 세계사업사라고 지은데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별의미는 없고 아마 취체(단속)를 기이느라고 그런 엉뚱한 명칭을 붙였던것이였지요. 아무튼 그때부터 뚜쟁이집을 어디고 세계사업사라고 불렀고 시방은 한개의 공공연한 은어가 되여버렸습니다.

종수가 그러한 래력을 설명하는것을 듣고 앉았던 병호는 《허허, 날보담 선생이로군!》 하면서 웃고 일어섭니다.

《자아, 난 먼점 가서…》

《어디루?》

《××원 별장으루 먼점 나가서 이것저것 모두 분별을 해놓구 기대릴테니 자넬라컨 처억 재미볼대루 보구…》

《그럴것 무엇 있소? 이왕이니 하나 더 불러오래서 둘이서 같이, 응? 하하하하!》

《허허허허… 늙은 사람 놀리지 말구… 그리구 참, 돈은 음식값, 무엇 할것없이 십원 한장만 로파 손에다가 쥐여주구 나오게!》

《그러구저러구간에 진짜 녀학생이 아니면 당신 죽을줄 알아요! 예…》

《념려말래두!》

병호는 마루로 나가더니 안방의 로파를 불러내여 무어라고 두어마디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종수가 시계를 꺼내여 마침 9시 20분이 된것을 보고있노라니까 새문을 배긋이 열고 로파가 담배대 문 곰보딱지얼굴을 들이밉니다.

《한분이 먼점 가셔서 심심하시겠군.》

로파는 병호가 앉았던 자리로 가서 팔짱을 끼고 도사려앉습니다.

《아이! 그 새서방님 얼굴두 좋게두 생겼다. 오래잖아 색시가 올테지만 보구서 색시가 더 반하겠수, 호호호…》

언변이 벌써 뚜쟁이로 되여먹었고 게다가 결목을 질러 웃는 소리가 징그러울만큼 능청스럽습니다.

《시방 온다는게 정말 녀학생입니까?》

종수는 양을 보느라고 말을 시켜놓습니다.

《온ㅡ 정말이 아니구요. 아주 버젓한 고등학을 다니는 색시랍니다. 뭐 복색만 녀학생으로 차려서 디리밀줄 알구들 그러시지만 아, 시방이 어느 세상이라구 그렇게 속힐래서야 되나요. 정말 녀학생이구말구요, 온!》

《버젓한 녀학생이 어째 하라는 공부는 안하구서…》

《오온! 녀학생은 멋 모르나요? 다아 응, 멋이 들어서 다아 심심소일루 다니는 색시도 있구 또오 더러는 돈맛을 알구서 다니기두 하구… 그렇지만 시방 오는 색신 노상이 돈만 바라거나 또 심심소일루 다니는이가 아니랍니다! 그건 참 잘 알아두시구 너무 함부루 다루실라컨 마시우, 괜히…》

《그럼 무엇하러 다니는데요?》

《신랑! 신랑을 고르느라구 그래요. 꼬옥 맘에 드는 신랑을－》
《네에! 그래요오! 으응, 신랑을 고른다!》
《참, 인물인들 오죽 잘났나요 뭐. 똑 떨어졌소.》
《네에, 그렇게 잘났어요?》
《말두 마시우! 괜히 담방 반해가지굴랑 래일이라두 신식결혼하자구 치마끈에 매달리리다, 호호호…》
《피차에 맘에 들면야 그래두 좋소. 마침 장가두 좀 가구싶구 하던 참이니깐…》
《그렇게 뒤심을 보실테거들랑 돈을 애끼지 말구서 우선 오늘 저녁 버틈이라두 척 돈을 좀 몇십원 듬쑥 쓰세야죠! 그래야 다아 색시두!－》
《지금 오는인 돈을 바라구 오는게 아니라면서요?》
《온, 시방이야 돈을 안 바래지만서두 신랑량반이 다아 돈이 많구 호협하신 그런줄을 알아야 다아 맘이 당기죠!》
《옳아! 그두 그렇겠군요… 나인 몇이라나요?》
《온, 어찌나! 아, 말탄 서방이 그리 급하랴구 시방 곧 올텐데. 호호, 미리서 반하셨군요! 호호호… 올해 갓 스물이랍니다. 나이두 꼬옥 좋죠.》
마침 대문소리가 삐끄덕 나더니 자박자박 《기세요?》 하고 삼가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왔군!》
어느결에 일어서서 새문으로 나가려던 로파가 종수를 돌아보고 눈을 찌긋찌긋합니다.
종수는 저도 모르게 약간 긴장이 되여 바깥의 동정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아까부터 로파가 하는 수작이 속이 빠안히 들여다보여 역시 녀학생이란 공연한 소리요 탈을 쓴 밀가루가 십상이리니 하는 속치부는 하고있으면서도 급기야 긴장이 되는것은 화류계계집은 많이 다루었어도 명색이 녀학생은 접해보지 못한 그인지라 얼마간 체면에 걸리지 않질 못한탓이겠습니다.
로파는 밖으로 나가서 한참 소곤소곤하다가 이윽고 새문이 열립니다.
《자아, 내가 정말루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버젓한 녀학생을 모셔왔으니, 자아…》

로파가 가려서서 한바탕 장담을 치고 나섭니다.

《자아, 어서 들어와요! 온, 부끄럽긴 무에 그리 부끄럽담! 다아 신식물 자신 량반들이, 자아…》

십여년 화류계에서 놀며 치러난 종수도 어쩐지 압기가 되는듯 이 장면에서만은 담박 얼굴을 들고 쳐다볼 담이 나질 않고 마침 문턱안으로 한발 들여놓는 비단양말을 신은 다리로부터 천천히 씻어올라갑니다.

놀면한(보기 좋을만큼 약간 노르다.) 비단양말속으로 통통하니 살찐 두다리, 그 중간께를 피치렁거리는 엷은 보이루의 검정통치마, 연하게 물결치는 치마주름을 사풋 누른 손길, 곱게 끊긴 흰저고리의 앞섶끝, 불룩한 젖가슴에 매여진 단정한 고름, 이렇게 보아올라가는 종수는 어느덧 저를 잊어버리고 과연 시방 순결을 의미하는 녀학생을 만났는니라싶은 일종의 엄숙한 기분에 잠겨갑니다.

필경 종수의 시선이 녀자의 둥그스름한 턱으로부터 얼굴전체로 퍼지려고 하는데 마침 저편에서도 외면했던 고개를 이편으로 돌려서 얼굴과 얼굴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 순간입니다.

《어엇!》

《아이머닛!》

소리는 실상 지르지도 못하고 남녀는 동시에 숨이 막히게 놀랍니다. 종수는 앉은자리에서 뒤로 벌떡 넘어질번 하다가 겨우 몸을 가누어 고개를 푹 숙이고 계집은 홱 몸을 날려 마루를 쿵쿵, 구두는 신었는지어쨌는지 대문을 왈카닥 빼그덕, 그다음에는 이내 조용하고 맙니다.

계집이 달아나자 종수는 정신을 차려 쫓기듯 세계사업사를 도망해 나왔습니다.

이 계집은 바로 창식이 윤주사의 (그러니까 즉 종수의 부친의) 둘째첩 옥화였습니다.

종수는 사람이 밤에 불을 가진것이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럽다는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자동차를 타고 동소문밖 ××원 별장으로 나왔습니다.

병호는 아직 기생도 나오기 전이라 혼자 달랑하니 앉았다가 종수가 뜻밖에 일찍 온것을 의아해 자꾸만 캐고묻습니다.

종수는 부르댈데 없는 심정이 나는 깐으로는 아무튼 녀학생은 아니였으니 목을 매여내라고 병호에게 잡도리를 해주고싶었으나 그것도 객적은짓이라서 거저 온다는 그 녀학생이 갑자기 병이 나서 못온다는 기별이 왔기에 또 마침 내키지도 않던 참이라 차라리 다행스러워 얼핏 일어섰노라고 역시 종수 그 사람답게 쓸어덮고말았습니다.

13. 도끼자루는 썩어도…

(즉 당세 신선놀음의 일구)

동대문밖 창식이 윤주사의 큰첩네 집 사랑, 여기도 역시 같은 그날밤, 같은 시각 아홉시가량 해섭니다.

큰 대문, 안대문, 사랑, 중문을 모조리 닫아걸고는 감때사납게 생긴 권투할줄 안다는 행랑아범의 조카놈이 버티고앉아 드나드는 사람을 일일이 단속합니다.

큼직하게 내기 마작판이 벌어졌던것입니다. 벌어진게 아니라 어제밤부터 시작한것을 시방까지 계속하고있습니다. 십전내기로 오백원 장이니 큰 노름판이요 대문을 단속하는것도 괴이찮습니다.

그러나 암만해도 괄시할수 없는 개평군은 역시 괄시를 못하는 법이라 한 6～7명이나 그중 서넛은 판뒤에서 넘겨다보고있고 서넛은 밤새도록 온종일 지키노라 지쳤는지 머리방인 서자의 방에 가서 곯아떨어졌습니다.

삼칸마루에는 빙— 둘린 선반우에 낡은 한서가 길길이 쌓였습니다. 한편구석으로 고려자기를 넣어둔 유리창에다가는 가야금을 기대세운게 더욱 운치가 있습니다. 추사(리조후기의 명필인 김정희)의 글씨를 검정판자에다가 각해서 흰 뻥끼로 핵을 댄 주련(기둥이나 바람벽등에 장식으로 그림이나 글씨를 써넣어 걸치는 물건)이 군데군데 걸리고 기둥에는 전동(화살을 넣는 통)과 활…

다시 그 한편구석으로 지저분한 청료리접시와 정종(일본식으로 빚어만든 청주)도꾸리(옛날 병이름의 한가지)가 휩쓸려놓인것은 이집 차인군이 좀 게으른 풍경이겠습니다.

방은 양지우에 백지를 덮어발라 분을 먹인 그야말로 분벽, 벽에는 미산의 사군자(회화에서 고결함이 군자와 같다는 뜻으로 매화, 국화, 란초, 대나무를 일컫는 말)와 ××의 주련이 알맞게 벌려 붙어있고 눈에 뜨이는것은 연상머리로 걸려있는 소치의 모란족자 그리고 연상우에는 한서가 서너권.

소치의 모란을 걸어놓고 볼만 하니 이 방 주인의 교양이 그다지 상스럽지 않을것 같으면서 방금 노름에 골똘을 해있으니 고약하다 하겠으나 이짓도 하고 저짓도 하고 맘내키는대로 무엇이든지 하는게 이 사람 창식이 윤주사의 취미입니다. 심심한 세상살이의 취미…

마작판에는 주인 윤주사와 그의 손우에 가서 부자요, 마작 잘하기로 이름난 박뚱뚱이 그리고 손아래에는 노름군 째보, 이렇게 세 마작입니다.

모두들 얼굴에 개기름이 번질번질하고 눈곱낀 눈이 벌겋게 충혈이 되였습니다.

윤주사는 남풍 말에 시방 장가인데 춘자 쓰기획을 떠놓고 통스 청일색입니다.

팔통이 마작두 (대가리)요 일이삼 륙칠팔 해서 두패가 맞고 사오와 칠팔도 엔스에 구만이 단짝입니다. 허니 통스는 웬만한것이면 무얼 뜨든지 방이요 만일 륙통을 뜨면 삼륙구통석자 방인데 게다가 구통으로 올라가면 일기통관까지 해서 만지 만관입니다.

윤주사는 불가불 만관을 해야 할 형편인것이 오십을 다아 잃고 백짜리가 한개비 달랑 남았는데 요행 이 패로 올라가면 사헌이 들어와서 거진 본을 추겠지만 만약 딴집에서 예순일백스물로만 올라가도 바가지를 쓸 판입니다.

허기야 윤주사는 그새 많이 져서 삼천원 넘겨 살고하니 한바가지 더 쓴댔자 오백원이요 그게 아까운게 아니라 청일색으로 만관 그놈을 놓치기가 싫어 이 패를 기어코 올리고싶은것입니다.

패는 모두 익었나본데 손우에서 박뚱뚱이가 씨근씨근 쯔모(패를 듬)를 하더니 《헤헤, 뱀작이루구나! 창식이 자네 요거 먹으면 방이지?》 하면서 쯔모한 륙통을 보여주고 놀립니다.

내려오기만 하면 단박 사오륙으로 치를 하고서 륙구통 방인데 귀신이 다아된 박뚱뚱이는 그놈 륙통을 갖다가 꽂고 오팔만으로 방이 선

패를 헐어 칠만을 던집니다.
《안주면 쯔모하지…》
윤주사가 쯔모를 해다가 훑으니까 팔만입니다. 이놈 어쩔가 하고 만지작만지작하는데 뒤에서 넘겨다보고있던 개평군이 꾹꾹 찌릅니다. 그것은 륙칠팔통을 헐어 사오륙으로 맞추고 칠통 두장으로 작두를 세우고 팔통 넉장을 암깡으로 몰고 팔구만에 칠만번짱 방을 달고서 팔통암깡을 개깡하라는 뜻인줄 윤주사도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가령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청일색도 아니요 핑흐도 아니요, 겨우 멘젠 한판, 쯔모획 한판 도합 세판이니 물론 백짜리 한개비밖에 안 남은터에 급한 화만은 면하겠지만 윤주사의 성미로 볼 때엔 그것은 치사한짓이요 마작의 도도 취미도 아니던것입니다.
윤주사가 팔만을 아낌없이 내치니까 손우에 박뚱뚱이가 펄쩍 뜁니다. 륙칠만을 헐지 안했으면 그 팔만으로 올라갔을테니까요.
《내가 먹지!》
손아래서 노름군 째보가 륙칠팔팔로 팔만을 치－하는걸 등뒤에서 감독을 하는 그의 전주가 《아무렴 먹고 어서 올라가야지.》하고 맞장구를 칩니다. 째보는 윤주사가 만관을 걷는줄 알기때문에 부리나케 예순일백 스물로 가고있던것입니다.
박뚱뚱이가 넉장째 나오는 록팔을 쯔모해 던지면서 말합니다.
《옛네, 창식이…》
《그걸 아까와서 어떻게 내나?》
윤주사는 그러면서 쯔모를 해다가 쓰윽 핥는데 이번에야말로! 하고 벼른 보람이던지 과연 동그라미 세개가 비스듬히 나간 삼통입니다.
삼사오통이 맞고 인제는 륙구통 방입니다.
윤주사는 느긋해서 구만을 마악 내치려고 하는데 마침 머리방에 있던 서사 민서방이 긴장한 얼굴로 전보 한장을 집어들고 건너옵니다. 마작판에서들은 몰랐지만 조금 아까 대문지기가 들어온것을 민서방이 받아 펴보고서 당황히 한문자섞어 번역을 해가지고 왔던것입니다.
《전보 왔습니다.》
《…》

윤주사는 시방 아무 정신도 없이 알아듣지 못하고 구만을 따패합니다.
노름군 째보가 날쌔게 《평!》
서사 민서방이 연거퍼《전보 왔서유!》
그러나 창식은 그저 겨우… 《응, 전보?… 구만 평허구 무슨 자야? 어디, 어디?》
《동경서 전보 왔어요.》
《동경서? 으응!》
윤주사는 손만 내밀어서 전보를 받아 아무렇게나 조끼호주머니에 넣고 박뚱뚱이에게 더디다는듯이 쯔모를 하려고 합니다.
《전보 보세요!》
《응, 보지. 번역했나?》
《네에.》
윤주사는 쯔모를 해다가 먹느라고 전보를 또 잊어버립니다. 구만인데 어려운 짝입니다. 손우의 박뚱뚱이는 패를 헐었지만 손아래 째보는 분명 일사만인듯 합니다.
《전보 긴한 전본데요.》
민서방이 초조해 재촉을 하는것이나 창식은 여전히…
《응?… 응… 이게 못 내는 짝이야?… 전보 무어라고 왔지?》
《펴보세요, 저어!》
《응, 보지… 이걸 내며는 아래집이 오르는데… 왜 종학이가 앓는다구?》
《안예요.》
《그럼?… 가마안 있자, 요놈의 짝을 어떻거나? 나 전보를 좀 보구서! 이게 뱀짝이야, 뱀짝…》
전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쯔모행은 사만을 따패하면 손아래집이 올라가고 올라가면 이 좋은 만관이 허사요 그러니까 사만을 낼수가 없고 그래 전보라도 보는 동안에 좀더 생각을 하자는것입니다.
윤주사는 종시 정신을 마작판 바닥에다가 두고 손만 꿈지락꿈지락 조끼 호주머니에서 전보를 꺼냅니다.
《이놈 사만이 분명 일을 낼테란 말이야, 으응!》
《이 사람아, 마작판에 몬지 앉겠네.》

《가만 있자… 내 이 전보를 좀 보구우.》
윤주사는 왼손에 든 전보를 손가락으로 만지작만지작 접은것을 펴가지고는 또 한참이나 딴전을 하다가 겨우 눈을 돌립니다. 번역해놓은 열석자를 읽기에 그다지 시간과 수고가 들건 없었습니다.
《빌어먹은 놈…》
잔뜩 이마살을 찌프리면서 전보를 아무렇게나 도로 우그려넣고는 《…에라, 모른다!…》 하고 여태 어려워하던 사만만을 집어 따악 소리가 나게 내쳐버립니다.
《옳아! 바루 고자야!》
아니나다를가 손아래 째보가 일사만 방이던것입니다.
끌수라야 일흔 일백 서른!
《빌어먹을 놈!》
윤주사는 아들 종학이더러 전보조건으로 또 한번 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치는 옳게 그 전보내용에다가 욕을 한것이지만 이번치는 만관을 놓친 화풀이로다가 절로 나진 욕입니다.
《큰댁에 기별을 해야지요?》
드디여 바가지를 긁고 그래서 오백원 하나가 또 날아갔고 다시 새판을 시작하느라 마작을 쌓고있는 윤주사더러 민서방이 걱정삼아 묻는 소립니다.
《큰댁에? 글쎄…》
윤주사는 주사위를 쳐놓고 들여다보느라고 건숭입니다.
《제가 갈가요?》
《자네가? 몇이야? 넷이면 내가 장이군… 자네가 가본다?》
《네에.》
《칠 찾고… 그래두 괜찮지… 아홉이라 칠구 열여섯…》
윤주사는 패를 뚜욱뚜욱 띄여다가 골라세웁니다.
《그럼 다녀올가요?》
《글쎄… 이건 처음부터 패가 엉망이로구나… 인제는 일곱바가지나 쓴 본전 생각이 간절한걸. 가긴 내가 가보아야겠네마는… 자네가 가더래두 내가 뒤미처 불려가구말테니까… 록발 나가거라. … 그놈이 어쩐지 눈치가 다르다 했더니! 빌어먹을 놈!…》
《차 부르까요?》

《응?》
《마작 시작해놓구 어딜 가?》
박뚱뚱이가 핀잔을 줍니다.
《참, 그렇군… 그럼 어떻건다? 남풍 나갑니다…》
《네에, 여기 도풍 나가니 평하십시오.》
《없습니다.》
윤주사는 또다시 마작에 정신이 푹 파묻히고맙니다.
민서방은 질증이 나서 제 방으로 가버립니다.

×

이렇게 해서 윤장의령감한테나 그 며느리 고씨한테나 서울아씨며 태식이한테나 창식이, 윤주사며 옥화한테나 누구한테나 제각기 크고 작은 생활을 준 이 정축년 구월 열날인 오늘 하루는 마침내 깊은 밤으로 물러갑니다.
오라지 않아 새로운 날이 밝고 밝은 그 새날은 그네들에게 다시 어떠한 생활을 주려는지 더우기 윤주사가 조끼 호주머니속에 우그려넣고만 동경서 온 전보가 매우 궁금합니다. 허나 밝은 날이면 그것도 자연 속을 알게 되겠지요.

14. 해저무는 만리장성

만일 오늘이 우리한테 새것을 갖다가주지 않고 어제와 꼬옥 같은것만 되풀이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숨이 막힐것이고 모두 불행할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와 같으면서(어제이면서도 더 자라난) 한 다른 오늘을 우리한테 가져다주고 그리하기때문에 그러하는 동안 인간은 늙어 백발로, 백발은 마침내 무덤으로… 이렇게 하염없이도 인류는 하루하루 더 재미있게 간답니다. 그렇듯 반가운 새날이 시방 시작되느라고 동녘이 휘연히 밝아옵니다.
날이 밝으면서 뚜우—여섯점 고동이 웁니다.
이 여섯점 고동에 맞추어 우리 늙은 윤장의령감도 새날을 맞느라고

기침을 했습니다.

대단히 부지런하고, 이 첫새벽(여섯점)에 일어나는 부지런은 춘하추동 구별이 없이 오십년이짝 지켜오는 절대의 습관입니다.

윤장의령감은 잠이 깨자 맨먼저 머리맡의 놋요강을 집어들고 밤사이 피에서 걸러놓은 독소를 뽑습니다. 신진대사라니 새날이 새것을 들여다가 새생명을 펼치기 위하여 묵은것을 버리는것입니다. 묵은것의 배설—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절절절절 쏟아져나오는 액체를 윤장의령감은 연방 손바닥으로 받아올려다가는 눈을 씻고 받아올려다가 눈을 씻고 합니다.

매일 아침 소변으로 눈을 씻으면 시력이 쇠하지 않는다는것은 전부터 일러오던 말인지 윤장의령감은 시방 그 보안법을 행하고있던것입니다.

30년을 두고 해내려오는것인데 만일 꼬노리야라도 앓았다면 장님이 되였기십상이겠지만 요행 그렇든 않았고 소변보안법의 덕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미상불 시력이 아직도 좋아서 현재 잔 글씨만 아니면 그래도 처억척 보는건 사실입니다.

누구 의학박사의 학위론문자료에 궁한이가 있거든 이걸 연구해서 《뇨에 의한 시신경의 로쇠방지 및 그 원리에 관하여》라는것을 한번 완성시킨다면 박사 하나는 받아논 밥상일겝니다.

윤장의령감은 이윽고 눈약장수를 울릴 그 보안법을 행하고나서는 자리옷을 여느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담배대에 담배를 붙여뭅니다.

푸우푹 피여오르는 담배연기가 아직도 한밤중인듯 전등불이 환히 켜져있는 방안으로 자욱히 찹니다. 말도 없고 소리도 없고 인간이란 단 하나뿐 사람이 심심하기보다도 전등과 방안의 정물들이 도리여 무료할 지경입니다.

담배가 반대나 탔음직해서는 삼남이가 부룩송아지같은 대가리를 모로 돌려 사팔눈의 시점을 맞추면서 방으로 들어섭니다. 손에는 빨병을 조심조심 들고…

아침마다 하는 일과라 삼남이는 들고들어온 빨병을 말없이 내바치고 윤장의령감 또한 말없이 그걸 받아놓더니 물었던 담배대를 뽑고 연상서랍에서 소라껍질로 만든 잔을 꺼냅니다.

졸졸졸졸 놀맘하게 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게 어찌면 마침 데운 정

종 비슷한 놈을 잔에다가 그득 따릅니다.
(1페지 생략)
삼남이는 물에 닦아다 두려고 빨병과 소라잔을 집어듭니다.
《약 대리냐?》
《애!》
《약 잘 보아서 대려! 어제 아침치는 약이 너무 좋았더라!》
《애!》
삼남이가 나간 뒤에 윤장의령감은 이번에는 보건체조를 시작합니다.
두다리를 쭈욱 뻗고 두팔을 꼿꼿이 뻗쳐올리는게 준비동작, 그다음에 발부리를 목표로 그놈을 붙잡으려는듯이 허리이상의 상체와 뻗어올린 두팔을 앞으로 와락 숙입니다. 그러나 이내 도로 폅니다. 그리고는 또 숙였다가 도로 펴고…
이렇게 계속해 숙였다가는 펴고 폈다가는 숙이고 몸이 비대한데 배가 또한 커서 좀 힘이 드는노릇이긴 허나 하나, 둘, 셋, 연해 세여가면서 쉰번을 채웁니다. 쉰번을 채우니까 아니나다를가 맨처음에는 어림도 없던것이 뻗은 발부리와 숙이는 손끝이 마침내 맞닿고래야 맙니다.
간단한 ×××강장술(뼈대가 강하고 혈기가 왕성하게 하는 수법) 비슷하다고 할는지. 하나 그럴바이면 라지오체조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그거야 젊은애들이나 할것이지 로인이 어디 점잖지 않게스리…
후줄근하게 땀이 배고 약간 숨이 가쁜것을 앞미닫이를 열어놓고 앉아서 시늑시늑한 아침바람을 쏘입니다.
날은 훨씬 밝았고 바람끝이 소스라치게 싸늘합니다.
《허, 날이 이렇게!》
혼자 걱정을 하는데 마침 대복이가 아침문안삼아 오늘 하루의 일을 협의할겸.
《건너왔습니다.》
《이날이 이렇게 랭하여서 큰일 안났는가?》
《글쎄올시다…》
대복이는 문안인사도 할 사이없이 공손히 꿇어앉습니다.

《이러다가 되내기(된서리)나 오는 날이면 큰일나겠는데요?》
《나두 허느니 말이네!… 하느님두 원, 무슨 심정이란 말이야? 서리두 서리지만 우선 늦베가 영글어볼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어두 그놈의 수핸지 급살인지때문에 도지를 감하여달라구 생지랄을 하는데!》
가을로 접어들면서 윤장의령감과 대복이가 노상 걱정을 하게 된것이 금년 추숩니다. 농형(농사형편)이 대체로 풍년은 풍년이지만 전라도에 수해가 약간 있었고 윤장의령감네 논도 얼마간 해를 입었습니다. 어느것은 겨우 반타작이나 되겠고 어느것은 사태와 물에 말끔하니 씻겨내려가서 벼 한톨 추수는커녕 그 논을 다시 일구는데 되려 물역이 먹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지난 백중(음력 7월보름날)무렵에 대복이가 실지로 내려가서 보고 온것이니까 노상히 소작인들의 엄살로만 돌릴수 없는것입니다.
허기야 그렇다고 해도 윤장의령감은 내밀 배짱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우리 논으로 말하면 죄다 도조를 선세(미리 계약함.)로 정했으니까 상관이 없다. 소작계약에도 씌여있지만 흉년이 들어서 추수가 더얼 났다거나 또 아주 없다거나 하더라도 선세인만큼 소작인은 정한대로 도조를 물어야 경우가 옳지 않느냐.
만약 흉년이라고 도조를 감해주기로 든다면 그러면 그 반대로 풍년이 들어서 벼가 월등 많이 나는 해는 도조를 처음 정한 석수보다 더 받아도 된단 말이냐? 물론 싫다고 할것이다. 거 봐라, 그러니까 흉년 핑게를 대고서 도조를 감해달라고 하는것은 공연한 떼다.)
매우 지당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경위는 빠질게 없는데 윤장의령감의 말대로 하면 세상이 다아 개명을 해서 좋기는 좋아도 그놈 개명이 지나치니까는 되려 나쁘다. 무언고 하니 소위 농지령이야, 소작조정령이야 하는 천하에 긴찮은 법이 마련되여가지고서 소작인놈들이 건방지게 굴게 하지. 그래 흉년이 들든지 하면 도조를 감해달라 어쩌라 하기, 도조를 올리지 못하게 하기, 소작을 떼여 옮기지 못하게 하기… 이래서 모두가 성가시고 눈꼴 시려 볼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땅 가지고 내 맘대로 도조도 받고 내 맘대로 소작을 옮기고 하는데 어째서 도며 군이며 경찰이 간섭을 하느냐?)

이게 도무지 속을 알수 없고 해서 불평도 불평이려니와 윤장의령감한테는 커다란 수수께끼가 아닐수 없던것입니다.

아무튼 싹수가 줄잡아야 천석은 두웅둥 뜨게 되였고 (물론 배짱대로야 버티여는 보겠지만 도나 군이나 경찰의 권유며 간섭에는 항거를 해서는 못쓰니까 말입니다.) 그러자니 생으로 배가 아파 요새 며칠 대복이와 주종이 맞대고앉으면 걱정이 그 걱정이요 공론이 어떻게 하면 묘한 꾀를 써서 소작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여 옹근 도조를 받을가 하는 그 공론입니다.

그런데 우환중에 날이 이렇게 조랭(일찍 랭을 받음)을 해서 벼의 결실을 부실하게까지 하려드니 더욱 걱정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대복이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참에 삼남이가 약을 다려 짜가지고 들여다놓습니다. 삼과 용을 주제로 한 보약입니다.

오줌료법도 하고 보건체조도 하고 좋은 보약도 먹고 해서 어떻게서든지 몸을 충실히 하여 오래오래 살고싶은게 윤장의령감의 크고큰 소원입니다. 만석의 부를 그대로 누리면서 (아―니, 자꾸자꾸 더 늘여가면서) 오래오래 백살, 이백살, 백살, 이백살이라니 천살, 만살 아―니, 천지가 무궁할테니 그 천지로 더불어 무궁토록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 가산을 남겨두고 이 좋은 세상을 백살을 못살구서 죽어 버리다니 그건 도저히 원통하고 섭섭해 못할노릇입니다.

옛날의 진시황은 영생불사를 하고싶어 동남동녀 오천명을 동해의 선경으로 보내여 불사약을 구하려고 했다지만 우리 윤장의령감도 진실로 그만 못지 않게 영생의 수명을 누리고싶습니다.

허기야 걸핏하면 뭐 내가 앞으로 오십년을 더 살겠느냐 백년을 더 살겠느냐, 다직 한 10년 더 살다가 죽을걸… 어쩌구 육장 이런 소리를 하곤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천지의 공도 (공평하고 바른 도리)요 하니까 사실도 사실이겠지만 윤장의령감은 비록 말은 그렇게 할값에 마음은 결단코 앞으로 한 십년 고거나 더 살고서 죽고싶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영생불사… 진시황과 같이 간절하게 영생불사를 하고싶습니다.

윤장의령감이 재산을 고이고이 지키면서 더욱더욱 늘이고 일변 량반을 만들어내자고 군수와 경찰서장을 양성하고 하는것은 진시황

으로 치면 오랑캐를 막아 진나라를 보전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던 력사적이요 세계적인 그 토목사업과 다름없는 력사적인 정신적토목사업입니다.

만리의 장성을 높이 쌓아 나라를 천지로 더불어 길이길이 지키고 나는 불사약을 먹어 이 나라의 주재자로 이 영광을 무궁토록 누리고… 하자던 진시황과 만석군의 가산을 더욱 늘여가면서 천지로 더불어 길이길이 지키고 량반을 만들어 가문을 빛내되 나는 보건체조를 하고 보약을 먹고 하여 이 집안에 가장으로 이 영광을 무궁토록 누리고 하자는 윤장의령감과 그들은 조금도 서로 다를바 없는것입니다.

그럭저럭 여덟시가 되자 윤장의령감은 안으로 들어가서 조반을 먹고 나와 다시 그럭저럭 아홉시가 되였습니다.

하늘은 씻은듯이 맑고 해빛은 양기롭습니다. 정히 좋은 날이요, 윤장의령감한테는 그새와 마찬가지나 새로이 행복스런 오늘입니다. 오후쯤 해서는 올챙이와 말이 얽힌 수형조건으로 오천구백오십원의 리익을 볼테니 그중 일백오원은 구문으로 올챙이를 주더라도 팔백사십오원이고 본즉 오늘도 벌이가 쏠쏠하여 기쁘고.

그런데 오늘은 또 춘심이와 다아 이러쿵저러쿵 하게 될 날이여서 이를테면 특집 호화판입니다.

행복과 만족까지는 모르겠어도 윤장의령감 이외의 다른 식구들도 죄다 평온무사한것은 적실합니다.

태식이는 골목 구멍가게에 나가서 맘껏 물건을 고르고 사먹고 하니 무사태평을 지나 오히려 행복이고…

경손이는 간밤에 춘심이와 더불어 밀회를 하면서 2원돈을 유흥하던 추억에 싸여 시방 학과에도 여념이 없는중이고…

서울아씨는 《추월색》을 일찌감치 들고 누웠으니 오만시름 다아 잊었고…

뒤채의 두 동서는 바느질에 여념이 없는중, 박씨는 남편 종수가 오늘은 집에를 들어오겠지 하고 안심코 기다리고…

동소문밖 ××원 별장에서는 종수가 배반이 랑자한 료리상앞에 기생들과 병호로 더불어 역시 태평몽이고…

옥화는 간밤의 일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뭘, 집 한채와 패물과 또 현금으로 이삼천원 몽뚱거렸으니 발설이 되여 윤주사와 떨어져도 그

다지 섭섭할건 없다고 안심이고…

윤주사는 도합 4천5백원을 마작으로 폈으나 5천원도 못되는것 술사먹은 폭만 대면 고만이라고 새벽녘에야 든 잠이 시방 한밤중이요, 자고있으니까 동경서 온 그 전보의 사단도 걱정을 잊었고…

다아 이렇습니다. 그렇고 다시 윤장의령감은…

윤장의령감은 오정때에 오라고 한 춘심이를 어째 다뿍 늘어지게 오정때에 오라고 했던고 또 제 아범이 앓는다고 불러갔으니 혹시 못 오기나 하며는 어찌하노 해서 바야흐로 등이 달은 참인데 웬걸 아홉시 치는 소리가 때엥땡 나자 고년이 씨이근버어근 해뜩빤특 달려들지를 않는다구요.

어떻게도 반가운지! 윤장의령감은 앞 미닫이를 더럭 열면서 뛰여나오기라도 하듯이 엉뎅이를 떠들썩 커다란 얼굴에다가 하나 가득 웃음을 흘뜨립니다.

《어서 오너라… 아범은 앓는다더니 인제 갱기찮이냐?》

《내에, 인젠 다아 나았어요. …》

춘심이는 (속으로 용용 하면서) 토방에 가선채 방으로 들어가려고도 않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지 사러 가게요. …》

《헤헤헤, 그년이 잊어버리지두 않었네. 그리라 가자, 제연장마질…》

《내가 그걸 잊어버려요? 밤새두룩 잠두 안 잔걸… 아, 오정때 오라구 하신걸 아홉점에 왔다면 그만이지 머어… 어서 옷 입으세요…》

《오냐. 끙…》

윤장의령감은 뒤뚱거리고 일어서서 의관을 차립니다.

《반지 파넌 가게서 녀학생이 반지 산다구 숭보면 어쩔래?》

《남이 숭보는게 무슨 상관있나요? 나만 좋았으면 고만이지…》

《으응 그리여, 잉! 그렇다면 갱기찮지.》

《괜찮기만해요? 뭐…》

《오—냐, 오냐.》

괜—히 속이 굴져서 말을 하고싶으니까 입을 놀리겠다요.

어제 오후 부민관의 명창대회에 가던 때처럼 탕건 받쳐 통영갓에 윤

이 지르르 흐르는 안팎 모시진솔깃에 하얀 큰 버선에다가 윤두가 새까마니 갠드라진 가죽신에 은으로 개대가리를 한 개화장에 합죽선에 이렇게 차리고 처억 나섭니다.

훨씬 큰 륜선(배)옆에 거루배(돛없는 작은 배) 하나가 붙어서가는 격이라고나 할는지 아무튼 이 애인네 한쌍은 이윽고 진고개어구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마다 모두들 윤장의령감을 한번씩 짯짯이 보면서 지나갑니다. 더구나 때묻은 무명고이적삼에 지게를 짊어지고 붉은 다리를 추어올린 《요보》(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가 아니면 뒤짐지고 흰 두루마기에 어둔 얼굴에 힘없이 벌린 입에 어릿거리는 눈으로 가게를 기웃기웃 가만히 들어와서는 물건마다 한참씩 뒤적뒤적하다가 슬며시 나가버리는 사람만이 조선사람인줄 알기를 십상으로 하던 본정동 주민들은 시방 이 윤장의령감의 진고개 좁은 골목이 뿌두웃하게시리 우람스런 몸집이며 위의있고 점잖은 얼굴이며 신선같은 차림새하며가 풍기는 량반상의 위풍에 그만 압기라도 되는듯 제각기 눈을 흡뜨고서 하— 입을 벌립니다. 좀 심한 천작인것 같으나 윤장의령감으로 해서 조선사람에도 《요보》아니면 《조선인》말고 《조—센노 량반상》이 있다는것을 그야말로 재인식했다고 할수가 있겠고 따라서 윤장의령감 자신은 그 필요는커녕 도리여 긴찮은 일로 여기는것이지만(그렇기때문에 애꿎은) 조선사람을 위해 무언의 만장기염을 토한 셈이 되여버렸습니다.

앞을 서서 가던 춘심이가 초입을 조금 지나 어떤 귀금속상점앞에 머무르더니 진렬장속을 파고 들여다봅니다. 제가 눈여겨두었던 그놈 칠원오십전짜리 반지를 찾는 속인데 그러나 아무리 들여다보아야 보이질 않습니다.

락심이 되여 어쩔고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윤장의령감을 데리고 그대로 가게안으로 들어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경도 할겸 점원들이 있는대로 대여섯 일제히 합창을 하고 나섭니다.

춘심이는 점원 하나를 상대로 문제의 칠원오십전짜리 반지를 찾습니다.

《네에, 그것요!》
듣고있던 점원은 알겠다고 대응을 합니다.
《그건 마침 다아 팔렸습니다마는 그거 비슷하구두…》
점원은 부지런히 진렬장을 안에서 열고 빨갱이, 파랭이, 노랭이, 깜쟁이, 모두 올망졸망 알숭달숭 반지가 들어박힌 곽을 꺼내다놓더니 그중 빨갱이 한놈을 뽑아 춘심이를 줍니다.
《이것이 썩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던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생김도 이쁘고 돌두 빛갈이 곱고… 네헤…》
춘심이가 받아들고 보니 아닌게아니라 요전치보다 더 이쁘고 좋아보입니다. 다시 왼손무명지에다가 끼여보니까요 아주 마침으로 꼬옥 맞습니다.
《이거 사주세요.》
춘심이는 정가표가 실끝에서 날른거리는 반지를 손에 낀채 윤장의령감의 코밑에다가 들여댑니다.
《그게 칠원오십전이라냐? 내—참, 손복(복이 떨어짐)허겠다.》
윤장의령감은 두루마기자락을 제끼고 염낭끈을 풀려다가 점원을 돌아봅니다.
《…이게 칠원오십전이면 너머 과하니 좋게 깎읍시다?》
《아—니올시다. 이건 십원이랍니다, 네헤.》
《엉? 이게 십원이여? 아—니, 너 머시냐. 칠원오십전짜리 산다더니 십원짜리를 골르느냐?》
《그래두 그건 죄다 팔리구 없다는걸요 뭐.》
《그럼 못 사겠다. 다런디루 가던지 이담날 오던지 그러자!》
《난 싫어요! 이거가 꼬옥 맘에 드니깐 이놈 사주셔야지 뭐. …》
《에이, 안될 말!》
윤장의령감은 조그마한 걸상에서 커—다란 엉뎅이를 쳐듭니다.
《이원오십전 상관이올시다, 네헤.》
점원이 알심있게 만류를 하던것입니다.
《앉으십시오. 이게 십원이라두 칠원오십전짜리보다 갑절이나 물건이 낫습니다. 몸두 훨씬 더 굵고요, 네헤.》
《그리두 여보, 원…》
《아,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손녀에게 반질 사주시자면 좀 쓸만 한

걸루, 네헤.》
죽일놈입니다. 아무리 모르고 한 소리지만 글쎄 애인끼리를 할아버지요 손녀애기라고 해놓았으니 욕치고는 이런 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장의령감은 그렇다고 너 이놈! 그건 무슨 고현 소린고! 이렇게 나무랠수도 없는노릇. 속으로만 창피해죽겠는데 그러나 춘심이는 되려 재미가 있다고 생글생글 웃습니다.
《난 뭐, 이거 꼭 사주어여지 뭐, 난 싫어요!》
싫다고 하니 다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허!— 거참… 으응!… 거참!》
윤장의령감은 마지못해 도로 앉습니다. 그 두마디의 탄성이 역시 의미가 심장합니다. 첫마디는 춘심이의 위협에 대한 항복이요, 다음치는 할아버지와 손녀애가 다시금 창피하다는 소리구요.
《그래서? 꼭 그놈만 사야 헌단 말이냐?》
《내에, 헤헤…》
《여보, 쥔량반?》
《네에, 헤…》
《사기넌 삽시다, 헌디 좀 과허니 조곰만 드을냅시다?》
《에누린 없습니다, 네헤. 뭐 십원이래두 비싼값은 아니올시다, 네.》
《머얼 안 비싸다구 그리여! 잔말말구서 팔원만 받우!》
《하아, 건 안되겠습니다. 이건 꼭 정가대루 받아두 리문이 별로 없습니다. 네… 에—또. 저, 기왕 점잖으신 어른께서 말씀하신거니 20전만 덜해서 구원팔십전에 드리지요. 네헤.》
《귀넌스리 시방 우는소리 허니라구!… 팔원만 받어요, 팔원.》
《아, 이런데 와선 그렇게 에누릴 않는 법이예요! 생선장순줄 아시나봐!》
춘심이가 핀잔을 주는 소립니다. 그리고보니 윤장의령감도 이년아, 너는 잠자코 있지 않고서 무얼 초란이처럼 나서느냐고 한바탕 욕을 해야 할텐데 억지 춘향이가 아니라 애매한 할아버지가 되였으니 어떻게 손녀애기더러 쌍스런 입살을 놀립니까.
《야—야, 그런 소리 말아! 세상에 에누리 읎넌 흥정이 어디 있다

더냐? 나는 나라에 바치는 세전두 에누리를 하던 사람이다.》

점원은 롱담을 잘하는 재미있는 할아버지라고 빈들빈들 웃고만 있습니다. 윤장의령감은 꿈싯꿈싯 염낭에서 돈을 암만큼 꺼내서 조심해서 세여보고 만져보고 또 들여다보고 하더니 별안간 남 깜짝 놀래게 《엣소! 팔원오십전이요. 나넌 인재넌 몰우…》 하고 말과 돈을 한꺼번에 내던지고는 몸집까지 벌떡 일어섭니다.

《… 가자, 인제넌 다아 되았다. 어서 가자!》

점원은 기가 막혀서 엉거주춤, 사못 붙들고 안된다고 날뜁니다.

다시 한시간은 넘겨 승강을 했을겝니다. 마구 싸우다싶이 구원십전에 그 반지를 빼앗아가지고 가게를 나오니까 열한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진고개를 빠져나와 전차정류장으로 광장을 건너가면서 춘심이는 손에 낀 반지를 깨웃깨웃 넘겨보며 못 견디게 좋아합니다.

《춘심아!》

《내애?》

해뜩 돌아다보고 웃으면서 또 반지를 들여다봅니다.

《반지 사서 끼닝께 좋냐?》

《거저 그렇죠, 뭐…》

《저런년 부앗넝가! 이년아, 나넌 너때미네 돈쓰구 망신당하구 그랬다!》

《망신은 왜요?》

《아, 그녀석이 할아버지가 뭐? 손녀애기를 어쩌구 않더냐?》

《해해, 헤헤헤헤.》

《아무턴지 이재 넌 내 말 듣지?》

《내애.》

《흐흠, 아무렴 그래야지. 저어, 저어 이따가 저녁에… 에…》

《내애.》

《일찌감치 오너라, 응?》

《네에.》

《남 들으면 안되야?》

《내애!》

《꼬옥?》

《글쎄 걱정마세요.》
《으음.》
《저어 참, 령감님?》
《왜야?》
《우리 저기 음식점에 가서 〈란찌〉먹고 가요?》
《〈란찌〉라구? 〈란찌〉란건 또 무어드냐?》
《〈란찌〉라구 서양점심 말이야요.》
《서양즘심?》
《네에, 퍽 맛이 있어요!》
《아서라! 그놈의 서양밥 말두 내지 말아라.》
《왜요?》
《내가 그년의것이 좋다구 하여서 그놈의 거 무어라더냐 하던 디를 가서 한번 사먹다가 돈만 내버리구 죽을번 하였다.》
《하하하, 어떻거다가?》
《아, 그놈의것 꼭 소시랑(쇠스랑)을 괴여논것처럼 생긴것을 주면서 밥을 먹으라더구나! 하참.》
윤장의령감이 만약 전감이 없었다면 춘심이한테 끌려가서 그 서양점심을 먹노라고 한바탕 진고개에 있어서의 조선정조를 착실히 나타냈을것이지마는 요행 그 소위 소시랑 괴여놓은것― 포크에 대한 반감의 덕으로 작파가 되였습니다.
종로네거리에서 춘심이를 일단 작별하면서 또다시 두번세번 다진 뒤에 재동 제집으로 돌아오니까 마침 뒤를 좇든 올챙이가 수형할인을 해쓴다는 철물교의 강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대복이도 가라고 했고 당장 칠천원수형을 받고 오천구백오십원 절수를 떼여주었습니다. 따로 일백오원짜리를 구문으로 올챙이한테 떼여준것은 물론이구요.
강씨와 올챙이를 돌려보내고나니까 드디여 오늘도 팔백사십오원을 벌었다는 만족에 배는 불룩일어섭니다.
간밤에 창식이 윤주사가 마작으로 사천오백원을 폈고 종수가 이천원짜리 수형을 병호에게 야바우당했고 이백여원어치 료리를 먹었고 그리고도 오래잖아 돈 천원을 뺏으러 올테고 하니 윤장의령감이 벌었다고 좋아하는 팔백여원의 열갑절 되는 팔천여원이 날아갔고 헌즉 그

것은 결국 옴팡장사요 이를테면 만리장성의 한 귀퉁이가 좀이 먹는것이겠는데 그러나 윤장의령감이야 시방 그것을 알택이 없던것입니다.

다시 그리고있다가 저녁에 춘심이를 사랑하게 된 행복에 이르러서는 침이 흔근히 고여 방금 뚜—우 오정소리를 듣고도 이어 점심을 먹으러 들어갈 여념이 없이 술에 취하듯 푹신 취해버렸습니다.

마침 그땝니다. 마당에서 별안간 뚜벅뚜벅 들리는 구두소리에 무심코 미닫이의 유리쪽으로 내다보느라니까 웬 양복가랭이가 펄쩍거리고 달려들지를 않는다구요?

어떻게도 놀랐는지 벌떡 일어서서 안으로 들어갈 태세를 가집니다. 요마적 양복쟁이라고는 좀처럼 찾아오는 법이 없지만 어찌하다가 더러 찾아온다치면 세상 그것같이 싫고 겁나는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없이 뱀을 섬뻑 만나면 대개는 깜짝 놀래여 몸이 오싹해지고 반사적으로 적의와 경계의 자세를 취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랜 조상 즉 사전 인류가 파충류의 전성시대에 그들의 위협밑에서 수백만년을 항상 공포와 투쟁과 경계를 하고 살아오는 동안 그것이 어언간 한개의 본능이 되여졌고 그러한 조상의 피가 시방도 우리 인류의 몸에 흐르고있는때문이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해석이고 헌데 윤장의령감이 양복쟁이가 찾아오거드면 우선 먼저 놀래서 우선 먼저 피하려드는것도 그와 비슷한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미년이후 한동안 소위 양복청년이라는 별명을 듣는 사람들한테 그놈 새애까만 육철포 부리앞에 가슴패기를 겨냥 대우고 앉아 혼비백산 돈을 뺏기던 일… 그렇게 돈 뺏기고 혼나고 하고서도 다시 경찰서의 사람들한테 이실고실 참고 심문을 당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던 일…

지방의 유수(손가락으로 셀수 있는 몇몇중에 들만큼 두드러짐.)한 명망가라고 해서 그네들과 무슨 련락이 있을 혐의는 아니였고 범인수사에 필요한 심문을 하는것인데 일 당하면 당장 혼백이 나갔던 윤장의령감이라 대답이 자꾸만 의창이 나군 해서 피차에 수고로왔습니다.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게 언제고 섬뻑 찾아드는 양복쟁이였던것입니다. 그러한 위험객 말고도 다시 생명보험회사의 외교원… 누구나 돈냥있는 사람은 다아 겪어본 시달림이지만 윤장의령감도 많이 당했습니다.

허기야 윤장의령감 당자는 나이 많으니까 가입할 자격이 없기때문에 가로되 자제몫으로, 가로되 손자몫으로, 가로되 무슨 몫으로 이렇게 조릅니다.

윤장의령감의 대답은 신랄해서

《게 여보! 원, 아무런들 날더러 자식, 손자보험 걸어놓구서 그 돈 타먹자구 그것덜 죽기 바래고 앉었으란 말이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만소리에 퇴각할 사람들이 아니요, 찰거마리처럼 붙어앉아서는 쪼드윽 쪼드득 졸라댑니다.

이처럼 파기증을 생으로 내주는게 역시 불쑥 찾아오는 양복쟁이던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기부를 받으러 오는 패…

대개 민간의 교육사업이나 또는 림시림시의 빈민 혹은 리재민의 구제사업인데 그들이 찾아와서는 사연을 주욱 이야기한 후 그러니 령감께서두… 이렇게 청합니다.

윤장의령감은 다아 듣고나서는 말합니다.

《예에! 거 다아 존 일이지요. 허여야 허구말구요. … 그런디 나넌 시방 내대루 수십년지간 해마다 수수백명을 구제허구있으니께루 그런 기부나 구제에선 참여를 안하여두 죄루 가던 안헐테닝게루 그만둘라우—》

《네에! 거참, 매우 장하십니다! 사업은 무슨 사업이신지요?》

객은 듣던바와는 다르다고 탄복해서 아무런 그 사업내용을 쉽사로라도 물어볼밖에요.

《에애… 내가 시방 한 만석가량 추수를 허우. 그리구 작인 천명가까이 되지요. 그러닝께 천명가까운 작인들한티다가 논을 주어서 농사를 하여 먹구살게 하니께 구제하고는 큰 구제 아니요?》

이 말에 웬만한 사람은 속으로 웃고 진작 말머리를 돌리겠지만 좀 귀가 무딘 패는 더욱 탄복을 하여 묻습니다.

《네에, 그러면 근 천명되는 소작인들한테 소작료를 받지 않으시구

논을 무료로 내주시는군요? 네에! 허허.》

《아—니, 안 받으면 나는 어떻게 허우?… 원참, 여보, 글시 제 논 갖구 앉아서 도지두 안 받구 그냥 지어먹으라구 내주넌 그런 병신천치두 있다우?》

윤장의령감은 이렇게 당당히 나무랍니다.

듣는 사람은 분반(웃음을 참을수가 없음.)할 언행이나 또는 롱담으로 들리겠지만 윤장의령감 당자는 절대로 엄숙합니다.

지주가 소작인에게 토지를 소작으로 주는것은 큰 선심이요 따라서 그들을 구제하는 적선이라는것이 윤장의령감의 지론이던것입니다. 윤장의령감의 신경으로는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논이 나의 소유라는 결정적주장도 크지만 소작경쟁이 언제고 심하여 논 한자리를 두고서 김서방, 최서방, 리서방, 채서방 이렇게 여럿이 제각기 서로 얻어 부치려고 청을 대다가는 필경 그중의 한사람에게는 권리가 떨어지고 마는데 김서방이나 혹은 리서방이나 또는 채서방이나에게로 줄수 있는 논을 최서방 너를 준것은 지주된 내 뜻이니까 더우기나 네게 적선을 한것이 아니냐?… 이것이 윤장의령감의 소작권에 의한 자선사업의 방법론입니다.

윤장의령감은 그리하여 자기가 찬미하는 가령 경찰행정같은 그런 방면의 사업에다가 자진하여 무도장건축비를 기부하든지 하는 외에는 소위 민간측의 사업이나 구제에는 절대로 피천 한푼 내놓지 않는 사람인데 번번이들 찾아와서는 졸라대고 성가시게 하고 하는게 누군고 하면 역시 양복쟁이던것입니다.

이와같이 시골서 이래도 근 20년 각종 양복쟁이의 위협과 피해와 졸경을 치르던 윤장의령감인지라 인류의 조상이 수백만년동안 파충류와 싸우고사느라 그들을 대적하고 경계하고 하는 본능이 생겨 그 피가 시방 우리의 몸에까지 흐르고있듯이 윤장의령감도 양복쟁이라면 덮어놓고 적의가 솟고 덮어놓고 싫어하는 제2의 본능이 생겨졌습니다.

윤장의령감은 그래서 방금 뚜벅거리고 달려드는 양복쟁이를 보자마자 《엣, 뜨거.》라고 벌떡 일어서서 뒤문을 열고 안으로 피신을 하려는 참인데 그러나 시기는 이미 늦어 양복쟁이가 앞미닫이를 연것이 더 빨랐습니다.

화가 나서 홱 돌아다보니까 요행으로 낯선 양복쟁이가 아닌게 안심은 되였지만 속아 놀란것이 그다음에는 속이 상합니다.

《야, 이 잡어뽑을 놈이 지침이나 좀 허구 댕기라. …》

방금 동소문밖 ××원 별장의 그야말로 주지육림(술이 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룸.)으로부터 돌아오는 종수입니다.

욕은 담배 한대 피우는 정도로 언제나 먹어두는것 아무렇지도 않아하고 조부에게 절을 한자리 꾸벅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무엇허러 또 올라왔니?》

《볼일두 좀 있구 그래서…》

《볼일이랑게 별것 있간듸? 매양 돈이나 뺏으러 쫓아왔지… 귀년스리 돈소리 헐라거던 아예 내 눈앞으로 뵈지두 말구 가버려라. 》

이렇게 발등거리를 당하고보니 종수는 마치 생고니의 첫구멍을 막히운 격이라 말문이 어디로 열릴바를 몰라 고개만 숙이고 대답이 없습니다.

《대체 너넌 그놈의 군순지 막껄린지 건 어떻기 되넌 심이야, 심이?》

화가 안났더라도 짐짓 해야걸할판. 이윽고 재털이에 담배대를 따앙땅, 음성도 역정스럽던 그대로만 조목을 들어 지천을 합니다.

《…응… 그놈의 군수 하나 바래다가 고손자 ×패겠다. 네 엔장마질!》

십년계획이라 속으로 말짱하면서도 주마가편(달리는 말에 채찍질)이라 재촉을 해 10년보다 더 속히 되면 속히 될수록 더 좋은노릇이니까요. 그러나 이 말에서 종수는 언뜻 돈 발라낼 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념려 없어요. 그렇잖아두 이번에 그 일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응? 거, 듣너니 반간 소리다!… 그리서 다되였냐?》

담박 풀어져서 좋아합니다. 참으로 애기같이 천진란만한 할아버지입니다.

《오래잖아서 본관사령은 나올려나봐요. 》

《그리여? 참말이냐?》

《네에.》

《그렇다면 작히나 좋겠냐? 그런디 그담에 참말루 군수는 은제 되냐?》

《그건 본관이 된 댐엔 다아 쉬워요.》

《그렇디래두 몇해 있어야 될것인디?》

《한 사오년이… 그러니 저어…》

《응?》

《이번에 계제에 한 2천원을 디려야 일이 수나롭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리여…》

윤장의령감은 펄쩍 뜁니다. 마침 옛날의 그 혼란스럽던 판임관 그리고 그 웃길 주임관, 그들의 금테두른 양복, 금장식한 칼, 이런것을 손자 종수에게 입혀놓고 량반의 위풍을 떨치는 장면을 련상하면서 비록 시방은 그런 제복은 없어졌을망정 판임관이면 금테가 한줄 다시 주임관으로 군수가 되면 금테가 두줄 이렇대서 한참 좋아하는 판인데 밉살머리스럽게 돈소리를 내놓고 앉았으니 고만 정남이가 떨어지고 또다시 부아가 버럭 나던것입니다.

《잡어뽑을 놈! 귀년시리 돈이나 협잡질 헐라닝게루 시방 쫓아올라와서넌 씩뚝꺽뚝 날 돌라먹을라구 그러지 야? 누가 네 속 모를 줄 아냐? 글시 일 다아 되였다면서 무슨 돈이 2천원이나 드냐? 들기를.》

《지가 쓸려구 그러는게 아니예요!》

《늬가 안쓰구 그러면 여산 중놈이 쓴다냐?》

《선사감으로 금강석반지 하나 살려구 그래요.》

《뭐어?… 아-니 세상에 2천원짜리 반지가 어디 있으며 또오 있다구 치더래두 그 사람은 그걸 손가락에 끼구 벼락을 맞이라구 2천원짜리 반지를 사다가 선사를 헌단 말이냐? 죽으며는 썩을놈의 손꾸락에다가 아무리 귀골이기로서니 2천원짜리를 끼다께 벼락맞일것이 아니여? 나넌 보닝게루 구원십전짜리두 버젓허니 좋기만 하더라. … 대체 누구 조작이냐? 네 소견이냐? 누가 시켜서 그러냐?》

《군수령감이 그러세요. 저 거시기 요전번 올라왔을 때 마침 지전씰 만났었는데 할아버지두 잘 아시잖아요? 왜 저 총독부 내무부에 있

는 그 지전씨!…》

《그래서?》

《구경을 나온 길인지 부인하구 아이들을 모두 데리구 〈미쓰꼬시〉루 들어오는걸 만났더래요. 퍽 반가와하면서 제 말두 묻구 잊어버리진 안했느라구… 그러면서 같이 산뽈 하자구 해서 〈미쓰꼬시〉안을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마침 귀금속부에 갔다가 지전씨부인이 2천원짜리 금강석반지를 내논것을 보더니 퍽 가지구싶어 하드래나요. 그러니깐 지전씨가 웃으면서 사주구는싶어도 어디 돈이 있느냐구 그러니깐 부인이 여간 섭섭해하는 기색이 아니더래요. 그런데 군수령감은 자기가 돈만 있었으면 담박 사서 선살 했으면 다른 때 만원을 디린것보다두 생색이 더 나겠는데 원체 자기한테는 지닌게 없기두 했지만 큰돈이라 생심을 못했다구…》

《그러닝게루 그걸 너더러 사서 지전씨네 집에다가 선사를 하라더람 말이여?》

《네에, 마침 또 꼭지가 물러가는 눈치구 하니깐 이 계제에 그래줬으면 유리할것 같다구.》

윤장의령감은 말없이 담배만 뻑뻑 빨고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아닌것을 거짓말로 넘겨짚고서 그 벼락맞을 선사를 않고보면 일을 랑패시키는것이 될테니 차라리 속은 셈 잡고 돈을 내느니만 같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마침내 들고말았습니다.

《모르겠다. 나는 시방 돈이래야 톡톡 털어서 천원밖에 없으니께 그놈만 갖다가 무얼 사주든지 말든지 네 소원대로 할랴면 하여라. 나는 모른다.》

자기 말대루 나라에 바치는 세납두 에누리를 하거던 종수가 청구하는 운동비를 어찌 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종수는 조부의 그러한 성미를 잘 알기때문에 한자욱 더 뛰여 천원소용을 2천원으로 불렀으니 종수가 선숩니다.

윤장의령감은 대복이를 불러 천원소절수를 씌워 도장을 찍어 아주 현금으로 찾아다가 종수를 주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오늘 구백사십오원 번것이 오십오원 새끼까지 치어가지고 도로 나가는구나 생각하니 매우 섭섭하구 허망했습니다.

15. 망진자는 호야니라
(진나라를 망하게 한자는 호이다)

일찌기 윤장의령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용구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죽는 시체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적이 있겠다요.

이미 반세기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였습니다.

해서 윤장의령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런데…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장의령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씨만 빼놓고 서울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례를 표하고 그들의 옹위아래 윤장의령감과 종수는 각기 아래목과 뒤벽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방금 점심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손 애비, 부디 정신 채리라!》

윤장의령감이 종수더러 곰곰히 훈계를 하던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덕에 점잖게 경손 애비지요.

《…정신을 채려야 헐것이 늬가 암만 히여두 네 아우 종학이만 못하여! 종학이는 그놈이 재주두 있고 착실히여서 너처럼 허탕하지도 않구 그럴뿐더러 래년 래후년이며는 대학교를 졸업허잖니? 래후년이지?》

《네에.》

《그렇지? 응, 그래 래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찌들어나며는 그놈은 지가 목적한 경부가 되여갖구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응, 알겠어?》

《네에.》

《그러닝게루 너두 정신을 바싹 채려갖구서 어서어서 군수가 되어야지 않겠냐?… 아 동생놈은 버젓헌 경찰서장인디 형놈은 겨우 군서

기를 다니구있담! 남부끄러워서 어쩔테여? 응? 아, 글쎄 군수되고 경찰서장되구 허며넌 너덜 좋구 느덜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를 하는것두 다 늬덜 위하여서 그러지 나는 파리 족통만치두 상관없어야. 알아듣냐?》

《네에.》

《그놈 종학이는 참말루 쓰겠어! 그놈이 어려서부텀두 위너니 나를 자별허게 따르구 재주두 있구 착실허구, 커서두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꼭 믿어. 작년 올루 들어서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허프게 쓰기는 허넝가부더라마는 그것두 허기사 네게다 대며는 안쓰는 심이지. 사내자식이 너처럼 허탕하지만 말구서 제 주대만 설헐량이면 돈은 좀 써두 괜찮은 법이야. … 그래서 지난달에두 오백원 꼭 쓸데가 있다구 편지 하였길래 두말 않고 보내주었다.》

마침 이때 마당에서 헴헴 점잖은 바른 기침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하던것입니다.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느냐고 심상히 알은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누이동생 서울아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장의령감한테 절을 한자리 꾸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자리 절과 이복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옆으로 들어앉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윤장의령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우기나 안방에까지 들어온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멋하러 오냐? 돈 달라서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장의령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종학이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으엉?》

웨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뎅이를 꿍 찧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번 했습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각기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랜것은 물론이구요.

윤장의령감은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래서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글뜨리고 앉습니다.

《거 웬 소리냐? 으응? 으응? 거, 웬 소리여? 으응? 으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본가분데 전보가 돼서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의 그 전보를 꺼내여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장의령감은 채듯이 전보를 받아 쓰윽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사네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피검!… 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라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네를…》

《으엉?》

아까보다 더 크게 웨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번 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장의령감은 먼젓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길 밑으로 꺼져내려가는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장의령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것입니다.

진나라를 호(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라니? 으응? 으응?》
윤장의령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사납게 웨침.)를 합니다.
《…으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으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여?》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버틈 그런 기미가 좀 뵈긴 했어요.》
《그러며는 참말이구나! 그러며는 참말이야, 으응!…》
윤장의령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여오릅니다.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하라닝게루 생판 사회주의하다가 뎁다 경찰서에 잽혀? 으응?… 오—사 육실할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짓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지 아니면 앉았을뿐 윤장의령감이 잠간 말을 끊치자 방안은 물을 친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윤장의령감은 팔을 부르걷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너냐아? 부랑당같은 수령들이 있너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것이요 목숨은 파리목숨같던 말세넌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리 거리 순사요 골목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으응?…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하는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여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땅땅거리구 편안하게 살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망쳐놀 부랑당패에 참섭을 헌단 말이여, 으응?》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싶습니다. 아닌게아니라 모여선 가권들은 땅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나 않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깎어죽일 놈!… 그놈을 내가 편지하여서 백년 징역을 살리라구 헐걸… 백년 징역 살리라구 헐테여. … 오냐, 그놈을 삼천석거리는 직분(분재)하여줄려구 하였더니. 오—냐, 그놈 삼천석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으다가, 사회주의 허는 놈 잡아가두는 경찰서다가 주어버릴걸! 으응, 죽일 놈!》

마지막의 《으응, 죽일 놈.》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이 태평천하에!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 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는 따라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 자식이 세상 망쳐놀 사회주의의 부랑당패에 참섭을 히여? 으응 죽일 놈, 죽일 놈!》

연해 부르짖는 죽일 놈소리가 차차로 사랑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있는 가권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득이 어둔 얼굴들을 면면상고(서로 말없이 얼굴만 쳐다봄.) 말할바를 잊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주검을 만난 종졸들처럼…

중편소설

동 화

채 만 식

그날까지 《동화》고 그래서 업순이는 그리로 떠났다.

1. 그 안날 낮에

물기가 듣는듯 그늘 짙은 뒤마루에서 업순이는 바느질에 자지러졌다.

한여름(음력으로 칠월)의 한낮은 늘어지게 길다. 조용하고, 이웃들도 졸음이 오게 찍소리 없다.

뒤 섶울타리를 소담스럽게 덮은 호박덩굴우로 쨍쨍한 불볕이 내려쬔다. 오리가 물기도 했지만 더위에 시달려 호박잎들이 너울을 쓴다.

손 가까운데 두고 풋고추도 따먹을겸 화초삼아 여나문포기나 심은 고추대들도 배애배 꼬였다. 그래도 갓난아기 자지같은 고추가 달숭달숭 열리기는 했다.

울타리밑에서는 장닭이 암닭을 두마리 데리고 더웁지도 않은지 메(모이)를 호비면서 가만가만 쫑알거린다.

키만 훨씬 크지 가지나 잎은 앓고난 머리같이 엉성한 배나무가 저처럼 엉성한 그늘을 장독대옆으로 던지고섰다. 까치가 한마리 끼약끼약 우짖는다. 심심한지 인해 날아가버린다.

마주 환히 열어놓은 방 앞뒤문으로 소리없이 드나드는 바람이 소곳이 숙인 업순이의 이마우로 서너올 드리운 머리칼을 건드리군 한다.

한가운데로 탄 가리마가 새하얗게 그린 그림같다. 조곰 뒤로 젖혀진 코등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배여올랐다. 물결 희고 도두룩한 볼때기가 귀밑께로 가면 배내털이 아직 부얼부얼한다.

업순이는 깜박 졸음이 오려고 하는것을 참고 손을 재게 놀린다. 뻣뻣하고 커다란 아버지의 삼베적삼이 업순이의 조그마한 손과 굵다란 바늘끝에서 솜같이 보드랍게 논다.

아닌게 아니라 업순이는 지금 정신은 딴데 있어서 보드라운 비단을 만지고있다. 깨끗하고 정하게 생긴 하얀 비단, 눈이 부신 진자주비단, 시원스레 보이는 남색비단, 하늘거리는 연분홍비단, 첫봄머리에 개나리꽃같이 반가운 노란비단, 이런 여러가지 비단들이 피륙으로 혹은 말러놓은 옷감으로 드리없이 손에 만져지는것이다.

그저께 아침 일이 다아 그렇게 작정이 되여 그 이야기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듣던 때부터 업순이는 무시로 이렇게 비단만지는 꿈아닌 꿈을 꾸군 하던것이다.

그리고 그런 때면 의례껀 저도 모르게 방긋이 웃음이 떠오르군 한다.

처음겸 마지막으로 딸 하나를 낳았더니 생긴게 또 북실북실하대서 어머니, 아버지는 산신님이 업을 점지해주셨다고 그래 업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다.

업순이는 지금 나이 열일곱, 그러니 옛날세상같으면 벌써 시집을 갔을테고 잘하면 지금쯤 첫애기라도 하나 낳았을테지만 아직 귀밑머리를 땋은채 처녀다. 그렇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투철한 개화를 한것도 아니요, 갈데없는 무식군이요 농투성이기는 하지만 일찌감치 남의 집 민며느리라도 주자니 자식이라고는 그것 하나뿐인걸 그러기가 아깝기도 하려니와 또 남의 집 민며느리란 팔자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것인데 그걸 눈 멀뚱멀뚱 뜨고서 그 고생줄로 몰아넣기도 애처롭고 해서 차마 못했던것이다.

그러니 그러구저러구할게 아니라 어미, 아비는 개명을 못했을망정 시체(당대의 류행이나 풍습)속으로 어디 네나 개명을 좀 해보라고 집안 사세(일이 되여가는 형세)로 부치는것을 억지삼아 읍내 보통학교에 들여보내서 학교공부(보통학교 졸업)를 시켜보았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학교공부를 시켜놓고보아도 별 두드러진 수는 없고 종시 촌 농투성이의 계집애 자식이지 별것이 아니였다.

그러니 자, 인제는 동네 더벅머리 총각이나마 데릴사위를 정하잔즉 그건 눈에 차지를 않고 그렇다고 자격자를 골라서 혼인을 하잔즉 지체도 없으려니와 가랭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터수에 도무지 가량없는 소망이고 해서 일이 대단히 허무하고 맹랑하게 되였었다.

《개명두 다아 구격이 맞구서 해야 하는 법이여!》

《그렇다우,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구 않

어우!》
이건 두 내외가 가끔 마주앉으면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였다. 그러나 한갖 시속이 그렇고 남들도 말만한 계집애자식을 그냥 두어둔다고 숭하지 않는것만 다행히 여겨 그대로 두고 보아오기는 왔던것이다.
그러던 계제에 진주감영의 비단짜는 공장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구장을 앞장세워가지고 이 집, 저 집 계집애 있는 집을 적간(조사)하고 다니면서 직공을 뽑는 설레(바람)에 업순네도 선듯 응하고 나섰다.
업순이야 집에서 가끔 명주도 낳아보았고 하니 보내봄직도 하고 그래 그렇게 가서 있으면 월급을 25원이니 30원이니 받는다니까 한 1년만 모아도 제 시집갈 마련은 존존할테고 또 그뿐아니라 이 흉년끝에 집에 두어두고서 편편 굶기느니 제풀로 가서 제 목구멍 하나 얻어먹는것만 해도 그게 어데냐고 이렇게 두루두루 좋을것 같아 선선히 보내기로 작정을 한것이요, 업순이 저도 두말없이 좋아했었다.
더우기 비단을 입어보지 못하는 촌 계집아이로 가령 입지는 못할망정 비단을 제 손으로 짠다는것, 그것 한가지만 해도 업순이한테는 우선 즐거운 꿈이 아닐수 없던것이다.
허기야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더구나 과년한 계집애자식인걸, 낯선 딴 고장으로 떠내보내기가 섬찍하기도 하고 섭섭한노릇이기도 하고 또 업순이 저도 그런 마음이 없는게 아니요 하지만 그거야 일이 다아 작성된 뒤에 투정삼아 생기는 걱정이요, 그래서 (뭐, 어떨라구, 괜찮겠지.) 이렇게 억지로 안심을 할지언정 뒤미처 새삼스럽게 그것을 도로 작파(그만둠)를 할 생심은 못하도록 마음이 당기는 좋은 계제였던것이다.

《둥 둥.》
새말 오까무라상네 농장 절에서 울리는 낮북소리가 그것도 꿈결같이 아스라하게 들려온다.
울타리밑에서 메를 헤적이던 수닭이 깜빡 생각이 나서 홰를 투투욱 치더니 《꼬끼오－오》 늘어지게 한마디, 이어서 또 한마디 거퍼 세

마디를 울고는 구국구국 암닭한테 자랑을 한다.
업순이는 콩밭에 가신 어머니도, 읍내로 고무신을 바꾸러 가신 아버지도 오래잖아 오시겠거니, 오시면 뭘로 점심을 드려야 할테니까 미리 상을 차려놓아야 하겠거니 생각은 한편으로 하면서도 바느질 손이 떨어지지 않는다.
《두우두… 저런, 오—사헐 년(죽일 놈)의 돼지새끼가…두우.》
《두우 두… 저런 오—사헐 년의 돼지새끼가…두두…》
갑자기 앞마당에서 어머니가 역정이 나서 웨치는 목청소리에 놀라 업순이는 바느질을 내던지고 뛰여나간다.
콩밭 열무를 조그맣게 한다발 머리에 인 어머니가 마당가운데서 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소리 웨치고 허리에 짧은 새끼토막을 맨 돼지새끼 한마리는 채전밭께로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치고있다. 말려서 마당질을 하려고 퍼넣어둔 푸달진(많지 못한것을 많다고 비꼬아서 《푸지다》의 뜻으로 쓰는 말.)보리다발을 고놈이 와서 개평으로 작살을 냈던 모양이였다.
업순이는 보리를 잘 지키지 못해서 무안하기보다 어머니의 하는 양이며 돼지새끼가 급해서 도망치는 꼴이 하도 우스워서 입을 오무라 뜨리고 어머니한테서 무우다발을 받는다.
《오—사헐 년놈들! 어쩌자구 이 숭년끝에 짐승을 놓아먹여!》
어머니는 돼지새끼가 도망친 울타리구멍께로 한참이나 눈을 흘기다가 토방으로 올라와서 마루전에 파근히 (다리힘이 지치여 맥없고 무거운것.)걸터앉더니 회유우 더운 숨을 내쉰다. 새까맣게 볕에 끄른 얼굴로 줄기줄기 땀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나 시암(우물)에 가서 시원한 찬물 떠오까?》
《오면서 먹구 왔다. 느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나?》
《응, 하마 오실텐데…》
어머니는 손에 잡히는대로 마침 옆에 있는 몽당부채를 집어들고 얼굴을 부친다. 바람은 나는둥마는둥 소리만 벌컥벌컥 요란하다.
《무수(무우)가 아니되였구나. 물을 못 읃어먹어서…》
어머니는 토방에다 놓은 무우다발을 내키잖게 내려다 본다.
《…못생기되 못생긴것들이 고동(장다리)만 솟았더라!》
《콩은?》

《이렇게 가문데 콩인들 정헐것이냐? 모두 배애배 꼬이구…》

어머니는 한숨을 후우 내쉬면서 이글이글 불볕이 내리는 하늘을 심정스럽게 올려다본다. 말짱하니 구름 한점 없다.

《숭년은 또 들어두었어! 별말 헐것없이 숭년인걸. 작년에 그 모진 숭년이 들구 보리숭년까지 겹치더니 어쩌자구 올해 이러는지! 이년의 고장은 누가 살인을 하였단 말이뉘. …》

여느때같으면 흉년 걱정에 저도 따라서 걱정이 되였겠지만 오늘부터는 업순이는 그리 딱하지 않았다. 만약 올해도 흉년이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굶게 되거들랑, 저금을 그만두고 그 몫 10원까지 해서 15원씩 집으로 보내자는 요량이 있어서 그렇다.

업순이는 예산을 이렇게 했었다. 처음 여섯달동안 견습을 하고 나면 그때는 25원씩 옹근 월급을 준다니까 그중에서 기숙사 밥값이 7원 50전이라 하니 그걸 제하면 17원 50전, 그 17원 50전에서 2원 50전 용돈을 쓰고 5원은 집으로 보내고 10원씩은 꼭꼭 저금을 해둔다, 그래서 3년만 하면 360원이라 근 400원이니까 그때에는 그것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한테는 큰 소를 한마리 사드리고 어머니한테는 양돈(기르는 돼지)걸귀(새끼낳는 암돼지) 한마리를 사드리고 집안의 빚도 갚아드리고 그리고 한 100원은 남겨서 시집갈 밑천을 한다.

시집이란게 무엇인지 알수도 없고 가고싶지도 않기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하두 걱정을 하시니까 꼭 가기는 가야 하는것인가 보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끈으로라도 시집을 가는것이 옳을것 같고 또 그럴밖에는 별수가 없었다.

업순이는 이렇게 작정이 3년작정인데 만약 올해 흉년이 들어서 10원씩 저금을 못하고 집으로 다아 보내게 된다면 1년을 더 늘여서 4년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4년은 말고 5년, 6년이라도 상관없을것 같았다.

《어머니, 즘심 잡수?》

업순이는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돌아다보고 묻는다.

《느 아버지 오시거든 같이 먹자. 하마 오실테니 상이나 채려두렴. …》

어머니는 머리채가 허리아래로 치렁거리는 딸의 뒤태를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또 한숨을 내쉰다. 오늘 아침까지도 어린애로만 여겨온 딸이 치렁거리는 머리태이며 통통한 몸집이며가 갑자기 처녀꼴이 완구히 박혀보이고 그런데 저렇게 장성한 계집애자식을 낯선 타관으로 보낸다는것이 새삼스럽게 앞이 걸리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혼자 속을 눅인다.

(그렇다고 이 흉년에 집안에다 붙잡아두고 굶기기나 하면 무얼하나. 그런대로 보내주어서 제 목구멍 하나나 얻어먹게 하구, 제 시집갈 밑천이라도 장만하게 하는게 수지.)

2. 그 안날 저녁에

매방석만 달이 높다란 솔숲우로 솟아올라 마당을 환히 내려비친다. 밤이 갑자기 재미나는 요술같다.

가물기는 해도 이슬이 내려 촉촉해서 달밤이 더욱 호줄근 하다. 보리겨로 모기불을 지핀 연기가 저 혼자서 뭉기뭉기 피여올라 매캐한 냄새가 퍼져온다. 모기떼가 멀리서 오지 못하고 울기만 한다. 마당 한가운데로 밀짚거적을 내놓고 모녀가 빨래를 다린다. 저편으로 따로 가마니쪽을 깔고앉아서 아버지는 짚신을 삼는다. 고무신은 신을테지만 그래도 혹시 짚신이 아쉰(꼭 있어야 할 물건이 없어서 안타깝다) 때가 있을지 모르니 두어켤레 삼아 주께시니 가지고가라고 시방 정성을 들여서 삼고있는 참이다.

《이건 재물으다가 삶으면 못쓴다더라.》

어머니가 마침 다린 깜장 인조치마를 개키면서 업순이더러 이른다.

《그러니께 좀 젤었드래두 삶지 말고 비누로 빨아 입어라.》

《그렇지만 광포는 갱기찮지? 단 속곳 말이우. …》

《그건 삶어두 갱기찮기사 하지만 그것도 삶느니 그냥 빨아서 뜨물에 담거두면 때물이 빠지느니라마는…》

《신이 그리두 좀 작잖더냐?》

아버지가 먼점 사온 고무신이 작다고 아까 낮에 바꾸어온걸 그리도

미심쩍어서 하는 말이다.

《이번치는 꼭 맞이라우!》

《신이라면 좀 낙낙하여야지 더군다나 새신을 신구서 정거장까지 10리길이나 갈라면서 너머 째며는 발 부르튼다.》

《애, 그리두 째던 안히라우!》

어제 사온 보리 열말이며 쌀이며 아버지 옷감이며 어머니 옷감이며 또 업순이 제가 입고갈 옷감들이며, 그게 모두 인제 받을 월급에서 선하로 받은 이십원을 가지고 쓴것이다.

곰곰히 생각하면 업순이는 제가 벌어 탄 돈으로 당장 이렇게 요긴하게 쓰는것을 우선이라도 누구 동무한테 자랑이나 해보고싶게 희한하고 즐거웠다.

키 크고 엉성한 강냉이대들이 듬성듬성 섰고 생치, 아욱, 쑥갓들이 고동이 서서 꽃이 피고 마늘이 쫑이 솟아서 잎이 시들고 강낭콩포기가 풀속에 묻히고 한 남새밭에 흰 빨래가 으슴츠레하니 널려있다.

업순이가 밭에 들어서서 빨래를 한가락 집으려니까 풀끝에서 짱아(잠자리) 한마리 호르르 날아간다. 짱아가 날아간 쪽에서는 개똥불이 희미하게 불을 켜가지고 앞으로 날아온다.

업순이는 어렸을 때 짱아 잡으러 다니고 개똥불을 잡아 호박꽃으로 초롱을 만들어가지고 놀던 일이 문득 생각났다. 그는 빨래 걷던 손을 멈추고 한참이나 개똥불을 바라보면서 혼자 웃는다.

빨래를 거의 다 다렸을 때 사립문밖에서 옆집 새댁이

《업순아!》

부르면서 들어온다. 구럭에 무얼 담았는지 불쑥하게 어깨에 메였다.

나이는 업순이보다 한살아래 열여섯살이라도 작년에 옆집에 서른한살 먹은 대철이한테 시집을 왔대서 그래 각시이다. 그 표적으로 뒤꼭지에는 밤알만 한 쪽이 붙어있다.

업순이하고는 이웃도 이웃이지만 퍽 가까운 동무다. 래일 아침에 업순이가 멀리 떠난다니까 작별삼아 가만히 찾아온것이다.

《무얼 저렇게 메구 온대여?》

업순이가 돌아다보면서 웃으니까 새댁도 따라웃으면서 밀짚거적우에다가 메고온 구럭을 내려놓는다. 단참외냄새가 물큰하니 코에 스

며든다.
《업순 어머니, 진지 잡셨이유? 업순 아버진 짚신 삼으시누만?》
새댁은 이렇게 고루 인사를 하고 대답을 받고하면서 업순이옆에 가바루 앉는다.
《래일 떠난다는데 서운허기는 허구 그래서…》
새댁은 구럭을 넘겨다보며 말끝대신 눈으로 웃는다.
《아이, 아습찬히라. 시방 원두막에서 오는구먼?》
《응, 그것두 〈찌락소〉가 원두막으서 자닝게루 내가 쫓아가서 뺏어왔지. 뭐, 령감이라 마누라가 있어보아. 될말이간되.》
새댁은 고개를 내두르면서 입을 삐죽거린다.
《찌락소》라면 제 남편말이고 령감이니 마느라니는 시부모말이다.
《입을 저렇게 놀리닝게루 밤낮 읃어맞구 그러지!》
업순 어머니가 나무래는 말은 아니고 롱담삼아 한마디 탄을 한다.
《아이, 업순 어머니두, 번연히 속 다아 알면서 그러시네. 내가 권연스리 그러간디라우? 날 미워서 밤낮들 때리구 구박허구. 그러닝게 나두 그러지라우… 업순이, 인주어, 내가 좀 잡으께…》
새댁은 일을 도와주자고 업순이를 밀고 다가앉는다.
《…래일이면 멀리 갈 사람이닝게 편안히 있다가 가야지!》
《아이, 별소릴 다 허네. 인젠 다아 대린걸 뭐.》
《그리두 인주어.》
업순이는 더 사양을 않고 물러나 일어선다.
《그럼 나는 가서 빨래 걷어가지구 오께… 그러구 참 새벽 이따가 나허구 멱감어, 응?》
《응, 아아구 글러루 간다구 멱을 다 감구? 히히.》
《지랄! 누가 거기 간다구 그러간듸? 더우닝게 멱감자구 그랬지. 그렇지만 새댁, 너머 늦으면 또 집이 가서 매맞구 그러게?》
《괜찮히여, 원두막에서 잔다구 허구 나왔으닝게 예서 실컷 놀다가 원두막으루 가면 그만인듸 뭘…》
《그럼 아주 잘되았구만. … 멱감구 차무 먹구 그러구 이스윽허드락

놀다가 가, 응?》
《응!》
새댁은 대답을 하면서 고개를 여러번 끄덕거리다가 차차로 시무룩하더니 한숨을 후우 내쉰다.
《나두 시집인지 급살인지 안 왔으면 업순이처럼 그런 존데루나 가지! 업순 어머니, 참 잘허시우. 업순이두 나처럼 시집이나 잘못 가서 이런 고생이나 허구하면 아이구 그 일을 어떡허지!》
《그런 말 하지 마소. …》
업순 어머니는 일변 네 말이 옳기도 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말했다.
《오죽허면 다 큰 자식을 멀리 타관으로 보낼라구…》
《업순 어머니두 그런 말씀 마시우. 나는 머리나 싹둑 잘러서 그 지긋지긋헌 령감 마누라 밥상으다 올려놓아주구서 절루 중노릇이나 가구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육장 매나 맞구 〈찌락소〉 녀석한테 부대끼구 하다가 인제 며칠 안 가서 죽을란게리라우.》
《원, 별 청승맞은 소리두 다 헌다.》
달은 벌써 높다랗게 올라오고 밤기운은 언제 낮에 그렇게 더웠댔나 싶이 시원하다.
멀리서 풍장(농악)소리가 아득하니 들려온다. 업순이는 어머니와 새댁이 무슨 이야기를 그리 구수하게 하고있는지 귀결에 들으면서 빨래를 걷고있다. 마지막으로 다릴 인조항라 깨끼적삼이다. 산뜻하게 입고 길떠날 적삼인것이다.

3. 그날 아침에

희스름히 먼동이 터온다. 엷은 안개가 땅우로 내려앉아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한다. 나무잎마다 운이 번지르르하게 이슬이 묻고 풀끝에는 이슬방울이 령롱하게 맺혔다. 마당도 이슬에 젖어 촉촉하다.
참새가 서너마리 지붕말랭이(마루)에서 짖어거리고 동주리에서는 닭이 조바심친다. 돼지우리에서도 돼지가 시장하다고 떼를 쓴다.

맨먼저 업순이가 모기장 붙인 안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온다. 자고난 가실잖게 눈이 윤기있고 맑다.

마루에서는 아버지가 아직 잠이 들어있다. 업순이는 아버지 잠을 깰세라고 조심조심 비껴 걸어나오다가 문득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느라고 멈춰선다.

반나마 흰 머리털과 머리보다 더 흰 수염이 오늘 아침이야말로 새삼스럽게 업순이의 눈에 띄였다. 그는 아버지가 밤사이에 이렇게 늙은상싶어 처음 보는것 같이 희끗희끗한 수염이 들여다보여졌다.

수염을 그렇게 들여다보고있느라니까 어려서 했다는 일이 생각이 났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업순이 제가 어려서 아버지가 자는데로 엉금엉금 기여올라 수염을 잡아 끄을고 그 아버지가 귀엽다고 안아줄 때도 자꾸만 수염을 잡아나 주고 그럴라치면 아버지는 《허어, 이놈의 딸년이 애비 수염을 잡아 끄스네.》 하면서 허겁스럽게 엄살을 했드라고…

업순이는 그랬다는 일을 생각하고 다시금 아버지의 수염을 들여다보노라니까 어린 애기때 그때처럼 저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아버지한테 안기여 놀아보고가싶어졌다. 그랬으면 퍽 재미가 날것 같았다.

아버지 머리말에는 곱게 삼은 짚신이 두켤레 놓여있다. 그걸 보고서야 업순이는 오늘 잠이 깬 뒤로 처음 오늘이 그리로 가는 날인것을 생각했다. 허니까 어제도 그렇잖았고 그저께, 그그저께도 그렇잖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언짢은것까지 없지만) 가슴이 조곰 울렁거리는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어저께나 그저께처럼 몸이 둥둥 뜨는것 같기도 하고…

마당에서는 네눈이가 꼬리를 홰홰 치면서 웃고섰다가 업순이가 마당으로 내려서니까 요놈이 좋아라고 가로 뛰고 세로 뛰고 한다.

돼지도 발자국소리부터 알아듣고 끼익끽 지르던 소리를 그치고서 꿀꿀꿀 알은체를 한다.

둥주리문을 열기가 바쁘게 닭들이 후르륵 후덕 날아내려온다.

죽죽 뻗어올라간 소나무틈으로 내다보이는 저어 멀리 들판건너 하

늘과 땅이 닿은 끝에서 불그레하니 해살이 퍼져오른다. 업순이는 그쪽을 바라보고 섰다가 저도 모르게 듬신 숨을 들여쉰다.

마침 구장이 사립문밖에서 얼찐거리다가 업순이를 보더니 턱을 쑤욱 내밀면서 말한다.

《조반 일찍 먹구 말끔 다아 채리구서 기대려라, 응? 늦으면 못쓴다, 응? 이따가 내가 데릴러 오마, 응?》

남은 대답할 겨를도 없이 제 말만 부리나케 늘어놓고는 인해 또 부리나케 달아나버린다.

해는 차차 솟아올라 살이 퍼져 동화는 끝이 나고 업순이가 그리로 떠날 시각이 가까와온다.

병이 낫거든

(《동화》의 후편으로)

1

성하지 못한 몸이라 업순이는 가을 새벽의 쌀쌀한 바깥바람기가 소스라치게 싫어 연해 어깨와 몸을 움츠린다.

콜룩콜룩 기침이 나오고.

가방이 하찮은것 같더니 (그도 원기가 쇠한탓이겠지만) 들고 걷기에 무척 힘이 부쳤다.

휑하니 빈 공장마당엔 이편짝 창고앞으로 간밤에 짐을 냈는지 미처 쓸지 않은채 뽀오얗게 된서리가 앉은 새끼토막이 랑자히 널려있다. 그 차거운 서리발이 가뜩이나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듯 업순이는 얼른 외면을 한다. 외면하는 눈바로는 저만침 나란히 선 쌍굴뚝에서 시꺼먼 연기가 뭉클뭉클 소담스럽게 솟아올라 불현듯 푸근한 공장안이 생각킨다.

시방 공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업순이는 한량없이 언짢은 마음이다.

병이 나서 얼마동안 공장의 전속 의사한테 약도 먹고 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좀처럼 차도가 없었다.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니 집생각이 여느때보다도 더 간절하고.

이래저래 집으로나 가보는것밖에 없었다. 흔히 있는 일이다. 데려다주느라고 같이 가는 공장 인사계의 장선생님은 황새같은 긴 다리로 성큼성큼 앞장을 서서 정문을 향해 걸어나가고있다.

기운은 허한데 업순이는 만만치 않은 짐까지 한손에 들고 그뒤를 따르자니 자꾸만 아래도리가 휘뚝거리고 발길이 제대로 떼여지질 않았다.

팔은 사뭇 늘어나고 누가 좀 들어다주었으면 절을 열번이라도 할것

같았다. 이렇게 하고 30분을 잘 걷는 정거장까지 나갈 일이 그만 기가 질려 못하겠었다.

그나 그뿐인가. 차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가는 10리길은 어떻게 하고. 이런줄 알았으면 진작 어제쯤 아버지더러 여기로 좀 와주시라고 전보라도 칠것을 차 삯이야 돈은 얼마간 들드래도 차라리 그랬드라면 더 좋았을것을 어머니나 아버지는 언문도 모르는 이들이라지마는 그렇기로 동네서 전보 한장 보아줄 사람이 없지는 않을텐데.

이런 후회도 하면서 넓은 마당을 다 지나 막 철문을 나서다가 그제서야 (무엇이 깨우쳐준듯) 주춤하고 고개를 돌이키며 휘이 한바퀴 공장울안을 둘러본다.

마침 5호동의 2층에서 동무들이 서넛이나 한데 얽히여 열린 유리창으로 내다보고있다가 일시에 손수건이랑 손을 흔들어준다. 그렇게 하고들 기다리고있었음이리라.

그러고 그들은 저마다

《업순아, 잘 가거라— 응?》

《잘 가거라, 업순아?》

《얼른 낫어가지구 또 오너라! 응?》

이렇게 소리소리 웨치며 당부들 했을것이언만 작업중이라 반장이 알아듣고 쫓아와서 지청구를 할가봐서 소리는 지르지 못하고 안타까이 손수건이랑 손만 흔들어 쌓던것이다.

업순이는 와락 목안에서까지

(잘들 있거라!)

(울네야, 잘 있어. 응?)

하고 웨쳐지는것을 역시 동무들을 위해 조심히 되여 꿀꺽 소리를 삼키고 손만 자꾸 흔들면서 수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면서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가득 고이고.

드디여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이 된 닷새전 그날부터 그리고 어제 밤에도 마지막 아까 식당에서도 동무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며 작별의 말을 나눌적마다 번번이 나오려고 하는것을 참고 참고 하던 눈물이였다.

외롭고 고달픈 때나 더러는 재미있고 즐거운 때나 항상 같이 어울리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놀며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며 하던 그 여러

동무들과 훌훌히 헤여지게 되고보니, 그야 응당 섭섭할노릇이였다. 일변 이러네저러네 해도 그새 벌써 1년 넘겨 이태가까이 이곳 공장에서 하루같이 일을 하며 몸을 담그고 지나오는 동안 (가지가지 괴롭고 야속턴 말이야 이루 다 할수 없는것이지만 그런 반면) 정도 들만치 들고 한터이니 연한 마음이겠다 일조에 떠나가기가 작히 또한 섭섭할노릇이였다.

허나 지금 업순이는 그와 같은 단순한 인정말고도 오늘날 이곳을 그만두고 돌아가는 마당에 림하여 따로이 마음 자못 답답할 곡절이 없지가 않았다.

가난스런 포부였으나마 깜냥엔 크고 즐거운 희망이 있었다. 그것이 세월은 절반도 더 보내고도 뜻한바는 10분의 1도 채 이루지 못했다. 부질없는 병만 얻어가지고.

그리하여 헛되이 이렇게 중도에 작파를 하고서 물러가고말다니. 차마 애달프고 원통한 일이였다.

남이 누가 회살이라도 논것인듯. 그러나 어데다 대고 호소할 곳 없는 막막함이였다. 안타깝고 슬픈 나머지 눈물밖에 날것이 없었다.

물론 주소(밤낮)로 그리워하며 가고싶던 어머니, 아버지한테요, 그래서 즐겨 돌아가는노릇이니 기쁨이 한편으로 솟지 않는것은 아니였다. 더우기 병이 아주 기울어져서 몸져눕기 전에 한동안 그 죽기보다도 하기 싫던 일, 그리하여 진저리가 나는 이곳 공장을 그만두고 마침내 편안하고 걱정없는 우리 집으로 가는 날을 당했으니 무어라 말할수없이 개운스럽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것은 아니였다. 하지만 그건 그것이고 이건 또 이것이였다. 하기 싫던 일과 심신의 지극한 고달픔에서 해방되여 자유로이 우리 집과 어머니, 아버지의 알뜰한 품으로 달려가기가 비록 기쁘고 후련하여 좋다 할지라도 동무들이며 직장과 서로 들었던 정은 역시 정이였다. 하물며 뜻아닌 병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꺾이우고서 속절없이 이렇게 추레한 모양으로 그곳을 물러가야 한다는것은 아모리하여도 지워질수 없는 한이요 미련이였다.

어떤 무엇으로도 수월히 메꿀수 없는 공허이였다. 흡사 시련과도 같은.

2

업순이는 눈물을 건사하지 못해 강잉하게 고개를 돌리며 한걸음 공장문을 나서는데 이윽고 그때에 아침해가 뜨는것이 보였다. 질펀히 펴져나간 먼 벌판 저끝으로 아스라한 산봉우리에서 광채 없는 해조각이 비죽이 삐여지고있었다. 해가 솟는것을 보고 업순이는 문뜩 《그날 아침…》때의 생각이 났다. 작년 여름 이곳으로 떠나오던 그날 아침, 그때도 막 저렇게 해가 뜨고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퍽도 건강하고 명랑한 아침이였다. 싱싱한 여름의 아침해였었다. 저렇게 황량한 가을 아침의 쓸쓸한 해는 아니였다. 하물며 해를 대하는 업순이는 마음이나 몸이나 그때와는 지금이 볼상아니로 시들었다.

그날 아침.

희읍스름 먼동이 트면서 엷은 안개가 땅우에 내려앉아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하는 새벽이였다.

나무잎마다 번지르르하게 이슬이 묻고 풀끝에도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맺히고 마당도 이슬에 젖어 촉촉하다.

참새가 서너마리 지붕말랭이에서 짖어거리고 둥주리에서 닭이 조바심을 치는가 하면 돼지울에서는 돼지가 시장하다고 떼를 쓰고…

맨 먼저 업순이가 모기장 붙인 안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다. 자고난 눈인가싶지 않게 윤기있고 맑은 눈이였다.

마루에서는 아버지가 아직 잠이 들어있었다. 업순이는 조심조심 비끼며 나오다가말고 문득 그대로 멈춰서면서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반나마 흰 머리털과 머리보다 더 흰 수염이 이날 아침따라 새삼스럽게 업순이의 눈에 뜨이는것 같았다. 그는 아버지가 밤새 이렇게 늙은상만싶어 처음 보는것같이 머리털이랑 수염이 다시금 들여다보여졌다.

수염을 그렇게 들여다보고있노라니까 어렸을 때 제가 했다는 이야

기가 생각이 났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업순이 제가 어려서 일쑤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엉금엉금 기여가서는 수염을 잡아 끄들기, 아버지가 안아줄 때도 자꾸만 수염을 잡아나꾸고 그럴라치면 아버지는 《허어, 이놈의 딸년이 아범 수염을…》 하면서 허겁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했드라고.

업순이는 그런 생각을 하던 끝에 불시로 지금 도로 그런 어린애가 되여서 그때처럼 저 수염을 좀 잡아당기면 무척 재미가 있을것 같았다. 그리다간 그만 우스워서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아버지의 머리맡에는 삼은 짚신이 두켤레 놓여있었다.

《정거장까지 10리나 걸어나가려면 고무신은 아무래도 발이 아프니라.》 그러면서 간밤에 마당에 앉아 공력을 들여 삼고있던 짚신이였다. 짚신을 보고 업순이는 그날 아침 잠이 깨인 뒤로 처음 비로소 오늘이 그리로 떠나는 날인것을 깨달았다. 조금 가슴이 울렁거렸다.

어제도 그렇지 않았고 그저께도, 그그저께도 그렇지 않았는데 언짢은것까지는 아니여도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울렁거리려고 했다. 어제나 그저께, 그그저께와 일반으로 몸이 둥둥 뜨는것처럼 기쁘둥하기는 하면서도.

토방밑에서는 네눈이가 꼬리를 치면서 웃고섰다가 업순이가 마당으로 내려오자 요놈이 좋아라고 가로 뛰고 세로 뛰고 해쌓고.

돼지는 발자국소리부터 알아듣고 끼익끼익 지르던 소리를 그치고서 꿀꿀꿀 알은체를 하고. 둥주리문을 열어주기가 바쁘게 닭들은 앞을 다투어 후르륵 후르륵 뛰여내려오고.

그때였다.

죽죽 뻗어올라간 소나무줄기 틈으로 내다보이는 저어 멀리 들판건너 하늘과 땅이 맞닿은 끝에서 불그레하니 해살이 퍼지면서 인하여 시뻘건 해덩이가 솟아오르고있었다. 업순이는 그쪽을 바라보고 섰다가 저도 모르게 듬쑥 숨을 들여쉬였다.

이렇게 평화스럽고 유쾌한 아침이요 그 뜨는 싱싱한 해였었다. 모두가 잘 손질을 한듯 살뜰하고 구김살 하나도 없는 아침이였다.

업순이는 그리고 젖 배불리 먹고 엎치락뒤치락 놀고있는 애기처럼

아무 조심도 불안도 없이 편안하고 만족한 마음일수 있는 동화의 세계요, 그 아침이 있었다.

그때의 업순이는 신체도 마음도 한가지로 충실했었다.

허기야 업순이는 그대지 실팍(보기에 매우 실한)한 태생은 아니였다. 목이 길고 가늘고 가슴이 좁고 눈이 크고 살결이 무르고 식성이 고르지 않아 편식을 하고, 이런 소위 선병질(선병의 경향이 있는 약한 체질)이였다. 그런데다가 공기좋은 농촌에서 나서 농촌에서만 자랐기때문에 가령 호흡기계통의 질병에는 매우 저항력이 약한, 따라서 도회지의 공기가 적당치 못한 체질이였다.

허나 그렇다고 무슨 몸이 어디가 고장이 있거나 한것은 아니였다. 실하지만 못할뿐이지 병은 없었다.

한참 피여날 열일곱살배기의 시악씨로 결코 빈약치 않은 몸집이였다. 얼굴에도 손발에도 고루 잘 살이 올라 부얼부얼하니 차라리 탐스럽게 생겼다 할 편이였다. 혈색도 좋았다.

두루 이렇게 마음도 신체도 온전하고 흠결없는 업순이였다. 그의 세계와 생활은 화려하거나 가멸(재산이 많고 넉넉함.)치는 못할지언정 밝고 편안하였다. 야심과 비약이 없는 대신 이즈러진 자리가 없고 착실하였다. 건강하기가 그날 아침 동천에 뜬 해와 같고 앞날이 즐겁던 업순이였다.

그러나 지금의 업순이는 얼마나 가엾이도 마음과 몸이 한가지로 바스라지고말았음인고.

살은 야위고 피기는 없어 핼쓱하고. 그렇게 피기가 없고 야윈 얼굴이라 본시도 크던 눈이 눈만 한결 더 크고.

목은 참으로 볼수 없게 실낱처럼 길고 가늘고, 가슴이 좁고 눈이 크고 살결이 거칠고, 완연 그리하여 잎이 다 떨어진 나무가장귀와 같은 앙상한 형용이였다.

우물에서 물 한동이를 허깨비 들듯 하던 기운은 죄다 어디로 가고 과히 무겁지도 않은 가방 하나를 못이겨서 하마 비적거리지를 않는가.

항용 열이 높고 진행이 급격한 가령 티브스종류의 대병을 앓고났거나 혹은 오래동안 난치의 중병을 현재 앓고 누웠거나 한 사람에게서만 볼수 있는 그런 쇠약이였다.

그러나 업순이는 (적어도 업순이 스스로 생각엔) 그런 대병이나 중병을 앓은 일은 없었다.

차라리 병다운 병도 아니거니싶을만치 약간의 가벼운 증상이 다만 꾸준히 계속되고있을뿐이였다.

시초는 지난 5월 그무렵이였다.

우연한 감기로 이틀인가 앓고났는데 그뒤로부터 늘 오후가 되면 몸이 찌뿌둥하니 좋지가 않으면서 오싹오싹 춥고 했다. 밭은 기침이 나고 검누른 가래가 성하고 도한(식은땀)이 심하여 새벽에 잠이 깨서 보면 요바닥이 축축하도록 젖군 했다.

감기가 채 낫지 않아서 그런가보다고 했으나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고해도 종시 그 대중이였다. 그러면서 일변 구미가 떨어져서 통밥이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는 사죽이 나른하여 맥이 없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늘 자리만 보이고.

여름을 타는가 했다.

혹시 체증이 생겼나도 했다.

또 동무들가운데 여럿이 그러하듯이 수종다리(병으로 인하여 퉁퉁하게 부은 다리)의 시초인가도 했다.

아니 그런게아니라 반장 말대로 물이 맞지 않는가보다고 했다. 동무들도 대개 그런 의견이였다. 모두가 그럴듯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렇지 않기도 했다. 물이 어째서 처음은 아무렇지도 않다가 열달이나 지나서야 새차비로 안 맞다니?

혹시 그런 수도 있는지? 수종다리— 각기는 다리가 팅팅 붓고 하는데 도리여 마르질 않는가.

하기야 붓지 않고 마르는 각기도 있다군 하지만 다른 증세가 무얼로 보나 각기는 아니였다. 보아도 숱한 각기 앓는 동무들가운데 업순이 저처럼 몹시 지치는 아이는 없었다.

구미가 없어서 밥이 먹히지 않을따름이지 위장에 이상이 있는것 같지가 않았다. 가슴이 거북하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한줄은 몰랐다. 그러나 체증은 아니기가 쉬웠다.

집에서는 여름을(여름이고 봄이고) 탄적이 없었다. 한것을 시방 새삼스럽게 여름을 타고 말고 하다니, 모를 말이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름을 타서 몸이 파리하고 원기가 없고한것 하고는 역시 증세가 너무 과했다. 하물며 찬바람이 난 가을이야.

좌우간 이렇게 극히 하찮은 몇가지의 증상이였다. 그리고 그뿐이였다. 그밖엔 몸이 어디가 한군데라도 두드러지게 아프다거나 쑤시고 결린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그래도 굳이 아픈 곳을 찾아내란다면 왼편 젖가슴우가 속으로 조금 그저 이상하다고 할가, 허지만 벼룩이 문것만도 못할걸, 아프단 말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어디가 아프지도 않고 오후면 오한이나 나고 기침을 하고 구미가 없어서 먹지를 못하고 원기가 부치고, 이쯤 대수롭지 않은 증상인데 그러나 몸은 놀라울만치 그리고 급속히 수척하여갔다. 그러면서 끊칠줄을 몰랐다.

만일 직장의 동무들이나 반장이든지 또는 부모가 옆에 있고 그 부모든지 누가 되였건 호흡기계통의 질병에 대한 일반 상식적인 지식이나 혹은 경험을 가진것이 있었다면 첩경 짐작을 했을는지도 모른다.

경미(극히 작고 대수롭지 않음.)하나 폐에 동통이 있고 미열이 계속되면서 기침과 담과 도한이 있고 식욕이 없고 그리고 전신적으로 심한 수척이 오고 그런데 환자는 선병질의 체질로서 농촌에서 나서 농촌에서 자라다가 불시에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여 집단생활을 하는 도회지의 공장으로 왔었고.

이만하면 십중팔구는 그 경미한 동통이 있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폐가 상당히 진행된 결핵의 증상이기에 우선 충분한 자료일수가 있는것이였다.

그러나 업순이자신은 물론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 그런 방면의 지식이랄지 경험이 없었었다.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거나 알아챌바 없었다.

5월말부터 그렇게 발병되여가지고 시름시름하면서 아무리나 여름은 그런대로 다녔다.

9월로 접어들면서는 자주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루고 이틀이고 누웠다간 또 일어나서 일을 했

다. 그만 못견디겠는것을 억지로 일어나서 억지로 일을 했다. 돈 400원을 어서어서 그 돈 400원을 모아야 하겠어서…

처음 겸 마지막으로 딸 하나를 낳았더니 생긴게 또 북실북실하대서 산신님이 업을 점지해주셨다고 그래 업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다.

업순이는 자라서 나이 열일곱이였다. 그러니 옛날세상 같았으면 벌써 시집을 갔을테고 웬만하면 그새 첫애기라도 낳았을테지만 아직 귀밑머리를 딴 처녀였다. 그렇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투철한 개화를 한것도 아니요 갈데 없는 무식군이고 가난한 농투성이기는 하지만 일찌감치 남의 집 민며느리라도 주자니 자식이라고는 그것 하나뿐인걸 그럴 법이 없기도 하려니와 더우기 남의 집 민며느리란 팔자가 빤히 들여다보이는것인데 차마 눈 멀뚱멀뚱 뜨고서 그 고생길로 몰아넣다니 그건 생의도 못할노릇이였다.

그러니 그러구저러구 할게 아니라 에미, 애비는 개명을 못했을망정 시체속으로 어디 네나 그 개명을 좀 해보라고 집안 사세부치는것도 상관않고 읍내의 보통학교에 들여보내서 여섯해동안 학교공부를 시켰다.

허나 막상 그렇게 학교공부를 시켜놓고보아도 이렇다할 무슨 수는 없고 촌 농투성이의 계집애자식이였지 별것이 아니였다.

자, 그러고보니 인제는 동네 더벅머리총각이나마 데릴사위라도 정하잔즉 실없이 눈에 차지가 않고 그렇다고 자격자를 골라서 혼인을 하잔즉 짜장 지체도 없으려니와 가랭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터수에 도무지 가량없는 소망이고해서 일이 대단 허무하고도 맹랑하게쯤 되였었다.

《개명두 다아 구격이 맞구서야 하는 법야!》

《그렇다우!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구 안허우?》

가끔 두 내외가 마주앉으면 어이가 없어서 막막히 뇌이는 말이였다. 그러나 한갖 시속이 그렇고 남들도 계집애자식을 그냥 두어둔다고 숭하지 않는것만 다행히 여기고 한동안 그대로 저대로 두고 보아오기는 왔었다.

그러던 계제에 진주감영의 비단짜는 공장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구장을 앞장세워가지고 이집저집 계집아이 있는 집을 적간하고 다니면

서 직공을 뽑는 설레에 업순네도 얼른 응하고 나섰다.

업순이야 집에서도 더러 명주도 낳아보고 했겠다 보냄직도 하고 그래 그렇게 가서 있으면 월급이라드냐 25원이니, 30원이니 받고 한다니까 한 이태만 모아도 제 시집갈 밑천은 존존할터이였다.

그때는 무서운 가뭄으로 큰 흉년이 든 바로 그 이듬해 여름이였다. 그러니 흉년끝에 집에다가 잡아 매두고 펀펀 굶기느니보담 그런데라도 보내서 제 목구멍 하나 건사하게 하드래도 또한 어디며 이렇게 두루두루 하염직한 그리고 다행스런 거리여서 선뜻 그렇게 작정을 한노릇이였다.

허기야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더구나 과년한 계집애자식인걸 낯선 타관으로 혼자 떠나보내기가 부질없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하지 않은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그들은 짐짓

(어, 어쩔라구!)

(한 1～2년 잠간인걸…)

(남들도 다아 보내고 한다니, 쯧…)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둑거리며 안심을 삼고 파단을 내리지 않을만치 형편이 각다분한데다가 일변 계제가 좋고 무던했었다.

업순이 저도 좋아했다.

비단을 입어보지 못하는 촌계집아이로 가령 입지는 못할망정이라도 제 손으로 비단을 짠다는것, 그것 한가지만 해도 업순이한테는 우선 즐거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깨끗하고 눈같이 정한 하얀 비단, 눈이 부실 진자주비단, 시원스런 초록비단, 첫봄머리의 개나리꽃같이 반가운 비단, 진달래꽃같이 이쁜 비단, 아주 작정이 되여 그 이야기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듣고나서부터 업순이는 날마다 그런 여러가지 좋은 비단을 피륙으로 혹은 말라논 옷감으로 다루고있는 꿈아닌 꿈을 얼마나 즐기고 했던고.

이런 꿈도 즐거웠거니와 그러나 업순이는 현실적으로 산술이 대단히 착실했었다.

처음 6달동안 견습을 마치고나면 그 다음날부터는 한달에 적어도 25원씩은 벌이가 된다고 하나 25원에서 기숙사 밥값 7원 50전을

제하면 17원 50전이 남는다. 그 17원 50전에서 2원 50전만 용돈을 쓰고 5원을 집으로 보내고 나머지 10원은 꼬박꼬박 저금을 한다. 그렇게 하기를 3년만 두고 한다치면 3백 60원, 오래 있으면 일급이 차차로 오른다니까 3년동안에 400원은 되였다. 그 400원이 차거들랑 그때에는 한뭇 죄다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버지는 큰 소를 한마리 사드리고 어머니는 양돈 결귀 한마리를 사드리고 집안 빚을 갚아드리고 그러고서 한 100원 남는것으로는 시집갈 밑천을 하고 대체 시집이란게 무엇하는것인지 알수도 없고 당장 그다지 가고싶은 생각은 없고 하기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노상 그런 걱정이요 또 남들도 다아 가는 시집이요 하니 나도 가기는 가야 할테고 그러니 그 끈터거리로 그 마련도 하는것이 마땅하고 또 그담에야 집안형세가 달리는 변동이 없고.

이렇듯 업순이는 예산과 포부가 자못 알뜰스러웠다. 깊기로도 령감처럼 의젓한 궁냥이였다. 그러고 그 성취를 믿었었다.

지극히 겸손하고도 솔직한 설계였다. 결코 분에 넘치거나 부당한 욕심이 아니였다.

어디까지도 떳떳할지언정 조금이라도 억지와 무리가 없었다. 따라서 성취될수가 있는것이고 응당히 성취되여야 할것이였다. 성취를 믿는것도 공상은 아니였다.

진실로 가장 이 세상에서 몰인정한 사람일지라도, 몹쓸 악인일지라도 업순이의 요맛 겸손하고 가난한 야심을 가져다 트집을 잡아 시비를 하며 방해놀 사람은 없을것이다. (소설가라고 하는 천하의 잔인하고도 악착스럽고도 박절하고도 랭혹하고도 가지가지로 그 죄많은 사람은 말고서는…)

업순이의 목적한바 400원 저축의 3개년 계획은 채울만큼 그대로 순조로이 진행되는상 하기도 하였다.

지나간 1월까지의 무사히 견습을 마치고 3월부터는 봉조직공으로 옹근월급을 받았다. 하루 85전씩 3월 한달에 스무아흐레동안 일을 했고 수입이 도합 24원 65전이였다.

그 24원 65전 수입의 지출래력은 다음과 같다.

1. 7원 75전…기숙사 식비
2. 10원…저금
3. 5원…집에 보내고
4. 1원 90전…잡비

다음달인 4월에도 수입 총액과 지출가운데 다른 항목에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10원을 저금한것과 5원을 집으로 보낸것에는 다름이 없었다. 6월에는 임금이 5전이 올랐다. 생일처럼 뛰고 기뻤다. 10원에 1원을 더하여 11원을 저금할수 있었다.

저금은 처음에 마음먹었던대로 다달이 10원씩 늘어가고 일찌감치 승급이 되여 단 1원이라도 더 저금을 하고 병은 병이 나기는 하였지만 아직 병답지도 않아 심상히 여겼을뿐아니라 그다지 부대끼는 줄도 몰랐고 해서 아무튼 6월까지는 일이 순조로운셈이였다.

7월, 8월 그리고 9월까지도 억지를 써가며 앓으면 말면 일을 감당해 벌었다.

그리면서 저금도 41원이 52원으로, 62원으로, 62원이 73원으로 이렇게 달마다 10원 혹은 11원씩 불어갔었다.

앓느라고 빠지는 날이 생기고 하여 수입은 그만치 줄었지만 그대신 잡비를 더얼 쓰고서 여전히 저금은 10원을 채우군 하였다.

순전한 강단이였다. 몸에 대해서는 무서운 자살행위였었다.

(일을 해야지.)

(어서 바삐 400원을 채워야지!)

(아프다구 누워만 있으면 어떻거자구!)

(벌진 못하구 기숙사 밥값만 축내서야 제숫말 제갈기 굶아먹기지!)

(일을 해서 벌이를 해야지!)

이렇듯 저를 채찍질하며 이를 아그려물고 직장엘 나갔다. 죽기보다도 일하기가 싫었으나 그래도 매달려선 놓지 않았다. 방금 쓰러지려고 하는것을 그래도 참고 견디였다. 그런 때는 《콩쥐팥쥐》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괜히 설음이 북받치기도 했다. 강단과 억지도 그러나 한정이 있었다.

10월후부터는 아주 몸져 눕고말았다. 그러면서 몸은 그제는 영영 아주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래일은 좀 일어나보려나. …)

그 다음날 또

(래일은 부디 일어나려니…)

또 그 다음날

(래일은 기어코 일어나려니…)

연방 이렇게 래일은, 래일은, 하는 동안에 10월 하반의 보름이 건듯 넘어갔다.

그리고 계속하여 동지달 선보름을 종시 꼼짝 못하고 병석에서 보내며 마침내 오늘에 이르렀던것이다.

그새 이틀 걸려끔씩 공장 전속의 병원엘 나아가 증세를 보이며 줄곧 약을 타다먹고 하기는 했었다.

한달 잠간이나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아무런 동정이 보이지 않는데야 다시한번 생각할 문제였다.

(언제까지든 예서 이렇게하고 누워있을것인가? 어떡허자고…)

도저히 부질없는노릇이였다.

이때에 비로소 누르고 눌렀던 집 가고싶은 생각이 기회를 타서 걷잡을수없이 솟구쳐올랐다.

그러면서도 선듯

(집으로 가자!)

하는 결단은 나지지 않았다. 가고도 싶고 가지 말고도 싶고 반반이였다.

드디여 닷새전.

마침 아버지한테서 편지도 오고 한 날이였다.

몸이 편치 않아서 며칠째 누워있다고만 간단히 기별을 했는데 성화같은 걱정의 회답이 왔었다.

객지에서 병이 나서 앓고 누웠다니 될 말이냐? 즉시 집으로 돌아와 조섭을 하도록 하라, 이 편지끝에 소식이 없으면 더 기다리지 않고 데릴러 가겠노라고.

업순이는 일부러 병원엘 나와서 의사더러 집으로 나가서 있어보면 어떨거냐고 물어보았다.

《응…》

의사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하였다.
《그게 좋겠지.》
그러고는 조금만에 다시 말하였다.
《집으로 가서 있두룩 하라구.》
《집에 가있으면 쉬 나을가요?》
《으음…》
의사는 모호히 침음(깊이 생각함.)을 하는듯 하다가 곧 선선히
《낫구말구, 집이 촌이지?》 하고 물었다.
《얘, 얘.》
《촌은 공기두 좋구 하니까…》
《약을 먹어야 안하여요?》
《약두 약이지만 으응, 좋은 음식을 먹구… 고기 같은것, 또오 닭알이랑 우유, 우윤 촌에 없을테니깐, 그리구 저어 간율 사다 두구서 매일 먹으라구, 간유…》
《간유…요?》
《간유라구 양약국에서 파는게 있어. 그거허구 약두 몇가지 적어주께시니… 그리구 운동을 하지 말구 편안히 누웠수, 응?》
《밤낮 누워있으라구요?》
《응…》
《…》
《어때? 집이 과히 어렵지 않나?》
《안 어려면야 무엇하러 이런 공장으로…》
《으음…》
《병은 그런데 무슨 병이라우?》
그동안 루차 묻던 말이였다. 그럴적마다 의사의 대답은 진진치가 못하였다. 이날도 역시 그러하였다.
《뭐, 거저 몸이 약해서…》
《병은 없는디라우?…》
《허허! 세상에 사람치고 병이 한가지도 없는 사람이 있나?》
환자를 대하여 번연히 이런 싱거운 말로써 곤경을 얼버무려넘기지 않을수 없는 의사된 립장도 매우 동정스러운것이 아닐수 없었다.

업순이는 그리하여 종시 제 병이 어떠한 래력인지 알지 못하고말았다. 오히려 다행일는지 모른다. 적어도 더한 불행은 아닐는지도 모른다.

업순이는 저금을 공장에서 해준 의무저금까지 죄다 찾은것이 73원하고 80전이였다. 동지달치의 밥값을 그중에서 물어야 된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제몫으로 이것저것해서 한 10원어치 옷감을 끊었다. 돈을 생각하면 차마 아까와서 못하겠어도 늘 마음에 있던것이라 또 당장 요긴도 하여 눈 꾹 감고 그렇게 했다.

어머니를 위해 6원 20전이나 하는 목도리를 샀다. 새까만 윤이 치르르한 우단으로 만든 겨울목도리인데 그것이 초가을부터 매점에 내걸렸을 때

(저걸 어머니를 하나 사다 드렸으면!)

(얼마나 뜨뜻해서 좋을가! 퍽도 기뻐하실걸!)

이렇게 생각이 간절하던 그 목도리였다. 그뒤로도 혹시 매점엘 나가면 의례히 그리로 눈이 가며 같은 생각이 나던 그 목도리였다. 이왕이니 저도 하나 사서 둘렀으면 하고 몇번 망설이다가 그만두었다.

그보다는 어머니몫을 사고나니 아버지가 섭섭했다. 샤쯔를 그래서 5원 40전짜리로 하나를 샀다. 그러고는 도망하듯 얼른 매점을 나와버렸다.

어쩌면 그렇게도 사고싶은것이 많은지 새빨간 면샤쯔도 사고싶었다. 동무아이들은 거지반 사서 벌써 입고다니는 우아래매기가 한데 달린 새빨간 샤쯔였다. 값은 자그만치 9원 80전, 크리임도 한병 사고싶었다. 크리임은 못 사드래도 비누라도 두어개 사가지고 갔으면 싶었다. 크리임이나 비누 같은것은 쓸데없는 호사감이 되지만 목긴 양말이라도 새걸 한컬레 사신고 갔으면 싶었다. 양말은 그러나 이젠 집으로 가면 버선을 신을텐데 새걸 사면 무얼 할고마는 이쁘장한 거울, 그건 하나 샀으면 꼭 좋겠었다. 빗도 한개 사고싶었다.

파아란 알을 박은 반지도 사고싶었다. 머리에 꽂을 핀도 사고싶었다. 모두 사고픈대로 사자면 수중에 있는 돈을 죄다 쓰고도 모자랄것 같았다.

그러나 꼭 한가지 정말 못 잊히는건 그 가방이였다.

진짜 가죽은 아니라도 가죽처럼 생기고 빛갈이 파르스름하니 이쁜 가방이였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중결로 마침 알맞은.

동무아이들은 첫달 월급을 받기가 무섭게 너두나두 저마다 그 가방을 하나씩들 사서 가졌다.

사서 두어두고는 손그릇으로 쓰고 했다. 업순이는 그것이 하도 내켜 못했다. 집에다 가져다놓았으면 더욱 재미있고 보배로울것 같았다. 뭐 옷걸이나 자개장을 놓고 쓰는것처럼 좋고 자랑스러울것 같았다. 월급을 탈 때마다 곧 매점으로 가서 사고싶었다. 그러나 저금을 걸러서는 안될 일이여서 인제 집으로 돌아갈 때나 부디 사가지고 가려니 했었다.

그러지 않아도 푸달진 돈이 스설사설 줄어드는것이 가슴이 아파서 단념을 하고 매점으로부터 얼른 나와버리긴 했으나 눈에 자꾸만 밟히고 차마 걸음이 걸어지질 않았다. 주춤주춤하다가 매점으로 되들어갔다. 지금 사지 못하면 앞으로야 돈을 가지고 쓸 일도, 대처에 올 일도 없은걸, 그러니 눈 질끈 감고 사자, 이런 강단이였다.

그러나 막상 물건앞에 서서는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할뿐 와락 추켜들지를 못하였다.

매점사람이 그 눈치를 채고는 빈들빈들 웃으면서

《하나 사지 그래?》

하고 충동이를 놓는것이였다.

《값이 하두 많아서!》

《많긴 무어가 많아? 그게 잠겨있던것이 돼서 그렇지 새루 들어온것으루 사자믄 10원두 넘겨먹어요. 물건두 그만 못하구…》

《…》

《못하나마나 이젠 물건이 없는걸! 주문한지가 두어달이 돼두 오질 안해요. … 아마 만들질 않나봐!》

물건이 없단 소리는 정녕코 업순이에게 위협이 되였다. 마침내 9원 20전의 대금을 던져 그 굉장한 가방을 사고라야말았다. 주먹이 뭉텅 들어갔으나 기쁨도 어지간했다.

그 가방에다가 아버지의 샤쯔 한벌과 어머니의 목도리 하나와 한 10원어치 옷감과 그리고 그새 입던 헌옷가지를 넣어가지고 업순이는 지

금 집으로 돌아가는 참이였다.

돈은 그럭저럭 한것이 30원도 더 썼다. 10원짜리 넉장을 싸고 싸서 속치마끈에 단단히 웅채였다. 따로 잔돈이 2원 30전 남았을뿐이였다.

그러나 10원 한장은 다시 헐어야 했다. 차표를 사야 했고 또 과자라도 조금하고 고기는 부디 한근 사서 들고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하고나면 2원각수는 또 없어지고 돈은 도통해서 40원도 채 남지 못했다.

결국 업순이가 애초에 마음먹었던 400원의 10분의 1도 차지 못하는 돈이다. 돈액수가 10분의 1은 된대서 계획이 10분의 1이나마 성취가 된것은 아니다. 있으나마나한 돈이요 희망은 그러므로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만것이다. 그리고서 1년반동안 그야말로 목구멍은 얻어먹은것이 있고 올 3월부터 9월까지 다달이 5원씩 송금한것이 있고 하고는 그 주체스런 40원미만의 돈과 눈속임의 트렁크 하나다. 샤쯔 한벌과 무명비로도목도리 하나와 인견 등속의 옷감 몇벌과 이렇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것이다. 미련과 락망으로 통곡이라도 하고 싶게 안타깝고 어두운 마음을 안고서 말이다.

참으로 업순이가 지금 제 병이 어떠한 병인줄을 안다면…

소위 사형을 선고받았음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끔직한터인줄을 안다면… 현대의학의 가장 정수를 다하고 돈을 얼마든지 들이고 해도 열에 둘이나 셋이 살아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인줄을 안다면…

약간 슬프고 마음이 어둡고가 무어랴.

사뭇 기절을 않으랴.

3

누가 밥먹는것이 속이 거북하다 하면 자팔깨도 놓아주고 떠빼침으로 종기도 국국 찌르고서 시꺼먼 고약에다가 불그름한 약가루를 뿌려서 붙여주고 천연스럽게 맥을 짚어보고는 몇첩씩 약도 쓰고 한다치면 일쑤 낫기도 하고 못 낫기도 일쑤 못 낫고 그래서 3분의 용하다 소

리와 7분의 시원찮다 소리를 섞어들으며 아무러나 의원노릇을 하느라고 하는 소위 무면허 의생인 김생원 혹은 박생원이 웬만한 촌락이라치면 무당과 점쟁이와 상여집 등으로 더불어 의례껀 하나씩은 있는 법이다.

그런 한사람인 등너머 강생원을 모셔다가 막 시방 업순이의 진맥을 하고난 참이였다.

업순이가 집으로 온지 사흘째 되는 아침의 첫새벽이고 맥은 자고나서 기동하기 전에 보아야 하는 (이건 정말) 법이기때문이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밤 업순 아버지가 강생원을 청하러 갔을 때 증세가 이러저러하고 이러저러하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했던건 물론이다.

업순 어머니는 내우를 하느라고 웃방으로 피해 귀만 기울이고있고 업순 아버지는 넌지시 웃목으로 무릎을 짝지를 껴서안고 앉았고.

진맥이 끝나자 업순이는 바시시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모로 비스듬히 돌아앉고.

강생원은 업순이에게서 물러나더니 업순 아버지를 건너다보면서 썩 수월히

《수토불복이여!…》하였다.

그러고는 이어서 주를 낸다.

《물이 안 맞었어! 물이.》

《워너니, 나두 짐작이 그런것 같습디다! 그런것 같어여!》

업순 아버지는 연해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꾸하였다.

《거, 전주란 땅이 자고로 물이 고약하거던!》

《편안히 보냈나싶어서 발등을 찍구 싶구만이라우! 게 그런데여… 저녁에면 오한이 나구 기침을 허구 그 빌미꺼라우.》

《그건 강기가 쇤것이 때루 굳어서 그러지.》

그러면서 강생원은 업순이를 들여다보고 묻는다.

《너 감기 앓은 뒤로 그랬다지?》

《애, 애.》

《거보아! 감기를 까딱 실시 (시기를 놓침.)하면 그러기 쉬운 법이여!》

《담도 숭했는것 갑디다. 왼쪽가슴께가 좀 걸린다구 하는것이…》

《담이 승하구말구!》

《식은땀 허구!》

《그야 원기가 허탈허닝께 그럴밖에 있다구?》

《그나저나 강생원만 믿으니 잘 좀 서둘러주셔야 하겠구만이라우.》

《으응! 글랑 념려말아! 속 다아 빠안히 아는 증세닝께.》

《질질 오래 끌지나 않겄어라우?》

《하루이틀에 완치헐수야 있으끄마는 쉬 차도가 있지!… 우선 감기 쵄결 풀어주면서 한편으로 수토불복 다스릴 약이나 한 서너제 위한허구 쓰면…》

《말씀만 들어두 훨씬 맘이 뇌이누만이라우. 솥단지를 팔아서라두 하여볼수 있는데까장은 하여볼랑캐. 그럼 강생원두 부디 좀…》

《내야 범연헐 리치가 있다구?》

《오널이라두 그럼 약을 마련하여 부디 좀…》

《그렇게 히여.》

《을매나 들것이라구?》

《한제에 그저 15원만 멕히면…》

이윽고 강생원을 배웅하러 나갔던 업순 아버지가 주머니끈을 매면서 방으로 들어왔다. 업순 어머니도 그새 아래방으로 내려왔다.

《너 당추 인제넌 그런데 갈 생각 말아라.》

업순 아버지는 자화(스스로의 화)를 못 삭여 약간 역정스럽게 딸더러 준절히 이른다.

그 말에 업순 어머니는 딸을 대신하여 싸고돌듯 말하였다.

《그렇잖어두 다시는 안 간다우.》

《그러구 이 기간 약이나 먹으면서 몸조섭하여가지구 래년 봄엔 시집이나 가그라!》

업순이는 시집이란 소리에 처녀다웁게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수그려뜨린다.

《작년 가을은 농사가 그리두 잘되구 올두 나락이 몇섬 밀리구 그래서 네가 다달이 보낸 돈이 다 있다.》

《…》

《그놈하고 이번에 네가 가져온 돈허구 하면 약값은 될터니께…》

《…》

《그리구 따루 도야지 한마리 먹이던것허구 나락 석섬 밀린것허구 통하면 100원 요량은 되니까. … 쯧, 100원 가지면 그렁저렁 혼인 치를테지.》

《…》

《그러니까 너랑 집안걱정하지 말구서 약 정성다해 먹구…》

《…》

《응?》

《얘, 얘.》

《그래서 어서 병 낫어갖구 천하 없어두 래년 봄을랑 시집을 가게 해야지… 아, 나이 벌써 래년이면 열아홉 아니여? 스무살 넘두룩 있을라간디?》

업순이는 앉아서 곰곰 생각한다.

참 아버지말씀마따나 시집이나 가는거라고, 병이 낫거든 인제는 시집이나 가는거라고.

1943. 소설집 《집》에서

현대조선문학선집 52

소설집《천하태평춘》

편 집	석선영, 류희정
편 성	윤승화
교 정	정경진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0(2011)년 4월 10일
발 행	주체100(2011)년 4월 15일

ㄱ― 16065 값110원

D P R Korea

ISBN 978－9946－22－406－0